

연구보고 17-R10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책임연구원 임희진

공동연구원 문호영 조남익

RESEARCH REPORT 2017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 ▶ 책임연구원 : 임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문호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조남익(광운대학교 · 교수)
- ▶ 연구보조원 : 김평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입시위주의 교육과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공교육의 정상화와 더불어 학교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활동을 관리하고 지원하며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청소년활동의 중요성과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경험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현황, 문제점, 요구사항과 효과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활동정책 수립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만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근거 중심의(evidence based) 청소년활동정책을 지원하고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에 걸쳐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017년도 4차 년도 연구에서는 지난 3차 년도까지의 조사에 이어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조사하여 청소년활동 현황과 변화양상 등을 파악하였으며,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연구가 청소년활동정책 추진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송 병 국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의 활동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근거 중심의 청소년활동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 및 워크숍, 정책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활동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확보되었다.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의 참여율은 97.5%로 조사되었으며, 참여형태는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가, 참여 경로는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가 가장 많아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와 청소년관련시설 간의 연계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변인이 정의적 특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의 제고를 위해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한 활동프로그램 개발, 지도자 역량개발, 시설·장비 개선, 청소년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프로그램의 사전교육 진행 등 종합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실태조사의 결과는 청소년활동정책 분야의 성과 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조사데이터 공개를 통해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학문적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선’,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의 기능 강화’, ‘청소년활동 홍보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의 3개 영역에 대해 정책과제를 9개 추진과제와 27개 세부과제로 구체화하고, 각 세부과제에 대해 추진 단계별 로드맵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주제어: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로드맵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의 활동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근거 중심의 청소년활동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 실태조사의 결과는 청소년활동정책 분야의 성과 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조사데이터 공개를 통해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학문적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2. 연구방법

- 청소년활동에 대한 문헌을 수집·분석하고 청소년활동 참여 관련 조사에 대한 선행연구와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국내 정책, 외국 주요국의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문헌자료를 검토하였음.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초(4~6학년)·중(1~3학년)·고등학교(1~3학년)에 재학 중인 8,77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워크숍, 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해, 연구 내용 및 방법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설문문항의 타당성 검토, 국내외 우수 정책사례 발굴,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에 대한 토론,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협의 및 정책대안 도출 등을 수행하였음.

3. 주요결과

- 최근 4년간의 청소년활동 참여율을 살펴본 결과, 2014년도는 99.3%, 2015년도는 97.4%, 2016년도는 96.1%, 2017년도는 97.5%로 조사되었으며, 매년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여전히 소수의 청소년들은 참여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함. 구체적으로 영역별 참여율을 확인한 결과, ‘건강·보건활동’(92.7%), ‘문화예술활동’(82.6%),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69.5%), ‘모험개척활동’(59.7%), ‘과학정보활동’(59.1%), ‘봉사활동’(59.0%), ‘환경보존활동’(46.5%), ‘자기(인성)계발활동’(42.7%), ‘교류활동’(33.6%)의 순으로 조사됨. 이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교류활동’의 참여율은 매년 가장 낮았으며, ‘환경보존활동’과 ‘자기(인성)계발활동’의 참여율은 대체로 5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음. 향후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참여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청소년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는 평균 3.32~3.49로 나타났으며, 보통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2015년도, 2016년도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도 유사하거나 소폭 상승한 정도임.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청소년활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청소년활동의 만족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청소년활동의 참여형태는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가, 참여경로는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가 최근 3년간 1순위로 조사됨. 이처럼 청소년활동 참여에 학교의 비중이 큰 만큼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청소년관련시설 간의 보다 다양한 연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청소년활동의 장애요인으로서는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가, 활성화요인으로서는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가 매년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됨. 이와 같이 시간이 청소년활동 참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교육이 입시 위주에 치중되어 있는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교육제도의 개선과 인식 변화 등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할 수 있음.

-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을 살펴본 결과,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25.0%), ‘문화예술활동’(19.0%), ‘모험개척활동’(17.7%), ‘과학정보활동’(10.5%), ‘건강·보건활동’(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지난 2년 동안은 ‘문화예술활동’,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등의 순으로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났지만, 2017년도에는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이 1순위로 조사됨. 한편, 청소년의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따라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됨.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청소년활동 정책이나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조사결과의 정확성 및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요구됨.
-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청소년들의 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활동내용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이 자아존중감에, ‘일정·시간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이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 ‘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이 주관적 행복감과 공동체의식에, ‘활동내용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이 리더십생활기술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분석에 사용된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변인이 정의적 특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음.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의 제고를 위해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한 활동프로그램 개발, 지도자 역량개발, 시설·장비 개선, 청소년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프로그램의 사전교육 진행 등 종합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함.

4.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활동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으며, 학교와 청소년관련시설 간의 연계의 중요성 등을 확인하였음. 또한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변인이 정의적 특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의 제고를 위해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한 활동프로그램 개발, 지도자 역량개발, 시설·장비 개선, 청소년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프로그램의 사전교육 진행 등 종합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선’,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의 기능 강화’, ‘청소년활동 홍보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의 3개 영역에 대해 추진과제를 세부과제로 구체화하고, 각 세부과제에 대해 추진 단계별 로드맵을 구성하여 제시하였음.

- 추진 단계별 로드맵을 개발한 정책영역,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음.

[영역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선

추진과제	세부과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활동 정기 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및 요구 정기 조사 2. 국내·외 환경 변화 경향 분석 3. 학교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4. 프로그램 컨설턴트 양성과 지원운영
효과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특성요인 분석 및 적용	1. 프로그램 특성요인 분석 연구 2. 성공요인 프로그램 경진대회
청소년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중단연구	1. 청소년활동 효과성 검증 중단연구 2. 청소년활동 효과성 측정 표준지표 개발연구
현장 지도자의 프로그램 역량개발	1. 청소년프로그램연구회 운영 2. 프로그램개발 전문교육과정 운영 3.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전문기관 운영

[영역 2]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의 기능 강화

추진과제	세부과제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 재정립	1. 청소년수련시설 재구조화 추진 2. 청소년활동시설 지역기반 모델 개발 3. 청소년수련시설 리모델링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 지원	1. 표준 관리운영비 기준 마련 및 적용확대 2. 청소년수련시설 컨설팅 지원 3. 청소년시설지원센터 운영
청소년단체의 활동 기반 강화	1. 청소년단체 활동 실태 및 효과성 조사 2. 청소년단체 청소년 전문 인력 지원 3. 청소년단체 사업 전문 컨설팅 지원 4. 지역기반 청소년단체 지원 센터 운영

[영역 3] 청소년활동 홍보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추진과제	세부과제
청소년활동 홍보 추진체계 구축	1. 청소년활동 홍보 지원 온라인 서비스 2. 청소년활동 홍보 플랫폼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 추진체계 구축	1. 청소년활동 빅데이터 분석센터 운영 2. 청소년활동 트렌드 제공 3. 청소년활동기록 통합 시스템 구축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7
3. 연구방법	24
II. 청소년활동 참여의 현황 및 정책 동향	27
1. 국내현황	29
2. 해외사례	50
3. 청소년활동 참여 및 효과 관련 연구 동향	68
III.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개요	75
1. 조사개요	77
2. 조사대상	77
3. 조사도구	78
4. 분석방법	89
5. 표본설계	89
IV. 청소년활동 참여 설문조사 결과	103
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105
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와 정의적 특성 간의 관계	159
3. 소결	171
V. 정책제언	175
1. 정책제언의 배경	177
2.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 개요	178
3. 영역별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로드맵	181

참고문헌	223
부 록	231

표 목차

〈표 Ⅰ-1〉 2014년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문항 구성	8
〈표 Ⅰ-2〉 2014년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문항내용 및 출처	9
〈표 Ⅰ-3〉 2014년도~2015년도 조사문항 비교	12
〈표 Ⅰ-4〉 2015년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문항 구성	13
〈표 Ⅰ-5〉 2014년도~2016년도 조사문항 비교	18
〈표 Ⅰ-6〉 2016년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문항 구성	19
〈표 Ⅰ-7〉 청소년활동정책 세부추진과제	22
〈표 Ⅱ-1〉 카드사용내용 및 비율	32
〈표 Ⅱ-2〉 가맹점-세종시 지역	33
〈표 Ⅱ-3〉 가맹점-타 지역	34
〈표 Ⅱ-4〉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영역 및 내용	37
〈표 Ⅱ-5〉 아무거나 프로젝트 3년간 운영 현황	38
〈표 Ⅱ-6〉 아무거나 프로젝트 단계별 주요 내용	40
〈표 Ⅱ-7〉 2014~2015년 희망하는 청소년활동 시간 및 장소	44
〈표 Ⅱ-8〉 2016년 학교연계 창의체험활동	45
〈표 Ⅱ-9〉 2017년 학교연계 창의체험활동	45
〈표 Ⅱ-10〉 지역연계 체험활동을 위한 우선지원 요구사항	47
〈표 Ⅱ-11〉 창의체험활동 광명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버스 이용 현황	48
〈표 Ⅱ-12〉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 3가지 주요 액션	53
〈표 Ⅱ-13〉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사례	54
〈표 Ⅱ-14〉 NCS 프로그램 참가자수 변화 추이 및 목표(명)	62
〈표 Ⅱ-15〉 주요 목적과 세부목표들	65
〈표 Ⅱ-16〉 IWGYP 참여 부처 및 에이전시 목록	66
〈표 Ⅱ-17〉 청소년활동 참여 관련 선행 실태조사	68
〈표 Ⅲ-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8

〈표 III-2〉 2017년도 조사표 수정내용	79
〈표 III-3〉 2017년도 조사문항 구성	80
〈표 III-4〉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설문형태	81
〈표 III-5〉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설문형태	84
〈표 III-6〉 청소년 여가시간 설문형태	85
〈표 III-7〉 자아존중감 설문문항	86
〈표 III-8〉 진로성숙도 설문문항	86
〈표 III-9〉 행복감 설문문항	87
〈표 III-10〉 공동체의식 설문문항	87
〈표 III-11〉 리더십생활기술 설문문항	88
〈표 III-12〉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수, 학교수	90
〈표 III-13〉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수	91
〈표 III-14〉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수	91
〈표 III-15〉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수	92
〈표 III-16〉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수	92
〈표 III-17〉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수	93
〈표 III-18〉 학교급×학년별 모집단 크기, 목표 표본크기	95
〈표 III-19〉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수	95
〈표 III-20〉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수	96
〈표 III-21〉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수	96
〈표 III-22〉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수	97
〈표 IV-1〉 청소년활동 참여경험(2017년도)	106
〈표 IV-2〉 건강·보건활동 참여경험(2017년도)	108
〈표 IV-3〉 과학정보활동 참여경험(2017년도)	110
〈표 IV-4〉 교류활동 참여경험(2017년도)	112

〈표 IV-5〉 모험개척활동 참여경험(2017년도)	113
〈표 IV-6〉 문화예술활동 참여경험(2017년도)	115
〈표 IV-7〉 봉사활동 참여경험(2017년도)	117
〈표 IV-8〉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참여경험(2017년도)	118
〈표 IV-9〉 환경보존활동 참여경험(2017년도)	120
〈표 IV-10〉 자기(인성)계발활동 참여경험(2017년도)	121
〈표 IV-11〉 청소년활동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2017년도)	124
〈표 IV-12〉 청소년활동 만족도: 활동내용 만족도(2017년도)	125
〈표 IV-13〉 청소년활동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2017년도)	126
〈표 IV-14〉 청소년활동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2017년도)	127
〈표 IV-15〉 청소년활동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2017년도)	127
〈표 IV-16〉 청소년활동 참여정도(2017년도)	129
〈표 IV-17〉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2017년도)	131
〈표 IV-18〉 청소년활동 참여형태(2017년도)	133
〈표 IV-19〉 청소년활동 참여경로(2017년도)	136
〈표 IV-20〉 청소년활동 장애요인(2017년도)	139
〈표 IV-21〉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2017년도)	141
〈표 IV-22〉 청소년활동 희망 장소(2017년도)	143
〈표 IV-23〉 청소년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2017년도)	146
〈표 IV-24〉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2017년도)	148
〈표 IV-25〉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1순위(2017년도)	151
〈표 IV-26〉 청소년 여가시간: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방학제외)(2017년도)	154
〈표 IV-27〉 청소년 여가시간: 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방학제외)(2017년도)	156

〈표 IV-28〉 청소년 여가시간: 방학 중 하루 평균 여가시간(2017년도)	158
〈표 IV-29〉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과 정의적 특성 간의 상관관계	159
〈표 IV-30〉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161
〈표 IV-31〉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162
〈표 IV-32〉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163
〈표 IV-33〉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163
〈표 IV-34〉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164
〈표 IV-35〉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165
〈표 IV-36〉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166
〈표 IV-37〉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167
〈표 IV-38〉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168
〈표 IV-39〉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169
〈표 IV-40〉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비교결과	170

〈표 V-1〉 로드맵 개발 영역 설정	179
〈표 V-2〉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로드맵 운영 주체	181
〈표 V-3〉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선 추진과제	184
〈표 V-4〉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활동 정기 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187
〈표 V-5〉 효과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특성요인 분석 및 적용	190
〈표 V-6〉 청소년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종단연구	192
〈표 V-7〉 현장 청소년지도자의 프로그램 역량개발	194
〈표 V-8〉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의 기능강화 추진과제	199
〈표 V-9〉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 재정립 로드맵	201
〈표 V-10〉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 지원	205
〈표 V-11〉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및 기반 강화	208
〈표 V-12〉 청소년활동 홍보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추진과제	214
〈표 V-13〉 청소년활동 홍보 추진체계 구축 로드맵	216
〈표 V-14〉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 추진체계 구축 로드맵	219

그림 목차

【그림 I-1】 연도별 연구 추진 계획	6
【그림 II-1】 세종자유학기제 운영 모형	30
【그림 II-2】 청소년 진로체험카드 등록 방법	32
【그림 II-3】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정현황	36
【그림 II-4】 아무거나 프로젝트 추진절차	38
【그림 II-5】 학교연계 창의체험활동 신청 절차	46
【그림 II-6】 에라스무스 플러스 연도별 예산 규모	56
【그림 II-7】 NCS 프로그램 프로세스	59
【그림 IV-1】 청소년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105
【그림 IV-2】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율(연도별 추이)	107
【그림 IV-3】 건강·보건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109
【그림 IV-4】 과학정보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111
【그림 IV-5】 교류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112
【그림 IV-6】 모험개척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114
【그림 IV-7】 문화예술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115
【그림 IV-8】 봉사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117
【그림 IV-9】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119
【그림 IV-10】 환경보존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120
【그림 IV-11】 자기(인성)계발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122
【그림 IV-12】 청소년활동 만족도(연도별 추이)	123
【그림 IV-13】 청소년활동 참여정도(연도별 추이)	129
【그림 IV-14】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연도별 추이)	130
【그림 IV-15】 청소년활동 참여형태(연도별 추이)	132
【그림 IV-16】 청소년활동 참여경로(연도별 추이)	135
【그림 IV-17】 청소년활동 장애요인(연도별 추이)	138

【그림 IV-18】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연도별 추이)	140
【그림 IV-19】 청소년활동 희망 장소(연도별 추이)	142
【그림 IV-20】 청소년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연도별 추이)	145
【그림 IV-21】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연도별 추이)	147
【그림 IV-22】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1순위(연도별 추이)	149
【그림 IV-23】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연도별 추이)	152
【그림 IV-24】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연도별 추이)	153
【그림 IV-25】 평일 하루 평균 청소년 여가시간(연도별 추이, 2017년)	154
【그림 IV-26】 휴일 하루 평균 청소년 여가시간(연도별 추이, 2017년)	155
【그림 IV-27】 방학 중 하루 평균 청소년 여가시간(연도별 추이, 2017년) ·	157
【그림 IV-28】 정의적 특성(2017년도)	158
【그림 V-1】 로드맵 작성 절차	180
【그림 V-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와 전략	182
【그림 V-3】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 체계	184
【그림 V-4】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의 기능강화를 위한 추진과제 체계 ·	199
【그림 V-5】 청소년 홍보 사업의 전개	213
【그림 V-6】 청소년활동 홍보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체계 ·	214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이다(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 오늘날의 입시위주 교육현실에서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향하는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활동을 통해 성적위주의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청소년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지원하고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의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활동 분야 뿐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제도화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2011년부터 도입되어 2013년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교육부, 2017), 자유학기제도 2013년~2015년 시범사업 운영 후, 2016년부터는 전국의 중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은 꾸준히 있어 왔으나, 학력위주의 사회분위기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을 경험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지나친 공부와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집단따돌림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정상화와 더불어 학교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있으나 청소년들이 사교육과 매체이용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는 데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과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청소년활동에의 참여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활동의 양 뿐만 아니라 활동의 질, 활동기회의 평등 등을 포함한 실태가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각종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실제로 어떤 활동에 어떤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의 질과 만족도는 어떠했는지, 충분한 정보제공과 지원을 받았는지,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내용의 활동 참여를 희망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어야 근거 중심의 청소년활동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이 2005년 2월 발효됨에 따라 청소년활동 참여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청소년활동 참가 실태조사’가 2006년과 2007년에 정부주도로 실시된 바가 있다(장근영, 김기현, 2006, 이종원, 장근영, 김호순, 2007). 이 조사는 이전의 청소년활동 관련 조사·연구가 개인 연구자나 민간 또는 정부 기관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수행되었던 점, 조사가 청소년활동의 특정영역에 편중되었던 점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청소년활동 참여의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를 확보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으나 2008년 이후 조사가 계속 실시되지는 못하였다(임희진, 송병국, 2014: 46).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8조 제2항에서는 청소년의 활동 요구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해당 지역 청소년의 활동 요구를 2007년부터 매년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보를 안내하고 제공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조사대상에 초등학생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임의표집방식에 기인한 표본의 대표성 등의 문제로 청소년활동정책 수립에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중심의(evidence based) 청소년활동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실태가 정기적으로 치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과거에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조사가 간헐적으로는 이루어졌으나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근거중심 청소년활동정책의 개발과 추진을 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에 걸쳐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2014년도 1차 년도 연구는 그간의 청소년활동 개념을 광의적으로 포괄하여 조사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하였다. 2015년도 2차 년도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재고하고 1차 년도 조사도구를 수정 및 보완한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전문가자문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활동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2016년도 3차 년도 연구는 1차, 2차 년도에 이어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도별 주요결과를 비교·분석하였으며, 2차 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하여 5개 분야 20개 세부추

진과제를 개발·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실태조사의 결과는 청소년활동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청소년활동정책 분야의 성과 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데이터 공개를 통해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 등 다양한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학문적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도 4차 년도에 해당하는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의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년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의 실시이다. 2014년 1차 년도, 2015년 2차 년도, 2016년 3차 년도에 이어 전국 규모의 4차 년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둘째, 시계열 자료 제시이다. 1~4차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결과 중 비교 가능한 결과들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활동 참여의 변화양상을 파악하여 과학적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다.

셋째,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이다.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와 정책의 분석을 통해 청소년활동 각 영역별 현안에 대해 요구되는 정책방안을 검토하고, 3차 년도(2016년) 연구에서 제시한 5개 분야 20개 세부추진과제를 보완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5개년 연구 중 4차 년도 연구에 해당하며,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추진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각 연도별 주요 추진계획은 [그림 1-1]과 같다.

1차 년도 (2014년)	연구내용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설문지 개발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1차 년도 조사
	연구방법	·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워크숍, 전문가의견조사 · 전국규모 설문조사
▼		
2차 년도 (2015년)	연구내용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2차 년도 조사 ·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정책방안 도출
	연구방법	·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워크숍, 전문가의견조사 · 전국규모 설문조사
▼		
3차 년도 (2016년)	연구내용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3차 년도 조사 · 5개 분야 20개 세부추진과제 개발
	연구방법	·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워크숍 · 전국규모 설문조사
▼		
4차 년도 (2017년)	연구내용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4차 년도 조사 ·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개발
	연구방법	·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전문가 간담회 · 전국규모 설문조사
▼		
5차 년도 (2018년)	연구내용	· 청소년활동 참여 조사 통합안 마련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파악 및 효과성 분석 ·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활동 정책방안 제시
	연구방법	·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워크숍 · 전국규모 설문조사 ·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

【그림 1-1】 연도별 연구 추진 계획

2. 연구내용

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 III」 개요

(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연구내용 및 주요결과¹⁾

1차년도 연구는 청소년활동의 참여 실태를 조사하여 과학적 정책 지원의 근거를 제공하고, 청소년활동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청소년활동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탐색하였고, 국내외 청소년활동정책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국내의 청소년활동정책으로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활동정책, 교육부의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국외 청소년활동정책은 미국, 호주, 네덜란드, 노르웨이, 유럽연합의 주요 청소년활동정책을 탐색하였다. 한편, 설문지 구성과 관련하여 국내 청소년활동 참여 관련 조사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였고, 청소년활동 참여 효과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김현철 외(2013)의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내용, 안선영, 김희진, 강영배, 배경내(2013)의 「청소년 직업체험 실태조사」 내용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청소년 활동·문화 관련 선행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3; 임지연 외, 2009; 여성가족부, 2012; 문화체육관광부, 2012; 김현철 외, 2012; Rogenberg, 1965; 김아영, 2008; 한국고용정보원, 2006;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0)를 검토하고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 초안에 대해서 예비조사(집단면접조사)와 전문가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최종 확정된 실태조사 조사항목, 출처는 <표 I-1>, <표 I-2>와 같다.

1) 1차년도 연구(임희진, 송병국, 2014)의 주요 내용을 2차년도 연구(최창욱, 문호영, 김진호, 2015)의 pp. 26-32와 3차년도 연구(최창욱, 문호영, 김정주, 2016)의 pp. 11-17에 실었으며, 이를 다시 재구성함.

표 1-1 2014년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문항 구성

조 사 내 용		문 항	
		문항 수	문항번호
체험활동 참여여부 및 참여방식과 참여도	건강·보건활동	9	문1, 문1-1(1~8)
	과학정보활동	9	문2, 문2-1(1~8)
	교류활동	9	문3, 문3-1(1~8)
	모험개척활동	9	문4, 문4-1(1~8)
	문화예술활동	9	문5, 문5-1(1~8)
	봉사활동	9	문6, 문6-1(1~8)
	직업체험활동	9	문7, 문7-1(1~8)
	환경보존활동	9	문8, 문8-1(1~8)
	자기(인성)계발활동	9	문9, 문9-1(1~8)
	사회참여활동	9	문10, 문10-1(1~8)
체험활동 참여 전후의 교육 여부		2	문11(1~2)
참여하고 싶었던 체험활동 유무 및 참여 못한 이유		2	문12, 문12-1
적극적인 체험활동 참여를 위한 필요요소		1	문13
체험활동 관련 시설 이용 경험		5	문14(1~5)
문화예술 행사 직접 관람여부 및 횟수		40	문15(1~8)
문화예술 행사 참여여부 및 횟수		20	문16(1~10)
진로체험 경험여부 및 도움정도		9	문17(1~9)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6	문18(1~16)
동기		18	문19(1~18)
자아존중감		10	문20(1~20)
진로성숙도		27	문21(1~27)
행복감		7	문22(1~7)
가족구성원		1	배경문항1
부모님의 학력		2	배경문항2(1~2)
부모님의 직업		2	배경문항3(1~2)
응답자의 학교성적		1	배경문항4
가정의 경제수준		1	배경문항5
총 문항수		254	

* 출처: 임희진, 송병국(2014).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p. 59.

표 1-2 2014년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문항내용 및 출처

영역	내용	출처
체험활동 참여변인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여부 · 건강·보건활동 · 과학정보활동 · 교류활동 · 모험·개척활동 · 문화예술활동 · 봉사활동 · 직업체험활동 · 환경보존활동 · 자기(인성)개발활동 · 사회참여활동	· 여성가족부(2013)의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분류를 토대로 작성
	체험활동 영역별 참여방식 · 8개 참여방식에 대한 참여여부 및 참여도 (소극적 참여와 적극적 참여로 응답)	· 김현철 외(2013) 수정·보완
	체험활동 참여전후 교육여부 · 사전교육 · 사후교육	· 안선영 외(2013) 수정·보완
	체험활동 장애요인 및 요구 · 참여하고 싶은 활동 중 참여하지 못한 활동 유무 · 참여하지 못한 이유(1, 2, 3순위로 응답) · 체험활동 적극 참여를 위해 필요한 것 (1, 2, 3순위로 응답)	· 임지연 외(2009) 수정·보완
	체험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 체험활동 관련 시설 이용 경험 정도 (5개 시설 각각에 대한 이용경험)	· 여성가족부(2012)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작성
	문화예술 행사 관람 및 참여 · 문화예술 행사 관람여부 및 관람횟수 · 문화예술 행사 참여여부 및 참여횟수	· 문화체육관광부(2012)를 참고하여 작성
	진로체험 경험여부 · 진로체험 유형별 경험여부 및 도움정도	· 서울시교육청(2014)의 진로체험 유형과 안선영 외(2013)를 참고하여 작성
정의적 특성변인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15개 문항)	· 김현철 외(2012)
	자아존중감(10개 문항)	· Rogenberg(1965)
	동기 · 외재적 동기(6개 문항) · 내재적 동기(6개 문항) · 무동기(6개 문항)	· 김아영(2008)
	진로 성숙도 · 계획성(5개 문항) · 독립성(5개 문항) · 태도(5개 문항) · 자신지식(6개 문항) · 진로행동(6개 문항)	· 한국고용정보원(2006)
	행복감 · 주관적 행복(6개 문항) · 행복도(1개 문항)	·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2010)

* 출처: 임희진, 송병국(2014).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p. 180.

주요결과로는 첫째,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에 있어서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율은 99.3%로 대부분의 청소년은 한 개 영역 이상의 청소년활동을 경험하고 있었고, 참여율이 높은 체험활동 영역은 ‘문화예술활동’(92.1%), ‘직업체험활동’(79.8%), ‘건강·보건활동’(79.0%)이었으며, 2013년에 비해 ‘문화예술활동’, ‘건강·보건활동’, ‘직업체험활동’이 증가하였고, ‘모험개척활동’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수준별로는 유의차가 있는 모든 영역에서 양부모가정, 학업성적 상위, 경제수준 상층에 속한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았고, 이러한 경향은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및 참여율의 경우에도 같았다.

둘째, 체험활동의 폭을 살펴보면, 절반 정도의 청소년들은 10개 영역 중 4개 영역 내외의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4개 영역 이상의 체험활동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의 70%였다. 체험활동의 참여 경로는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하는 방식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방식이 모든 활동 영역에서 많았다. 여자 청소년, 초등학생, 학업성적이 상위인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체험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특성화계 고등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율이 낮은 편이었다. 청소년의 진로체험은 ‘진로캠프’, ‘직업인 초청 강연’, ‘시청각자료를 통한 체험’ 등의 간접 체험 경험률이 높았으나, 청소년들은 ‘직업모의체험’, ‘직업현장 업무 체험’, ‘학교에서의 실습 및 견학’ 등 직접 체험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매번 교육을 받았다는 청소년은 각각 5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하였고, 사전·사후교육은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계 고등학교,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서 특히 미흡하였다.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은 참여하고 싶은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고, 참여하고 싶은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라고 응답하였다.

넷째, 청소년활동 참여의 관련 요인과 관련해서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관련시설 이용률도 높았다. 또한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경우보다 전업주부인 경우에 더 많은 종류의 체험활동을 경험하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사후 교육을 받은 청소년이 체험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사전·사후 교육은 프로그램의 안전과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전·사후 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참여방식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하거나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등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방식일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수록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내재적 동기, 진로성숙도, 행복감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진로성숙도 중에서는 특히 진로에 대한 계획성과 진로행동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에 비해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내재적 동기, 진로성숙도, 자아존중감,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조사결과와 전문가의견조사를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정책 추진계획의 수립, 청소년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질 관리, 타 부처 정책사업과의 연계, 지역사회 연계와 학교와의 협력 강화,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선도적 사업의 추진, 과학적인 청소년활동정책 추진시스템의 구축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연구내용 및 주요결과²⁾

2차 년도 연구는 1차 년도 연구에 이어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조사하고,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문헌분석,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전문가의견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2015년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문항은 문헌연구, 자문회의, 연구진회의 등을 통해 확정하였다. 조사문항은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향후 5년간 비교·분석하기 위해 1차 년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유지하면서, 신규로 필요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2014년도 1차 년도 조사문항과 2015년도 수정 및 보완된 2차 년도 조사내용을 비교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사내용 중 8개 분야가 2014년과 동일하고, 7개 분야는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6개 분야는 신규로 배치하였다. 2015년도 조사문항의 구성은 <표 1-4>와 같다.

2) 2차 년도 연구(최창욱, 문호영, 김진호, 2015)의 주요 내용을 3차 년도 연구(최창욱, 문호영, 김정주, 2016)의 pp. 17-23에 실었으며, 이를 다시 재구성함.

표 1-3 2014년도~2015년도 조사문항 비교

조사 영역	조사내용	2014년	2015년		
			동일	수정·보완	신규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		○	
	청소년활동 만족도				○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		○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		○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		○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		○	
	청소년정책 인지도				○
	문화예술 행사 참여여부 및 횟수	○		○	
	청소년활동 참여 전후의 교육 여부	○			
	참여하고 싶었던 청소년활동 유무	○			
	문화예술 행사 직접 관람여부 및 횟수	○			
	진로체험 경험여부 및 도움정도	○			
정의적 특성	자아존중감	○	○		
	진로성숙도	○		○	
	행복감	○	○		
	리더십생활기술				○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동기	○			
배경변인	성별	○	○		
	가족구성원	○	○		
	거주 지역				○
	부모님 학력	○	○		
	부모님 취업여부	○	○		
	학업성적	○	○		
	가정의 경제수준	○	○		

* 출처: 최창욱, 문호영, 김진호(201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p. 52, 수정

표 1-4 2015년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문항 구성

조사 영역	조사내용		문항	
			문항수	문항번호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건강·보건활동	7	문1(1~7)
		과학정보활동	6	문2(1~6)
		교류활동	4	문3(1~4)
		모험개척활동	5	문4(1~5)
		문화예술활동	8	문5(1~8)
		봉사활동	7	문6(1~7)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5	문7(1~5)
		환경보존활동	6	문8(1~6)
		자기(인성)개발활동	4	문9(1~4)
		청소년참여활동	6	문10(1~6)
	청소년활동 만족도		5	문11(1~5)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1	문12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1	문13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1	문14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1	문15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1	문16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10	문17(1~10)
	청소년정책 인지도		9	문18(1~9)
정의적 특성	자아존중감		10	문19(1~10)
	진로성숙도		7	문20(1~7)
	행복감		7	문21(1~6), 문21(7)
	리더십생활기술		30	문22(1~30)
배경변인	성별		1	배경문항1
	가족구성원		1	배경문항2
	거주 지역		1	배경문항3
	부모님 학력		1	배경문항4
	부모님 취업여부		1	배경문항5
	학업성적		1	배경문항6
	가정의 경제수준		1	배경문항7

* 출처: 최창욱, 문호영, 김진호(201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pp. 53-54. 수정

이상의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청소년활동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청소년정책 인지도, 청소년활동 참여경험과 정의적 특성 등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생 10,5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97.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활동 영역별로 살펴보면, ‘건강·보건활동’의 참여율이 93.7%로 가장 높았고, ‘문화예술활동’(79.7%)과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63.8%)도 비교적 높게 분석되었다. 이어서 ‘모험개척활동’(55.7%), ‘봉사활동’(55.4%), ‘과학정보활동’(53.6%), ‘환경보존활동’(42.4%), ‘자기(인성)계발활동’(41.3%), ‘교류활동’(25.5%), ‘청소년참여활동’(15.3%) 순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고하였다. 2014년도와 비교했을 때 청소년활동의 전체 참여율은 유사하였으나 영역별 참여율에 있어서는 눈에 띄는 차이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즉, ‘모험개척활동’(22.3%p), ‘과학정보활동’(19.4%p), ‘환경보존활동’(13.9%p), ‘건강·보건활동’(12.1%p)은 큰 증가폭을 보인 반면,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15.8%p), ‘문화예술활동’(13.2%p)의 참여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둘째, 청소년활동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32로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지도자 만족도’의 평균이 3.36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활동내용 만족도’(M=3.31), ‘시설·공간·장비 만족도’(M=3.27), ‘일정·시간 만족도’(M=3.22) 순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청소년활동의 참여형태는 주로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51.0%)하였으며, 그 다음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21.4%)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참여했다는 응답이 38.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19.1%),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15.4%) 참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넷째, 청소년활동의 장애요인을 살펴본 결과,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33.1%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활성화요인에 대해서는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8.1%로 가장 많았고,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21.5%)가 후순위로 조사되었다. 또한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으로는 ‘문화예술활동’(21.1%)과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21.0%)이 가장 선호되었으며, ‘모험개척활동’(16.4%), ‘과학정보활동’(11.6%), ‘건강·보건활동’(9.7%) 등의 순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청소년활동 관련시설의 이용경험을 분석한 결과, ‘도서관’ 이용률이 67.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공연 및 전시시설’(53.8%), ‘수목원, 수목림, 자연 휴양림’(39.2%), ‘주민센터, 문화센터’(3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인지수준은 평균 1.18~1.41로 높지 않았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M=1.41)와 ‘청소년어울림마당’(M=1.40)에 대한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 가운데 자아존중감의 평균점수는 3.58, 진로성숙도는 평균 3.64, 주관적 행복감은 평균 3.82, 리더십생활기술은 평균 3.54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특성들은 청소년활동의 참여경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참여 청소년이 비참여 청소년보다 정의적 특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차 년도에는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학계전문가 10명, 현장전문가 12명, 관계공무원 3명 등 25명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전문가의견조사를 진행하였다.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 ‘청소년활동정책의 현재 문제점과 향후 필요한 정책’,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들이 제시한 청소년활동 참여의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참여 청소년의 측면에서는 ‘시간부족’이,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에서는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가정·학교·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낮은 인식’과 ‘입시위주의 교육풍도’가 가장 큰 문제로 언급되었다.

둘째,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참여 청소년 측면에서는 ‘학교 등과 청소년활동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한 입시부담 완화’가,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에서는 ‘재정지원 확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이, 가정·학교·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청소년활동 인식개선’, ‘학교와 협력 및 연계사업 강화’ 등이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셋째, 청소년활동정책의 현 문제점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청소년(활동)정책 예산부족’이, 청소년기관 차원에서는 ‘청소년활동지원기관의 행정전달체계 기능 미흡’, ‘시·군·구 단위 청소년활동 전달체계 부재’가, 청소년수련시설 차원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지원·관리 부족’이 가장 크게 지적되었다. 그리고 청소년단체 차원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소년단체,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향후 필요한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청소년육성기금 등 청소년(활동)정책 재정 확충’,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도입 및 확대’가, 청소년기관 차원에서는

‘청소년활동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기능 재정립’, ‘청소년활동지원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가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차원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지원·관리 강화’, ‘청소년지도자 법적 배치기준 개정’이, 청소년단체 차원에서는 ‘청소년단체의 역할·기능 재정립’, ‘청소년단체,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 ‘청소년단체별 특성화·전문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참여 청소년 측면에서는 ‘청소년활동 정보 부족 및 접근의 어려움’이,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에서는 ‘관련 예산 및 지도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정·학교·지역사회 측면에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관심부족’이며,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는 ‘수요자 특성에 따른 활동프로그램 부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섯째,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참여 청소년측면에서는 ‘학교, 상담·복지시설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 ‘특성화된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이, 운영기관 및 지도자 측면에서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 ‘학교, 상담·복지시설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 ‘전문 인력확보 및 배치’가, 가정·학교·지역사회 측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관심 제고’가,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는 ‘관련 부처 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 및 강화’, ‘청소년활동 지원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실태조사, 전문가의견조사, 전문가자문회의, 정책연구협의회 등을 통하여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은 청소년 주도성, 활동기반의 안정성,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청소년활동지도자의 전문성, 연계·협력의 지속성, 활동의 효과성 등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본전략을 바탕으로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청소년활동 참여기회 보장을 위하여 학교,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청소년 친화적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표준임금표 개선 등 청소년지도자 복지 증진, 청소년수련시설 직종전환 등 청소년활동 운영기관에 재정여건 개선, 청소년지도자 직무연수 확대·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활동을 위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 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청소년활동 인식개선, 청소년활동시설의 접근성 강화, 가족, 학교,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활동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활동정책 기반 강화, 청소년기관의 청소년활동정책 기반 강화,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활동정책 기반 강화, 청소년 단체의 청소년활동정책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강화를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활동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 인력확보·배치 및 종사자의 처우 개선,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청소년활동 제도·정책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

(3)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Ⅲ」 연구내용 및 주요결과³⁾

3차 년도 연구는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관련문헌 분석,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활동정책 5개 분야, 20개 세부추진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2016년도의 조사문항은 2차 년도 연구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문헌연구, 자문회의, 연구자회의 등을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2015년 조사에 비해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영역에서는 7개, ‘정의적 특성’ 영역에서는 1개, ‘배경변인’ 영역에서는 1개의 조사내용을 추가하였다(〈표 1-5〉). 2016년도 조사문항은 〈표 1-6〉과 같다.

이상의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전국 초·중·고등학생 8,62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은 96.1%로 조사되었다. 청소년활동 참여율은 2014년도 99.3%, 2015년도 97.4%, 2016년도 96.1%로, 매년 근소하게 낮아졌으나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둘째,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율은 ‘건강·보건활동’(93.6%), ‘문화예술활동’(85.2%),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72.5%), ‘봉사활동’(62.9%), ‘과학정보활동’(61.2%), ‘모험개척활동’(57.8%), ‘자기(인성)계발활동’(50.8%), ‘환경보존활동’(48.8%), ‘교류활동’(33.9%)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2016년까지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건강·보건활동’과 ‘문화예술활동’의 참여율이 높고, ‘교류활동’의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의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3) 3차 년도 연구(최창욱, 문호영, 김정주, 2016)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임.

표 1-5 2014년도~2016년도 조사문항 비교

조사영역	조사내용	2014	2015	2016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	○	○
	청소년활동 만족도		○	○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
	청소년활동 지원정도			○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	○	○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	○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	○	○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			○
	청소년활동 희망 장소			○
	청소년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			○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	○	○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	○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	○	○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		○	○
	청소년 여가시간			○
	문화예술 행사 참여여부 및 횟수	○		
	청소년활동 참여 전후의 교육 여부	○		
	참여하고 싶었던 청소년활동 유무	○		
	문화예술 행사 직접 관람여부 및 횟수	○		
	진로체험 경험여부 및 도움정도	○		
정의적 특성	자아존중감	○	○	○
	진로성숙도	○	○	○
	행복감	○	○	○
	공동체의식			○
	리더십생활기술		○	○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배경변인	동기	○		
	성별	○	○	○
	연령			○
	가족구성원	○	○	
	거주 지역		○	
	부모님 학력	○	○	
	부모님 취업여부	○	○	
	학업성적	○	○	○
	가정의 경제수준	○	○	○

* 출처: 최창욱 외(2016).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Ⅲ. p. 43.

표 1-6 2016년도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문항 구성

조사 영역	조사내용		문항	
			문항수	문항번호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건강·보건활동	건강·보건활동	8	문1, 문1-1(1~7)
		과학정보활동	7	문2, 문2-1(1~6)
		교류활동	5	문3, 문3-1(1~4)
		모험개척활동	6	문4, 문4-1(1~5)
		문화예술활동	9	문5, 문5-1(1~8)
		봉사활동	8	문6, 문6-1(1~7)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6	문7, 문7-1(1~5)
		환경보존활동	7	문8, 문8-1(1~6)
		자기(인성)계발활동	5	문9, 문9-1(1~4)
	청소년활동 만족도		5	문10(1~5)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1	문11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1	문12
	청소년활동 지원정도		4	문13(1~4)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1	문14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1	문15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1	문16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		1	문17
	청소년활동 희망 장소		1	문18
	청소년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		1	문19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1	문20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1	문21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10	문22(1~10)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		9	문23(1~9)
	청소년 여가시간		3	문24(1~3)
정의적 특성	자아존중감		10	문25(1~10)
	진로성숙도		7	문26(1~7)
	행복감		7	문27(1~6), 문27(7)
	공동체의식		4	문28(1~4)
	리더십생활기술		30	문29(1~30)
배경변인	성별, 연령,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수준		4	배경문항1~4

* 출처: 최창욱 외(201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Ⅲ. pp. 44~45.

셋째, 청소년활동의 ‘전반적인 만족도’(M=3.37)는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지도자 만족도’(M=3.43)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활동내용 만족도’(M=3.37), ‘시설·공간·장비 만족도’(M=3.32), ‘일정·시간 만족도’(M=3.27) 순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청소년활동의 참여정도’(M=2.99), ‘성취기대수준’(M=3.05)은 보통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청소년활동의 참여형태는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46.0%)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내 동아리활동으로 참여’(17.5%), ‘개인적으로 참여’(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경로는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38.6%),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20.6%),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14.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활동의 장애요인으로는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30.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19.0%),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14.2%),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13.1%)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은 ‘학교 수업시간 중’(43.7%), ‘방학기간’(23.7%), ‘주말’(22.8%)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희망 장소로는 공원, 호수, 산, 바다 등 ‘야외’(43.1%)에서의 활동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학교’(22.1%), ‘청소년시설’(17.5%), ‘문화시설’(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으로는 대부분 ‘친구’(85.2%)를 선택하였다.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요인으로는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25.7%)와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24.9%)를 높게 평가하였다.

여섯째, 청소년들에게 향후 가장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을 질문한 결과, ‘문화예술활동’(22.5%),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21.5%), ‘모험게척활동’(17.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2015년도와 비교했을 때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순위는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영역별 응답률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즉, ‘문화예술활동’(1.4%p) 등은 소폭 증가한 반면, ‘건강·보건활동’(1.5%p), ‘자기(인성)계발활동’(1.2%p) 등에 대한 욕구는 소폭 감소하였다.

일곱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률은 ‘청소년수련관’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청소년수련원’(36.4%), ‘유스호스텔’(26.4%), ‘청소년야영장’(19.1%), ‘청소년문화의집’(17.3%) 순으로 분석되었다. 2015년도 이용률에 비해 ‘청소년수련관’ 6.6%p, ‘청소년수련원’ 8.0%p, ‘청소년문화의집’ 4.6%p, ‘청소년야영장’ 4.9%p, ‘유스호스텔’ 5.3%p 상승하였다. 한편,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인지정도(3점 척도 기준)는 평균 1.15~1.44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덟째, 지난 1년 동안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21시간(SD=2.20), 휴일 7.73시간(SD=3.61), 방학 중 7.88시간(SD=3.52)으로 조사되었다.

아홉째,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주관적 행복감’, ‘공동체 의식’, ‘리더십 생활기

술'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3.51~3.85로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행복감'이 평균 3.8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진로성숙도'와 '리더십생활기술'의 평균은 3.63,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3.61, '공동체의식'의 평균은 3.51로 조사되었다.

열 번째,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이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열한 번째,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열두 번째,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진로성숙도, 공동체의식,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이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공동체의식, 리더십생활기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으로는 2차년도 연구의 4개 분야 13개 과제를 학계 및 현장 전문가가 발전시킨 내용들을 토대로 연구진이 5개 분야 20개 세부추진과제로 재정리하여 제시하였다. 5개 분야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선,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및 처우개선,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의 기능강화, 청소년활동 홍보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청소년활동정책 기반조성이다. 구체적인 세부정책과제는 <표 1-7>과 같다.

표 1-7 청소년활동정책 세부추진과제

정책영역	세부추진과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선	(1) 정기적인 청소년활동 참여실태 및 요구조사 실시 (2) 환경변화에 대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효과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특성요인 분석 및 적용 (4) 청소년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종단연구 및 국제비교연구 (5) 현장 청소년지도자의 프로그램 역량개발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및 처우 개선	(1) 청소년지도사 직무역량개발 (2) 청소년지도사 기본활동 필수교육과정 지정 및 운영 (3)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4) 청소년지도사 배치체계 개선 (5) 청소년지도자 학교 동아리활동 코디네이터 배치 추진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의 기능 강화	(1)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 재정립 (2)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기반 강화 (4) 청소년활동 거점시설의 확보 및 운영
청소년활동 홍보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1) 청소년활동 홍보 추진체계 구축 (2)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 추진체계 구축
청소년활동정책 기반조성	(1) 청소년활동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2)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및 기능 강화 (3)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 도입 지원 (4)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확대

* 출처: 최창욱 외(201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Ⅲ, p. 115.

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주요 연구내용

(1) 청소년활동 참여의 현황 및 정책 분석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국내외 활동 참여의 현황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았다. 중앙정부 청소년활동정책의 동향은 1차년도(2014년) 연구에서 다루었으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사례 및 해외사례를 검토하였다.

(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문항 수정 및 보완

2017년 조사문항은 문헌검토, 연구진회의 그리고 내·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차 년도 설문문항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확정하였다. 응답자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 간 이동경로 및 문항예시 추가, 중복문항 삭제 등 설문지 일부를 수정·보완하고 본원 IRB 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3)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분석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의 초등학생(4~6학년), 중학생(1~3학년), 고등학생(1~3학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청소년활동 참여의 실태와 요구, 성과를 파악하고, 연차비교가 가능한 문항에 대해서는 시계열비교 결과를 제시하였다.

(4)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개발

3차 년도(2016년) 연구에서 제시한 5개 분야의 정책제안 영역 중 실태조사와 관련성이 높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선’,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의 기능 강화’, ‘청소년활동 홍보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의 3개 영역에 대한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전문가 간담회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4차 년도 연구 결과 및 정책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로드맵을 수정·보완하여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청소년활동에 대한 문헌을 수집·분석하고 청소년활동 참여 관련 조사에 대한 선행연구와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국내 정책, 외국 주요국의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문헌자료를 검토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청소년활동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연구 내용 및 방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 개발을 위한 워크숍 결과를 바탕으로 학계 전문가와의 자문회의, 현장 전문가와의 자문회의를 각각 실시하고 연구진회의를 통해 자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3) 설문조사

청소년활동의 참여 실태와 효과성 및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집단으로, 층화다단 계집락추출법으로 9,000명을 목표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2016년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모집단을 교급(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으로 분류하고 16개 광역 시도별로 집락화하였다. 학교당 1개 학급을 선정하여 선정된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 참여 동의 과정⁴⁾을 진행하고, 동의한 학생들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였으며, 2017년 5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사원이 조사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학급단위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개요 및 표본설계에 대해서는 3장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4)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4) 전문가 간담회 및 워크숍

3차 년도에 개발된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5개 분야 20개 세부추진과제의 중장기 로드맵 개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1차로 5개 분야별 세부정책과제를 검토하고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성이 높은 3개 분야에 대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2차로 각 분야별 중장기 로드맵 초안에 대해 상호 검토하는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5) 정책실무협의회

연구의 계획 단계에서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연구 내용 및 방법 전반에 대한 정책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다. 국내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조사 결과와 정책 분석 결과를 반영한 최종 정책과제의 정책반영도 제고를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정부부처와 실시하였다.

제 II 장

청소년활동 참여의 현황 및 정책 동향

1. 국내현황
2. 해외사례
3. 청소년활동 참여 및 효과 관련
연구 동향

제 II 장 청소년활동 참여의 현황 및 정책 동향

1. 국내현황

1차 년도에는 국내의 청소년활동정책을 살펴보기 위하여,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개괄하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활동정책과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정책 동향을 검토하였다. 최근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정책은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참여, 활동에서의 안전에 목표를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가 추진하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등 교육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의 연계도 중요한 화두이다. 중앙정부 청소년활동정책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이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청소년활동정책과 교육정책 연계의 우수사례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청소년 진로체험카드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아무거나 프로젝트」, 경기도 광명시의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와의 연계협력사업(가제)」을 선정하였고, 선정 기준으로는 지역의 청소년활동 참여 관련 정책 중 대상이 전체청소년이고, 추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확한 사례를 우선하였으며, 계속 추진 가능성과 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정책으로의 확산 및 발전 가능성도 고려하였다.

1) 청소년 진로체험카드 지원사업(세종특별자치시)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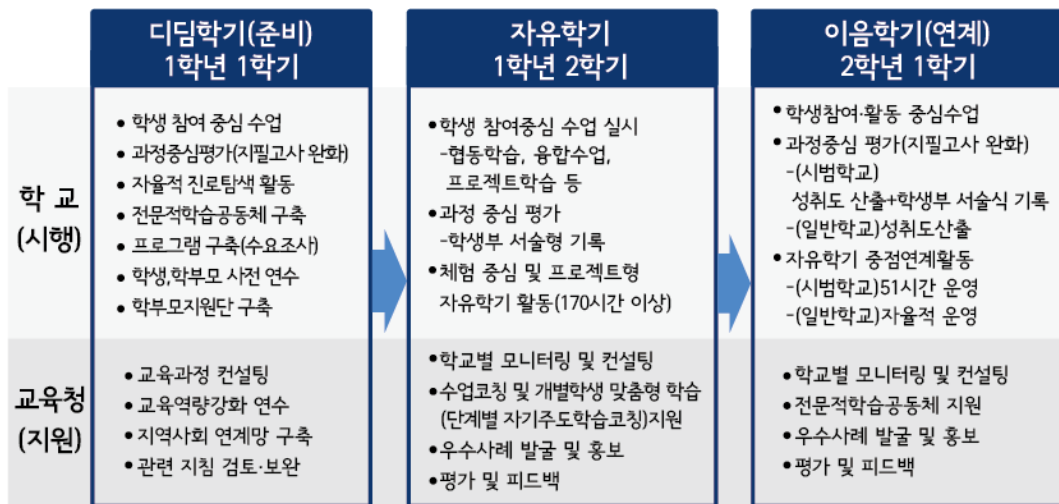
(1) 추진배경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5) 이 절은 유금봉 부장(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 집필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수 있도록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⁶⁾. 중학교 1학년 ~ 2학년의 시기는 학생들의 신체·정서·인지·사회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청소년 초기로, 꿈·끼 탐색 교육이 적합한 시기이며, 중학교 초기 단계에서 자유학기제를 통해 안정적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자유학기 경험을 상급 학년으로 확산하기에 용이하다.⁷⁾ 교육부(2015)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을 통해 중학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의 세 학기 중에서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 학기를 선택하도록 공시하고 있다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는 “배움이 움트는 즐거운 교실 행복한 성장”이라는 비전 아래, 민주·자율·협력을 토대로 준비학기(디딤학기)-자유학기-연계학기(이음학기)의 3학기 운영으로 자율성에 기반한 지속가능형 세종자유학기제 모델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있으며, 세종시의 22개 중학교는 모두 세종자유학기제 운영 모형에 따라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를 운영하고 있다.⁹⁾



【그림 II-1】 세종자유학기제 운영 모형¹⁰⁾

6) <http://www.ggoomggi.go.kr>에서 2017년 8월 17일 인출

7)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안)(교육부, 2015. 11. 25.)

8)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안)(교육부, 2015. 11. 25.)

9) <http://www.sje.go.kr/free/main.do>에서 2017년 8월 21일 인출

자유학기제는 학교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제도로,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¹¹⁾ 여기에 국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교육기본법과 청소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을 담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토대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변화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현황 및 추진체계

세종특별자치시(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에게 진로·직업·문화체험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세종시에 주소를 둔 중학교 1학년 재학생(만 13세 학교 밖 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0만원의 포인트 적립금을 지원하는 청소년 진로체험카드 지원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를 위해 2016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세종시의 진로체험카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에 법적 근거를 두고,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작되었으며 2017년 수혜대상은 3,500여명이다.

포인트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급된 「청소년 진로체험카드」에 적립되며, 진로·직업·문화체험, 스포츠 관람이나 온·오프라인 가맹점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7월 3일부터 청소년진로체험 카드를 발급하였고, 2017년의 사용기간은 7월 3일 ~ 12월 15일이며, 기간이 지나면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카드는 청소년진로체험카드 홈페이지에 등록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주로 진로·직업체험에 사용할 수 있으며 문화·스포츠 관람은 3만원 이내로 사용이 제한된다(표 II-1).

10) <http://www.sje.go.kr/free/main.do>에서 2017년 8월 21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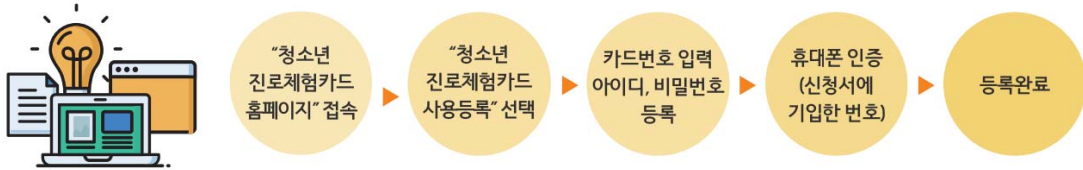
11)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안)(교육부, 2015. 11. 25.)

표 II-1 카드사용내용 및 비율

부문	사용내용	사용한도
진로직업체험	진로탐험, 캠프, 진로 컨설팅, 직업상담·체험, 직업체험관 등	제한없음
문화체험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문화센터 등 문화 체험 ※ 서적, 사진관, 여행(숙박, 운송수단, 놀이공원, 휴양림 등) 제외	3만원 범위 내
스포츠관람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3만원 범위 내

* 출처: 2017 청소년진로체험카드 사업, 세종특별자치시

발급신청은 학교를 통해 일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전입하는 중학생과 만 13세의 학교 밖 청소년의 신규 및 모든 재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카드 수령 후 카드 등록 방법은 「그림 II-2」와 같으며, 휴대폰 인증이 불가할 경우에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가맹점 확인과 카드사용방법, 카드 발급 및 수령 등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진로체험카드 홈페이지(<http://sj.youthcard.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2】 청소년 진로체험카드 등록 방법¹²⁾

세종시는 청소년 진로·직업컨설팅과 캠프, 문화체험, 스포츠 관람 부문에 참여할 온·오프라인 가맹점을 공개 모집¹³⁾하고, 콘텐츠 충실성, 가격 적정성, 사용자 접근성과 사업목적 부합여부 등을 평가하여 등록을 승인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의 가맹점 등록 기준 7월말 현재, 44개의 가맹점이 운영 중이다. 그 중 세종시 지역 가맹점이 30개, 타 지역이 14개 등록되었다(<표 II-2>, <표 II-3>).

12) <http://sj.youthcard.kr>에서 2017년 8월 21일 인출

13) 4월 12일~4월 28일 공개 모집, 6월 26일~7월 12일 추가 모집

표 II-2 가맹점-세종시 지역

구분	가맹점명	소재지	비고
1	플라비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관내 30개소
2	(주)산채인 농업회사법인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3	헬렌k뷰티아카데미미용학원(세종점)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	쉐리벨플라워디자인스쿨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5	도담블럭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6	대세코딩연구소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7	플래뮤 아트센터 세종학원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8	주식회사세종올림푸스짐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9	세종문화컨텐츠연구소(향기Dream)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10	초코블라썸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11	JS융합인재교육원(항공드론체험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2	세종협동조합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3	3D야 협동조합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4	손노리문화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5	토예랑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16	국화치즈영농조합법인(세종품의목장치즈)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17	쟁이(목공)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18	연기향토박물관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19	세종전통장류박물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20	정육이네농원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21	세종한과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22	단율규방공예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23	목인동생태체험마을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24	섭골농장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25	브레드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26	한국여인생활사박물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27	생각배움통합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28	주는나무공방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29	꽃님이네세종점	세종특별자치시 중촌동	
30	물향기글씨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 출처: 2017 세종시 진로체험카드 사업 포털 <https://sj.youthcard.kr>

표 II-3 가맹점-타 지역

구분	가맹점명	소재지	비고
1	대전청소년위캔(We Can)센터	대전 동구	타 지역 14개소
2	코드컴퍼니 준비중	대전 유성구	
3	대전시티즌	대전 유성구	
4	김기태공감스피치	대전 중구	
5	(주)아신아트컴퍼니	대전 중구	
6	대전공간사진학원	대전 중구	
7	21Fox	서울 강남구	
8	(주)한스이앤에스	서울 구로구	
9	디비케이에듀케이션	서울 구로구	
10	(주)콘텐츠팜(진로직업체험)	서울 마포구	
11	(주)푸르미코리아	인천 부평구	
12	초코홀릭체험교육장	충남 계룡시	
13	계룡산도예촌 계룡도방	충남 공주시	
14	청원자연랜드	충북 청주시	

* 출처: 2017 세종시 진로체험카드 사업 포털. <https://sj.youthcard.kr>

(3) 성과 및 발전방안

세종시의 진로체험카드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는 교육청과 중학교, 대학교수, 청소년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정책이 더욱 실효성 있고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재 중학교 1학년 및 만 13세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청소년기 전체로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증과의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증의 신분확인기능, 교통카드 기능¹⁴⁾, 결제기능에 활동지원 바우처 기능을 탑재하여 운영한다면 보다 더 다양한 활용방안이 기대된다.

셋째, 가맹점과 콘텐츠의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의 가맹점 수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14) 2017년 도입

가맹점 확보를 위해서는 시 당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가 보다 다양한 자유학기제 활동을 위한 ‘활동의 장’으로서 참여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홍보와 인식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의 공급자 중심의 제도에서 수요자 중심의 제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요구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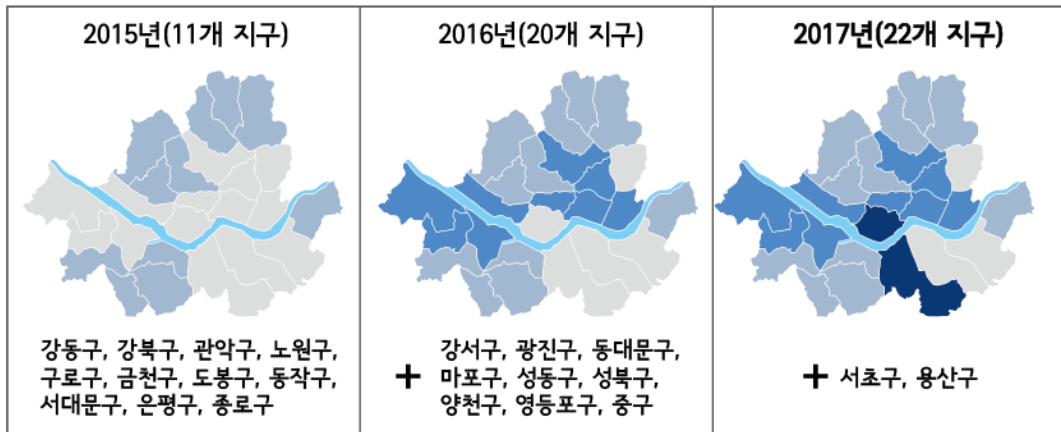
다섯째, 세종시 정책으로의 브랜딩과 더불어 성과의 홍보를 통해 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의 청소년정책에 확산되도록 힘써야 한다.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를 2016년 10월 31일에 제정하고 2017년 1월 1일 시행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를 2017년 5월 18일에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성북구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세종시와 같다. 청소년 진로체험카드 지원사업을 세종시의 정책으로 브랜딩하여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2) 청소년의 무한도전 아무거나 프로젝트(서울시 동작구)¹⁵⁾

(1) 추진배경

동작구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키워야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하였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5년부터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혁신교육지구 1기 사업(2015~2016년)을 마치고 혁신교육지구 2기 사업(2017~2018)이 시행 중이다(이혜숙, 이영주, 2017).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 교육청·서울시·자치구·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새로운 교육모델을 실현하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지정하여 지원하는 자치구’를 의미한다. 2015년에는 강동구를 비롯하여 11개 지구(자치구)가 지정되었으며, 2016년 20개 지구(자치구), 2017년에는 22개 지구(자치구)로 확대되었다(서울시·서울시교육청, 201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정현황은 [그림 II-3]과 같다.

15) 이 절은 이영수 관장과 김예진 간사(동작청소년문화의집)가 집필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출처: 서울시·서울시교육청(201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계획. p. 5.

【그림 II-3】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정현황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필수과제와 지역 특화사업으로 <표 II-4>와 같이 구분된다. 먼저 필수과제는 모든 혁신교육지구의 기초사업으로 자치구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며 총 4개 영역의 사업이 있다. 필수과제는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 마을 방과 후 활동 체계 구축, 청소년 자치활동,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운영 사업 등 총 4개 영역이다. 지역 특화사업은 학교-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목적으로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사업으로 각 자치구별로 특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동작혁신교육지구 사업 중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청소년자치활동의 사업 중 하나이다.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아이들의 무한하고 거대한 꿈 나라’의 줄임말로, 청소년이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 스스로 구상·계획·집행·평가의 전 과정을 주도하고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해 상상력과 끼를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동작청소년문화의집, 2017).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다양한 자기표현의 기회를 통해 자신의 개성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함으로써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 의식을 실천할 수 있는 동작구의 대표적인 청소년 자치·참여활동 사업이다.

표 II-4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영역 및 내용

부문	사용내용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마을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과 학교와의 관계망 형성을 통해 학교교육과정을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과 삶의 통합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마을 방과 후 활동 체제 구축	아동·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지역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 및 교육활동을 지원받고 행복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마을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정비 및 확충하고 마을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업
청소년 자치활동	청소년들이 협력적 인성과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기획, 참여하는 다양한 아동·청소년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청소년 동아리 운영을 조장하는 사업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운영 사업	지속가능한 혁신교육 추진을 위해 지구의 민·관·학이 만나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드는 사업
지역특화사업	지역 특화사업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목적과 취지(학교-마을교육공동체 구축)에 맞게 실시

* 출처: 서울시·서울시교육청(201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 계획, pp. 6-9.

(2) 현황 및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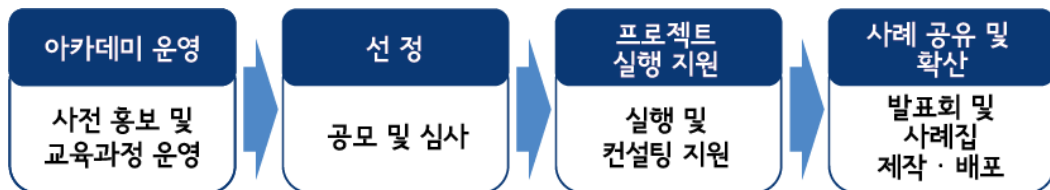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동작구에서 2015년에 처음 시작하여 2017년까지 3년간 운영되었다. 운영 초기에는 동작구 교육문화과에서 직접 사업 형태로 운영하였으며, 2017년에는 전문적인 청소년 기관이 운영해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에 따라 동작구립 동작청소년문화의집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는 37개 팀을 선정하여 총 88,373천원, 2016년에는 82개 팀을 선정하여 총 106,027천원, 2017년도에는 101개 팀을 선정하여 총 98,000천원의 활동비를 청소년들에게 지원하였다. 아무거나 프로젝트의 3년간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5>와 같다.

표 II-5 아무거나 프로젝트 3년간 운영 현황

단위(명/팀, 천원)

구 분		합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체/개인
2015년	참여인원	37/375	5/45	11/105	10/118	11/107
	지 원 액	88,373	11,249	26,803	21,847	28,474
2016년	참여인원	82/835	5/54	18/187	34/422	25/182
	지 원 액	106,207	6,451	19,542	49,483	30,551
2017년	참여인원	101/1,039	11/69	30/265	42/548	18/157
	지 원 액	95,000	9,536	28,264	41,500	15,700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동작구 관내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 또는 관내거주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젝트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5인 이상의 팀을 이루고, 4개 영역(역사·문화, 진로·직업, 자기개발, 자원봉사) 중 한 영역에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프로젝트 선정은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심사는 청소년 전문가와 청소년(청소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담당한다. 선정된 팀에게는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300천원~1,800천원의 활동비가 차등으로 지원되며, 청소년의 실행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의 멘토와 서포터즈단이 컨설팅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프로젝트 발표회와 우수 사례집을 제작하여 지역에 배포한다. 아무거나 프로젝트의 추진절차는 [그림 II-4]와 같다.



【그림 II-4】 아무거나 프로젝트 추진절차

2017년도 아무거나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과정과 일정을 살펴보면 <표 II-6>과 같다.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준비단계는 아무거나 프로젝트 참가팀을 모집하고 선정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2월과 3월에 걸쳐 프로젝트 모집공고를 동작구와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동작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또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 각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참가자 모집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 것은 2015년과 2016년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다시 신청하는 경향이 높았다는 것이다. 2017년에는 새롭게 Dreaming Up 아카데미를 운영하였다. 이 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이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활동형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였다. 올해는 아카데미에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프로젝트 접수 시 가산점을 부여하였다. 교육과정 운영 후 프로젝트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통해 총 4개 영역(역사·문화, 봉사활동, 자기개발, 진로직업)의 101개 팀을 선정·발표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실행단계로서 프로젝트를 직접 추진하는 단계이다. 가장 먼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발대식에서는 구청장과 교육지청의 교육장이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프로젝트는 선정되었으나 계획서 및 예산 변동이 발생한 팀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컨설팅은 지역의 청소년전문가가 함께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여주는 데 기여하였다. 청소년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멘토와 서포터즈단을 구성하였다. 멘토는 프로젝트를 직접 지원하는 역할로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서포터즈는 별도로 구성하여 프로젝트 실행과정을 모니터링하였다. 멘토와 서포터즈의 역량강화와 역할수행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서포터즈는 매월 월례회의(사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각 팀의 청소년 대표(이끌이)를 대상으로 총 4회기의 역량교육을 실시하여 프로젝트의 추진을 지원하였다. 교육은 지출결의서 작성교육, 영상교육, 스피치교육, 웹자보¹⁶⁾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프로젝트 활동비는 최종계획서를 제출하면 50%를 지원하고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면 나머지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청소년의 활동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거나 프로젝트의 추진과정을 대외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아무거나 프로젝트 웹 카페¹⁷⁾를 운영하고 있다. 이 카페에서 아무거나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팀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16) 대자보의 인터넷판이라는 신조어(네이버 국어사전, 2017. 10).

<http://krdic.naver.com/user.nhn?docid=3f07e7a5a5caa91e7353ae942800a4fb>에서 2017년 10월 18일 인출

17) <http://cafe.naver.com/amugernaproject>

표 II-6 아무거나 프로젝트 단계별 주요 내용

구분		기간	주요내용	비고
준비 단계	아무거나 모집 공모	2~3월	프로젝트 사업팀 모집 공고	
	사전교육 운영	3월 중	아무거나 프로젝트 사전교육과정 Dreaming Up 아카데미 운영 ※ 5회 40개 팀 참가	
	아무거나 접수	3월 21~31일	프로젝트 접수(106개 팀)	
	프로젝트 심사	4월 15일	프로젝트 심사(101개 팀)	
	프로젝트 선정 발표	4월 21일	101개 팀 발표(95,000천원)	
실행 단계	아무거나 발대식	5월 12일	프로젝트 발대식(선정증 제공) ※ 각 팀별 제공	
	수정계획서 제출	5월 13~30일	사업계획서 사업 및 예산 수정 입금통장(대표 또는 멘토) 개설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프로젝트 컨설팅	5월 13~30일	사업 계획 및 예산 컨설팅 지원 ※ 장소: 동작청소년문화의집	
	활동비 교부(1차)	5월 24~31일	총 사업비 중 선금 50% 교부 ※ 대표 또는 멘토 통장 입금	
	프로젝트 실행	6~11월	아무거나 프로젝트 실행 아무거나 블로그 활동 내용 제시	
	모니터 지원 활동	6~11월	동작구 서포터즈단 모니터 지원 ※ 각 팀별 2회~3회 예정	
	이꿈이 네트워크	7월~8월	멘토 및 이꿈이 네트워크 모임 개최 ※ 멘토 및 이꿈이 대표 1인 참석	
	중간보고서 제출	8~9월	아무거나 프로젝트 중간보고서 제출 사업비 중 50% 신청 ※ 중간보고서 양식 제공	
	활동비 교부(2차)	8~9월	총 사업비 중 잔액 50% 교부 ※ 대표 또는 멘토 통장 입금	
	프로젝트 종료	11월	아무거나 프로젝트 종료	
종결 단계	최종보고서 제출	12월 1~10일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양식 제공	
	사례집 제작	12월 21~25일	아무거나 활동 사례집 원고 수집 아무거나 활동 사례집 제작	
	평가회 개최	12월 중	아무거나 평가회 개최	
	아무거나 졸업식	12월 25~31일	아무거나 우수 사례 발표회 개최 아무거나 우수 활동팀 시상 아무거나 수료증 발급	

종결단계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단계로서 활동의 결과를 정리하고 활동비를 정산하는 단계이다. 또한 프로젝트에 참가한 청소년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다. 각 팀별로 최종 실행된 보고서를 제출한다. 2017년에는 청소년들의 아무거나 활동사례가 담긴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아무거나 졸업식을 통해 사례 발표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졸업식은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행사가 아니라 활동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운영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무거나 평가회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2017년에는 10월 중에 ‘아무거나 프로젝트 현재 · 과거 · 미래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아무거나 프로젝트 포럼이 진행된다.

(3) 성과 및 발전방안

동작구의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주제와 과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스스로 구상·계획·집행·평가의 전 과정을 주도하는 프로젝트 수행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작되었다. 2015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3년간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중심의 대표적인 청소년 참여사업 모델이 되었다.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면서 동작구청과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등학교,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지역 내 청소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정착되었다. 광진구는 아무거나 프로젝트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무모한 도전(강동구), 개관 5분전 프로젝트(도봉구), 자몽 프로젝트(영등포구), 마중물 프로젝트(노원구), 스스로 동아리 프로젝트(마포구), 무한상상 프로젝트(성동구), 청소년 주도형 프로젝트(양천구) 등이 제목은 다르지만 아무거나 프로젝트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동작구·동작관악교육지원청, 2017).

둘째, 아무거나 프로젝트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청소년이 참여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인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Dreaming-up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청소년들이 작성한 계획서는 발표·심사 과정을 통해 선정되고,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멘토와 서포터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실행하는 프로젝트의 행정업무 지원과 모니터링 업무 등을 수행한다.

셋째, 아무거나 프로젝트 참여 청소년의 참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각 팀의 대표 청소년(이 꿈이)을 대상으로 하는 이꿈이 네트워크를 개최하여 기존의 정형화된 회의형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이는 청소년 대표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프로젝트 실행에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한 데 그 의미가 있다. 올해 2017년 이꿈이 네트워크는 전문 강사진을 섭외하여 지출결의서 작성교육, 영상제작 교육, 스피치(말하기)교육, 웹자보 교육(파워포인트 교육)을 진행하였다.

넷째, 동작구 혁신 관련 부서 및 민간 자원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였다. 아무거나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 추진은 동작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하였으며, 대외적인 홍보와 학교 연락 등은 동작구와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담당하였다. 또한 동작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실무추진협의회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프로젝트의 실행과정을 공유하였다. 지역 내 청소년활동가 및 학부모로 구성된 아무거나 서포터즈도 청소년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많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민·관·학 중심의 협력과정은 아무거나 프로젝트가 서울시 대표 청소년 자치활동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였다.

다섯째, 아무거나 프로젝트의 대외 이미지가 확산되었다. 2017년에는 아무거나 프로젝트의 활동을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 웹 카페를 개설하였다. 이 카페에는 청소년의 프로젝트 활동이 실시간으로 게시되고, 아무거나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청소년의 활동이 대·내외적으로 소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아무거나 프로젝트 리플릿(소식지), 홍보영상, 포토응원메시지 등을 제작하여 외부에 널리 홍보하며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앞으로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청소년의 자기주도성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청소년활동의 참여를 통해 자기주도성을 높이는 활동이다. 그러나 전체 프로젝트 참가팀의 약 50% 정도는 학부모나 교사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부모나 부모의 권유로 참여한 청소년도 자치활동을 통해 성장할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점차 청소년이 신청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정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에 아무거나 프로젝트의 심사 과정을 엄밀하게 하고 프로젝트 주제에 대한 참신성을 높여 스스로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멘토와 서포터즈의 역량이 개발되어야 한다. 아무거나 프로젝트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조직사로 멘토와 서포터즈가 활동한다. 이들의 협력이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청소년의 성장에 기여한다. 이에 멘토나 서포터즈의 선발과정을 체계화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하는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수준과 형식에 따라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청소년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교급별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참여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청소년 참여활동인 ‘지역사회 변화 프로젝트’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체 변화를 주도하기 어렵다. 또한 지원하는 팀도 연간 100개 미만으로 청소년의 활동 참여를 부각하기에 제한적이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청소년의 자치활동을 필수사업으로 선정하고 22개 자치구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무거나 프로젝트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3) 청소년수련관-학교 연계 창의체험활동(경기도 광명시)¹⁸⁾

(1) 추진배경

창의적 체험활동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편성된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주당 3시간 이상을 운영하고, 고등학교는 주당 4시간 이상 운영한다. 학생들의 창의·인성 교육의 강화를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해병대 캠프,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수학여행 및 체험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청소년수련원 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등 생활권 청소년시설에서의 청소년활동이 매우 축소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광명시청소년수련관은 학교연계 창의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상호소통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창의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실시한 2016년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문성호 외, 2016)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시간대는 ‘학교 수업시간 중’이었다. 이는 2009년 이후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이다.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학생 청소년이라는

18) 이 절은 고형복 관장(광명시청소년수련관)이 집필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점을 감안할 때, 수업시간을 활용한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활동 희망시간과는 달리, 희망하는 활동장소로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등과 같은 청소년 활동시설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상을 종합할 때, 청소년들은 학교에 있는 시간 중에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시설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7 2014~2015년 희망하는 청소년활동 시간 및 장소

년도	2014			2015			
	활동진흥원	제주	경남	부산			
희망시간	학교 수업시간 중(수업과 청소년활동의 연계)			학교 수업시간			
응답률(%)	44.9	55.8	53.3	40.6			
년도	2014				2015		
	활동진흥원	대전	경남	제주	부산	대전	강원
희망장소	청소년활동시설		해외	학교	청소년활동시설		
응답률(%)	22.9	33.5	29.5	23.5	23.9	31.0	29.0

* 출처: 문성호 외(2016). 2016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p. 14.

(2) 현황 및 추진체계

광명시청소년수련관이 학교연계 창의체험활동을 실시한 것은 2016년부터이다. 2016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간 관내 9개교(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개교), 4,874명의 학생들이 교과과정(정규수업시간) 내에 광명시청소년수련관이 제공하는 37개 프로그램(요리, 미술, 제과제빵, 도자기공예, 천연토탈공예 등)에 참여하였다. 총 사업비는 청소년버스 예산 18,644천원을 포함하여 총 55,500천원이었다.

표 II-8 2016년 학교연계 창의체험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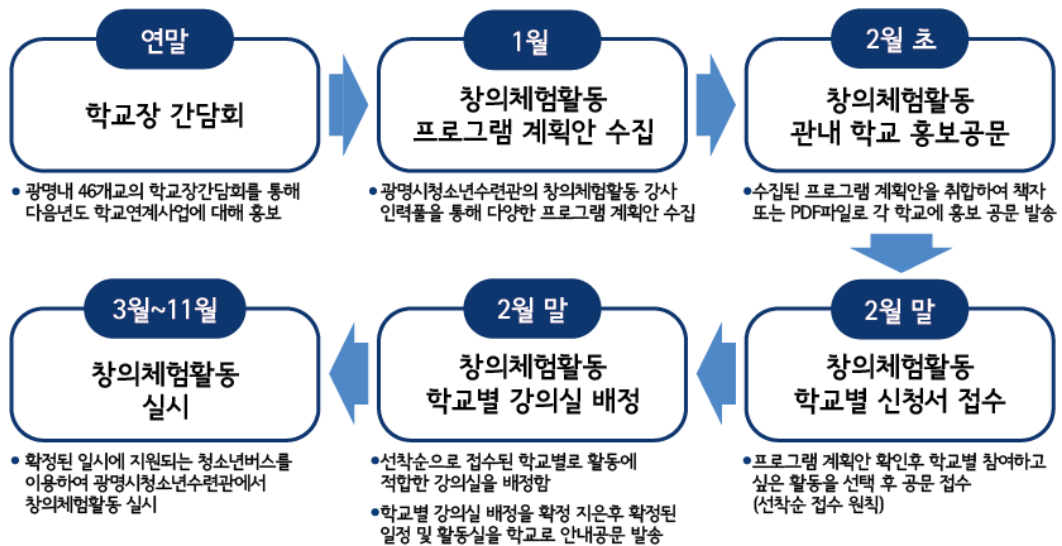
순번	학년	학교명	활동시간	프로그램	회기수	총진행횟수
1	초등학교	○○초등학교	09:40~11:40	5개	7회	35회
2		○○○초등학교	13:00~15:00	6개	8회	48회
3	중학교	○○중학교	14:00~16:00	5개	5회	25회
4		○○○중학교	14:00~16:00	6개	11회	66회
5		○○중학교	14:00~16:00	6개	5회	30회
6		○○중학교	13:30~15:30	6개	7회	42회
7		○○○중학교	14:30~16:30	1개	5회	5회
8		○○중학교	14:30~16:30	1개	3회	3회
9	고등학교	○○고등학교	14:30~16:30	1개	7회	7회
합계(9개교)				37개	58회	261회

표 II-9 2017년 학교연계 창의체험활동

순번	학년	학교명	활동시간	프로그램	회기수	총진행횟수
1	초등학교	○○초등학교	09:40~11:40	6개	7회	42회
2		○○초등학교	13:10~15:10	4개	7회	28회
3		○○초등학교	13:10~15:10	5개	7회	35회
4		○○○초등학교	13:20~15:20	5개	7회	35회
5		○○초등학교	09:40~11:40	5개	6회	30회
6	중학교	○○중학교	14:00~16:00	6개	5회	30회
7		○○중학교	14:40~16:40	3개	5회	15회
8		○○○중학교	14:00~16:00	5개	6회	30회
9		○○중학교	14:00~16:00	2개	6회	12회
10		○○○중학교	13:30~15:30	4개	7회	28회
11	고등학교	○○고등학교	14:20~16:20	3개	5회	15회
12		○○고등학교	13:50~15:40	5개	7회	35회
합계(12개교)				53개	75회	335회

2017년에는 17개 신청학교 중 12개교(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확정하여 정규수업시간에 광명시청소년수련관에서 학교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운영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2016년과 동일하며, 8월말 기준 3,286명이 53개 프로그램(연극, 뮤지컬, 3D프린터, 네일아트, 캘리그래피 등)에 참가하였고 12월말까지는 총 5,040명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비는 8월말까지의 청소년버스 집행예산 10,963천원을 포함하여 총 55,193천원이다.

학교연계 창의체험활동 신청 절차는 [그림 II-5]와 같다. 매년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학교장 간담회를 통해 수련관 학교연계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요리, 음악, 댄스, 공예, 창의 체육 등 수련관이 구축한 강사 인력풀로부터 분야별 6~8회차의 강의계획서를 접수한다. 수집된 프로그램 계획안을 취합한 책자를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신청안내 및 홍보 공문과 함께 배포한다. 학교는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광명시청소년수련관으로 공문 신청한다. 공문 접수순으로 학교가 선택한 프로그램 진행을 확정하고, 학교별 창의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최종배정한 후 분야별 강사 및 수련관 내 강의실을 세 차례의 협의를 거쳐 배정한다. 3월부터는 확정된 일시에 지원되는 청소년버스를 이용하여 청소년수련관으로 이동하여 창의체험활동을 실시한다.



【그림 II-5】 학교연계 창의체험활동 신청 절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임지연, 김정주, 김정숙, 2014)에 따르면 청소년기관(100개)의 96.6%와 학교(74개)의 98.6%가 지역연계 체험활동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시설과 창의체험활동을 연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지역 내 자원부족, 업무과다, 예산부족, 전문성부족, 안전대책 미비 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요구 사항들로는 1순위 이동수단, 2순위 안전대책 마련, 3순위 재료비와 입장료 지원, 4순위 프로그램 개발 등이 제시되었다.

표 II-10 지역연계 체험활동을 위한 우선지원 요구사항

순위	분류	주요내용
1	이동수단	교통안전수단, 학생관리, 인솔문제, 계약 및 답사 등
2	예산배정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비(교통비, 입장료, 강사비 등)
3	지원시스템	상호 이해와 소통을 위해 지역 교육청과 자치구청 등 연계하여 기록, 정보, 홍보, 안내 등 지원
4	법령	청소년 지역체험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제정, 지자체 조례 등
5	전담인력	학교-지역 연계 전담인력 채용

* 출처: 임지연, 김정주, 김정숙(201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p. x 표를 재구성.

광명시청소년수련관은 지원 요구를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방식으로 관내 학교의 학교연계 체험활동의 참여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첫째, 안전 및 접근성을 높이는 ‘청소년 버스’의 운영이다. 청소년시설 연계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원인의 1순위는 이동수단이다. 교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한정적인 장소와 장비들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수련관으로 이동 후 수련관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연계 창의체험활동을 광명시청소년수련관이 기획·진행하였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수련관으로, 수련관에서 학교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는 것이다. 광명시청소년수련관은 접근이 어려운 거리에 있는 학교에 ‘청소년 버스’를 지원하여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관내 모든 학교가 창의체험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참여율을 높일 수 있었다.

표 II-11 창의체험활동 광명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버스 이용 현황

년 도	이용현황		
	횟수	인원	비용
2016년도	총 45회	3,986명	18,644천원
2017년도 8월말	총 36회	2,390명	10,963천원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강사비 및 재료비를 지원하였다. 교내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강사비 및 재료비는 학생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교사에게는 지출업무가 가중되기도 한다. 이에 광명시청소년수련관은 학교연계 창의체험활동의 강사비 및 재료비를 광명시가 수련관의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체 운영비를 지원하여 교내 교사 및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특히, 교사들의 업무 편의성과 체험활동 내용의 전문성이 향상되어 수련관의 창의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있다.

셋째, 전문성 있는 강사 및 프로그램의 제공이다. 매년 같은 프로그램이 아닌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매년 1월에 광명시청소년수련관의 강사들은 수련관 학교연계 창의체험활동 담당자에게 새로운 프로그램 계획서를 제출한다. 새로운 커리큘럼의 강의계획서를 취합하여, 이를 2월초에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하면 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매년 새롭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문적인 강사를 통해 진행되어 광명시 관내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3) 성과 및 발전방안

광명시청소년수련관은 2016년에 9개교 261회, 2017년에 12개교 335회(8월말 기준)의 학교연계 창의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는 다양한 학교연계 사업으로 확장되어 6개교에 대해서는 학교축제 및 운동회 등을 13회 지원(연인원 5,068명), 연말 전환기 청소년 특강 6개교 8회 지원(연인원 2,033명)의 성과도 거두었다. 청소년수련관과 학교의 연계로 청소년의 선호도가 높은

전문 활동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수련관에도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었다.

첫째, 평일 낮 시간대 수련관내 공실을 적극 활용할 수 있었다. 평일 낮 시간대에는 청소년들의 수련관 활동실의 이용률이 낮다. 이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학교연계 창의체험활동을 진행하여 공실을 적극 활용하였고, 수련관과 연계한 학교 창의체험활동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활동 외 시간에도 수련관을 이용하여 창의체험활동이 없는 기간보다 수련관 시설 이용률이 78%포인트 향상되었다.

둘째,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관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이용률 향상 뿐 아니라,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 참가 청소년이 수련관을 방문하고 이용하면서 초·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의 수련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수련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이후 수련관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사업 및 시설 이용에 적극 참여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수련관에 대한 홍보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써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의 활발한 참여로 확대되고 있다.

셋째, 전문적인 강사 인력풀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와의 공생을 도모할 수 있다. 수련관 개관 이후 3년간 문화강좌 및 창의체험활동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강사 인력풀(34명)을 구축했으며, 지역사회에서 활동 중인 시민강사(11명)를 초빙하여 청소년시설,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공생하는 긍정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넷째, 관내 학교의 수련관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어 적극적인 업무협조 및 연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지역 내 학교와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 수련관과 학교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기관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후 수련관 청소년 사업 및 시설에 대한 학교의 적극적인 업무협조와 지역연계가 늘어나고 있다.

다섯째, 학교와 수련관 간 공문 수발신 시스템이 정착되었다. ‘경기도 공공기관 업무 포털시스템’을 활용한 공문 수발신으로 공문의 접수가 정확하고 분실될 위험이 없어 학교와의 업무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광명시청소년수련관의 학교연계 창의체험활동은 2016년 광명시 관내 7개교와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매년 학교장 간담회를 통해 원활한 소통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수련관에서 학교연계 청소년버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 학교연계 창의체험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학교와의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학교연계 창의체험활동이 단순히 학교활동으로서만 그치지 않고 방과후 활동으로 확장되고,

활동이 주는 즐거움에 대한 경험이 청소년기 동안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전문가에 의해 전문성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것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생하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및 지역 활동가들을 연계하여 지역사회와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활동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곧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청소년활동의 성과이기 때문이다.

셋째, 현재 광명시 학교연계 창의체험활동 프로그램은 학교의 참여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요에 맞는 공급이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새 학기 시작 전에 지역학교의 창의체험활동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관내 청소년기관(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이 상호 연대하고 협업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자원맵’을 학교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 자원의 연대와 협력은 청소년전용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며, 공유와 공생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는 매우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넷째,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학교 청소년들의 창의체험활동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대상자를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창의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해외사례

1차 년도에 미국, 호주, 네덜란드, 노르웨이와 유럽연합의 사례들을 통해 1) 모든 나라들이 청소년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2) 요구에 맞춰 대상별로 특화된 전략을 쓰거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전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3) 청소년들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에라스무스 플러스(Erasmus+), 영국의 국가시민서비스(NCS), 미국의 ‘청소년을 위한 길(Pathways for Youth)’ 전략 계획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청소년활동 정책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유럽연합의 에라스무스 플러스(Erasmus+)

(1) 도입배경¹⁹⁾

최초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Erasmus programme)은 1987년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1994년에는 유럽연합의 다른 프로그램들과 함께 소크라테스 프로그램(Socrates programme)에 편입되어 1999년까지 시행되었고, 2000년 1월 24일부터는 소크라테스 II 프로그램(Socrates II programme) 하에서 시행되었다. 2007년부터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여러 하위 프로그램들 중 하나로서, 고등교육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고 고등교육기관 학생들의 해외 경험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유럽연합은 대표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이었던 유스인액션(Youth in Action)²⁰⁾을 비롯하여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여러 독립적인 프로그램들을 새로운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014년 1월부터 에라스무스 플러스를 시행하였다. 교육 및 훈련, 청소년, 그리고 스포츠 분야를 아우르는 단일하고 간소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연합은 프로그램 운영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행정적 비용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2013년 12월 11일에 발표된 새로운 유럽연합 규정(Regulation (EU) No 1288/2013)²¹⁾은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을 유럽연합의 새로운 교육, 훈련, 청소년, 스포츠 분야를 아우르는 새로운 유럽연합의 프로그램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규정에서 유럽연합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관련 프로그램들을 통합하고,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유럽의 전략적 프레임워크인 ‘교육훈련 2020(Education & Training 2020)’에서 설정한 세부 목표들을 시행할 것을 명시했다.

19) Europa EU (2013. 11. 15). Background – European Parliament, p. 1.

http://www.europarl.europa.eu/pdfs/news/expert/background/20131111BKG24354/20131111BKG24354_en.pdf에서 2017년 8월 23일 인출

20) 능동적인 시민의식, 연대, 관용의 정신을 고취시키고 유럽연합의 미래 건설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운영된 유럽연합의 프로그램이다. 주요 초점 분야는 ‘이동성’, ‘비공식 학습’, ‘상호문화간 대화’, ‘(사회적) 포용’ 등이며, 이들 분야에서 13세~30세 청소년들과, 청소년지도사, 시민사회단체 등에 대한 훈련과 네트워킹의 기회들을 제공했다. 매년 약 8,000개의 청소년 관련 프로젝트들이 동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았고, 약 15만명의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사들이 수혜자가 되었다.

(Europa, http://ec.europa.eu/youth/success-stories/youth-in-action_en에서 2017년 8월 23일 인출)

21) EUR-Lex,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3R1288>에서 2017년 8월 24일 인출

Europa, http://ec.europa.eu/education/policy/strategic-framework_en에서 2017년 8월 24일 인출

(2) 현황 및 추진체계²²⁾

유럽연합의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Erasmus+ programme)은 교육, 훈련, 청소년, 스포츠 분야를 아울러 유럽연합 및 파트너 국가들의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들을 지원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통합 펀딩 프로그램이다. 동 프로그램은 평생학습 프로그램(Lifelong Learning Programme)(2007-2014)을 대체하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 간 시행된다. 유럽의 학습자 및 고등교육 부문의 여러 관련 직원들에게 보다 많은 해외 경험과 더불어 교육, 훈련, 청소년, 스포츠 부문들에서의 협업 기회들을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전의 프로그램보다 손쉬운 접근 기회들을 제공하고, 펀딩 관련 규정과 구조를 간소화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관리행정을 강화한 점이 특징적이다.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은 ‘유럽에서의 배움을 위한 이동성(learning mobility)’, ‘교육기관, 기업, 청소년단체, 지역 당국, 비정부기구들 사이의 기관적 교류와 협력’,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 다루는 모든 분야들에서의 정책 개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자국을 떠나 외국에서 학습, (직업)훈련, 자원봉사, 스포츠 활동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유럽 내 약 400만 명 이상의 13세~30세 청소년 및 청년들, 청소년 기관 및 단체 지도자들, 그리고 기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들이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해 기회를 얻고 있다.²³⁾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은 3가지의 주요 액션(Key Action)²⁴⁾으로 ‘개인의 학습 이동성’, ‘혁신을 위한 협력과 모범사례 교환’, ‘정책 개혁 지원’을 설정하고, 각각의 액션에 해당하는 활동들을 시행하고 있다(<표 II-12>).

22) Erasmus Plus 웹페이지 (2017. 1. 31.)

<http://erasmusplus.rs/erasmusplus-youth-in-action/>에서 2017년 8월 23일 인출

23) Europa EU (2013. 11. 15). Background – European Parliament. p. 3.

http://www.europarl.europa.eu/pdfs/news/expert/background/20131111BKG24354/20131111BKG24354_en.pdf에서 2017년 8월 25일 인출

24) Erasmus+ UK, <https://erasmusplus.org.uk/what-are-the-key-actions>에서 2017년 8월 25일 인출

Europa (2017). ERASMUS+ The EU programme for education, training, youth and sport (2014–2020). p. 1.

http://ec.europa.eu/programmes/erasmus-plus/sites/erasmusplus/files/library/erasmus-plus-factsheet_en.pdf에서 2017년 8월 25일 인출

표 II-12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 3가지 주요 액션

주요 액션	내 용
Key Action 1 (KA1)	(개인의 학습 이동성) - 고등교육 부문의 학생 최대 200만 명에게 해외에서의 학습 경험 제공 - 직업훈련 연구 및 해외 연수에 최대 65만회의 지원금 제공 - 약 60만 명의 청소년들에게 해외교류 및 자원봉사 경험 지원 - 약 80만 명의 교사, 강사, 교육기관 직원, 청소년지도자 등에게 해외 연수 지원
Key Action 2 (KA2)	(혁신을 위한 협력과 모범사례 교환) - 약 2만 5,000여 개의 교육, 훈련, 청소년 단체 및 기업들의 파트너십들에 지원 제공 - 교육기관과 기업 파트너십 중 대형 파트너십 300여 개 이상에 지원 제공
Key Action 3 (KA3)	(정책 개혁 지원) ²⁵⁾ - 증거기반의 정책결정 기반 강화 및 정책 시행을 위한 네트워크와 툴(tool) 지원 - 민주적 생활에 대한 청소년 참여 개선 및 정책입안자-청소년 사이의 정책 대화 촉진

이와 더불어 고등교육 분야에서 유럽의 통합 연구들이 촉진될 수 있도록 장모네 활동(Jean Monnet activities)을 통해 학술기관들을 지원하는 한편, 학계와 정책입안자들의 대화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은 과거의 프로그램과 달리 새로이 스포츠 부문에 대한 지원을 포함시켰다. 스포츠 액션(Sport Action)은 페어플레이와 협력을 촉진하고, 오늘날 스포츠 부문이 직면한 주요 과제들에 대응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은 유럽 여러 국가들이 참여해 협력하는 다수의 프로젝트들²⁶⁾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25) Europa,

https://ec.europa.eu/programmes/erasmus-plus/opportunities-for-organisations/support-for-policy-reform_en에서 2017년 8월 23일 인출

26) Europa (2017). ERASMUS+ The EU programme for education, training, youth and sport (2014–2020). p. 1.

http://ec.europa.eu/programmes/erasmus-plus/sites/erasmusplus/files/library/erasmus-plus-factsheet_en.pdf에서 2017년 8월 25일 인출

표 II-13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사례

프로젝트	내 용
eTwinning	- 유럽 전역의 교실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 하에서 매년 1,300만 유로가 지원되고 있음
Innovation Alliance	- 고등교육 관련 기관,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민간 기업, 공기업 등의 협력을 도모하는 파트너십 프로젝트
European Voluntary Service	- 17세~30세의 유럽 청소년들에게 외국에서의 자원봉사 경험을 제공해주는 프로젝트로,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 여행비, 현지 생활비, 용돈, 보험 등을 제공
Erasmus Mundus	- 외국에서 학위 과정을 밟는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범유럽형 장학제도

유럽정부 차원에서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교육시청각문화책임운영기구(Education, Audiovisual, and Culture Executive Agency, 이하 EACEA)가 운영을 맡고 있다.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는 각국에 개별적으로 설치된 내셔널에이전시(National Agency)들을 통해, 그리고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니지만 파트너 국가로서 에라스무스 플러스에 동참하는 국가들에서는 내셔널 Erasmus+ 사무국(National Erasmus+ Office, 이하 NEO)들을 통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²⁷⁾

유럽연합 집행위는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을 총괄한다. 주로 △예산 관리 △우선과제 설정 △프로그램의 표적대상과 원칙 확인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가이드 제공 △프로그램의 평가 및 후속 조치 등을 담당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 산하의 EACEA는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중앙집중화된(centralised)’ 요소들을 관리하는 기구이다. 주요 역할은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기회들에 대한 홍보 △제안 요청 △지원금 신청 검토 △관련 프로젝트 보급 및 모니터링 △결과들에 대한 소통 등이다. EACEA와 집행위는 또한 프로그램에 관련된 각종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다른 단체 및 네트워크들에 대한 운영과 재정조달 등을 담당하고 있다.

27) Europa, http://ec.europa.eu/programmes/erasmus-plus/about_en#tab-1-2에서 2017년 8월 23일 인출
http://ec.europa.eu/programmes/erasmus-plus/contact_en#tab-1-10에서 2017년 8월 23일 인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각국에 설치된 내셔널에이전시를 통해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럽연합 집행위가 각국의 내셔널에이전시에 자금을 지원하며, 이렇게 지급된 자금은 각국 내셔널에이전시를 통해 해당 국가에서 추진되는 여러 프로그램 활동들을 관리하는 데에 사용된다. 내셔널에이전시들은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을 현지의 교육, 훈련, 청소년 시스템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내셔널에이전시들의 주요 임무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자국 내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에 접수된 신청내용 검토 △자국에서의 에라스무스 플러스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에라스무스 플러스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지원 △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 프로그램 및 관련 활동 홍보 등이다. 이밖에도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는 수혜자들에 대해서 프로젝트 신청 단계에서부터 완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제공하며, 수혜자 및 다른 기관들과 함께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에 관련된 여러 영역들에서 유럽연합의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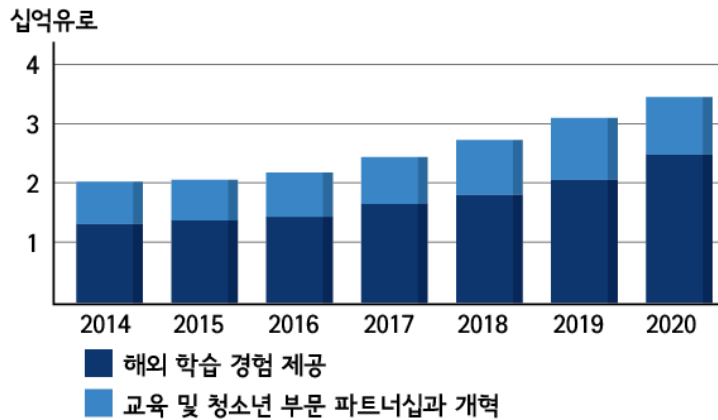
비회원국들에서는 내셔널 Erasmus+ 오피스(NEO)들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들 기관은 유럽연합 및 지역 당국들을 도와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이 파트너 국가들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파트너 국가들은 주로 발칸 서부, 지중해 동남부,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이며, 러시아에도 NEO가 설치되어 있다. NEO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잠재적 신청자들에 대한 조언 및 지원 제공 △프로젝트 모니터링 △정책적 대화, 연구, 행사 지원 △지역 당국들 및 전문가들과의 관계유지 △정책 발전 모니터링 등을 담당한다.

그밖에도 유럽의 교육정보네트워크인 'Eurydice Network', 유럽 국가들을 위한 교육정보화 지원 온라인플랫폼인 'eTwinning', 성인학습을 위한 전자플랫폼 'EPALE', 파트너 국가들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카운슬링과 훈련을 제공하고 정책 발전 등을 지원하는 'Network of Higher Education Reform Experts' 등 여러 프로젝트 및 단체들이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7년 동안 유럽정부가 동 프로그램에 투자할 전체 예산은 약 147억 유로이다. 해당 기간 동안 전체 예산의 약 2/3는 유럽의 개인들에게 해외에서의 학습 및 훈련 경험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되고, 약 1/3은 교육 및 청소년 부문의 파트너십 및 개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연도별 지출액의 규모는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결정한다.²⁸⁾

28) Europa (2017). ERASMUS+ The EU programme for education, training, youth and sport (2014–2020), p. 1.

http://ec.europa.eu/programmes/erasmus-plus/sites/erasmusplus/files/library/erasmus-plus-factsheet_en.pdf에서 2017



【그림 II-6】 에라스무스 플러스 연도별 예산 규모

(3) 성과 및 발전방안²⁹⁾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은 시행 첫 해인 2014년 한 해에 약 65만 명에게 외국에서의 학습 경험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했다. 이 중 약 40만 명은 고등교육 기관 및 직업교육 교환학생들이었으며, 약 10만 명은 자원봉사자 및 해외 근로자, 15만 명은 전문성개발을 지원받은 교사, 청소년 훈련가, 기타 교육기관 직원 등이었다. 한편 2014년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학위가 그들의 모국에서 인정되는 비율 역시 2013년에는 약 76%였으나 2014년에는 약 85%로 상승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교육, 문화, 청소년 및 스포츠 담당위원인 티보르 너브러치츠(Tibor Navracsics)는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이 시행 첫 해에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년 8월 25일 인출

Europa EU (2013. 11. 15). Background – European Parliament, p. 3.

http://www.europarl.europa.eu/pdfs/news/expert/background/20131111BKG24354/20131111BKG24354_en.pdf에서
2017년 8월 25일 인출

29) University World News (2016. 2. 6). EU mobility grants at record high, but impact varies.

<http://www.universityworldnews.com/article.php?story=20160206021247767>에서 2017년 9월 14일 인출

Europa (2016). The Erasmus Impact Study Regional Analysis, p. 155.

http://ec.europa.eu/dgs/education_culture/repository/education/library/study/2016/erasmus-impact_en.pdf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16년에 발표한 ‘지역별 에라스무스 영향력 분석 보고서(The Erasmus Impact Study Regional Analysis)’는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해당 보고서는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전인 2013년에 수집된 참가자 설문조사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새로이 지역별로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분석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국제적인 경험을 가진 남부유럽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직장을 구할 가능성이 컸고, 동유럽 학생들의 경우 관리직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지역별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체감하는 방식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2013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향후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의 시행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2) 영국의 국가시민서비스(NCS) 프로그램

(1) 도입배경³⁰⁾

국가시민서비스(NCS) 프로그램은 영국의 청소년들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종교, 민족, 사회경제적 배경 등에서 서로 다른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함께 모여 그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양질의 개인 성장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은 이를 통해 스스로 또는 또래들과 함께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NCS 프로그램은 2009년에 개발되어 영국의 사회통합 자선단체인 더챌린지(The Challenge)에 의해 시범 실시되었고, 이후 2010년에 당시의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총리가 보수당-자유당 연립정부의 ‘빅소사이어티 이니셔티브’³¹⁾의 일환으로 동 프로그램의 추진을 발표했다.

2010년 캐머런 총리의 NCS 프로그램 추진계획 발표 이후 교육부와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

30) 영국 정부 웹사이트 GOV.UK (2012, 2). National Citizen Service Prospectus, pp. 3-4.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1798/NCS-prospectus-Feb-2012.pdf에서 2017년 9월 11일 인출

31) 복지나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도권을 정부와 기업에서 지역시민사회단체에 넘긴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정책으로, 시민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들의 관련 활동을 정부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다(매일경제 “관피아 막을 ‘시민단체 역량 키우자’”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4&no=930617>에서 2017년 8월 14일 인출).

는 공동으로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NCS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³²⁾. 시범 프로그램의 참가자 수는 2011년에 8,000명 이상, 2012년에 3만 명 이상이였다. 이후 동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2015년 총선 이후 보수정권 하에서도 지속되었다.

이어 2016년 5월 18일 영국은 여왕의 국회개원 연설(Queen's Speech)에서 국가시민서비스 법안(National Citizen Service Bill)을 마련하여 NCS를 보편적인 프로그램으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CS법안은 이후 의회에 상정된 후 양원을 거쳐 2017년 4월 국왕의 재가(Royal Assent)를 받은 상황이다.

(2) 현황 및 추진체계³³⁾³⁴⁾³⁵⁾

영국의 국가시민서비스(National Citizen Service, 이하 NCS)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행동(social action)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의 일자리와 삶의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성 및 사회성 개발 프로그램이다. 2011년 '빅소사이어티 이니셔티브(Big Society initiative)'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2017년 관련 법 정비를 통해 영속성을 보장받게 되었다.

NCS 프로그램은 16세에서 17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생에 단 한 번 제공된다. 청소년들의 참여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대상 청소년들은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NCS 프로그램은 봄, 여름, 가을의 학교 방학시기에 진행된다. 참가 청소년들은 여러 그룹들로 나뉘어 대체로

32) 영국 정부 웹사이트 GOV.UK (2012, 2). National Citizen Service Prospectus, p. 7.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1798/NCS-prospectus-Feb-2012.pdf에서 2017년 9월 11일 인출

33) Civil Society (2014, 10, 6)

<https://www.civilsociety.co.uk/news/ncs-announces-successful-bidders-for-service-delivery.html>에서 2017년 8월 30일 인출

34) 영국 정부 웹사이트 GOV.UK (2012, 2). NATIONAL CITIZEN SERVICE PROSPECTUS, p. 4.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1798/NCS-prospectus-Feb-2012.pdf에서 2017년 9월 11일 인출

National Audit Office (2017, 2). National Citizen Service, p. 14.

<https://www.nao.org.uk/wp-content/uploads/2017/02/National-Citizen-Service.pdf>에서 2017년 9월 11일 인출

35) Civil Society (2014, 10, 6)

<https://www.civilsociety.co.uk/news/ncs-announces-successful-bidders-for-service-delivery.html>에서 2017년 8월 30일 인출

Government Online,

<http://www.government-online.net/national-citizen-service-2015-2018-local-delivery-partner/>에서 2017년 8월 29일 인출

시골 등 야외지역에 마련된 청소년활동센터에 방문해 그 곳에서 숙식하면서 신체를 단련하고 팀빌딩(team building) 활동들을 포함한 프로그램 코스들에 참여한다. 일반적으로 여름방학 코스는 총 3주간의 코스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30시간의 ‘소셜 액션(social action)’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봄과 가을에 제공되는 코스는 여름방학 코스보다 기간이 짧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총 약 2~4주간의 코스로 진행되며, 참가 청소년들은 12~15명으로 그룹을 결성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1주차는 야외 수련 코스로, 청소년들은 해당 코스에서 숙박시설에서 함께 숙박하면서 팀빌딩(team building) 기술을 향상시킨다. 2주차는 라이프스킬과 독립적인 생활을 배울 수 있는 숙박 코스로 진행된다. 다음으로는 청소년들은 지역 공동농장, 패밀리 펀 데이(Family Fun Day) 등과 같은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소요시간	Phase 1	Phase 2	Phase 3	Phase 4	Phase 5	Phase 6
		1주차	2주차	3주차	추가 30시간	
활동 상세 정보	Induction	Activity based residential	Community residential	Social action design	Social action	Ongoing
	- 기대설정 - 참가자와 스태프 사이의 관계형성	- 집이 아닌 장소에서 머무르면서 일련의 활동 수행 - 대체로 야외 활동 - 인성 및 사회성 개발에 초점	-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방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일련의 체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능력을 개발 - 참가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수련시설에서 활동 - 시간관리 및 과업 수행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감 향상	- 지난 2주 동안 확인한 지역사회의 문제/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의 협력을 바탕으로 소셜액션 임무를 설계	- 모금 활동, 프로젝트 활동 등을 포함하여 최소 30시간동안 소셜 액션을 수행 - 참가자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지역에서 소셜 액션 또는 자원 봉사활동을 하도록 장려하는 수료 행사 또는 이벤트 개최	- 훈련세션, 모임 이벤트 등을 포함한 수료 프로그램 - 보상/기회 등을 제공 - 일자리 경험 - 소셜 액션 - 지속적인 네트워크 -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

【그림 II-7】 NCS 프로그램 프로세스

일련의 코스를 완료한 참가자들에게는 총리의 서명이 담긴 수료증이 제공된다. 2013년부터 참가자들은 일인당 약 50파운드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저소득가정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영국은 NCS 프로그램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시민서비스법(National Citizen Service Act)을 마련했다.³⁶⁾ NCS법안은 지난 2016년 10월에 최초로 의회에

36) 영국 정부 웹사이트 GOV.UK (2017. 4. 27)

<https://www.gov.uk/government/news/national-citizen-service-ncs-bill-receives-royal-assent>에서 2017년 8월 14일 인출

제출되었고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후 현재는 국왕의 재가(2017. 4. 27)를 받은 상태이다. 법안의 전문은 영국 의회 웹사이트³⁷⁾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NCS 프로그램의 제공주체인 NCS트러스트(NCS Trust)의 직원 및 자산을 하나의 왕립기관(Royal Charter Body) 소속으로 전환
- NCS트러스트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
- NCS트러스트로 하여금 매년 초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매년 결산보고서와 연례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함으로써 책무성과 투명성을 확보
- 영국 감사원이 NCS트러스트에 대한 감사 실시
- 16세가 된 청소년들에게 정부가 NCS트러스트를 대신하여 NCS에 대해 알리는 안내장을 발송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하여 권한을 부여

NCS 프로그램은 2013년 내각부 산하의 시민사회청(Office for Civil Society)³⁸⁾의 투자를 통해 설립된 공동체이익회사인 NCS트러스트가 2014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NCS트러스트의 운영은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사회의 주요 구성원은 회장(chair) 1인, 이사(executive director) 2인, 사외이사(non-executive member) 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³⁹⁾

이러한 이사회와 별도로 2014년에는 청소년들의 견해를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National Youth Board)도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과거에 NCS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21인의 지역별 청소년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의 견해를 전달한다.

영국 정부 웹사이트 GOV.UK (2016. 10. 12)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introduces-national-citizen-service-ncs-bill-to-parliament>에서 2017년 8월 31일 인출

영국 의회 홈페이지

<http://services.parliament.uk/bills/2016-17/nationalcitizenservice.html>에서 2017년 8월 31일 인출

37) Legislation.gov.uk,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7/15/contents/enacted>에서 2017년 8월 31일 인출

38) 현재는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포럼(교육부에 해당) 산하임

(<https://www.civilsociety.co.uk/news/office-for-civil-society-formally-transferred-to-dcms.html>)

39) NCS Trust, <http://www.ncsyas.co.uk/ncstrust>에서 2017년 8월 16일 인출

Parliament.uk (2017. 3. 14). National Citizen Service: Forty-sixth Report of Session 2016-17. p. 14-15.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617/cmselect/cmpubacc/955/955.pdf>에서 2017년 9월 4일 인출

NCS트러스트는 NCS 프로그램을 전달하기 위하여 약 200개의 파트너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주로 자선단체, 대학 컨소시엄, 자원봉사단체, 커뮤니티단체, 사회적 기업 등이 파트너로 동참하고 있다. NCS트러스트가 특정 사업기간 동안 지역별로 NCS 서비스 전달을 담당할 단체 및 기관들을 선정한다.

파트너기관의 유형은 크게 지역전달파트너(Regional Delivery Partner, 이하 RDP)와 지방전달파트너(Local Delivery Partners, 이하 LDP)로 나뉜다. 지역별 RDP들이 약 200개에 달하는 LDP 팀과 이들을 통한 NCS 프로그램의 전달을 책임진다.

NCS트러스트는 2015~2018년도에 프로그램을 제공할 RDP 파트너들로 더챌린지네트워크(The Challenge Network)를 비롯한 10개 단체 및 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1개 기관이 NCS 전달에 실패함에 따라 현재 NCS트러스트의 계약업체는 총 9개 단체이며, 계약업체가 프로그램 전달에 실패한 1개 지역 대해서는 NCS트러스트가 직접 NCS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있다. 한편 특정 기간에 RDP로 참여한 기관 및 단체라도 다음 기간에는 LDP가 되거나 LDP로 참여한 기관 및 단체가 RDP가 되기도 한다.

NCS 프로그램을 위한 비용은 거의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한다. 시민사회청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동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2017년 3월 영국 하원의 공공회계위원회(Committee of Public Accounts)가 발표한 NCS 프로그램 보고서에 따르면 2014/15년도와 2016/17년도 사이에 NCS트러스트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은 약 4억 7,500만 파운드, NCS트러스트의 전체 예상수입의 약 99%를 차지했다.⁴⁰⁾

2011/12년도에서부터 2016/17년도까지 시민사회청은 NCS 프로그램에 약 6억 파운드를 투자했다. 현재까지 발표된 바에 따르면, 향후 2019-2020년도까지 정부는 동 프로그램에 추가적으로 9억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다.

(3) 성과 및 발전방안⁴¹⁾

NCS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되므로, NCS트러스트는 동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40) Parliament.uk (2017. 3. 14). National Citizen Service: Forty-sixth Report of Session 2016-17. p. 4, p. 11, p. 14.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617/cmselect/cmpubacc/955/955.pdf>에서 2017년 9월 4일 인출

41) Parliament.uk (2017. 3. 14). National Citizen Service: Forty-sixth Report of Session 2016-17. p. 8.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617/cmselect/cmpubacc/955/955.pdf>에서 2017년 9월 4일 인출

최근 교육부는 2020/21년도까지 프로그램 참가자 수를 약 24만 7,000명으로 확대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발표했다.⁴²⁾

표 II-14 NCS 프로그램 참가자수 변화 추이 및 목표(명)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21 (목표치)
참가자수	26,000	40,000	57,000	75,000	93,000	247,000

* 출처: 영국 하원 공공회계위원회의 세션

준비자료(<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617/cmselect/cmpubacc/955/955.pdf>) 등에서 발췌 · 재구성

NCS 프로그램은 향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하여 매년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2017년 3월 리서치전문기관인 입소스모리(Ipsos Mori)가 발표한 최신 평가 보고서는 2015년 NCS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담고 있는데, 프로그램 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로, NCS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10명 중 약 9명은 NCS 프로그램을 친구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10명 중 약 9명은 NCS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더하여 참가 청소년 10명 중 약 7명은 미래 직업을 얻는 데에 있어서도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지난 2016년 2월 시민사회청은 NCS 프로그램 참가자수 목표를 2020-2021년도에 약 36만 명(영국의 16세 인구의 약 60%에 해당)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2017년 2월 교육부는 보다 현실적인 목표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2020/2021년도의 참가자수 목표를 약 24만 7,000명으로 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새로운 목표 역시 달성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원의 공공회계 위원회는 NCS 프로그램의 참가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크게 절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⁴³⁾ 그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참가자 1인당 정부의 지출액은 평균 1,562파운드였고, 2016년에는 1인당 1,863파운드를 지출할 것으로 추산된다. 2017년 2월 교육부의

42) Third Sector (2017, 3, 8)

<https://www.thirdsector.co.uk/national-citizen-service-benefits-evaluation-published/volunteering/article/14266760>에서 2017년 9월 12일에 인출

43) Parliament.uk (2017, 3, 14). National Citizen Service: Forty-sixth Report of Session 2016-17, p. 11, p. 14.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617/cmselect/cmpubacc/955/955.pdf>에서 2017년 9월 4일 인출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2019년까지 한 해 약 19만 9,000명의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1인당 지출액을 약 1,649파운드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서비스 전달업체가 선정되고 프로그램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참가자당 지출액을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공공회계위원회는 NCS 트러스트 이사 및 직원들에 대한 보상(급여 및 연금 등)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1월 영국 국가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역시 NCS의 약점으로 비효율적인 경영 및 거버넌스를 지적했다. 감사원은 NCS트러스트가 비용통제를 우선과제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3) 미국의 ‘청소년을 위한 길(Pathways for Youth)’ 전략 계획

(1) 도입배경⁴⁴⁾

미국의 ‘청소년을 위한 길(Pathways for Youth: Strategic Plan for Federal Collaboration, 2016)’은 연방정부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전략적 계획으로, 행정부 내의 다부처 협의체인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한 부처합동 실무자그룹(Interagency Working Group on Youth Programs, 이하 IWGYP)이 마련했다. 동 계획은 청소년 사업의 결과를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청소년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여러 부처 및 에이전시들의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목적과 세부목표 및 전략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IWGYP가 동 계획의 실행을 지원하고 모니터링한다.

2000년대 중반 당시 로라 부시(Laura Bush) 영부인은 ‘미국 청소년에게 도움주기(Helping America's Youth)’라는 이니셔티브를 개시했다. 이는 위기 청소년들이 폭력단 가입이나 약물오용과 같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었고, 동 사업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한 부처합동 실무자그룹(IWGYP) 설립의 근간이 되었다. 2008년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IWGYP 설립을 위한 행정명령 ‘Pathways for Youth: Draft Strategic Plan

44) Youth.gov (2016. 12). Pathways for Youth: Strategic Plan for Federal Collaboration, p. 5.
http://youth.gov/sites/default/files/IWGYP-Pathways_for_Youth.pdf에서 2017년 8월 28일 인출
 Coordinating Council on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16. 6. 17). Meeting Summary, p. 5, p. 8.
https://www.juvenilecouncil.gov/materials/2016_06/Meeting_Minutes_CC_Meeting_June_2016.pdf에서 2017년 8월 29일 인출

for Federal Collaboration(2013)’에 서명했다.

IWGY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정부의 청소년 사업들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 및 사업의 결과를 개선하는 것이다. 2009년 미국 의회는 이러한 목적 하에 결성된 IWGY로 하여금 미국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전략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을 지원했다. 이에 IWGY는 청소년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최초의 프레임워크 마련’, ‘의견 수렴 프로세스 실시’, ‘초안 개발’ 등의 노력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길(Pathways for Youth)’을 개발했다. 당초 2013년에 초안인 ‘Pathways for Youth: Draft Strategic Plan for Federal Collaboration(2013)’을 발표했고, 이어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2016년 최종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길’(2016)을 발표했다.

(2) 현황 및 추진체계⁴⁵⁾⁴⁶⁾

‘청소년을 위한 길’은 청소년 사업의 파트너들로 하여금 공통의 목표들을 다루고, 청소년 프로그램 · 정책 · 기타지원 모델들을 강화하도록 하며, 미래 청소년 사업 분야에서 협력할 분야들을 규정한 전략 문서이다. 동 계획은 각각 그 중요성이 크고 서로 관련성이 있는 총 3개의 목적들과,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세부목표 및 세부전략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목적, 목표, 세부전략들의 달성을 위해 IWGY가 실행할 4개의 교차 이니셔티브들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길’은 청소년에 대한 강점기반의 비전(strengths-based vision for youth)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즉, 청소년들이 유의미한 관계들을 맺고, 또한 안전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장소에서 살고, 배우고,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요 목적과 세부목표들은 다음과 같다.

45) Youth.gov (2016. 12). Pathways for Youth: Strategic Plan for Federal Collaboration. p. 38.

http://youth.gov/sites/default/files/IWGY-Pathways_for_Youth.pdf에서 2017년 8월 30일 인출

Coordinating Council on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16. 6. 17). Meeting Summary. p. 9.

https://www.juvenilecouncil.gov/materials/2016_06/Meeting_Minutes_CC_Meeting_June_2016.pdf에서 2017년 8월 30일 인출

46) Youthpolicy.org

<http://www.youthpolicy.org/factsheets/country/united-states/>에서 2017년 9월 4일 인출

표 II-15 주요 목적과 세부목표들

주요 목적	세부 목표
목적1: 청소년 사업의 결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직화된 전략들을 촉진	목표1: 청소년 프로그램들에 대한 연방 가이드 조정 및 간소화 목표2: 연방/주/지역/집단 수준에서 청소년 프로그램 및 재정지원을 조정 목표3: 여러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노력을 조정
목적2: 연방/주/지역/집단 차원에서 증거기반의 혁신적 전략들의 활용을 촉진	목표1: 증거기반의 전략 채택을 장려하고 그 실행을 지원 목표2: 지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증거 기반을 강화하고 혁신을 지원
목적3: 청소년 프로그램과 그 혜택을 강화하는 파트너십과 청소년 참여를 촉진	목표1: 청소년-성인 파트너십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청소년 참여 노력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들을 강화 목표2: 연방/주/지역/집단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성장, 성취, 비판적사고(라이프스킬, 리더십 스킬 포함) 등을 위한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하고 장려

* 출처: youth.gov 웹사이트(http://youth.gov/sites/default/files/IWGYPathways_for_Youth.pdf) 내용 정리

동 계획에 제시된 목적과 목표, 그리고 세부전략들을 시행하기 위하여, IWGYP는 공동 노력이 필요한 4개의 협력분야들을 설정했다. 이러한 4개 분야는 다음과 같은 4개의 교차 이니셔티브들(Cross-cutting Initiatives)로 구체화되었다.

- 청소년 사업을 위한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원, 연방정부의 관련 발표, 그리고 연방정부 문서 등에서 청소년 관련 주제들에 사용할 수 있는 공유언어 개발
-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고 긍정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협업 모델들에 대한 평가 및 전파
- 청소년을 위한 유망한 증거기반의 전략들(유망한 청소년 참여 및 파트너십 전략 등)에 대한 정보의 중앙집중형 관리 및 전파
-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책 및 프로그램들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장기적 평가 촉진

‘청소년을 위한 길’ 전략 계획에 제시된 여러 목표와 전략들은 부처합동 실무자그룹(IWGYP)이 그 실행을 지원한다. IWGYP는 12개 정부부처와 7개 에이전시들로 구성된 다부처 협력체로, 위기 청소년 및 단절된 청소년(disconnected youth)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서비스가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조직체이다. 동 그룹은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주, 지역의 단체 및 학교 등과 연계되어 있다.

표 II-16 IWGYP 참여 부처 및 에이전시 목록

부처	에이전시
-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 상업부(U.S. Department of Commerce) - 법무부(U.S. Department of Defense) -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주택도시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내무부(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금융소비자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기구(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 마약통제국(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중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 사회보장국(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출처: youth.gov 웹사이트(http://youth.gov/sites/default/files/IWGYP-Pathways_for_Youth.pdf) 내용 정리

IWGYP의 주요 기능은 크게 ‘청소년 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와 민간·비영리 단체들과의 연계’, ‘연방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청소년 웹사이트 개설’,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지원’, ‘청소년 지원 활동의 협력 도모 및 프로그램 평가를 통한 개선 장려’, ‘대통령에 대한 연례 보고서 제출’ 등이다. 주요 활동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IWGYP는 연방정부의 청소년 웹사이트 ‘Youth.gov’⁴⁷⁾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동 사이트는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단체들에게 상호작용형 툴(tool)과 기타 자원을 제공한다.

47) 초기에는 ‘FindYouthInfo.gov’라는 이름으로 개설되었으나 2015년 명칭이 변경됨.

또한 ‘커뮤니티 파트너십 계획수립과 시행’, ‘효과적인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등을 지원한다.

‘YE4C.gov’는 연방정부의 청소년 웹사이트인 ‘Youth.gov’의 마이크로사이트(microsite)이다. 동 사이트는 16세~24세의 청소년들이 개인, 커뮤니티, 국가 수준에서 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온라인 웹사이트와 더불어 동명의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도 운영되고 있다. IWGYG가 2013년부터 개설해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⁴⁸⁾

- 청소년 및 청년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청소년 프로그램/정책/서비스의 개발에 참여하도록 장려
- 청소년-성인들 사이의 유의미한 파트너십 촉진
- 청소년 및 청년들과 연방 자원 공유
- 청소년 및 청년들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기회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연결

IWGYG는 청소년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커뮤니티 기반의 전략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Youth.gov’ 사이트 등을 통해 관련 전략, 툴, 자원들을 전달한다. ‘Youth.gov’ 사이트 내의 ‘Program Directory’ 메뉴는 관련 정보와 자원을 손쉽게 검색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 성과 및 발전방안⁴⁹⁾

청소년사범 및 비행방지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uncil on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의 회의기록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IWGYG 활동 및 ‘청소년을 위한 길’을 통해 청소년 서비스에 대한 공통의 비전과 계획을 개발하고, 관련 활동들을 연계하며, 파트너십을 개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IWGYG는 ‘청소년의 긍정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 접근법 하에서 청소년 웹사이트에서 관련 콘텐츠를 개발했고, 정부 에이전시들 사이에서 ‘청소년 긍정발달’의 정의를 통일했으며, ‘청소년 긍정발달’의 연구 아젠다를

48) https://www.facebook.com/pg/YouthEngaged4Change/about/?ref=page_internal에서 2017년 9월 1일 인출

49) Coordinating Council on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16. 6. 17). Coordinating Council on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Meeting. pp. 7-17.

https://www.juvenilecouncil.gov/materials/2016_06/June_2016_Meeting_CC_20160617.pdf에서 2017년 9월 4일 인출

발전시켰다.

향후 IWGYP는 청소년 긍정발달에 관한 자료들을 웹사이트 등을 통해 업데이트하고 연구 아젠다를 보다 널리 확산시키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전망이다.

3. 청소년활동 참여 및 효과 관련 연구 동향

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관련 조사연구 동향

2005년 청소년활동진흥법 발효 이후,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청소년활동에 대한 실태조사가 다수 이루어졌다⁵⁰⁾. 청소년활동 실태조사는 시의적절한 활동 프로그램 및 정책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뿐 아니라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최근에 수행된 전국단위의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 중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관련 영역이 조사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연구는,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4), 「2016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6)가 있다(<표 II-4>).

표 II-17 청소년활동 참여 관련 선행 실태조사

조사기관(연도)	조사명	조사대상	조사영역	연구자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초,중,고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별 참가현황 - 일상생활과 청소년활동	장근영 김기현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초4-초6 중1-중2 고1-고2	- 청소년활동을 여가활동, 체험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교류활동의 다섯 가지 하위유형으로 분류	이종원 장근영 김호순

50) 2012년까지의 선행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1차년도 연구 임희진, 송병국(2014) pp.45-49 참조

조사기관(연도)	조사명	조사대상	조사영역	연구자
정책연구원 (2007)			- 각 유형별 활동에 대한 참여경험과 횟수, 참여계기, 참여시기 및 기간, 활동 만족도 - 여가활동 참여, 청소년시설 이용경험, 주5일제 수업의 영향	
보건복지부, 한국청소년 진흥센터 (2008)	청소년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효과성 척도 개발 연구	11-16세	- 과학정보, 봉사, 문화예술 - 교류, 직업체험, 모험개척, 환경보존	임영식 문성호 정경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Ⅲ	중1-고3	- 배경(청소년인구/생활여건) - 투입(청소년 기관 및 프로그램/청소년지도사/청소년정책 재정) - 과정(청소년 활동/청소년 단체/청소년 복지/청소년 상담/청소년 교류/청소년 자원봉사/청소년 선도 및 교정/청소년 보호/학교교육)	임지연 최인재 김형주
보건복지 가족부 (2009)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 만족도 조사	11-16세	- 실태, 만족도, 효과성(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관심도, 스트레스 해소, 긍정적 사고, 단체활동 참여, 친구와의 관계, 학교선생님과의 관계, 학교생활의 즐거움, 학습의욕)	문성호 문호영 김용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09)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Ⅳ -아동·청소년 활동·문화지표-	초4-고3	- 청소년 활동(활동의식-활동가치, 활동태도/활동경험-집단활동, 봉사활동, 문화활동, 야외활동, 스포츠활동, 교류활동, 시설 이용) - 청소년 문화(문화의식-문화가치, 문화태도/문화경험-순수예술문화, 대중예술문화, 정보문화) - 청소년역량(정서적/인지적/사회적/시민적/직업적 역량)	임지연 김정주 김신영 김민
여성가족부 (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9-24세	- 사회문화(개인 활동 및 시설이용 경험/미디어, 인터넷) - 가정생활(부모님과의 활동/부모님의 대화/안전, 가정생활 만족도) - 학교생활 및 방과 후 활동 - 진로 및 아르바이트(향후 진로계획/진로교육 경험/진로체험 경험/장래 희망 직업/아르바이트 경험)	-

조사기관(연도)	조사명	조사대상	조사영역	연구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초6, 중2, 고2	- 체험활동참여(참여도/참여방식/체험 활동 장애요인 및 요구/관련시설 이용경험) - 정의적 특성(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자아존중감/내재적-외재적 동기/몰입/행복감) - 기타(학습활동참여)	김현철 임희진 정효진 민경석
여성가족부 (2014)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9-24세	- 청소년활동 참여경험,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 활동, 청소년활동 참여 만족도 등	유성렬 최창욱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6)	2016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중2-고3	- 세부 활동별 경험 여부, 세부 활동 별 만족도,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활동, 참여 장애요인 등	문성호 박승곤 윤동엽 정지윤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4b)에서는 전국의 9세~24세 청소년 3,000명을 대상으로 건강, 사회·문화, 가정생활, 학교생활 및 방과 후, 진로 및 아르바이트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중 청소년활동 관련 문항은 사회·문화 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청소년활동 영역은 크게 문화/예술 관련 활동, 과학/정보 관련 활동, 모험/개척 관련 활동, 자원봉사 관련 활동, 직업/진로 관련 활동, 정책참여 관련 활동, 국제교류 관련 활동, 건강/보건 관련 활동, 자기(인성)계발 관련 활동, 환경보존 관련 활동의 10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청소년활동은 문화/예술 관련 활동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도 문화/예술 관련 활동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절반 가량(50.6%)이 참여한 청소년활동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양육, 생활환경 등에 대해서도 파악하였다. 특히 청소년활동과 관련해서는 자녀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활동, 활동이 도움이 되는 이유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양육자들은 청소년(자녀)에게 필요한 활동 프로그램으로 자기(인성)계발 활동, 직업/진로 관련 활동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활동 프로그램이 청소년(자녀)에게 어떠한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계발'을 가장 많이 꼽았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3년 주기의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2017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2016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문성호 외, 2016)는 전국의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18,334명을 대상으로 세부 활동별 경험여부, 세부 활동별 만족도,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활동, 참여 장애요인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청소년활동은 건강증진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탐사활동, 문화예술활동, 자원봉사활동, 진로활동, 참여활동의 8개 청소년 활동영역과 34개 영역별 세부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활동이 건강증진활동이었고, 8개 청소년 활동영역 중 앞으로 가장 참여하고 싶은 영역 또한 건강증진활동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청소년활동의 만족도(5점 척도)는 평균 3.86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장애요인으로서는 시간부족이 가장 많았다. 다만 이 조사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시·도 센터를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지역별 요구를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으나 확률 표본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최근 청소년활동의 참여율과 참여에 대한 욕구가 건강보건활동과 문화예술 활동 영역에서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3차 년도 연구결과에서도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은 건강보건활동이 가장 높았고, 가장 큰 장애요인은 시간부족, 향후 가장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은 문화예술활동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들의 결과는 조사대상, 조사시점, 조사내용, 문항구성 및 응답방식 등의 차이로 분석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각 조사에서 청소년활동의 영역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와의 직접 비교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조사들의 공통기준 마련 및 통합을 위한 검토가 시급하다. 조사의 공통기준 마련 및 통합에 대한 검토는 본 연구의 5차 년도(2018년)에 다루어질 예정이다.

2) 청소년활동 참여 효과 관련 연구 동향

지금까지 청소년활동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어, 청소년활동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다만, 관련 연구들에서 청소년활동의 개념, 영역 등을 매우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고, 측정변수 및 도구 역시 다양하며, 연구대상, 연구방법 또한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분류하고 종합하는 데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와 영역으로 구분한 연구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선, 청소년활동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 중 강현주와 신인순(2015)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학교 1학년 패널의 4차년도 데이터로 청소년 체험활동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체험활동을 건강보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개발활동으로 보고, 각 영역별 참여경험(있음 1, 없음 0)의 총합으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 체험활동은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인식에 정적인 직접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 체험활동과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지역사회인식을 매개로한 간접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재철, 황매향, 김아영(2017)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학교 2학년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청소년 체험활동과 진로성숙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자아관과 내적 직업가치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진로활동, 수련활동, 자원봉사활동, 동아리활동으로 구성된 청소년 체험활동은 긍정적 자아관과 내적 직업가치관을 매개로 진로성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창욱과 신윤희(2012)는 중·고등학생 7,09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체험활동 경험에 따른 리더십생활기술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체험활동의 경험은 ‘없음’, ‘1~2번’, ‘3번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경제 및 직업체험활동, 봉사활동, 자치·참여활동, 동아리활동, 교류활동의 참여 경험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리더십생활기술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영역별 청소년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관우, 남진열(2011)은 9개의 영역별 체험활동 경험이 공동체의식, 학교생활적응(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1패널 1차년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봉사활동, 과학정보활동, 자기개발활동, 환경보존활동, 문화예술활동은 공동체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그리고 과학정보활동, 봉사활동은 교사관계에, 봉사활동, 과학정보활동, 문화예술활동, 직업체험활동은 학습활동에, 봉사활동, 환경보존활동, 과학정보활동은 학교규칙에, 봉사활동, 환경보존활동, 직업체험활동은 교우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아(2015)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4패널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체험활동(건강·보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생)개발활동), 여행활동, 문화활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과 지역을 통제하고 여행활동과 청소년체험활동 중 직업체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영역별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교류활동과 관련하여 김기현, 황세영, 강영배, 이경자(2015)는 10,50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제교류활동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이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글로벌 역량, 세계시민의

식, 다문화수용성 수준이 높게 추정되었다. 조남익, 김고은(2014)은 국제교류활동 참여 청소년 17명과 미참여 청소년 18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국제교류활동의 효과를 연구하고, 국제교류활동에의 참여가 청소년의 팀워크, 세계시민의식 수준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봉사활동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도종수(2011)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삶의 행복도에, 자원봉사활동 만족도가 삶의 행복도,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성은(2009)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중학교 2학년 데이터(3년차-5년차)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김현철, 백혜정, 이지연(2016)은 6,754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체험활동 실태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진로체험활동의 경험정도와 도움정도가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성심, 주석진(2010)은 활동 중심의 진로교육 집단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모험개척활동 관련연구로, 최경학, 문성호(2015)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의 탐험활동에 참여한 청소년과 미참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탐험활동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즉, 탐험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수준을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예술활동과 관련하여 김윤정과 고정민(2015)은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의 관람 및 참여활동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상의 결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선행 연구들에서 청소년활동이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진로성숙도, 주관적 행복감, 공동체의식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청소년활동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 III 장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개요

1. 조사개요
2. 조사대상
3. 조사도구
4. 분석방법
5. 표본설계

제 III 장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개요

1.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청소년활동 만족도,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17년 5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조사원이 대상학교를 방문하여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조사에 앞서 지역별로 조사원을 선발하여, 5월 12일부터 5월 17일 사이에 서울, 대전, 부산, 강원, 제주에서 조사개요, 조사 진행 시 유의사항, 문항별 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초(4~6학년)·중(1~3학년)·고등학교(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목표 표본 수는 9,000명이다.

2. 조사대상

조사대상자 8,773명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III-1>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자 청소년이 52.0%, 여자 청소년이 48.0%로 남녀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28.9%, 중학생이 32.3%, 고등학생이 38.8%로 조사되었으며,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42.0%,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40.0%,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18.0%로 확인되었다. 학업성적별로 살펴보면, 상위권에 속한 청소년이 33.8%, 중위권이 41.2%, 하위권이 24.9%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상 집단이 44.7%, 중 집단이 38.8%, 하 집단이 16.5%로 조사되었다.

표 Ⅲ-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8,773	100.0
성별	남자	4,563	52.0
	여자	4,210	48.0
학교급	초등학교	2,535	28.9
	중학교	2,832	32.3
	고등학교	3,406	38.8
지역규모	대도시	3,682	42.0
	중소도시	3,510	40.0
	읍면지역	1,582	18.0
학업성적	상	2,967	33.8
	중	3,615	41.2
	하	2,184	24.9
경제수준	상	3,917	44.7
	중	3,394	38.8
	하	1,446	16.5

3. 조사도구⁵¹⁾

1) 조사문항 개발절차 및 구성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는 2014년 1차년도 연구를 시작으로 총 5년간 진행되며, 올해가 4차년도 연구에 해당된다. 2017년 조사문항은 문헌검토, 연구진회의 그리고 내·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차년도 설문문항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확정하였다. 즉, 1~4차년도 조사결과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전년도 설문문항을 대부분 그대로 활용하였다. 다만 응답자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문항 간 이동경로 및 문항예시 추가, 중복문항 삭제 등 조사표

51) 이 부분은 3차년도 연구인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Ⅲ(최창욱 외, 2016)의 '조사도구'(pp. 42-50)를 재인용한 후 수정·보완하였음.

일부를 수정·보완하였다(〈표 III-2〉). 조사표는 본원 IRB 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다.

표 III-2 2017년도 조사표 수정내용

조사표	의견	수정내용
문항 간 이동경로	· 응답 경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문 필요	· 문항 간 이동경로에 대한 안내문 추가 · 문10-1~7의 '⑩ 참여한 적 없음', '⑩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 삭제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 설문지 이해도 제고를 위해 청소년 참여활동 예시 필요	· 청소년참여활동* 예시 추가 * 청소년참여활동: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 등
성별	· '2017년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 설문지 표지에 성별문항 포함	· 배경문항의 성별문항을 설문지 표지로 이동
연령	· 만 나이를 잘못 기입할 가능성 · 학년 파악 가능	· 연령문항 삭제
학업성적 경제수준	· Likert 척도 수정 필요	· '매우 낮은 수준'~'매우 높은 수준'으로 척도 수정

2017년 조사문항은 〈표 III-3〉과 같다.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영역에서는 먼저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을 살펴보았으며, 이 중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청소년활동 지원정도,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청소년활동 장애요인을 확인하였다. 이후 모든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 청소년활동 희망 장소, 청소년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 청소년 여가시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정의적 특성' 영역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행복감, 공동체意識, 리더십생활기술을, '배경변인' 영역에서는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수준, 성별 등을 조사하였다.

표 III-3 2017년도 조사문항 구성

조사 영역	조사내용		문항	
			문항수	문항번호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건강·보건활동	8	문1, 문1-1(1~7)
		과학정보활동	7	문2, 문2-1(1~6)
		교류활동	5	문3, 문3-1(1~4)
		모험개척활동	6	문4, 문4-1(1~5)
		문화예술활동	9	문5, 문5-1(1~8)
		봉사활동	8	문6, 문6-1(1~7)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6	문7, 문7-1(1~5)
		환경보존활동	7	문8, 문8-1(1~6)
		자기(인성)계발활동	5	문9, 문9-1(1~4)
	청소년활동 만족도		5	문10-1(1~5)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1	문10-2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1	문10-3
	청소년활동 지원정도		4	문10-4(1~4)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1	문10-5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1	문10-6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1	문10-7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		1	문11
	청소년활동 희망 장소		1	문12
	청소년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		1	문13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1	문14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1	문15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10	문16(1~10)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		9	문17(1~9)
	청소년 여가시간		3	문18(1~3)
정의적 특성	자아존중감		10	문19(1~10)
	진로성숙도		7	문20(1~7)
	행복감		7	문21(1~6), 문21(7)
	공동체의식		4	문22(1~4)
	리더십생활기술		30	문23(1~10), 문24(1~10), 문25(1~10)
배경변인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수준, 성별 ¹⁾		3	배경문항1~2

* 출처: 최창욱 외(2016).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Ⅲ. pp. 44-45. 수정

* 주: 설문지 표지로 이동하여 조사(2017년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 설문지 표지에 성별문항 포함)

2) 조사내용

(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①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 영역별 세부 활동들의 참여여부와 참여빈도를 질문하였다. 청소년활동 영역은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분류(여성가족부, 2014a)를 참고로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개발활동’의 9가지로 구분하였다. 영역별 세부 활동 역시 인증수련활동의 활동 예시(여성가족부, 2014a)를 참고로 재구성하였으며, 추가로 ‘문화예술활동’의 세부 활동은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2)를 참고로 문화예술행사를 분류한 임희진, 송병국(2014)의 설문문항을 참고하였다.

표 III-4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설문형태

교류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청소년국제교류활동	①	②	③	④
(2) 도농(도시-농촌)간 청소년교류활동	①	②	③	④
(3) 다문화 및 국제이해활동	①	②	③	④
(4) 기타()	①	②	③	④

② 청소년활동 만족도

청소년활동 만족도는 최근 1년간 참여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의 총 5문항으로 확인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사문항은 문성호, 문호영, 김용대(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③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는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에 대해 ‘아주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사문항은 최창욱, 전명기(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④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은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발전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였는지에 대해 ‘전혀 기대한 것이 없다’ ~ ‘아주 기대가 컸다’의 5점 Likert 척도로 확인하였다. 조사문항은 최창욱, 전명기(2013)의 연구에서 활용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⑤ 청소년활동 지원정도

청소년활동 지원정도는 최근 1년간 참여한 청소년활동에 대해 주변 사람들(부모님 혹은 보호자, 학교 선생님, 친구, 청소년지도자)이 얼마나 도와주거나 지원해 주었는지에 대해 ‘전혀 지원이 없다’ ~ ‘매우 지원이 많다’의 5점 Likert 척도로 확인하였다. 조사문항은 김현철, 최창욱, 민경석(2010)의 연구를 참고로 재구성하였다.

⑥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최근 1년간 주로 어떤 형태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9가지 항목(학교에서 단체로 참여,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참여, 교내-교외 연계활동으로 참여, 청소년단체활동으로 참여, 온라인동아리활동으로 참여, 종교활동으로 참여, 개인적으로 참여, 가족과 함께 참여) 중에 하나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문항은 김현철, 임희진, 정효진, 민경석(2013)의 연구를 참고하여 개발한 임희진, 송병국(2014)의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⑦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최근 1년간 주로 어떤 경로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였는지에 대해 7가지 항목(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지도자의 권유로, 홍보 및 게시판의 정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인터넷 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기타) 중에 하나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문항은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4b)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을 활용하였다.

⑧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때 가장 방해가 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9가지 항목(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참가비용이 부담돼서,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같이 참여할 친구가 없어서, 기타) 중에 하나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문항은 임지연, 김정주, 김신영, 김민(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한 임희진, 송병국(2014)의 설문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⑨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가 언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5가지 항목(방과 후, 주말, 학교 수업시간 중, 방학기간, 기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문항은 문성호, 윤동엽, 박승곤, 정지운(2014)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⑩ 청소년활동 희망 장소

청소년활동을 어떤 장소에서 참여하고 싶은지를 살펴보기 위해 5가지 항목(학교, 청소년시설, 문화시설, 야외, 기타) 중에 하나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문항은 김현철 외(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⑪ 청소년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

청소년활동에 참여한다면 누구와 함께 참여하고 싶은지를 알아보기 위해 5가지 항목(혼자, 친구, 가족, 선·후배, 기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문항은 오해섭, 맹영임, 문호영(2014)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⑫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청소년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9가지 항목(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청소년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 청소년활

동 참가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기타) 중에 하나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문항은 임지연 외(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한 임희진, 송병국(2014)의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⑬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에 대해 10가지 항목(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 청소년참여활동) 중에 희망하는 활동 3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⑭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최근 1년간의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여부 및 빈도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도서관’, ‘공연 및 전시시설’, ‘사회복지관’, ‘수목원·수목림·자연 휴양림’, ‘주민센터·문화센터’의 10개 시설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조사문항은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여성가족부, 2012)를 참고하여 개발한 임희진, 송병국(2014)의 설문문항과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4b)의 설문문항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다.

표 III-5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설문형태

구분	이용한 적 없음	이용한 적 있음			
		1~2번	3~5번	6~9번	10번 이상
(1) 청소년수련관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수련원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문화의집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야영장	①	②	③	④	⑤
(5) 유스호스텔	①	②	③	④	⑤

⑮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9가지 청소년활동정책(청소년수련 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어울림마당(청소년문화존),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에 대해 ‘전혀 모른다’ ~ ‘잘 알고 있다’의 3점 Likert 척도로 조사하였다. 문항은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4b)의 설문문항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다.

⑯ 청소년 여가시간

최근 1년간 하루 평균 여가시간(식사시간, 취침, 학교수업, 학교숙제, 학원·과외 등의 시간을 제외한 자유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평일’, ‘휴일’, ‘방학 중’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조사문항은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4)와 ‘2009 한국 아동·청소년 온라인게임 및 가족여가활동실태조사’(이기봉, 2010)를 참고로 재구성하였다.

표 III-6 **청소년 여가시간 설문형태**

(1)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방학제외)	평일 하루 평균		시간
(2) 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방학제외)	휴일 하루 평균		시간
(3) 방학 중 하루 평균 여가시간	방학 중 하루 평균		시간

(2) 정의적 특성

①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조사하기 위해 Rosenberg(196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10문항이며, 5개의 역 문항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역 문항은 역 채점)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임희진, 송병국, 2014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5점 Likert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850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7 자아존중감 설문문항

자아존중감 설문문항	역 문항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내가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잘할 수 있다	
(5) 나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8)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 출처: 임희진, 송병국(2014).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p. 66. 수정

②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중2 패널 문항을 활용하였다(이경상, 조혜영, 2004). 척도는 총 7문항이며, 모두 역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문항을 역 채점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808로 나타났다.

표 III-8 진로성숙도 설문문항

진로성숙도 설문문항1)	역 문항
(1) 향후 진로설정과 관련하여,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적성 및 소질)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한다	○
(2) 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
(3) 향후 진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가보고 싶은 진로가 너무 많아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들다	○
(4) 나는 현재, 내가 가보고 싶은 향후 진로가 자주 바뀐다	○
(5) 나는 현재, 향후 진로설정에 대해 나와 부모님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
(6) 미래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향후 진로를 미리 설정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
(7) 나는 현재, 나의 향후 진로설정에 있어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더 따르는 편이다	○

* 출처: 1) 이경상, 조혜영(2004).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II - 조사개요보고서. pp. 292-293.

③ 행복감

행복감은 ‘주관적 행복’ 6문항(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0)에 단일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임희진, 송병국, 2014).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행복 6문항만을 사용하여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감을 확인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에서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역 문항은 역 채점)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810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9 행복감 설문문항

행복감 설문문항	역 문항	비고
(1)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주관적 행복
(2) 나는 학교생활을 좋아한다		
(3) 나의 삶에 만족한다		
(4)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		
(5) 나는 주변사람과 잘 어울린다		
(6)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외롭다	○	단일 문항
(7)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나는 행복하다		

* 출처: 임희진, 송병국(2014).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p. 68. 수정

④ 공동체의식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공동체의식 4개 문항(4점 Likert 척도)을 활용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척도의 Cronbach's Alpha는 .802로 확인되었다.

표 III-10 공동체의식 설문문항

공동체의식 설문문항
(1)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2)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3)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4)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제1~5차 조사 코드북: 제5회 학술대회용.
http://archive.nypi.re.kr/brdarticle/boardarticleList.do?brd_id=BDIDX_k9Fd9oFi29nooCcJ7kX114&srch_ctgry_idx=CTIDX00043&menu_nix=qZc474Ak에서 2016년 3월 14일 인출.

⑤ 리더십생활기술

Dormody & Seevers(1994), Morris(1996), Seevers & Dormody(1995), Seevers, Dormody & Clason(1995), Wingenbach(1995) 등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재구성한 최창욱(2001)의 리더십 생활기술 척도(30문항)를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리더십생활기술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Cronbach's Alpha는 .967로 나타났다.

표 III-11 리더십생활기술 설문문항

리더십생활기술 설문문항	
(1)	나는 내가 속한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잘 결정할 수 있다
(2)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3)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편이다
(4)	나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 목표설정을 잘 하는 편이다
(5)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진실한 마음을 가진다
(6)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안다
(7)	나는 어떤 일을 행할 때 각 구성원에게 책임을 맡기는 편이다
(8)	나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을 처리한다
(9)	나는 다른 사람에게 대단히 호의적인 편이다
(10)	나는 어떤 지식이든지 배울 자세가 되어 있다
(11)	나는 어떤 일을 행할 때 다른 사람의 요구를 잘 고려한다
(12)	나는 어떠한 일에도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13)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 친근한 성품의 소유자다
(14)	나는 내가 속한 집단 성원들이 제기한 요구사항을 잘 수용한다
(15)	나는 타인의 말을 주의깊게 듣는 편이다
(16)	나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 적절한 것을 잘 선택하는 편이다
(17)	나는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8)	나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집단의 분위기를 잘 조성한다
(19)	나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려한다
(20)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21)	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22)	나는 내가 한 실수를 잘 수습하는 편이다
(23)	나는 매사에 재치 있게 일을 처리하는 편이다
(24)	나는 일처리 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25)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화합하는 편이다
(26)	나는 나의 주장이나 생각을 타인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27)	나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편이다
(28)	나는 어떠한 변화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
(29)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매너가 좋다고 생각한다
(30)	나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편이다

* 출처: 최창욱(2001).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pp. 123-124.

4. 분석방법⁵²⁾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의 결과분석은 빈도분석과 배경변인별 χ^2 검증, t 검증, ANOVA(사후 검증 Scheffe)를 실시하였다. 배경변인으로는 성별(남자, 여자), 학교급(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학업성적(상, 중, 하), 경제수준(상, 중, 하)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과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주관적 행복감’, ‘공동체의식’, ‘리더십생활기술’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분석들은 $\alpha.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5. 표본설계⁵³⁾

1) 모집단 분석

(1) 모집단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2) 모집단 분석

먼저 16개 광역 시도별, 학교급별, 학년별 학생수를 <표 III-12>과 <표 III-13>에 정리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학생수는 4,480,064명이며 각 학교급별 학생수는 초등학교 1,294,448명(28.9%),

52) 이 부분은 3차년도 연구인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Ⅲ(최창욱 외, 2016)의 ‘분석방법’(pp. 50-51)을 재인용한 후 수정·보완하였음.

53) 이 부분은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집필하였음. 표본설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7년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2개의 과제가 동일한 표본설계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함.

중학교 1,446,158명(32.3%), 고등학교 1,739,458명(38.8%)이다.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수 및 학생수 분포는 <표 III-13>~<표 III-17>에 정리되어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유형과 학제를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등학교의 유형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유형 1(일반고): 일반고 중 일반, 종합고등학교
- 유형 2(자율고): 자율고 중 일반고등학교
- 유형 3(특성화고): 가사, 공업, 농림업, 상업, 수산, 실업, 해양고등학교, 특성화고(대안교육), 특수목적고 중 예술, 체육고등학교
- 유형 4(특수목적고): 과학, 국제, 외국어고등학교

표 III-12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수, 학교수

구분	학생수						학교수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70,708	68,129	75,042	77,246	75,825	85,351	599	599	599	383	383	384
경기	117,953	111,629	120,864	124,017	119,626	134,501	1,225	1,231	1,232	619	618	618
인천	24,759	23,893	25,559	26,894	25,846	29,436	245	243	246	134	134	133
강원	12,224	12,375	13,245	13,750	14,040	15,835	330	331	335	162	162	162
충북	13,393	13,089	14,157	14,476	14,579	16,753	268	262	262	126	128	128
충남	21,409	20,216	21,543	21,889	21,068	23,989	434	432	433	205	205	205
대전	13,919	13,371	14,729	15,259	15,058	16,896	147	147	147	88	88	88
경북	20,205	19,814	21,068	22,220	22,086	25,577	395	395	411	280	282	281
경남	29,448	28,328	30,630	31,552	31,187	35,826	482	489	491	268	267	267
부산	24,101	23,670	25,849	27,529	27,047	31,404	308	308	308	172	172	172
대구	20,117	20,241	21,816	23,721	22,937	26,789	224	224	224	125	123	123
울산	10,406	10,027	10,744	11,277	10,851	12,946	118	118	118	63	62	62
전북	15,576	15,669	16,841	17,856	18,128	20,542	386	385	392	209	209	209
전남	14,906	14,445	15,781	16,490	16,833	19,323	416	417	415	252	247	253
광주	14,462	13,949	15,455	16,483	16,067	18,639	154	154	154	90	90	89
제주	6,293	6,071	6,330	6,729	6,467	7,318	114	112	114	45	45	44
합계	429,879	414,916	449,653	467,388	457,645	521,125	5,845	5,847	5,881	3,221	3,215	3,218

* 주: 세종은 충남에 포함

표 III-13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65,860	63,802	67,413	13,841	13,484	12,487	18,608	18,041	18,029	2,012	2,120	2,116
경기	122,431	117,272	117,980	3,888	3,732	4,047	19,812	19,665	20,195	2,589	2,551	2,459
인천	21,917	21,580	22,015	2,058	1,971	1,723	7,524	7,271	7,407	829	756	713
강원	13,893	13,806	14,277	155	151	155	3,560	3,207	3,378	185	214	173
충북	11,284	10,838	11,187	1,576	1,528	1,586	5,209	5,108	5,368	243	240	200
충남	18,465	17,414	17,060	2,160	2,216	2,184	6,170	5,873	6,017	438	438	316
대전	12,261	11,895	12,563	2,673	2,599	2,590	3,709	3,490	3,618	431	427	398
경북	20,163	19,817	19,592	2,741	2,699	2,600	6,664	6,383	6,467	223	224	176
경남	30,401	29,858	30,404	2,793	2,703	2,707	5,436	5,338	5,568	521	548	449
부산	21,563	21,173	22,202	3,518	3,515	3,566	8,763	8,668	8,666	1,137	1,174	1,126
대구	17,926	18,184	18,413	5,542	5,491	5,698	6,627	6,295	6,269	326	321	277
울산	10,398	10,331	10,608	1,022	1,047	939	3,027	2,956	3,243	239	253	214
전북	17,211	16,686	17,227	1,029	966	950	5,174	5,011	5,169	225	207	189
전남	13,655	13,374	13,514	2,228	2,176	2,234	6,226	6,133	6,246	212	208	165
광주	15,478	14,948	15,370	1,114	1,105	1,094	4,174	4,110	4,262	95	93	94
제주	5,294	4,967	4,927	232	231	225	2,235	2,153	2,129	142	136	119
합계	418,200	405,945	414,752	46,570	45,614	44,785	112,918	109,702	112,031	9,847	9,910	9,184

* 주: 세종은 충남에 포함

표 III-14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186	186	186	41	41	41	81	81	81	10	10	10
경기	362	353	344	13	13	13	82	82	82	13	13	13
인천	80	79	79	8	8	7	31	31	31	6	5	5
강원	86	86	86	1	1	1	28	28	27	2	2	2
충북	46	46	46	6	6	6	29	29	29	2	2	2
충남	67	67	67	9	9	9	38	38	38	2	2	2
대전	38	38	38	7	7	7	14	14	14	3	3	3
경북	9	9	5	1	1	1	1	1	1	2	2	1
경남	117	117	118	12	12	11	56	56	58	3	3	3
부산	138	138	137	10	10	10	39	39	39	4	4	4
대구	81	81	80	14	14	14	41	42	42	7	7	7
울산	50	50	50	17	17	17	22	22	22	3	3	3
전북	37	36	35	4	4	4	13	13	13	2	2	2
전남	94	94	93	3	3	3	34	34	34	2	2	2
광주	78	78	78	8	8	8	55	55	55	2	2	2
제주	46	46	46	4	4	4	16	16	16	1	1	1
합계	17	17	17	1	1	1	10	10	10	2	2	2

* 주: 세종은 충남에 포함

표 III-15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남학생수			여학생수			남학생수			여학생수		
	4학년	5학년	6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6,396	35,147	38,612	34,312	32,982	36,430	40,135	39,515	44,429	37,111	36,310	40,922
경기	60,571	57,454	62,084	57,382	54,175	58,780	64,107	62,074	69,775	59,910	57,552	64,726
인천	12,788	12,233	13,141	11,971	11,660	12,418	13,803	13,348	15,172	13,091	12,498	14,264
강원	6,305	6,407	6,900	5,919	5,968	6,345	7,113	7,335	8,290	6,637	6,705	7,545
충북	6,836	6,803	7,415	6,557	6,286	6,742	7,538	7,666	8,714	6,938	6,913	8,039
충남	11,050	10,340	11,054	10,359	9,876	10,489	11,302	11,019	12,301	10,587	10,049	11,688
대전	7,204	6,945	7,603	6,715	6,426	7,126	7,864	7,874	8,858	7,395	7,184	8,038
경북	10,564	10,273	11,126	9,641	9,541	9,942	11,700	11,720	13,468	10,520	10,366	12,109
경남	15,260	14,733	16,166	14,188	13,595	14,464	16,679	16,437	18,937	14,873	14,750	16,889
부산	12,404	12,269	13,275	11,697	11,401	12,574	14,385	14,110	16,370	13,144	12,937	15,034
대구	10,430	10,625	11,432	9,687	9,616	10,384	12,484	12,307	14,103	11,237	10,630	12,686
울산	5,433	5,283	5,665	4,973	4,744	5,079	5,996	5,700	6,901	5,281	5,151	6,045
전북	8,000	8,231	8,691	7,576	7,438	8,150	9,185	9,585	10,513	8,671	8,543	10,029
전남	7,608	7,390	8,232	7,298	7,055	7,549	8,548	8,771	10,097	7,942	8,062	9,226
광주	7,486	7,224	8,022	6,976	6,725	7,433	8,648	8,372	9,655	7,835	7,695	8,984
제주	3,299	3,226	3,356	2,994	2,845	2,974	3,541	3,489	3,861	3,188	2,978	3,457
합계	221,634	214,583	232,774	208,245	200,333	216,879	243,028	239,322	271,444	224,360	218,323	249,681

* 주: 세종은 충남에 포함

표 III-16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2,923	31,620	33,808	9,561	9,340	8,639	8,564	8,333	8,192	755	811	749
경기	63,537	60,497	60,980	1,865	1,768	1,977	10,821	10,732	10,774	837	832	869
인천	11,271	11,256	11,437	1,205	1,206	1,026	3,882	3,765	3,828	391	338	289
강원	6,981	6,792	7,114	86	80	86	2,372	2,119	2,225	81	104	84
충북	5,634	5,363	5,559	911	889	929	2,939	2,878	3,001	89	88	79
충남	9,263	8,800	8,594	1,224	1,282	1,223	3,629	3,456	3,461	190	187	106
대전	5,717	5,660	5,904	1,909	1,853	1,836	2,093	1,979	2,105	176	185	171
경북	9,836	9,538	9,418	1,730	1,767	1,694	4,339	4,185	4,148	99	116	84
경남	14,801	14,336	14,558	2,200	2,167	2,225	3,553	3,439	3,577	228	218	151
부산	10,740	10,510	11,262	1,967	1,929	2,028	5,339	5,357	5,262	459	505	459
대구	8,886	8,779	9,235	2,959	3,009	3,183	4,161	3,988	3,865	182	166	157
울산	5,299	5,209	5,509	564	574	481	1,847	1,844	1,964	89	102	81
전북	8,229	7,949	8,307	897	837	822	3,149	3,041	3,121	78	81	54
전남	6,372	6,205	6,175	1,659	1,620	1,653	3,592	3,586	3,609	91	88	61
광주	7,785	7,411	7,746	699	679	657	2,314	2,236	2,266	82	80	73
제주	2,774	2,615	2,611	0	0	0	1,226	1,215	1,181	53	57	49
합계	210,048	202,540	208,217	29,436	29,000	28,459	63,820	62,153	62,579	3,880	3,958	3,516

* 주: 세종은 충남에 포함

표 Ⅲ-17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수

구분	유형 1(일반고)			유형 2(자율고)			유형 3(특성화고)			유형 4(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2,937	32,182	33,605	4,280	4,144	3,848	10,044	9,708	9,837	1,257	1,309	1,367
경기	58,894	56,775	57,000	2,023	1,964	2,070	8,991	8,933	9,421	1,752	1,719	1,590
인천	10,646	10,324	10,578	853	765	697	3,642	3,506	3,579	438	418	424
강원	6,912	7,014	7,163	69	71	69	1,188	1,088	1,153	104	110	89
충북	5,650	5,475	5,628	665	639	657	2,270	2,230	2,367	154	152	121
충남	9,202	8,614	8,466	936	934	961	2,541	2,417	2,556	248	251	210
대전	6,544	6,235	6,659	764	746	754	1,616	1,511	1,513	255	242	227
경북	10,327	10,279	10,174	1,011	932	906	2,325	2,198	2,319	124	108	92
경남	15,600	15,522	15,846	593	536	482	1,883	1,899	1,991	293	330	298
부산	10,823	10,663	10,940	1,551	1,586	1,538	3,424	3,311	3,404	678	669	667
대구	9,040	9,405	9,178	2,583	2,482	2,515	2,466	2,307	2,404	144	155	120
울산	5,099	5,122	5,099	458	473	458	1,180	1,112	1,279	150	151	133
전북	8,982	8,737	8,920	132	129	128	2,025	1,970	2,048	147	126	135
전남	7,283	7,169	7,339	569	556	581	2,634	2,547	2,637	121	120	104
광주	7,693	7,537	7,624	415	426	437	1,860	1,874	1,996	13	13	21
제주	2,520	2,352	2,316	232	231	225	1,009	938	948	89	79	70
합계	208,152	203,405	206,535	17,134	16,614	16,326	49,098	47,549	49,452	5,967	5,952	5,668

* 주: 세종은 충남에 포함

2) 표본설계

(1) 표본크기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방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층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임의추출의 상황 하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 d 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s)^2}{Nd^2 + (zs)^2}$$

여기에서 N 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 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이며, z 은 신뢰계수이다(신뢰수준 95% 하에서 $z = 1.96$ 이다).

조사내용이 비율인 경우에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크기는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 z^2 p q}{N d^2 + z^2 p q}$$

여기에서 p 는 비율의 값이며 $q = 1 - p$ 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 표본추출 단위가 학교이고 추출된 학교에서 표본학급을 선정하여 해당 학급의 모든 학생을 조사하는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사용할 것이므로, 목표오차를 실제로 d 이하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산출한 값보다 표본크기를 더 크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사에 따른 소요비용과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9,000명(초등학교: 2,600명, 중학교: 2,905명, 고등학교: 3,494명)으로 결정되었다. 이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pm 1.0\%p$ 이다. 층화집락추출의 상황 하에서의 실제 표본오차는 이보다 조금 더 크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충분히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2) 층화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모집단을 2016년 12월 교육통계DB 기준의 전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지역구분과 학교구분을 층화변수로 고려한다. 즉, 층화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구분: 광역 시도 (16개, 세종은 충남에 포함)
- 학교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6개)
- 학년 (3개)

단, 고등학교 중 유형 2(자율고)와 유형 3(특성화고)은 광역시도별로 층화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묶어서 층화한다. 또한 유형 4(특수목적고)는 지역별 층화를 수행하지 않는다.

표 III-18 학교급×학년별 모집단 크기, 목표 표본크기

학교급		학년	모집단크기		단순비례배분 목표 표본크기		변형비례배분 예상 표본크기	
초등학교	초등학교	4	429,879	1,294,448 (28.9%)	2,600 (28.9%)		2,520 (28.0%)	
		5	414,916					
		6	449,653					
중학교	중학교	1	467,388	1,446,158 (32.3%)	2,905 (32.3%)		2,772 (30.7%)	
		2	457,645					
		3	521,125					
고등학교	유형 1 (일반고)	1	418,200	1,238,897 (27.7%)	2,489 (27.7%)	3,494 (38.8%)	2,511 (27.9%)	3,723 (41.3%)
		2	405,945					
		3	414,752					
	유형 2 (자율고)	1	46,570	136,969 (3.1%)	275 (3.1%)	3,494 (38.8%)	450 (5.0%)	
		2	45,614					
		3	44,785					
	유형 3 (특성화고)	1	112,918	334,651 (7.5%)	672 (7.5%)	3,494 (38.8%)	624 (6.9%)	
		2	109,702					
		3	112,031					
	유형 4 (특수 목적고)	1	9,847	28,941 (0.6%)	58 (0.6%)	3,494 (38.8%)	138 (1.5%)	
		2	9,910					
		3	9,184					
합계				4,480,064 (100.0%)	9,000 (100.0%)		9,015 (100.0%)	

표 III-19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430	479	396	45	195	59
경기	704	760	719	67	85	
인천	149	165	132			
강원	76	88	84	45	96	
충북	82	92	67			
충남	126	135	107			
대전	84	95	74			
경북	123	140	120	74	229	
경남	178	198	182			
부산	148	173	130			
대구	125	148	110			
울산	63	70	63	44	67	
전북	97	114	103			
전남	91	106	81			
광주	88	103	92			
제주	38	41	31	275	672	59
합계	2,600	2,905	2,489			

* 총계: 9,000명

표 III-20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17.9	17.1	12.8	1.5	7.5	2.6
경기	29.3	27.1	23.2	2.2	3.3	
인천	6.2	5.9	4.3			
강원	3.2	3.1	2.7	1.5	3.7	
충북	3.4	3.3	2.2			
충남	5.3	4.8	3.5			
대전	3.5	3.4	2.4			
경북	5.1	5.0	3.9	2.5	8.8	
경남	7.4	7.1	5.9			
부산	6.2	6.2	4.2			
대구	5.2	5.3	3.5			
울산	2.6	2.5	2.0	1.5	2.6	
전북	4.0	4.1	3.3			
전남	3.8	3.8	2.6			
광주	3.7	3.7	3.0			
제주	1.6	1.5	1.0			
합계	108.3	103.8	80.3	9.2	25.8	2.6

* 총계: 330.0개

표 III-21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15(5)	15(5)	12(4)	3(1)	6(2)	6(2)
경기	30(10)	27(9)	24(8)	3(1)	3(1)	
인천	6(2)	6(2)	3(1)			
강원	3(1)	3(1)	3(1)	3(1)	3(1)	
충북	3(1)	3(1)	3(1)			
충남	6(2)	3(1)	3(1)			
대전	3(1)	3(1)	3(1)			
경북	6(2)	6(2)	3(1)	3(1)	9(3)	
경남	6(2)	6(2)	6(2)			
부산	6(2)	6(2)	3(1)			
대구	6(2)	6(2)	3(1)			
울산	3(1)	3(1)	3(1)	3(1)	3(1)	
전북	3(1)	3(1)	3(1)			
전남	3(1)	3(1)	3(1)			
광주	3(1)	3(1)	3(1)			
제주	3(1)	3(1)	3(1)			
합계	105(35)	99(33)	81(27)	15(5)	24(8)	6(2)

*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수임. 총계: 330(110)개

표 III-22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서울	360	420	372	90	156	138
경기	720	756	744	90	78	
인천	144	168	93			
강원	72	84	93	90	78	
충북	72	84	93			
충남	144	84	93			
대전	72	84	93			
경북	144	168	93	90	234	
경남	144	168	186			
부산	144	168	93			
대구	144	168	93			
울산	72	84	93	90	78	
전북	72	84	93			
전남	72	84	93			
광주	72	84	93			
제주	72	84	93			
합계	2,520	2,772	2,511	450	624	138

* 총계: 9,015명

(3) 표본배분

학생수에 단순비례하도록 지역구분×학교급=59개 각 층에 표본크기를 할당하면 <표 III-19>와 같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한 학년, 한 학급을 선정하여 조사하되 선정된 학급에 속한 학생들을 모두 조사할 것이므로, 각 층에 할당된 표본크기를 각 층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로 나누면 <표 III-20>과 같이 조사될 학교수가 할당된다. 결론적으로 총 330개 정도의 학교가 조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각 층에 단순비례배분으로 표본을 할당할 경우 특정한 층에 너무 작은 표본크기가 배당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전라 지역의 자율고 고등학교에 44명(학년당 약 15명)의 표본이 배당되는데, 이 경우 한 학교를 방문하여 이렇게 소수의 표본만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한 학급 전체를 조사할 계획이므로 실제로는 학년당 약 30명의 학생이 조사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표본크기가 목표한 것보다 커지게 된다. 아니면 전라 지역의 자율고에 대해서는 한 학급에서 15명만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즉, 목표보다 표본크기가 커지는 것을 허용하든가 아니면, 다른

층에서 일부 표본크기를 줄여서 변형비례배분 형태의 표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표 III-18>에서 볼 수 있듯이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여도 단순비례배분에 비하여 각 층의 표본크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 하에 학교수 및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59개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가 할당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 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수를 할당하되 조사될 예상 학생수가 9,000명을 넘도록 한다.

조사모집단의 전국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대략 초등학교 24명, 중학교 28명, 고등학교 일반고(유형 1) 31명, 자율고(유형 2) 30명, 특성화고(유형 3) 26명, 특수목적고(유형 4) 23명이다. 따라서 지역구분×학교급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표본크기를 배분하되, 위의 원칙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완함으로써 각 층별 조사될 학교수를 결정하고 예상되는 조사 학생수를 계산하면 <표 III-21> 및 <표 III-22>와 같다.

(4) 표본추출

각 학교구분과 지역구분별로 할당된 표본학교의 추출은 <표 III-21>에 주어진 표본배분 결과를 이용하여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한다. 즉,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59개 층 내에서 조사대상 학생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되, 각 학년별 학급수가 2개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조정한다. 또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한다. 그리고 선정된 표본학교 내에서 각 학년별 1개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조사한다.

추출된 학교 층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층 내의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대체한다. 또한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며, 지역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하여 최종 조사될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한다.

(5) 성별 사후층화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및 학급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사 시에는 성별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 즉, 성별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지만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시 성별을 고려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성별 분포가 모집단 분포와 다르게 조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후층화가중치를 통해 표본에서의 성별 분포의 편향을 조정하고자 한다.

3) 가중치와 모수추정

(1) 가중치

본 조사의 표본추출은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법이라 할 수 있으며 학교구분과 지역구분을 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각 층에서 일차추출단위인 학교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고 추출된 표본학교에서는 학급을 랜덤하게 선정한 후에 학생을 조사하므로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학생을 랜덤하게 선정하여 조사하는 이단집락추출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표본추출률을 아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f_{hij} = n_h \frac{B_{hi}}{\sum_{i=1}^{N_h} B_{hi}} \cdot \frac{n_{hi}}{B_{hi}} = n_h \frac{n_{hi}}{\sum_{i=1}^{N_h} B_{hi}}$$

여기에서 N_h 는 h 층에 속한 전체 학교의 수이고, n_h 는 h 층의 표본 학교수이며, B_{hi} 는 h 층에서 i 번째 학교의 학생수를 나타내고, n_{hi} 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에 착수한 학생수를 나타낸다.

표본추출률에 대한 가중치(설계 가중치)는 추출률의 역수이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W_{hij} = \frac{\sum_{i=1}^{N_h} B_{hi}}{n_h n_{hi}}$$

그리고 최초 표본단위가 단위무응답인 경우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최초 목표 표본크기(n_{hi})를 유효 표본크기(r_{hi})로 나누어 조정하였다. 즉, 기본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와 무응답 조정 가중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_{hij}^a = \frac{\sum_{i=1}^{N_h} B_{hi}}{n_h n_{hi}} \times \frac{n_{hi}}{r_{hi}} = \frac{\sum_{i=1}^{N_h} B_{hi}}{n_h r_{hi}}$$

여기에서 r_{hi} 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가 완료된 학생수를 나타낸다.

또한 각 세부 층의 성별($k=1,2$)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한다. 즉, 사후층화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_{h(k)j}^b = \frac{N_{h(k)}}{\sum_{l=1}^{n_{h(k)}} W_{h(k)j}^a}$$

여기에서 $N_{h(1)}$ 과 $N_{h(2)}$ 는 각 세부 층에 속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집단 크기이고, $\sum W_{h(k)j}^a$ 는 각 세부 층의 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이다.

최종 가중치는 기본 가중치와 사후층화 가중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W_{h(k)ij}^f = W_{hij}^a \times W_{h(k)j}^b$$

(2) 모수추정

① 용어 정의

- Y_{hij} : 관측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 h : 층의 번호 ($h = 1, 2, \dots, H$). 학교구분×지역구분에 따른 번호
 - i : 각 층 내에서의 집락(학교)의 번호 ($i = 1, 2, \dots, n_h$)
 - j : 각 집락 내의 학생의 번호 ($j = 1, 2, \dots, m_{hi}$)

m_{hi} : h 번째 층의 i 번째 집락으로부터 추출된 학생수

- w_{hij} : 표본 가중치
 - h 번째 층, i 번째 집락, j 번째 학생에 대한 표본 가중치
- $n = \sum_{h=1}^H \sum_{i=1}^{n_h} m_{hi}$: 전체 표본크기

② 모평균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됨.
- $\bar{Y} = \left(\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right) / w...$: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 $w...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표본 가중치의 합계

③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 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함.
- $Y_{hij}^{(c_k)} = I(Y_{hij} = c_k) = \begin{cases} 1, & \text{if } Y_{hij} = c_k \\ 0, & \text{otherwise} \end{cases}$
 - c_k : Y_{hij} 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k = 1, \dots, l$)
- 이러한 지시변수 $Y_{hij}^{(c_k)}$ 로부터 모평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범주 c_k 의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함.

④ 분산의 추정

- $\hat{V}(\bar{Y}) = \sum_{h=1}^H \hat{V}_h(\bar{Y})$: 분산의 추정치
 - N_h : 층 h 의 총 집락의 수
 - f_h : h 번째 층의 표본추출율, n_h/N_h
 - $n_h > 1$ 일 때,

$$\widehat{V}_h(\bar{Y})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2$$

$$e_{hi\cdot}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h..}$$

$$\bar{e}_{h..} = \left(\sum_{i=1}^{n_h} e_{hi\cdot} \right) / n_h$$

- $n_h = 1$ 일 때,

$$\widehat{V}_h(\bar{Y}) = \begin{cases} \text{missing, if } n_{h'} = 1 \text{ for } h' = 1, 2, \dots, H \\ 0, & \text{if } n_{h'} > 0 \text{ for some } 1 \leq h' \leq H \end{cases}$$

⑤ 표준오차,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

- $\text{StdErr}(\bar{Y}) = \sqrt{\widehat{V}(\bar{Y})}$: 표준오차의 추정치
- $z_{\alpha/2} \times \text{StdErr}(\bar{Y})$: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치,
95% 신뢰수준의 경우($\alpha=0.05$) $z_{\alpha/2}=1.96$ 임.

제 IV 장

청소년활동 참여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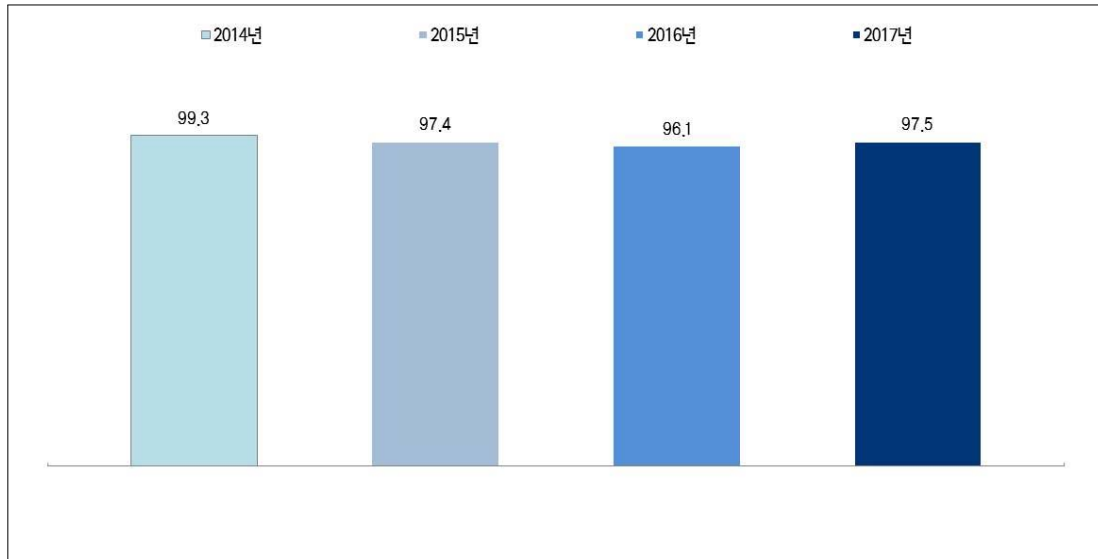
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와
정의적 특성 간의 관계
3. 소결

제 IV 장 청소년활동 참여 설문조사 결과⁵⁴⁾

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1) 청소년활동 참여경험

(단위: %)



- * 주: 1) 2014년도 연구에서는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개발활동, 사회참여활동의 10가지로 청소년활동을 분류함.
 2) 2015년도 연구에서는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개발활동, 청소년참여활동의 10가지로 청소년활동을 분류함.
 3) 2016년도와 2017년도 연구에서는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개발활동의 9가지로 청소년활동을 분류함.

【그림 IV-1】 청소년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54)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에 대한 연도별 추이는 1차 년도(임희진, 송병국, 2014), 2차 년도(최창욱 외, 2015), 3차 년도(최창욱 외, 2016)의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비교·제시하였음.

최근 4년간의 청소년활동의 참여율 추이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IV-1]과 같다. 구체적으로 청소년활동 참여율은 2014년도에 99.3%, 2015년도에 97.4%, 2016년도에 96.1%로 근소하게 낮아지다가, 2017년도에 97.5%로 소폭 상승하였다. 즉, 매년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소수의 청소년들은 참여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향후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청소년활동의 참여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표 IV-1 청소년활동 참여경험(2017년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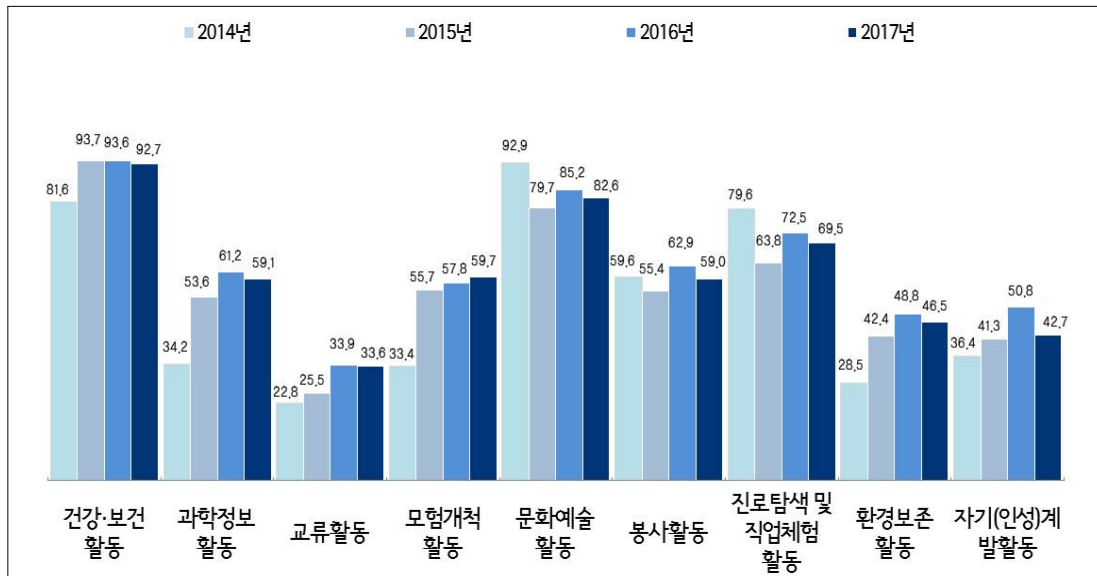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97.5	2.5	100.0	—
성별	남자	97.2	2.8	100.0	$\chi^2=2.661$ $p=0.103$
	여자	97.8	2.2	100.0	
학교급	초등학교	99.1	0.9	100.0	$\chi^2=48.076$ $p=0.000$
	중학교	97.4	2.6	100.0	
	고등학교	96.3	3.7	100.0	
지역규모	대도시	97.0	3.0	100.0	$\chi^2=16.223$ $p=0.000$
	중소도시	97.3	2.7	100.0	
	읍면지역	98.9	1.1	100.0	
학업성적	상	98.2	1.8	100.0	$\chi^2=31.644$ $p=0.000$
	중	97.8	2.2	100.0	
	하	95.9	4.1	100.0	
경제수준	상	98.2	1.8	100.0	$\chi^2=15.115$ $p=0.001$
	중	96.9	3.1	100.0	
	하	96.8	3.2	100.0	

2017년도 청소년활동 참여경험을 일반적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을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99.1%, 중 97.4%, 고 96.3%)($p<.001$), 읍면지역(98.9%)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97.3%)와 대도시(97.0%)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p<.001$). 그리고 학업성적이 상위권(98.2%)과 중위권(97.8%)에 속한 청소년이 하위권(95.9%)에 속한 청소년보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은 상 집단(98.2%)이 중 집단(96.9%)과 하 집단(96.8%)보다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1$).

2)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경험

2017년도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건강·보건활동’이 9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문화예술활동’이 82.6%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69.5%), ‘모험개척활동’(59.7%), ‘과학정보활동’(59.1%), ‘봉사활동’(59.0%)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환경보존활동’(46.5%)과 ‘자기(인성)계발활동’(42.7%)의 경우 최근 1년간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교류활동’의 참여율은 33.6%로 가장 낮았다.

(단위: %)



[그림 IV-2] 청소년활동 영역별 참여율(연도별 추이)

영역별 참여경험에 대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9가지 활동 중 ‘건강·보건활동’과 ‘문화예술활동’의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1~2위의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반면, ‘교류활동’ 참여율의 경우 2014년 22.8%, 2015년 25.5%, 2016년 33.9%, 2017년 33.6%로 이전에 비해 증가했지만, 여전히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또한 최근 4년 동안 ‘환경보존활동’과 ‘자기(인성)계발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비율은 대체로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향후 다양한 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1) 건강·보건활동 참여경험

‘건강·보건활동’은 ‘신체단련활동’, ‘흡연·음주·약물·비만 예방활동’, ‘안전·응급처치활동’, ‘성교육활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활동’, ‘기타’의 세부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보건활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을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95.2%, 중 93.2%, 고 90.4%)($p<.001$), 읍면지역(95.4%)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대도시(92.1%)와 중소도시(92.0%)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참여경험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94.1%, 중 93.0%, 하 90.1%)($p<.001$),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93.9%, 중 92.0%, 하 91.0%) ‘건강·보건활동’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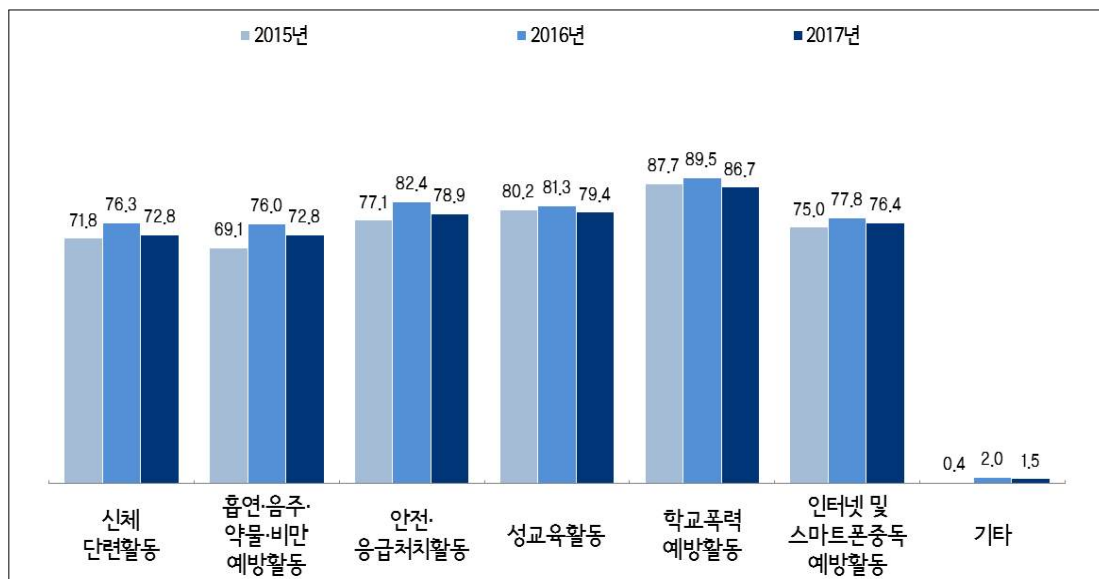
표 IV-2 건강·보건활동 참여경험(2017년도)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92.7	7.3	100.0	—
성별	남자	93.0	7.0	100.0	$\chi^2=1.503$ $p=0.220$
	여자	92.3	7.7	100.0	
학교급	초등학교	95.2	4.8	100.0	$\chi^2=50.965$ $p=0.000$
	중학교	93.2	6.8	100.0	
	고등학교	90.4	9.6	100.0	
지역규모	대도시	92.1	7.9	100.0	$\chi^2=21.127$ $p=0.000$
	중소도시	92.0	8.0	100.0	
	읍면지역	95.4	4.6	100.0	
학업성적	상	94.1	5.9	100.0	$\chi^2=31.921$ $p=0.000$
	중	93.0	7.0	100.0	
	하	90.1	9.9	100.0	
경제수준	상	93.9	6.1	100.0	$\chi^2=17.139$ $p=0.000$
	중	92.0	8.0	100.0	
	하	91.0	9.0	100.0	

세부 활동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8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교육활동’(79.4%), ‘안전·응급처치활동’(78.9%),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활동’(76.4%), ‘신체단련활동’과 ‘흡연·음주·약물·비만 예방활동’(72.8%), ‘기타’(1.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모든 세부 활동의 참여율이 상승하였고, 2016년 대비 2017년에는 모든 활동의 참여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기타’를 제외하고는 72.8%~86.7%의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스마트폰 중독 등의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건활동’의 참여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인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단위: %)



【그림 IV-3】 건강·보건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2) 과학정보활동 참여경험

‘과학정보활동’의 세부 활동은 ‘모형 및 로봇활동’,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활동’, ‘우주천체활동’, ‘정보캠프활동’, ‘영상매체활동’, ‘기타’로 구성되었다. ‘과학정보활동’의 참여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표 IV-3). 그 결과, 지역규모를 제외한 특성들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61.7%)이 여자 청소년(56.3%)보다 ($p<.001$), 학교급에 따라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76.5%, 중 57.9%, 고 47.1%) ‘과학정보활동’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67.6%, 중 58.5%, 하 48.6%)($p<.001$),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63.5%, 중 57.2%, 하 51.8%)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고하였다($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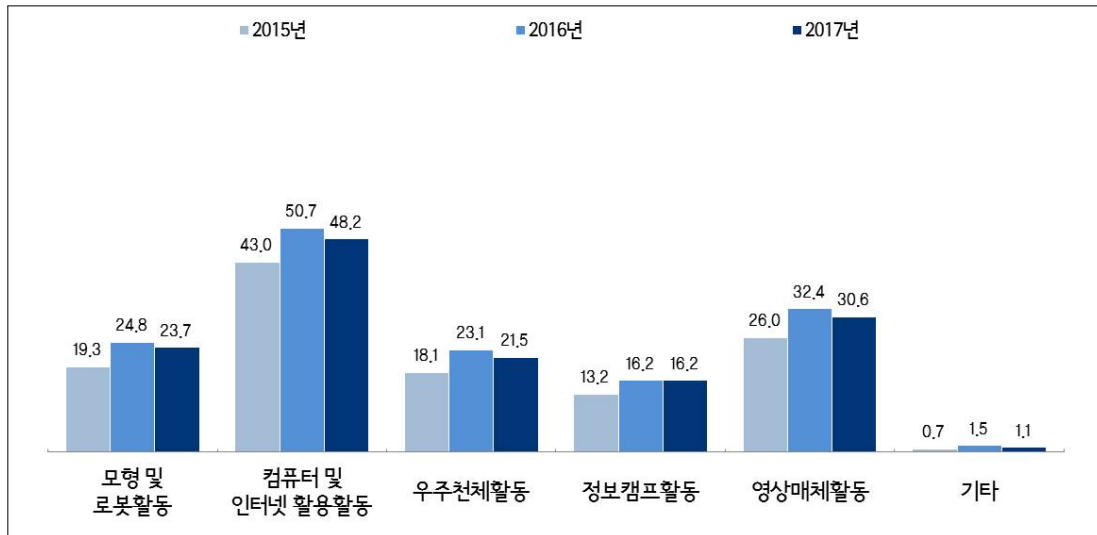
표 IV-3 과학정보활동 참여경험(2017년도)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59.1	40.9	100.0	—
성별	남자	61.7	38.3	100.0	$\chi^2=25.860$ $p=0.000$
	여자	56.3	43.7	100.0	
학교급	초등학교	76.5	23.5	100.0	$\chi^2=522.367$ $p=0.000$
	중학교	57.9	42.1	100.0	
	고등학교	47.1	52.9	100.0	
지역규모	대도시	58.7	41.3	100.0	$\chi^2=2.908$ $p=0.234$
	중소도시	58.6	41.4	100.0	
	읍면지역	61.0	39.0	100.0	
학업성적	상	67.6	32.4	100.0	$\chi^2=189.765$ $p=0.000$
	중	58.5	41.5	100.0	
	하	48.6	51.4	100.0	
경제수준	상	63.5	36.5	100.0	$\chi^2=68.154$ $p=0.000$
	중	57.2	42.8	100.0	
	하	51.8	48.2	100.0	

구체적인 세부 활동별로 살펴보면(그림 IV-4),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활동은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활동’으로, 응답자의 절반 정도(48.2%)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어서 ‘영상매체활동’(30.6%), ‘모형 및 로봇활동’(23.7%), ‘우주천체활동’(21.5%), ‘정보캠프 활동’(16.2%), ‘기타’(1.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활동의 참여율 순위는 2015년도부터 2017년 도까지의 연구결과에서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도에 비해 2016년도에는 모든 활동의 참여율이 증가한 반면,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는 모든 활동의 참여율이 동일하거나 소폭 감소하는 등의 차이를 보였다.

(단위: %)



[그림 IV-4] 과학정보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3) 교류활동 참여경험

‘교류활동’은 ‘청소년국제교류활동’, ‘도농 간 청소년교류활동’, ‘다문화 및 국제이해활동’, ‘기타’의 세부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IV-4>와 같다. 구체적으로 여자 청소년(35.2%)이 남자 청소년(32.1%)보다($p<.01$),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53.4%, 중 33.7%, 고 18.8%)($p<.001$),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40.0%, 중 33.5% 하 25.2%)($p<.001$),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38.6%, 중 30.9%, 하 26.8%) ‘교류활동’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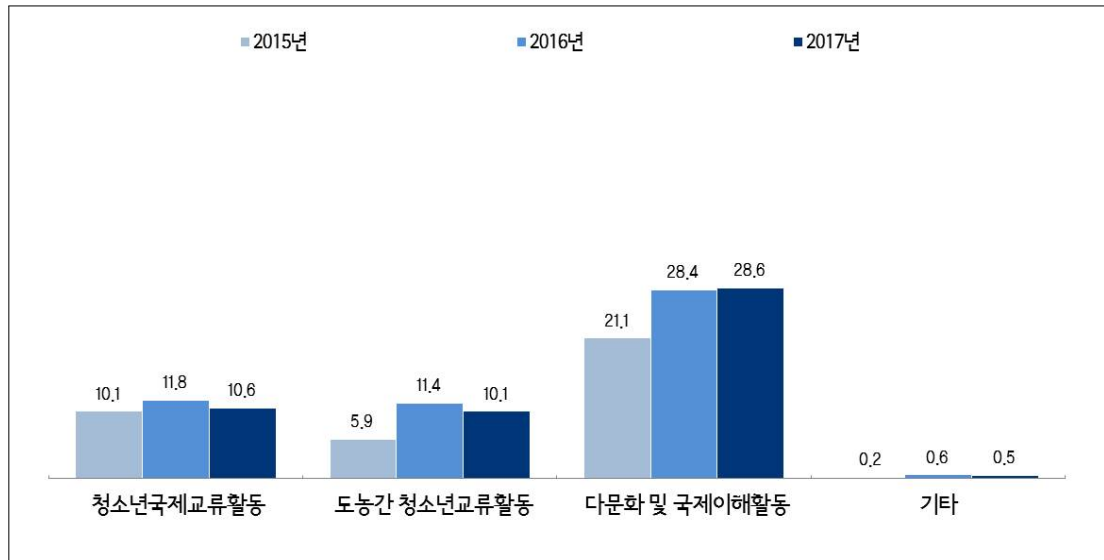
세부 활동별로 참여율을 보면([그림 IV-5]), 청소년들은 ‘다문화 및 국제이해활동’(28.6%)에 가장 많이 참여했다고 응답하였으나 전체 조사자의 30%에도 못 미치는 청소년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청소년국제교류활동’(10.6%), ‘도농 간 청소년교류활동’(10.1%), ‘기타’(0.5%)의 순으로 참여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5년도에서 2017년도까지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참여율 순위는 3년간 동일하게 유지되고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다문화 및 국제이해활동’의 참여율은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7.3%포인트 증가한 후 2017년도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청소년국제교류활동’과 ‘도농 간 청소년교류활동’의 참여율은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증가했다가 2017년도에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교류활동 참여경험(2017년도)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33.6	66.4	100.0	—
성별	남자	32.1	67.9	100.0	$\chi^2=9.470$ $p=0.002$
	여자	35.2	64.8	100.0	
학교급	초등학교	53.4	46.6	100.0	$\chi^2=776.775$ $p=0.000$
	중학교	33.7	66.3	100.0	
	고등학교	18.8	81.2	100.0	
지역규모	대도시	32.7	67.3	100.0	$\chi^2=2.416$ $p=0.299$
	중소도시	34.4	65.6	100.0	
	읍면지역	33.9	66.1	100.0	
학업성적	상	40.0	60.0	100.0	$\chi^2=123.869$ $p=0.000$
	중	33.5	66.5	100.0	
	하	25.2	74.8	100.0	
경제수준	상	38.6	61.4	100.0	$\chi^2=84.329$ $p=0.000$
	중	30.9	69.1	100.0	
	하	26.8	73.2	100.0	

(단위: %)



【그림 IV-5】 교류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4) 모험개척활동 참여경험

‘등반활동’, ‘야영활동’, ‘해양 및 수상훈련활동’, ‘극기훈련활동’, ‘기타’의 세부 활동으로 구성된 ‘모험개척활동’을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 지역규모를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성별의 경우 남자 청소년(63.0%)이 여자 청소년(56.1%)보다($p<.001$),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74.7%, 중 60.9%, 고 47.5%)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p<.001$).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66.5%, 중 58.5%, 하 52.5%)($p<.001$), 가정의 경제수준은 상 집단(65.7%)이 중 집단(55.4%)과 하 집단(53.5%)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고하였다($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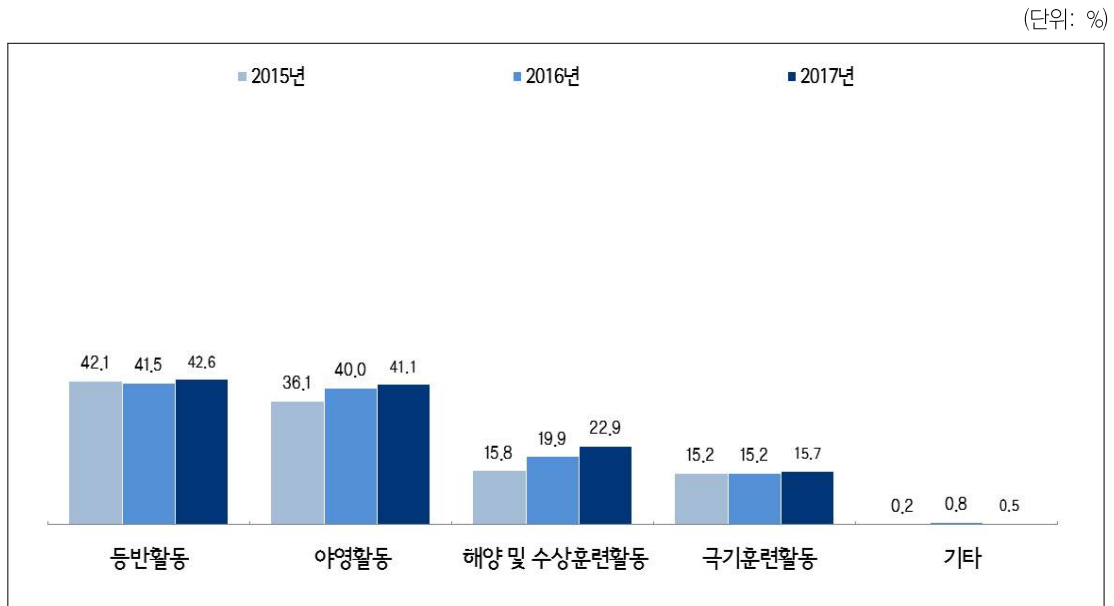
표 IV-5 모험개척활동 참여경험(2017년도)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59.7	40.3	100.0	—
성별	남자	63.0	37.0	100.0	$\chi^2=44.466$ $p=0.000$
	여자	56.1	43.9	100.0	
학교급	초등학교	74.7	25.3	100.0	$\chi^2=446.956$ $p=0.000$
	중학교	60.9	39.1	100.0	
	고등학교	47.5	52.5	100.0	
지역규모	대도시	60.8	39.2	100.0	$\chi^2=5.663$ $p=0.059$
	중소도시	58.2	41.8	100.0	
	읍면지역	60.4	39.6	100.0	
학업성적	상	66.5	33.5	100.0	$\chi^2=105.886$ $p=0.000$
	중	58.5	41.5	100.0	
	하	52.5	47.5	100.0	
경제수준	상	65.7	34.3	100.0	$\chi^2=107.414$ $p=0.000$
	중	55.4	44.6	100.0	
	하	53.5	46.5	100.0	

‘모험개척활동’의 세부 활동별 참여율을 살펴보면(그림 IV-6), ‘등반활동’이 42.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야영활동’이 41.1%로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해양 및 수상훈련활동’(22.9%), ‘극기훈련활동’(15.7%), ‘기타’(0.5%)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도에서 2017년도까지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참여율 순위는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해양 및 수상훈련활동’(2015년 15.8%, 2016년 19.9%, 2017년 22.9%) 등에서 청소년의 참여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6】 모험개척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5) 문화예술활동 참여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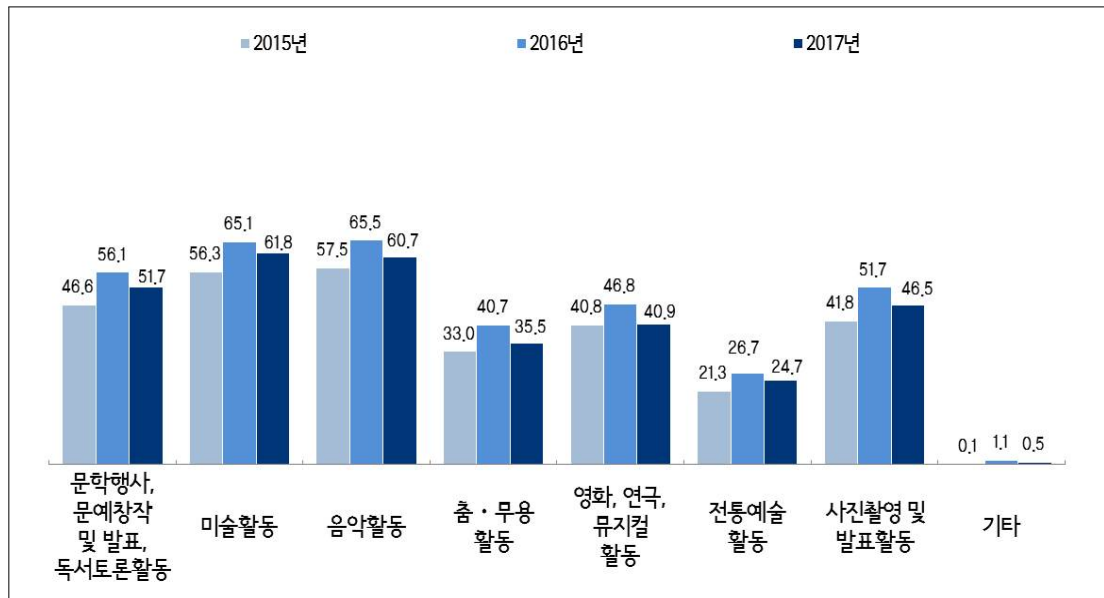
‘문화예술활동’은 ‘문학행사, 문예창작 및 발표, 독서토론활동’, ‘미술활동’, ‘음악활동’, ‘춤·무용활동’, ‘영화, 연극, 뮤지컬활동’, ‘전통예술활동’, ‘사진촬영 및 발표활동’, ‘기타’의 8가지 세부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표 IV-6>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활동’의 참여경험에 대한 차이를 확인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규모를 제외한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87.8%)이 남자 청소년(77.8%)보다($p<.001$),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89.3%, 중 83.2%, 고 77.1%)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86.4%, 중 83.0%, 하 76.7%)($p<.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상 집단(84.4%)이 중 집단(81.2%)과 하 집단(80.9%)에 비해 ‘문화예술활동’의 참여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표 IV-6 문화예술활동 참여경험(2017년도)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82.6	17.4	100.0	—
성별	남자	77.8	22.2	100.0	$\chi^2=153.228$ p=0.000
	여자	87.8	12.2	100.0	
학교급	초등학교	89.3	10.7	100.0	$\chi^2=153.854$ p=0.000
	중학교	83.2	16.8	100.0	
	고등학교	77.1	22.9	100.0	
지역규모	대도시	83.6	16.4	100.0	$\chi^2=5.135$ p=0.077
	중소도시	81.8	18.2	100.0	
	읍면지역	81.8	18.2	100.0	
학업성적	상	86.4	13.6	100.0	$\chi^2=82.911$ p=0.000
	중	83.0	17.0	100.0	
	하	76.7	23.3	100.0	
경제수준	상	84.4	15.6	100.0	$\chi^2=16.277$ p=0.000
	중	81.2	18.8	100.0	
	하	80.9	19.1	100.0	

(단위: %)



【그림 IV-7】 문화예술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문화예술활동’의 세부 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그림 IV-7), ‘미술활동’(61.8%)과 ‘음악활동’(60.7%)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청소년 10명 중 6명 이상이 지난 1년간 미술 및 음악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문학행사, 문예창작 및 발표, 독서토론활동’(51.7%), ‘사진촬영 및 발표활동’(46.5%), ‘영화, 연극, 뮤지컬활동’(40.9%), ‘춤·무용활동’(35.5%), ‘전통예술활동’(24.7%), ‘기타’(0.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모든 세부 활동의 참여율이 증가한 반면, 2016년 대비 2017년에는 ‘영화, 연극, 뮤지컬활동’이 5.9%포인트, ‘춤·무용활동’과 ‘사진촬영 및 발표활동’이 5.2%포인트 하락하는 등 모든 활동에서 참여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 봉사활동 참여경험

‘봉사활동’은 ‘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돌봄 및 지도활동’, ‘캠페인활동’, ‘자선·구호활동’, ‘재능기부활동’, ‘기타’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봉사활동’의 참여경험을 비교한 결과(표 IV-7), 학교급을 제외한 특성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의 경우, 여자 청소년(63.2%)이 남자 청소년(55.1%)보다($p<.001$),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61.8%)과 대도시(60.9%)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55.7%)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참여율이 높았다($p<.001$).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64.6%, 중 59.0%, 하 51.3%)($p<.001$),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60.9%, 중 58.9%, 하 53.8%)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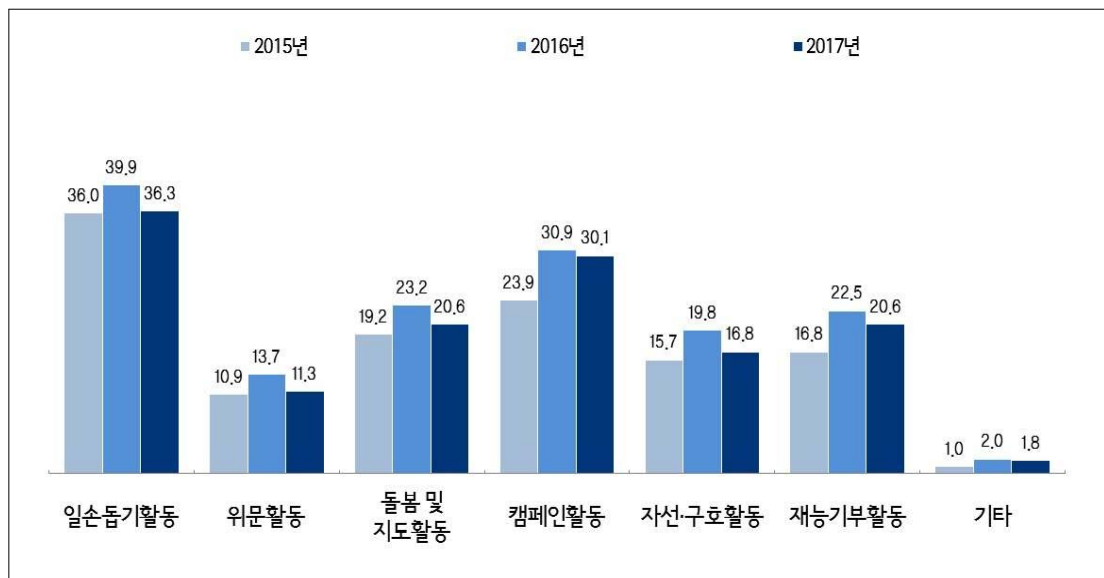
세부 활동의 참여율을 분석한 결과(그림 IV-8)에서는 ‘일손돕기활동’이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캠페인활동’이 30.1%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돌봄 및 지도활동’과 ‘재능기부활동’(20.6%), ‘자선·구호활동’(16.8%), ‘위문활동’(11.3%), ‘기타’(1.8%)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 참여율의 추이를 보면, 2016년도는 2015년도에 비해 ‘캠페인활동’이 7%포인트, ‘재능기부활동’이 5.7%포인트 증가하는 등 모든 활동에서 참여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7년에는 2016년도에 비해 ‘일손돕기활동’이 3.6%포인트, ‘자선·구호활동’이 3%포인트, ‘위문활동’이 2.4%포인트 감소하는 등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IV-7 봉사활동 참여경험(2017년도)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59.0	41.0	100.0	—
성별	남자	55.1	44.9	100.0	$\chi^2=60.166$ $p=0.000$
	여자	63.2	36.8	100.0	
학교급	초등학교	59.9	40.1	100.0	$\chi^2=5.203$ $p=0.074$
	중학교	60.0	40.0	100.0	
	고등학교	57.5	42.5	100.0	
지역규모	대도시	60.9	39.1	100.0	$\chi^2=26.041$ $p=0.000$
	중소도시	55.7	44.3	100.0	
	읍면지역	61.8	38.2	100.0	
학업성적	상	64.6	35.4	100.0	$\chi^2=92.496$ $p=0.000$
	중	59.0	41.0	100.0	
	하	51.3	48.7	100.0	
경제수준	상	60.9	39.1	100.0	$\chi^2=21.822$ $p=0.000$
	중	58.9	41.1	100.0	
	하	53.8	46.2	100.0	

(단위: %)



【그림 IV-8】 봉사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7)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참여경험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의 세부 활동은 ‘청소년모의창업활동’, ‘경제캠프활동’, ‘진로탐색활동’, ‘직업현장체험활동’, ‘기타’로 구성되었다.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의 참여경험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71.9%)이 남자 청소년(67.3%)보다($p<.001$), 학교급별로는 중학생(74.2%), 초등학생(68.9%), 고등학생(66.0%)의 순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p<.001$). 그리고 대도시(71.2%)와 읍면지역(70.9%)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67.1%)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p<.001$),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74.1%, 중 69.7%, 하 63.0%)($p<.001$),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72.0%, 중 69.0%, 하 64.0%)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p<.001$).

표 IV-8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참여경험(2017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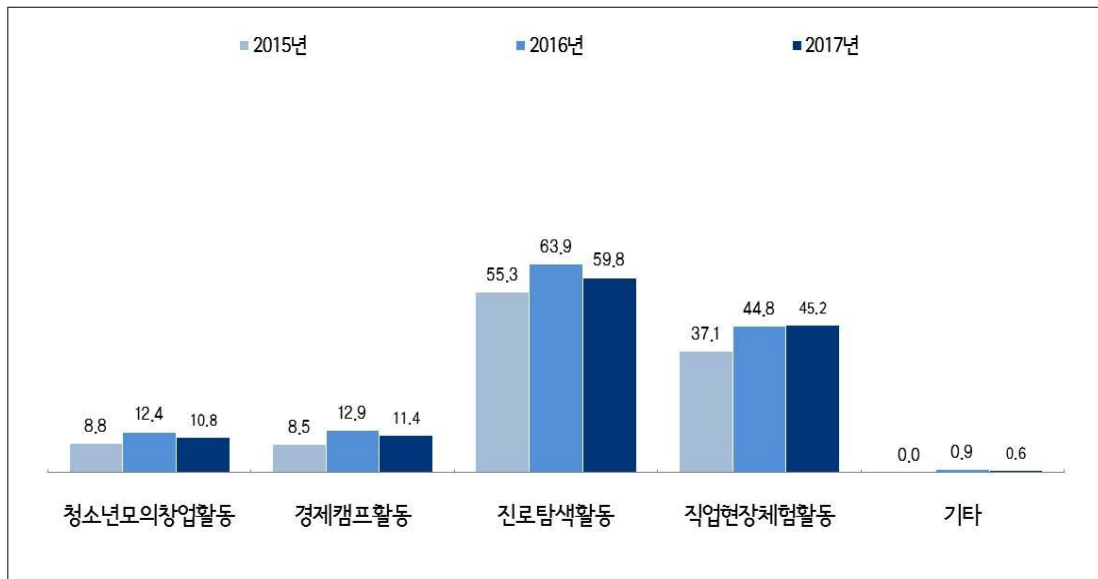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69.5	30.5	100.0	—
성별	남자	67.3	32.7	100.0	$\chi^2=21.375$ $p=0.000$
	여자	71.9	28.1	100.0	
학교급	초등학교	68.9	31.1	100.0	$\chi^2=49.289$ $p=0.000$
	중학교	74.2	25.8	100.0	
	고등학교	66.0	34.0	100.0	
지역규모	대도시	71.2	28.8	100.0	$\chi^2=16.440$ $p=0.000$
	중소도시	67.1	32.9	100.0	
	읍면지역	70.9	29.1	100.0	
학업성적	상	74.1	25.9	100.0	$\chi^2=72.878$ $p=0.000$
	중	69.7	30.3	100.0	
	하	63.0	37.0	100.0	
경제수준	상	72.0	28.0	100.0	$\chi^2=32.869$ $p=0.000$
	중	69.0	31.0	100.0	
	하	64.0	36.0	100.0	

세부 활동별 참여율을 살펴보면(그림 IV-9), ‘진로탐색활동’(59.8%)이 가장 높았으며, 최근 1년간 청소년 10명 중 6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직업현장체험활동’이 45.2%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경제캠프활동’(11.4%), ‘청소년모의창업활동’(10.8%), ‘기타’(0.6%)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연도별로 참여율을 보면, ‘직업현장체험활동’의 경우 2015년도에 비해 2016년도에 7.7%포인트 증가했다가, 2017년도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활동들의 참여율은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증가했다가 2016년 대비 2017년도에는 ‘진로탐색활동’이 4.1%포인트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단위: %)



【그림 IV-9】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8) 환경보존활동 참여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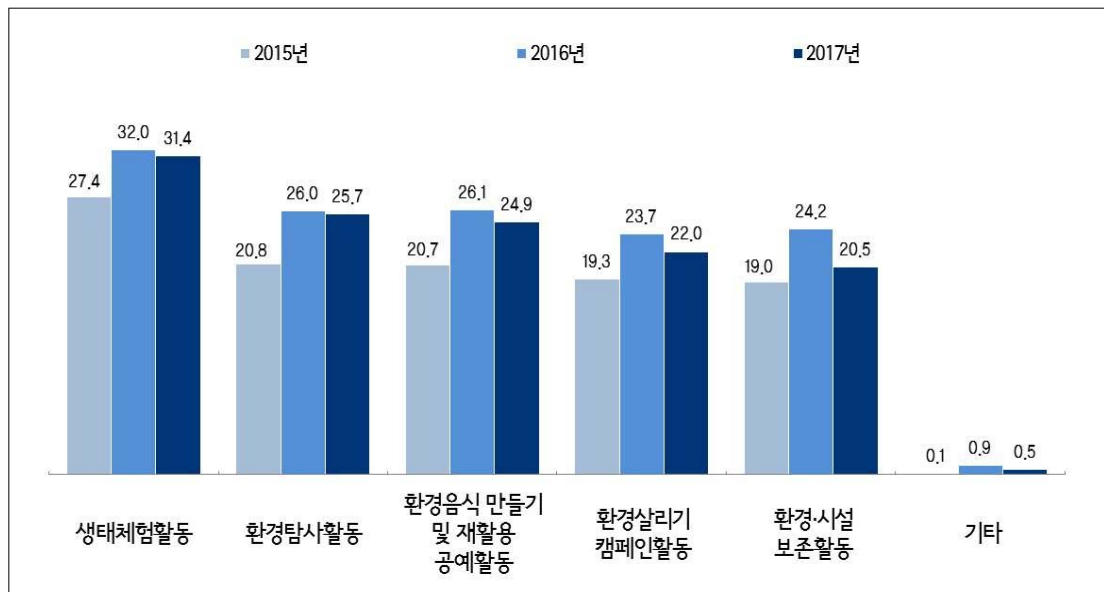
본 조사에서 ‘환경보존활동’은 ‘생태체험활동’, ‘환경탐사활동’, ‘환경음식 만들기 및 재활용공예 활동’, ‘환경살리기캠페인활동’, ‘환경·시설 보존활동’, ‘기타’의 세부 활동이 포함되었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환경보존활동’의 참여경험을 비교한 결과(〈표 IV-9〉), 성별과 지역규모를 제외한 특성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70.7%, 중 47.8%, 고 27.4%)($p<.001$),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52.9%, 중 48.1%, 하 35.2%) ‘환경보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52.7%, 중 43.4%, 하 36.9%) 참여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표 IV-9 환경보존활동 참여경험(2017년도)

(단위: %)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46.5	53.5	100.0	—
성별	남자	45.7	54.3	100.0	$\chi^2=2.293$ $p=0.130$
	여자	47.3	52.7	100.0	
학교급	초등학교	70.7	29.3	100.0	$\chi^2=1099.157$ $p=0.000$
	중학교	47.8	52.2	100.0	
	고등학교	27.4	72.6	100.0	
지역규모	대도시	46.7	53.3	100.0	$\chi^2=0.644$ $p=0.725$
	중소도시	46.0	54.0	100.0	
	읍면지역	47.1	52.9	100.0	
학업성적	상	52.9	47.1	100.0	$\chi^2=164.213$ $p=0.000$
	중	48.1	51.9	100.0	
	하	35.2	64.8	100.0	
경제수준	상	52.7	47.3	100.0	$\chi^2=127.626$ $p=0.000$
	중	43.4	56.6	100.0	
	하	36.9	63.1	100.0	

(단위: %)



【그림 IV-10】 환경보존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구체적인 세부 활동 참여율(그림 IV-10)은 ‘생태체험활동’이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환경탐사활동’(25.7%), ‘환경음식 만들기 및 재활용공예활동’(24.9%), ‘환경살리기캠페인활동’(22.0%), ‘환경·시설 보존활동’(20.5%), ‘기타’(0.5%)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 참여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도 대비 2016년도는 ‘기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4.4%포인트에서 5.4%포인트까지 증가한 양상을 보인 반면,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는 비슷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9) 자기(인성)계발활동 참여경험

표 IV-10 자기(인성)계발활동 참여경험(2017년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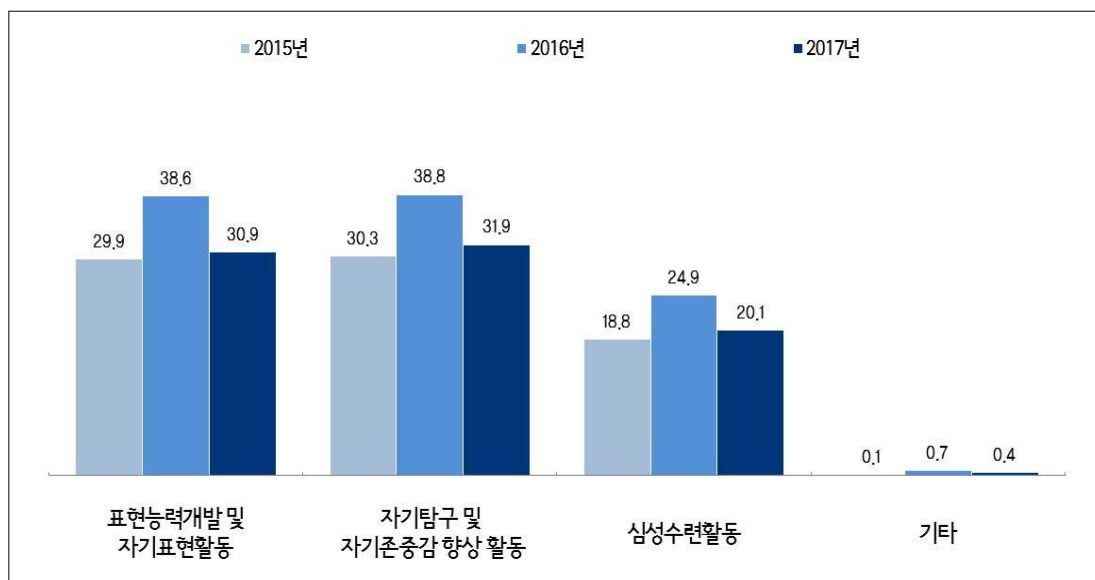
구분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전체	통계치
전체		42.7	57.3	100.0	—
성별	남자	40.6	59.4	100.0	$\chi^2=17.218$ p=0.000
	여자	45.0	55.0	100.0	
학교급	초등학교	49.6	50.4	100.0	$\chi^2=73.577$ p=0.000
	중학교	41.5	58.5	100.0	
	고등학교	38.6	61.4	100.0	
지역규모	대도시	45.4	54.6	100.0	$\chi^2=18.809$ p=0.000
	중소도시	40.4	59.6	100.0	
	읍면지역	41.6	58.4	100.0	
학업성적	상	48.4	51.6	100.0	$\chi^2=80.938$ p=0.000
	중	42.1	57.9	100.0	
	하	35.9	64.1	100.0	
경제수준	상	45.4	54.6	100.0	$\chi^2=23.602$ p=0.000
	중	41.3	58.7	100.0	
	하	38.8	61.2	100.0	

‘자기(인성)계발활동’의 세부 활동은 ‘표현능력개발 및 자기표현활동’, ‘자기탐구 및 자기존중감 향상활동’, ‘심성수련활동’, ‘기타’를 포함하고 있다. ‘자기(인성)계발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먼저, 성별에

따라서 여자 청소년(45.0%)이 남자 청소년(40.6%)보다($p<.001$),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49.6%, 중 41.5%, 고 38.6%)($p<.001$), 그리고 대도시(45.4%)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읍면지역(41.6%)과 중소도시(40.4%)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p<.001$). 다음으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48.4%, 중 42.1%, 하 35.9%)($p<.001$),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45.4%, 중 41.3%, 하 38.8%) ‘자기(인성)계발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높았다($p<.001$).

세부 활동의 경우([그림 IV-11]), ‘자기탐구 및 자기존중감 향상활동’의 참여율이 31.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표현능력개발 및 자기표현활동’이 30.9%, ‘심성수련활동’이 20.1%, ‘기타’가 0.4%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3년간의 연구결과에서도 이와 동일한 참여 순위를 보인 가운데 2015년도에 비해 2016년도의 결과에서는 ‘표현능력개발 및 자기표현활동’(8.7%p), ‘자기탐구 및 자기존중감 향상활동’(8.5%p), ‘심성수련활동’(6.1%p)의 참여율이 6%포인트 이상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참여율이 증가하였다. 반면,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의 결과에서는 ‘표현능력개발 및 자기표현활동’이 7.7%포인트, ‘자기탐구 및 자기존중감 향상활동’이 6.9%포인트, ‘심성수련활동’이 4.8%포인트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세부 활동의 참여율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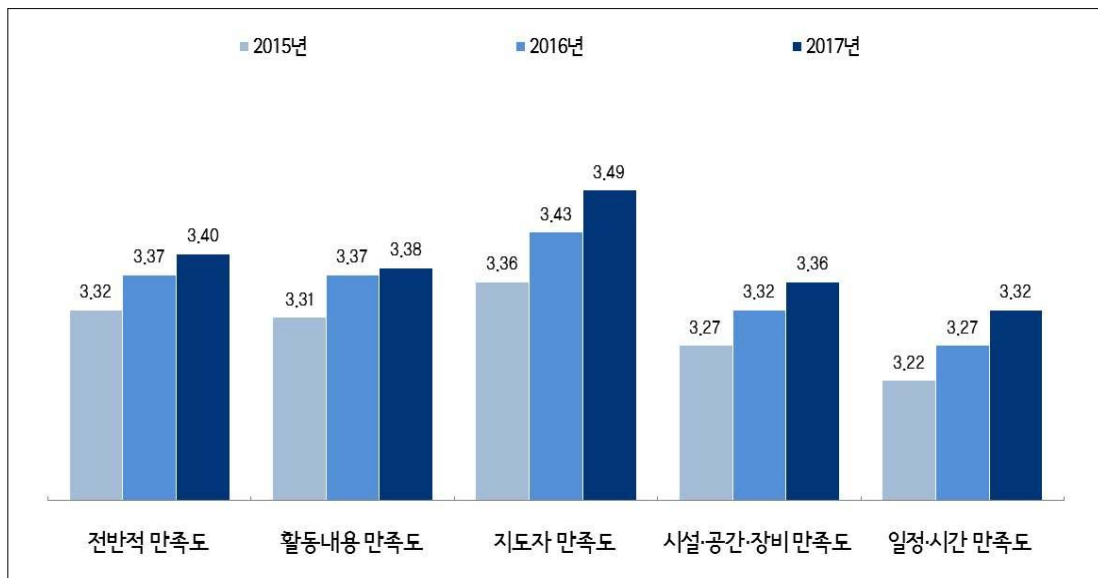


【그림 IV-11】 자기(인성)계발활동 세부 활동 참여율(연도별 추이)

3) 청소년활동 만족도

지난 1년간 참여한 청소년활동의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전반적 만족도’, ‘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청소년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3.40으로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별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지도자 만족도’가 평균 3.49로 가장 높게 확인되었으며, 이어서 ‘활동내용 만족도’(M=3.38), ‘시설·공간·장비 만족도’(M=3.36), ‘일정·시간 만족도’(M=3.3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즉, 내용별 만족도의 평균은 3.32~3.49로, 보통 수준을 웃도는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15년도와 2016년도의 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 유사하거나 소폭 상승한 정도이다.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청소년활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청소년활동의 만족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단위: 평균)



*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그림 IV-12】 청소년활동 만족도(연도별 추이)

(1) 청소년활동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는 최근 1년간 참여한 청소년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반적 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 <표 IV-11>과 같다. 즉, 여자 청소년(M=3.44)이 남자 청소년(M=3.35)보다($p<.001$),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3.62, 중 3.42, 고 3.20)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p<.001$).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도시(M=3.44)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M=3.36)의 청소년보다($p<.01$),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3.59, 중 3.38, 하 3.16)($p<.001$),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3.51, 중 3.35, 하 3.21) 참여한 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p<.001$).

표 IV-11 청소년활동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2017년도)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3.40	0.99	—	—
성별	남자	3.35	1.04	t=-4.048 p=0.000	—
	여자	3.44	0.93		
학교급	초등학교 ^a	3.62	1.06	F=134.223 p=0.000	a>b>c
	중학교 ^b	3.42	0.95		
	고등학교 ^c	3.20	0.93		
지역규모	대도시 ^a	3.44	1.01	F=6.898 p=0.001	a>b,c
	중소도시 ^b	3.36	0.97		
	읍면지역 ^c	3.36	0.99		
학업성적	상 ^a	3.59	1.00	F=114.484 p=0.000	a>b>c
	중 ^b	3.38	0.96		
	하 ^c	3.16	0.98		
경제수준	상 ^a	3.51	1.00	F=53.498 p=0.000	a>b>c
	중 ^b	3.35	0.95		
	하 ^c	3.21	1.02		

*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2) 청소년활동 만족도: 활동내용 만족도

‘활동내용 만족도’는 최근 1년간 참여한 청소년활동의 내용이 흥미롭고 유익했는지를 나타낸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활동내용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M=3.43)이 남자 청소년(M=3.33)보다($p<.001$),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3.59, 중 3.41, 고 3.19)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p<.001$).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M=3.44)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읍면지역(M=3.36)과 중소도시(M=3.33)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p<.001$),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3.57, 중 3.35, 하 3.16)($p<.001$),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3.50, 중 3.32, 하 3.19) ‘활동내용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p<.001$).

표 IV-12 청소년활동 만족도: 활동내용 만족도(2017년도)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3.38	1.00	—	—
성별	남자	3.33	1.05	t=-4.423 p=0.000	—
	여자	3.43	0.94		
학교급	초등학교 ^a	3.59	1.09	F=119.64 p=0.000	a>b>c
	중학교 ^b	3.41	0.95		
	고등학교 ^c	3.19	0.94		
지역규모	대도시 ^a	3.44	1.02	F=10.933 p=0.000	a>b,c
	중소도시 ^b	3.33	0.98		
	읍면지역 ^c	3.36	0.98		
학업성적	상 ^a	3.57	1.03	F=111.657 p=0.000	a>b>c
	중 ^b	3.35	0.95		
	하 ^c	3.16	0.98		
경제수준	상 ^a	3.50	1.01	F=57.600 p=0.000	a>b>c
	중 ^b	3.32	0.96		
	하 ^c	3.19	1.01		

*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3) 청소년활동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는 청소년활동을 지도한 선생님의 전문성에 대해 만족한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지도자에 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표 IV-13>),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M=3.52)이 남자 청소년(M=3.46)보다($p<.05$),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3.75, 중 3.51, 고 3.27)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리고 대도시(M=3.54)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M=3.45)의 청소년

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고하였으며($p<.001$),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3.67, 중 3.48, 하 3.26)($p<.001$),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3.59, 중 3.44, 하 3.34) ‘지도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IV-13 청소년활동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2017년도)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3.49	0.99	—	—
성별	남자	3.46	1.04	t=-2.363 p=0.018	—
	여자	3.52	0.94		
학교급	초등학교 ^a	3.75	1.08	F=167.900 p=0.000	a>b>c
	중학교 ^b	3.51	0.94		
	고등학교 ^c	3.27	0.92		
지역규모	대도시 ^a	3.54	1.01	F=7.709 p=0.000	a>b,c
	중소도시 ^b	3.45	0.99		
	읍면지역 ^c	3.45	0.97		
학업성적	상 ^a	3.67	1.01	F=105.163 p=0.000	a>b>c
	중 ^b	3.48	0.94		
	하 ^c	3.26	1.00		
경제수준	상 ^a	3.59	1.01	F=40.133 p=0.000	a>b>c
	중 ^b	3.44	0.95		
	하 ^c	3.34	1.02		

*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4) 청소년활동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청소년활동이 진행된 시설·공간과 진행에 사용된 장비에 대한 만족도를 일반적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표 IV-14>),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청소년(M=3.39)이 남자 청소년(M=3.32)보다($p<.01$),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3.61, 중 3.42, 고 3.11) ‘시설·공간·장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p<.001$).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M=3.43)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읍면지역(M=3.34)과 중소도시(M=3.29)의 청소년보다($p<.001$),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3.52, 중 3.35, 하 3.14)($p<.001$),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3.47, 중 3.31, 하 3.15) 더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표 IV-14 청소년활동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2017년도)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3.36	1.01	—	—
성별	남자	3.32	1.06	t=-2.995 p=0.003	—
	여자	3.39	0.96		
학교급	초등학교 ^a	3.61	1.09	F=180.930 p=0.000	a)b>c
	중학교 ^b	3.42	0.95		
	고등학교 ^c	3.11	0.95		
지역규모	대도시 ^a	3.43	1.04	F=15.921 p=0.000	a)b,c
	중소도시 ^b	3.29	1.00		
	읍면지역 ^c	3.34	0.97		
학업성적	상 ^a	3.52	1.05	F=85.113 p=0.000	a)b>c
	중 ^b	3.35	0.96		
	하 ^c	3.14	1.01		
경제수준	상 ^a	3.47	1.03	F=55.341 p=0.000	a)b>c
	중 ^b	3.31	0.97		
	하 ^c	3.15	1.02		

*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5) 청소년활동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

표 IV-15 청소년활동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2017년도)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3.32	1.02	—	—
성별	남자	3.28	1.07	t=-3.982 p=0.000	—
	여자	3.36	0.96		
학교급	초등학교 ^a	3.53	1.11	F=127.125 p=0.000	a)b>c
	중학교 ^b	3.38	0.98		
	고등학교 ^c	3.11	0.94		
지역규모	대도시 ^a	3.39	1.04	F=13.364 p=0.000	a)b,c
	중소도시 ^b	3.26	1.01		
	읍면지역 ^c	3.30	0.98		
학업성적	상 ^a	3.49	1.06	F=82.888 p=0.000	a)b>c
	중 ^b	3.30	0.97		
	하 ^c	3.11	1.00		
경제수준	상 ^a	3.42	1.05	F=51.922 p=0.000	a)b>c
	중 ^b	3.30	0.96		
	하 ^c	3.10	1.03		

*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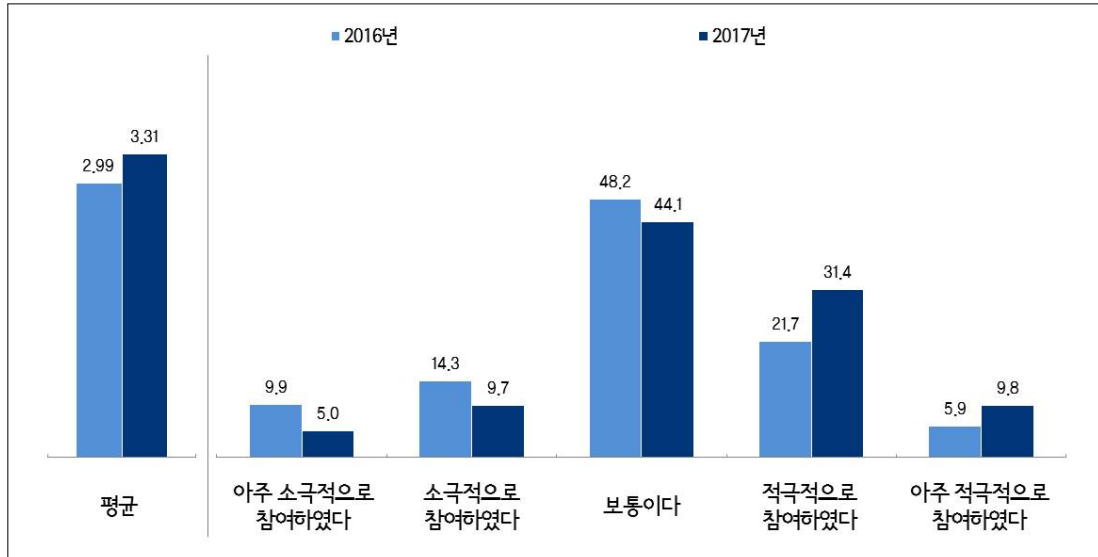
‘일정·시간 만족도’는 청소년활동의 일정과 시간이 적절했는지를 5점 척도로 확인한 문항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일정·시간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IV-15>),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여자 청소년(M=3.36)이 남자 청소년(M=3.28)보다($p<.001$),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3.53, 중 3.38, 고 3.11)($p<.001$),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M=3.39)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읍면지역(M=3.30)과 중소도시(M=3.26)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p<.001$).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3.49, 중 3.30, 하 3.11)($p<.001$),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3.42, 중 3.30, 하 3.10) 청소년활동의 일정과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이상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활동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IV-11>~<표 IV-15>), 전체적으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청소년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활동에 대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다.

4)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Likert형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그림 IV-13>), 평균 3.31의 참여정도를 보고하였다. 작년 2016년도의 평균 2.99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보통 수준으로 유사하였다. 응답 항목별로 보면,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4.1%로 가장 높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응답도 31.4%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9.8%),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9.7%), ‘아주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5.0%)는 응답률은 각각 10% 미만으로 약소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작년과 비교해 보면, ‘아주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부터 ‘보통이다’까지의 응답률은 약 5%포인트 가량 소폭 감소한 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약 10%포인트,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약 4%포인트 증가하여 전체 평균점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전체 평균점수는 보통 수준 정도로 작년과 유사하였지만, 청소년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증대된 결과는 청소년활동의 참여 활성화와 관련하여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단위: 평균, %)



【그림 IV-13】 청소년활동 참여정도(연도별 추이)

표 IV-16 청소년활동 참여정도(2017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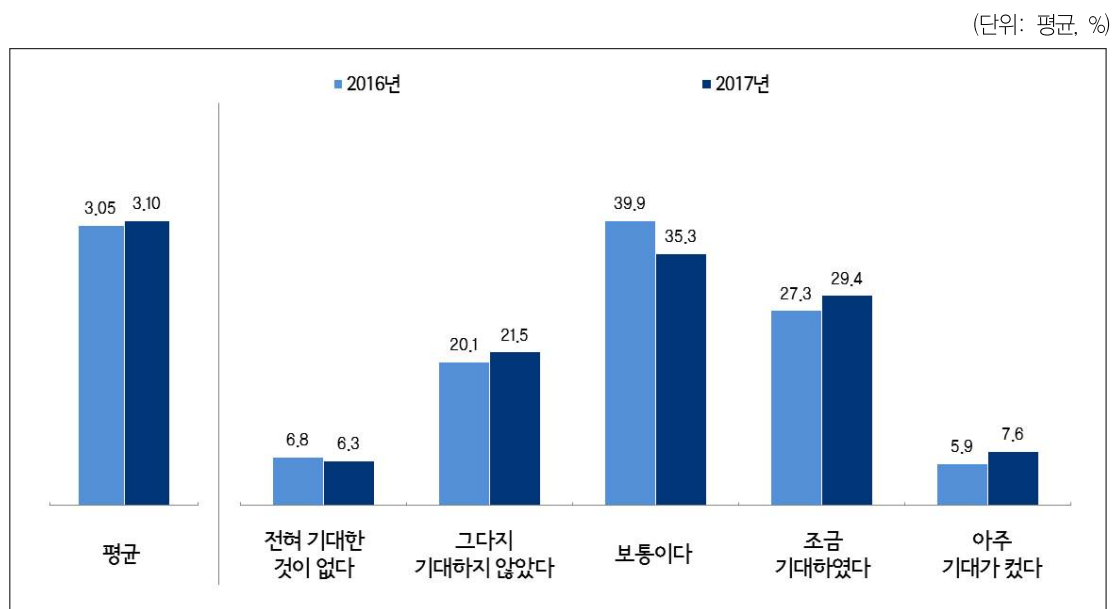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3.31	0.95	—	—
성별	남자	3.28	1.00	t=-3.319 p=0.001	—
	여자	3.35	0.90		
학교급	초등학교 ^a	3.47	0.95	F=77.447 p=0.000	a>b>c
	중학교 ^b	3.35	0.93		
	고등학교 ^c	3.16	0.95		
지역규모	대도시 ^a	3.35	0.95	F=4.482 p=0.011	a>b
	중소도시 ^b	3.28	0.96		
	읍면지역	3.31	0.94		
학업성적	상 ^a	3.51	0.98	F=111.784 p=0.000	a>b>c
	중 ^b	3.25	0.91		
	하 ^c	3.13	0.94		
경제수준	상 ^a	3.44	0.97	F=67.230 p=0.000	a>b>c
	중 ^b	3.23	0.91		
	하 ^c	3.15	0.96		

* 주: 아주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1점),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2점), 보통이다(3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4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5점)

청소년활동 참여정도에 관한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표 IV-16>). 그 결과, 여자 청소년(M=3.35)이 남자 청소년(M=3.28)보다 ($p<.01$),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3.47, 중 3.35, 고 3.16) 청소년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M=3.35) 거주 청소년이 중소도시(M=3.28) 거주 청소년에 비해 청소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그리고 청소년의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3.51, 중 3.25, 하 3.13)($p<.001$),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3.44, 중 3.23, 하 3.15)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고하였다($p<.001$).

5)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발전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였는지에 대해 Likert형 5점 척도로 살펴보았다.



【그림 IV-14】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연도별 추이)

그 결과, 청소년들은 평균 3.10의 보통 수준으로 자신의 발전을 기대하였으며, 이는 작년 평균 3.05와 비슷한 수치이다. 응답 분포를 통해 살펴보면, ‘보통이다’로 응답한 청소년이 35.3%로 가장 많았고, ‘조금 기대하였다’가 29.4%,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다’가 21.5%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주 기대가 컸다’는 응답이 7.6%, ‘전혀 기대한 것이 없다’는 응답도 6.3%를 차지하였다. 2016년도 결과와 비교했을 때 눈여겨볼 만한 결과는 ‘보통이다’의 응답률이 4.6%포인트 감소한 반면, ‘조금 기대하였다’와 ‘아주 기대가 컸다’의 응답률은 각각 2.1%포인트, 1.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그 변화 차이가 미미한 수준이지만 청소년활동의 성취기대수준의 증가가 청소년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표 IV-17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2017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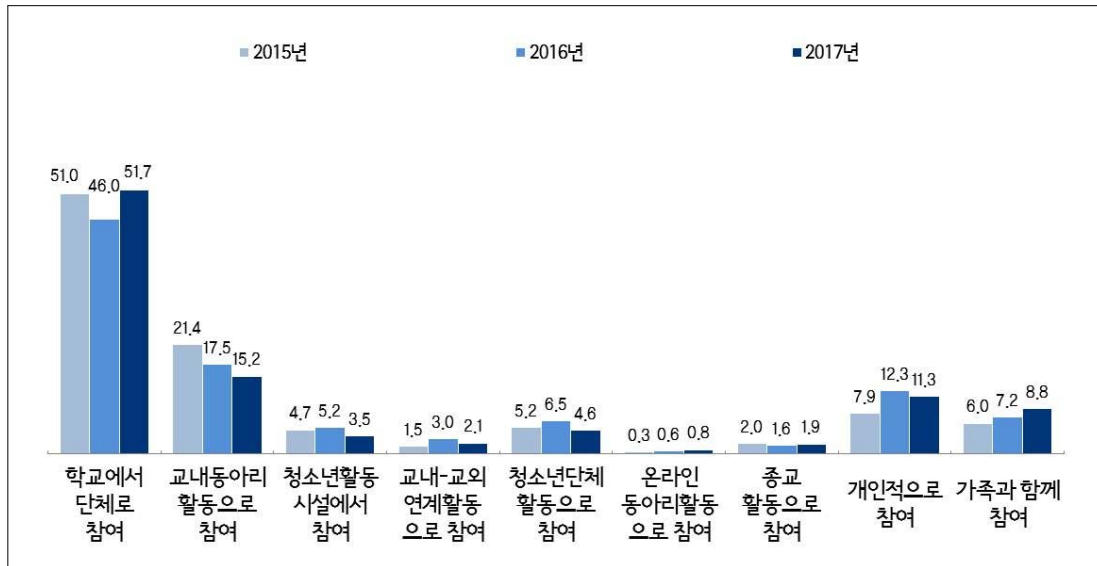
구분		평균 ¹⁾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3.10	1.03	—	—
성별	남자	3.09	1.07	t=-1.247 p=0.212	—
	여자	3.12	0.98		
학교급	초등학교 ^a	3.41	1.05	F=179.173 p=0.000	a)b)c
	중학교 ^b	3.06	0.98		
	고등학교 ^c	2.91	0.99		
지역규모	대도시	3.10	1.03	F=0.442 p=0.642	—
	중소도시	3.10	1.04		
	읍면지역	3.13	1.00		
학업성적	상 ^a	3.30	1.07	F=99.792 p=0.000	a)b)c
	중 ^b	3.07	0.99		
	하 ^c	2.89	0.98		
경제수준	상 ^a	3.23	1.05	F=55.916 p=0.000	a)b,c
	중 ^b	3.02	0.99		
	하 ^c	2.95	1.02		

* 주: 전혀 기대한 것이 없다(1점),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다(2점), 보통이다(3점), 조금 기대하였다(4점), 아주 기대가 컸다(5점)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남녀 청소년의 성별과 지역규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수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가운데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3.41, 중 3.06, 고 2.91)($p<.001$),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3.30, 중 3.07, 하 2.89) 청소년활동으로 인한 자신의 발전을 더 많이 기대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의 경우에는 상 집단(M=3.23)이 중 집단(M=3.02)과 하 집단(M=2.95)보다 자신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6) 청소년활동 참여형태

(단위: %)



【그림 IV-15】 청소년활동 참여형태(연도별 추이)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에 주로 어떤 형태로 참여하였는지 살펴본 결과,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했다는 응답이 2015년부터 3년간 1위로 나타났다. 2016년도에는 50%를 약간 밑도는 응답률(46.0%)을 보였으나 2015년도(51.0%)와 2017년도(51.7%)에는 조사 대상자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단체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학교를 통한 대단위 집단 중심의 청소년활동 형태가 주를 이루는 만큼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청소년관련시설 간의 보다 다양한 연계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교내 동아리활동으로 참여’한 비율이 15.2%, ‘개인적으로 참여’한 비율이 11.3%, ‘가족과 함께 참여’한 비율이 8.8%를 차지하였으며, 교내 동아리 활동을 통한 참여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경우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 개인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5년도에 비해서는 그 참여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단체활동으로 참여’(4.6%),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참여’(3.5%), ‘교내-교외 연계활동으로 참여’(2.1%), ‘종교활동으로 참여’(1.9%), ‘온라인동아리활동으로 참여’(0.8%) 순으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최근 3년 동안의 청소년활동 참여형태의 순위는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18 청소년활동 참여형태(2017년도)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통계치
전체		51.7	15.2	3.5	2.1	4.6	0.8	1.9	11.3	8.8	100.0	-
성별	남자	49.6	15.7	3.4	2.3	4.3	1.2	1.8	12.6	9.2	100.0	$\chi^2=42.822$ $p=0.000$
	여자	53.9	14.8	3.6	2.0	5.0	0.4	1.9	10.0	8.4	100.0	
학교급	초등학교	39.6	11.6	3.6	2.2	9.5	0.9	2.2	10.3	20.1	100.0	$\chi^2=899.817$ $p=0.000$
	중학교	53.9	16.3	4.4	2.1	3.3	1.0	1.9	10.4	6.7	100.0	
	고등학교	59.1	17.0	2.7	2.1	2.0	0.6	1.6	12.9	1.9	100.0	
지역규모	대도시	52.2	14.5	3.3	1.9	5.4	0.8	1.6	11.9	8.4	100.0	$\chi^2=39.391$ $p=0.001$
	중소도시	50.6	15.7	3.3	2.5	3.7	0.8	2.1	11.3	9.9	100.0	
	읍면지역	53.0	15.9	4.4	2.0	4.8	1.0	1.9	9.9	7.2	100.0	
학업성적	상	47.8	14.3	3.4	2.4	6.5	0.7	1.8	11.8	11.4	100.0	$\chi^2=114.498$ $p=0.000$
	중	52.4	15.6	3.8	2.0	4.2	0.8	1.7	10.9	8.6	100.0	
	하	56.0	15.8	3.1	2.0	2.7	1.1	2.3	11.4	5.5	100.0	
경제수준	상	48.2	14.6	3.3	2.3	5.8	0.8	1.7	11.8	11.6	100.0	$\chi^2=116.145$ $p=0.000$
	중	54.1	16.1	3.9	2.0	3.7	0.8	2.0	10.2	7.1	100.0	
	하	55.7	15.1	3.1	1.8	3.5	0.8	2.1	12.6	5.2	100.0	

* 주: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 ②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 ③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참여, ④ 교내-교외(지역사회)연계활동으로 참여, ⑤ 청소년단체활동으로 참여, ⑥ 온라인동아리활동으로 참여, ⑦ 종교활동으로 참여, ⑧ 개인적으로 참여, ⑨ 가족과 함께 참여

청소년활동의 참여형태를 일반적 특성에 따라 확인한 결과는 <표 IV-18>과 같다. 우선, 성별에 따른 전체 순위는 남녀 동일하였으나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남 49.6%, 여 53.9%) 등은 여자가 남자보다, ‘개인적으로 참여’(남 12.6%, 여 10.0%) 등은 남자가 여자보다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다음으로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1순위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한 비율은 학교급이 높을수록(초 39.6%, 중 53.9%, 고 59.1%) 높게 조사되었고, 2순위 응답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생이 각각 다르게 제시되었다. 즉, 초등학교의 경우 ‘가족과 함께 참여’(초 20.1%, 중 6.7%, 고 1.9%)로, 중·고등학생은 ‘교내 동아리활동으로 참여’(고 17.0%, 중 16.3%, 초 11.6%)로 확인되었다. 한편, ‘청소년단체활동으로 참여’한 비율은 초등학교(9.5%)이 다른 교급(중 3.3%, 고 2.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의 차이를 보였다($p<.001$).

거주지역의 규모별로 보면, 지역규모에 상관없이 전체 순위와 동일하게 분석된 가운데 ‘학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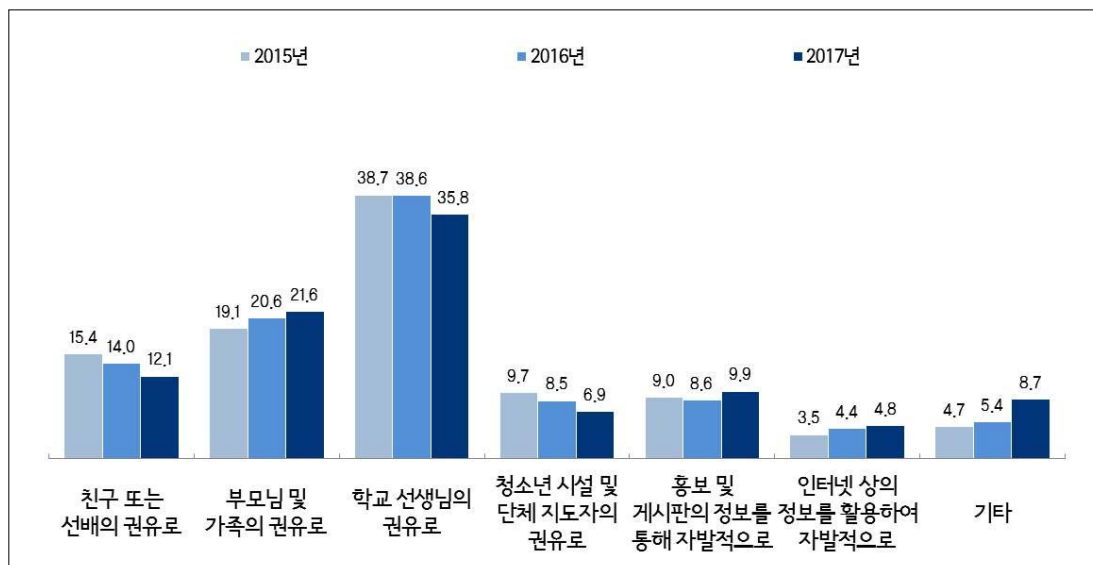
서 단체로 참여'는 읍면지역(53.0%)과 대도시(52.2%)가 중소도시(50.6%)보다, '개인적으로 참여'는 대도시(11.9%)와 중소도시(11.3%)가 읍면지역(9.9%)보다, '가족과 함께 참여'는 중소도시(9.9%), 대도시(8.4%), 읍면지역(7.2%) 순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등의 차이가 나타났다($p<.01$).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한 경우는 성적이 낮을수록(하 56.0%, 중 52.4%, 상 47.8%), '가족과 함께 참여'(상 11.4%, 중 8.6%, 하 5.5%)와 '청소년단체활동으로 참여'(상 6.5%, 중 4.2%, 하 2.7%)는 성적이 높을수록 참여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마지막으로 경제수준별로 보면,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는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하 55.7%, 중 54.1%, 상 48.2%)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가족과 함께 참여'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11.6%, 중 7.1%, 하 5.2%)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등의 차이가 발견되었다($p<.001$).

7) 청소년활동 참여경로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참여하였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그림 IV-16]),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참여했다는 응답이 35.8%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21.6%),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12.1%) 참여했다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서 '홍보 및 게시판의 정보를 통해 자발적으로'(9.9%), '기타'(8.7%), '청소년시설 및 단체 지도자의 권유로'(6.9%), '인터넷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4.8%)의 순으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로를 밝혔다. '기타' 응답에는 종교단체 지도자의 권유로 참여했거나 청소년활동을 실행하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참여한 경우 등이 있었다. 또한 주요한 참여경로를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기타로 응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살펴본 청소년활동의 참여형태에서 학교의 역할이 비중 있게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게 된 경로에서도 학교 선생님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률 자체는 2015년과 2016년에 비해 약 3%포인트 가량 하락하였지만,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인한 참여가 두드러지게 높은 경향은 3년간의 연도별 추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참여경로에 대한 응답률에서도 큰 변화는 없었으나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 혹은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지도자의 권유로' 참여했다는 응답률은 매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반면,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 '기타' 응답률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위: %)



【그림 IV-16】 청소년활동 참여경로(연도별 추이)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게 된 주요 경로를 일반적 특성별로 살펴보면(〈표 IV-19〉), 성별에 따라서는 남녀 모두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남 35.6%, 여 36.0%) 참여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 및 가족의 권유로’ 참여한 경우가 많았으며, 남자 청소년(23.4%)이 여자 청소년(19.7%)보다 그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홍보 및 게시판의 정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응답은 여자 청소년(12.4%)이 남자 청소년(7.6%)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p<.001$).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39.7%),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26.0%)의 순으로, 중학생은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37.8%),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21.0%)의 순으로, 고등학생은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41.7%),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16.8%)의 순으로 주된 청소년활동의 참여경로를 보고하였다. 그밖에 ‘홍보 및 게시판의 정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고등학생(13.0%)이 중학생(8.4%)과 초등학생(7.6%)에 비해 많았다($p<.001$). 거주지역의 규모별로 보면, 규모에 따른 응답 순위의 차이는 없었으나 1순위 응답인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참여한 비율은 읍면지역(38.2%), 대도시(35.8%), 중소도시(34.8%) 순으로, 2순위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는 중소도시(23.6%), 대도시(21.2%), 읍면지역(18.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3순위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 참여한 청소년은 지역규모가 작을수록(읍 13.8%, 중 12.4%, 대 11.1%)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표 IV-19 청소년활동 참여경로(2017년도)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통계치
전체		12.1	21.6	35.8	6.9	9.9	4.8	8.7	100.0	-
성별	남자	12.5	23.4	35.6	6.9	7.6	4.8	9.2	100.0	$\chi^2=67.313$ p=0.000
	여자	11.8	19.7	36.0	7.0	12.4	4.9	8.2	100.0	
학교급	초등학교	7.4	39.7	26.0	6.9	7.6	3.8	8.6	100.0	$\chi^2=916.114$ p=0.000
	중학교	10.8	21.0	37.8	7.8	8.4	5.0	9.3	100.0	
	고등학교	16.8	8.3	41.7	6.3	13.0	5.5	8.4	100.0	
지역규모	대도시	11.1	21.2	35.8	7.0	10.3	5.2	9.4	100.0	$\chi^2=40.585$ p=0.000
	중소도시	12.4	23.6	34.8	7.3	9.4	4.9	7.6	100.0	
	읍면지역	13.8	18.3	38.2	6.1	10.0	3.8	9.7	100.0	
학업성적	상	9.9	26.0	32.8	7.2	10.7	4.9	8.5	100.0	$\chi^2=113.059$ p=0.000
	중	12.7	21.8	36.4	7.0	9.2	4.8	8.2	100.0	
	하	14.4	15.0	39.3	6.6	10.0	4.8	9.9	100.0	
경제수준	상	11.0	26.2	32.6	7.1	10.2	4.4	8.5	100.0	$\chi^2=117.124$ p=0.000
	중	13.5	18.5	38.4	7.2	9.0	5.0	8.5	100.0	
	하	12.4	16.0	39.0	5.8	11.3	5.5	10.0	100.0	

* 주: ①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 ②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 ③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④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지도자의 권유로, ⑤ 홍보 및 게시판의 정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⑥ 인터넷 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⑦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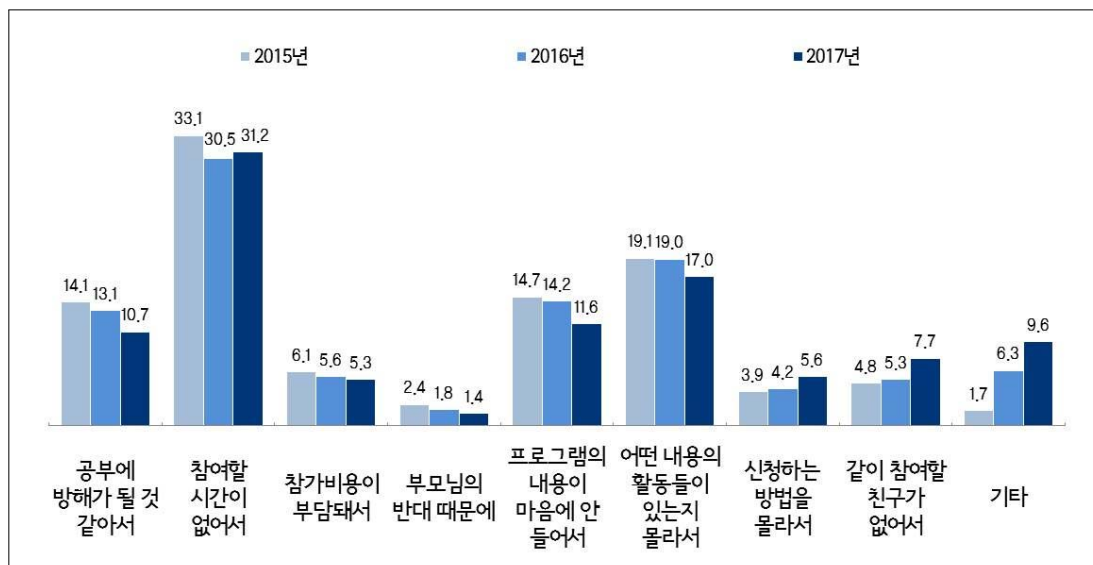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1순위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참여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적이 낮을수록 (하 39.3%, 중 36.4%, 상 32.8%) 높은 반면, 2순위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 참여한 비율은 성적이 높을수록(상 26.0%, 중 21.8%, 하 15.0%)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위로 상위권은 ‘홍보 및 게시판의 정보를 통해 자발적으로’(10.7%) 참여한 것으로, 중·하위권은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중 12.7%, 하 14.4%) 참여했다고 응답하였다($p<.001$). 마지막 경제수준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1순위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참여한 비율은 하 집단(39.0%)과 중 집단(38.4%)이 상 집단(32.6%)보다 높았고, 2순위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26.2%, 중 18.5%, 하 16.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순위 응답인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는 중 집단(13.5%), 하 집단(12.4%), 상 집단(11.0%)의 순으로, 4순위 응답인 ‘홍보 및 게시판의 정보를 통해 자발적으로’는 하 집단(11.3%), 상 집단(10.2%), 중 집단(9.0%)의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집단별 순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체 순위와 동일하였다($p<.001$).

8) 청소년활동 장애요인

청소년들에게 최근 1년 동안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장 방해가 되었던 요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그림 IV-17), 전체 청소년 중 약 1/3 정도(31.2%)가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3년간의 연도별 추이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청소년활동의 가장 큰 장애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가 17.0%,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11.6%,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가 10.7%를 차지하였다. 그 밖에 ‘기타’(9.6%), ‘같이 참여할 친구가 없어서’(7.7%),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5.6%), ‘참가비용이 부담돼서’(5.3%),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1.4%) 청소년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체 응답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기타’ 응답에는 방해되는 요인이 없다는 의견과 단순히 귀찮다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게임, 휴대폰 사용 등의 다른 여가활동이 더 좋아서 참여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교통편이 불편하거나 활동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날씨, 참가인원, 장소 등과 같은 환경적 장애요소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었다.

2015년부터의 조사결과를 보면,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등의 응답률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아울러 활동프로그램의 주제나 내용, 홍보 등의 측면을 장애요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감소한 것도 청소년활동 활성화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결과로 사료된다. 반면,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같이 참여할 친구가 없어서’ 등의 응답률이 증가한 것은 청소년활동의 신청방법에 관한 안내 및 홍보가 부족했거나 혼자 참여하기에 부담을 느꼈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따라서 효과적인 홍보방법과 다양한 방법의 활동과정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단위: %)



【그림 IV-17】 청소년활동 장애요인(연도별 추이)

청소년활동의 장애요인을 일반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IV-20). 우선, 성별로는 남녀 청소년 모두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를 1순위로 꼽았으나 여자 청소년(33.4%)의 응답률이 남자 청소년(29.2%)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다른 요인들은 대부분 남자 청소년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확인되거나 남녀의 비율이 유사하였다($p<.001$). 학교급의 경우, 1순위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는 교급이 높을수록(고 33.5%, 중 31.9%, 초 27.3%) 많이 응답하였고, 2순위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는 고등학생(18.0%), 초등학생(16.8%), 중학생(15.9%) 순으로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초등학생은 ‘기타’(초 15.4%, 중 9.5%, 고 5.4%)를, 중학생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중 14.2%, 고 12.7%, 초 7.2%)를, 고등학생은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고 15.9%, 중 8.6%, 초 6.1%)를 그 다음 순위로 응답하였다. 이외 ‘참가비용이 부담돼서’의 응답은 초등학생(7.3%)이 중·고등학생(고 4.5%, 중 4.4%)보다, ‘같이 참여할 친구가 없어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10.8%, 중 8.2%, 고 4.8%)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등의 차이를 보였다($p<.001$).

거주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보면, 1순위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는 대도시(33.4%)가 중소도시(29.7%) 또는 읍면지역(29.3%)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고하였다. 반면, 2순위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는 읍면지역(19.6%)의 청소년이 중소도시(16.6%) 및 대도시(16.2%)의 청소년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등의 차이가 있었다($p<.01$). 학업성적에 따라 살펴보면, 1순위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는 성적이 높을수록(상 33.4%, 중 31.9%, 하 27.0%), 2순위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는 성적이 낮을수록(하 19.2%, 중 17.6%, 상 14.6%)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3순위의 경우, 상위권은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상 13.9%, 중 9.5%, 하 8.1%)로, 중·하위권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하 13.8%, 중 11.4%, 상 10.2%)로 응답하였다. 이 외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하 7.0%, 중 6.1%, 상 4.0%)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의 차이가 나타났다($p<.001$). 끝으로 경제수준별로 살펴본 결과, 1순위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32.4%, 중 31.3%, 하 27.7%), 2순위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는 중 집단(17.9%), 상 집단(16.9%), 하 집단(15.0%) 순으로 많이 선택하였다. 한편, ‘참가비용이 부담돼서’의 응답은 하 집단(9.3%)이 상 집단(4.8%) 및 중 집단(4.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001$).

표 IV-20 청소년활동 장애요인(2017년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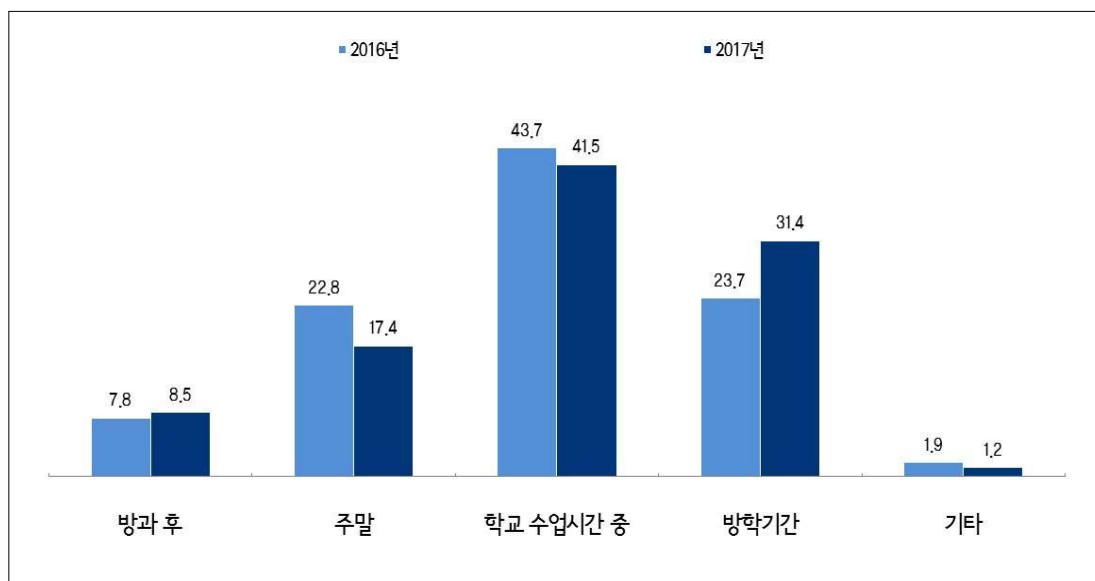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통계치
전체		10.7	31.2	5.3	1.4	11.6	17.0	5.6	7.7	9.6	100.0	—
성별	남자	10.8	29.2	4.8	1.7	12.4	16.8	5.7	7.8	10.9	100.0	$\chi^2=41.504$ $p=0.000$
	여자	10.6	33.4	5.8	1.2	10.6	17.2	5.4	7.5	8.3	100.0	
학교급	초등학교	6.1	27.3	7.3	2.7	7.2	16.8	6.5	10.8	15.4	100.0	$\chi^2=522.653$ $p=0.000$
	중학교	8.6	31.9	4.4	1.3	14.2	15.9	6.0	8.2	9.5	100.0	
	고등학교	15.9	33.5	4.5	0.5	12.7	18.0	4.6	4.8	5.4	100.0	
지역규모	대도시	10.1	33.4	5.4	1.3	11.5	16.2	4.8	7.0	10.4	100.0	$\chi^2=41.142$ $p=0.001$
	중소도시	11.1	29.7	5.3	1.7	12.1	16.6	6.3	8.0	9.1	100.0	
	읍면지역	11.1	29.3	5.2	1.0	10.4	19.6	5.8	8.4	9.2	100.0	
학업성적	상	13.9	33.4	4.8	1.5	10.2	14.6	4.0	7.2	10.4	100.0	$\chi^2=127.984$ $p=0.000$
	중	9.5	31.9	5.1	1.5	11.4	17.6	6.1	7.7	9.3	100.0	
	하	8.1	27.0	6.5	1.1	13.8	19.2	7.0	8.2	9.1	100.0	
경제수준	상	11.3	32.4	4.8	1.3	11.0	16.9	4.7	7.2	10.2	100.0	$\chi^2=88.132$ $p=0.000$
	중	10.0	31.3	4.1	1.4	12.2	17.9	6.5	7.8	8.6	100.0	
	하	10.5	27.7	9.3	1.5	11.5	15.0	5.7	8.6	10.3	100.0	

* 주: ①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②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③ 참가비용이 부담돼서 ④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⑤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⑥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 ⑦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⑧ 같이 참여할 친구가 없어서 ⑨ 기타

9)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

청소년들에게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를 조사하였으며, 분석결과 전체 청소년의 41.5%가 ‘학교 수업시간 중’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 희망하는 시간으로 ‘방학기간’을 꼽았으며, 이어서 ‘주말’(17.4%), ‘방과 후’(8.5%), ‘기타’(1.2%)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학교 수업시간에 청소년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결과는 자유학기제, 창의적체험활동,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등의 도입과 더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학교와 지역사회 내 청소년시설·단체 간의 협력 및 청소년활동의 연계방안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16년도 결과와 비교했을 때 ‘주말’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5.4%포인트 감소하였고, ‘방학기간’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7.7%포인트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이는 많은 청소년들이 학기 중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의 사용이 자유로운 방학 중에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단위: %)



【그림 IV-18】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연도별 추이)

표 IV-21 청소년활동 희망 시간(2017년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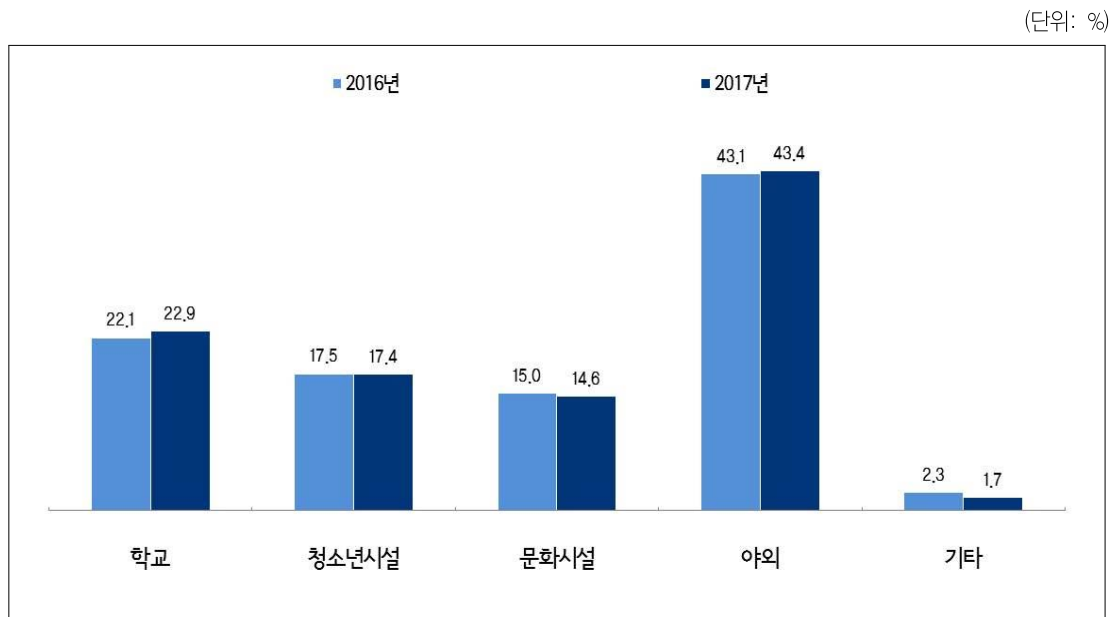
구분		방과 후	주말	학교 수업시간 중	방학기간	기타	전체	통계치
전체		8.5	17.4	41.5	31.4	1.2	100.0	—
성별	남자	9.5	18.1	40.2	30.7	1.4	100.0	$\chi^2=23.541$ p=0.000
	여자	7.5	16.6	43.0	32.1	0.9	100.0	
학교급	초등학교	9.6	20.7	28.0	39.9	1.8	100.0	$\chi^2=311.872$ p=0.000
	중학교	6.1	16.1	49.4	27.6	0.8	100.0	
	고등학교	9.8	15.9	45.1	28.1	1.1	100.0	
지역규모	대도시	7.5	17.7	41.7	32.1	0.9	100.0	$\chi^2=22.422$ p=0.004
	중소도시	9.0	16.5	41.0	32.0	1.4	100.0	
	읍면지역	9.9	18.5	42.1	28.2	1.3	100.0	
학업성적	상	7.7	18.3	37.3	35.3	1.4	100.0	$\chi^2=104.876$ p=0.000
	중	9.1	18.0	40.1	31.3	1.4	100.0	
	하	8.7	15.0	49.6	26.0	0.6	100.0	
경제수준	상	7.9	17.7	39.9	33.4	1.2	100.0	$\chi^2=30.894$ p=0.000
	중	8.5	17.4	42.1	30.9	1.1	100.0	
	하	10.4	16.5	44.9	26.9	1.4	100.0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으로 청소년들이 가장 희망하는 ‘학교 수업시간 중’(여 43.0%, 남 40.2%), ‘방학기간’(여 32.1%, 남 30.7%)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이에 반해 ‘주말’(남 18.1%, 여 16.6%), ‘방과 후’(남 9.5%, 여 7.5%) 등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학교급별로는 1, 2순위의 경우, 초등학생은 ‘방학기간’(39.9%), ‘학교 수업시간 중’(28.0%)의 순으로, 중·고등학생은 ‘학교 수업시간 중’(중 49.4%, 고 45.1%), ‘방학기간’(중 27.6%, 고 28.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어서 3순위 ‘주말’은 초등학생(20.7%)이 중·고등학생(중 16.1%, 고 15.9%)보다, 4순위 ‘방과 후’는 고등학생(9.8%)과 초등학생(9.6%)이 중학생(6.1%)보다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1순위 ‘학교 수업시간 중’(대 41.7%, 중 41.0%, 읍 42.1%)에 대한 응답은 유사하였으나 2순위 ‘방학기간’에 대한 응답률은 대도시(32.1%)와 중소도시(32.0%)가 읍면지역(28.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말’을 희망하는 비율은 읍면지역

(18.5%), 대도시(17.7%), 중소도시(16.5%)의 순으로, ‘방과 후’에 대한 응답률은 읍면지역(9.9%)과 중소도시(9.0%) 거주 청소년이 대도시(7.5%) 거주 청소년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p<.01$).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를 보면, ‘학교 수업시간 중’은 성적이 낮을수록(하 49.6%, 중 40.1%, 상 37.3%), ‘방학기간’은 성적이 높을수록(상 35.3%, 중 31.3%, 하 26.0%)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말’은 상위권(18.3%)과 중위권(18.0%)이 하위권(15.0%)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고하였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1순위 ‘학교 수업시간 중’은 경제수준이 낮을수록(하 44.9%, 중 42.1%, 상 39.9%), 2순위 ‘방학기간’은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33.4%, 중 30.9%, 하 26.9%)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에 대한 응답률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하위권(10.4%)이 중위권(8.5%)이나 상위권(7.9%)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응답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10) 청소년활동 희망 장소



【그림 IV-19】 청소년활동 희망 장소(연도별 추이)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의 장소로 가장 선호하는 곳은 ‘야외’로 확인되었으며, 43.4%의 높은 응답률을 보고하였다. 그 다음으로 ‘학교’(22.9%), ‘청소년시설’(17.4%), ‘문화시설’(14.6%), ‘기타’(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2016년도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살펴본 청소년활동의 희망 시간에 대한 결과와 다소 상충되어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종합하면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을 선호하되 교내보다는 야외에서의 활동을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위한 청소년활동 시 다양한 실내외 장소와 환경을 고려해야 하겠다.

표 IV-22 청소년활동 희망 장소(2017년도)

(단위: %)

구분		학교	청소년 시설	문화시설	야외	기타	전체	통계치
전체		22.9	17.4	14.6	43.4	1.7	100.0	—
성별	남자	25.1	14.5	12.4	45.7	2.3	100.0	$\chi^2=126.411$ p=0.000
	여자	20.6	20.5	16.9	40.8	1.1	100.0	
학교급	초등학교	20.1	13.6	11.7	52.5	2.1	100.0	$\chi^2=155.882$ p=0.000
	중학교	22.2	20.1	14.6	41.6	1.5	100.0	
	고등학교	25.7	18.0	16.7	38.0	1.6	100.0	
지역규모	대도시	21.7	17.9	14.1	44.8	1.5	100.0	$\chi^2=17.394$ p=0.026
	중소도시	24.3	16.7	14.3	43.0	1.7	100.0	
	읍면지역	22.9	17.9	16.1	41.0	2.2	100.0	
학업성적	상	21.2	16.4	16.3	44.0	2.1	100.0	$\chi^2=30.511$ p=0.000
	중	22.8	17.5	14.5	43.6	1.6	100.0	
	하	25.5	18.4	12.3	42.2	1.5	100.0	
경제수준	상	21.5	17.1	13.8	45.8	1.8	100.0	$\chi^2=27.531$ p=0.001
	중	23.6	17.1	15.5	42.3	1.5	100.0	
	하	25.2	18.8	14.6	39.2	2.0	100.0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별로 희망하는 장소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먼저, 성별로 보면, 1순위 ‘야외’(남 45.7%, 여 40.8%)와 2순위 ‘학교’(남 25.1%, 여 20.6%)를 희망하는 비율은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았다. 여자 청소년은 3순위 ‘청소년시설’에 대한 응답률이 20.5%로 ‘학교’와 비슷하였고, 남자 청소년은 14.5%의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문화시설’에서의 활동도 여자 청소년(16.9%)이 남자 청소년(12.4%)보다

더 희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p<.001$). 학교급에 따라서는 1순위 ‘야외’의 경우,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52.5%, 중 41.6%, 고 38.0%) 선호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생은 절반 이상의 응답률을 보고하였다. 한편, 2순위 ‘학교’는 학교급이 높을수록(고 25.7%, 중 22.2%, 초 20.1%)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시설’은 중학생(20.1%), 고등학생(18.0%), 초등학생(13.6%) 순으로, ‘문화시설’은 학교급이 높을수록(고 16.7%, 중 14.6%, 초 11.7%)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지역규모별로는 1순위 ‘야외’는 규모가 클수록(대 44.8%, 중 43.0%, 읍 41.0%), 2순위 ‘학교’는 중소도시(24.3%), 읍면지역(22.9%), 대도시(21.7%) 순으로 희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의 차이를 보였다($p<.05$). 학업성적에 따라 살펴보면, ‘야외’를 희망하는 비율은 상위권(44.0%)과 중위권(43.6%)이 하위권(42.2%) 청소년보다 다소 높았고, ‘학교’는 성적이 낮을수록(하 25.5%, 중 22.8%, 상 21.2%) 더 많이 선호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시설’은 성적이 낮을수록(하 18.4%, 중 17.5%, 상 16.4%), ‘문화시설’은 성적이 높을수록(상 16.3%, 중 14.5%, 하 12.3%)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게 조사되었다($p<.001$). 마지막으로 가정의 경제수준별로 보면, 1순위 ‘야외’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상 45.8%, 중 42.3%, 하 39.2%), 2순위 ‘학교’는 경제수준이 낮을수록(하 25.2%, 중 23.6%, 상 21.5%)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1$).

11) 청소년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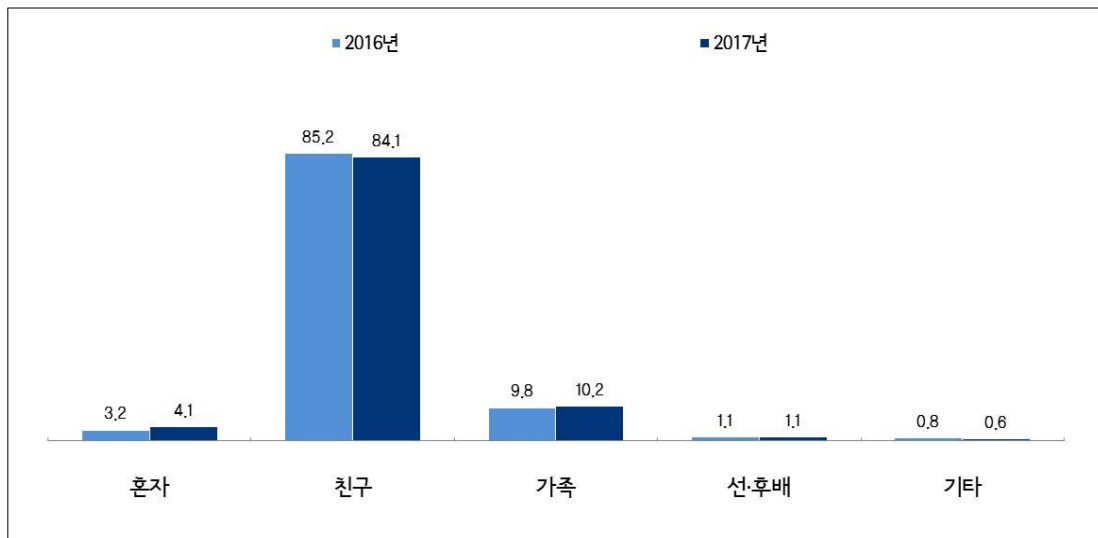
청소년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한 결과(그림 IV-20), 전체 청소년의 84.1%에 해당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친구’로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가족’이 10.2%, ‘혼자’가 4.1%, ‘선·후배’가 1.1%, ‘기타’가 0.6%를 차지하였다. 이는 전년도 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 매우 유사한 수치이며, 청소년활동에서 친구와의 동반 참여를 비롯한 친구들과의 상호교류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와 같은 특징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앞서 조사된 청소년활동 장애요인의 친구 관련 요인과의도 함께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을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표 IV-23)에서는 먼저, ‘친구’를 선택한 비율은 여자 청소년(85.9%)이 남자 청소년(82.4%)보다 높은 반면, ‘혼자’에 대한 응답률은 남자 청소년(5.0%)이 여자 청소년(3.1%)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의 차이를 보였다($p<.001$). 학교급의 경우, ‘친구’는 중학생(90.0%)과 고등학생(90.7%)의 응답률이

90% 이상을 차지하여 초등학생(68.5%)의 응답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가족’으로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생이 27.0%로 중학생(5.0%), 고등학생(2.1%)보다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혼자’의 응답률은 학교급이 높을수록(고 5.3%, 중 3.6%, 초 2.9%) 높게 나타나는 등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p<.001$).

지역규모별로는 1순위 ‘친구’(대 84.6%, 읍 84.0%, 중 83.5%)와 이 외의 대상에 대한 응답률은 지역크기에 상관없이 유사하였지만, ‘가족’은 중소도시(11.4%) 거주 청소년이 대도시(9.6%)나 읍면지역(9.2%)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더 많이 선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p<.05$). 학업성적별로 보면, ‘친구’는 성적이 낮을수록(하 86.3%, 중 84.7%, 상 81.6%), ‘가족’은 성적이 높을수록(상 13.0%, 중 10.3%, 하 6.4%)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하위권(5.7%)이 상위권(3.7%) 혹은 중위권(3.4%)보다 많이 보고하는 등의 차이가 나타났다($p<.001$). 가족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1순위 ‘친구’는 중 집단(86.3%), 하 집단(83.6%), 상 집단(82.3%) 순으로, 2순위 ‘가족’은 상 집단(12.9%)이 중 집단(8.2%)과 하 집단(7.7%)보다, 3순위 ‘혼자’는 하 집단(6.4%)이 중 집단(4.0%)과 상 집단(3.3%)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등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p<.001$).

(단위: %)



【그림 IV-20】 청소년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연도별 추이)

표 IV-23 청소년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대상(2017년도)

(단위: %)

구분	혼자	친구	가족	선·후배	기타	전체	통계치
전체	4.1	84.1	10.2	1.1	0.6	100.0	—
성별	남자	5.0	82.4	10.4	1.4	0.9	100.0
	여자	3.1	85.9	10.0	0.8	0.2	100.0
학교급	초등학교	2.9	68.5	27.0	1.0	0.6	100.0
	중학교	3.6	90.0	5.0	1.1	0.3	100.0
	고등학교	5.3	90.7	2.1	1.1	0.8	100.0
지역규모	대도시	4.1	84.6	9.6	1.1	0.6	100.0
	중소도시	3.8	83.5	11.4	1.0	0.3	100.0
	읍면지역	4.5	84.0	9.2	1.4	1.0	100.0
학업성적	상	3.7	81.6	13.0	1.0	0.7	100.0
	중	3.4	84.7	10.3	1.1	0.5	100.0
	하	5.7	86.3	6.4	1.2	0.5	100.0
경제수준	상	3.3	82.3	12.9	0.9	0.6	100.0
	중	4.0	86.3	8.2	1.2	0.4	100.0
	하	6.4	83.6	7.7	1.4	0.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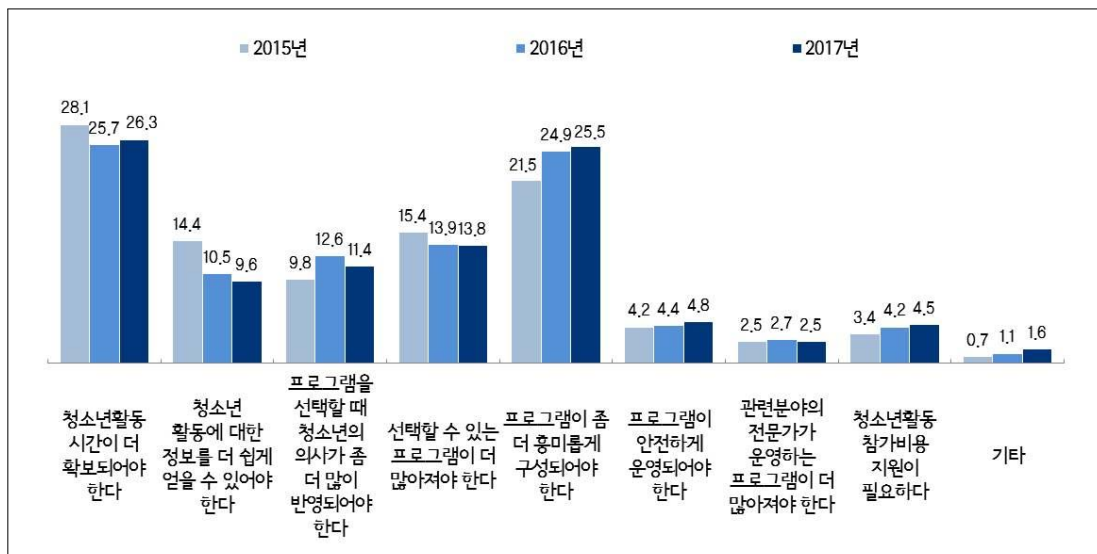
12)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

청소년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10가지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그 결과([그림 IV-21]),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26.3%),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25.5%)의 순으로 높게 응답하며, 청소년활동 시간 확보와 프로그램의 흥미로운 구성을 청소년활동 활성화의 중요 요인으로 평가하였다. 이어서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13.8%),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청소년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11.4%),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9.6%)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하며,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활동정보의 접근성 향상 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였다.

2015년도와 2016년도의 연구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순위를 보였지만, 항목별 응답률에서는 소폭 변동이 있었다. 즉,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의 경우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3.9%p),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2.4%p) 등의 항목에서는

소폭 감소한 반면,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3.4%p),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청소년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2.8%p) 등의 항목은 소폭 증가하였다.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의 경우 항목별 응답률에 있어 1%포인트 내외의 소폭 변동만 보이며 비슷한 수준의 응답률을 보였다.

(단위: %)



【그림 IV-21】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연도별 추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활성화요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IV-24〉), 지역규모를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의 경우, 남자 청소년은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남 27.5%, 여 25.0%)를, 여자 청소년은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남 24.3%, 여 26.8%)를 가장 많이 선택하는 등의 차이가 발견되었다($p<.001$).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생은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초 22.4%, 중 28.5%, 고 25.2%)를 1순위로 선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응답률은 중학생이 다른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요인으로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초 22.2%, 중 25.3%, 고 30.1%)를 가장 많이 지목하였다. 한편,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청소년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중학생(13.9%)과 고등학교(12.3%)이 초등학교(7.4%)보다,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초등학교(12.2%)이 중·고등학교(중 2.8%, 고 1.1%)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였다($p<.001$).

학업성적에 따라 살펴보면, 1, 2순위에 대한 응답으로 상위권과 하위권 청소년은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상 27.2%, 하 26.9%),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상 25.8%, 하 24.9%)의 순으로, 중위권 청소년은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25.5%),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25.2%)의 순으로 선택하였다($p<.001$). 경제수준별로는 1, 2순위 이외에 ‘청소년활동 참가비용 지원이 필요하다’의 항목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가정의 경제수준이 하 집단(7.0%)인 경우 상 집단(4.2%)과 중 집단(3.7%)보다 참가비 지원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p<.001$).

표 IV-24 청소년활동 활성화요인(2017년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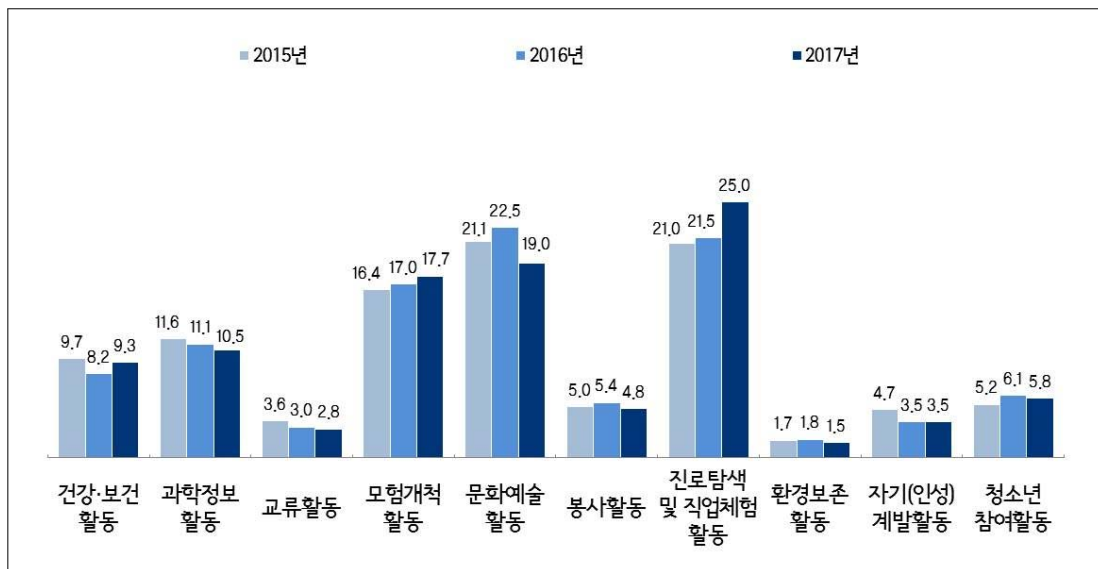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통계치
전체		26.3	9.6	11.4	13.8	25.5	4.8	2.5	4.5	1.6	100.0	-
성별	남자	27.5	9.9	10.5	14.2	24.3	5.2	2.0	4.3	2.2	100.0	$\chi^2=53.453$ $p=0.000$
	여자	25.0	9.4	12.3	13.4	26.8	4.4	3.1	4.7	0.9	100.0	
학교급	초등학교	22.2	11.3	7.4	14.2	22.4	12.2	2.9	5.1	2.2	100.0	$\chi^2=575.655$ $p=0.000$
	중학교	25.3	7.2	13.9	15.2	28.5	2.8	1.9	4.1	1.1	100.0	
	고등학교	30.1	10.4	12.3	12.3	25.2	1.1	2.7	4.3	1.6	100.0	
지역규모	대도시	26.4	9.6	12.2	13.1	25.9	4.7	2.2	4.4	1.5	100.0	$\chi^2=17.402$ $p=0.360$
	중소도시	26.6	9.4	11.1	14.0	25.6	4.9	2.7	4.2	1.5	100.0	
	읍면지역	25.4	10.2	10.2	14.9	24.2	5.0	2.8	5.3	2.0	100.0	
학업성적	상	27.2	10.7	10.5	12.3	25.8	5.0	2.7	4.6	1.2	100.0	$\chi^2=49.137$ $p=0.000$
	중	25.2	9.8	11.4	14.3	25.5	5.5	2.1	4.5	1.7	100.0	
	하	26.9	7.9	12.6	15.1	24.9	3.4	3.0	4.3	2.0	100.0	
경제수준	상	27.6	9.7	10.5	13.5	25.3	5.2	2.9	4.2	1.1	100.0	$\chi^2=65.293$ $p=0.000$
	중	25.3	9.9	11.5	14.6	26.3	4.6	2.2	3.7	1.9	100.0	
	하	25.2	8.8	13.4	12.8	24.1	4.1	2.3	7.0	2.3	100.0	

* 주: ①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③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청소년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 ④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 ⑤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⑥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⑦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 ⑧ 청소년활동 참가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⑨ 기타

13)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을 10가지 영역으로 제시하여 앞으로 가장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25.0%)에 대한 참여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문화예술활동’(19.0%), ‘모험개척활동’(17.7%), ‘과학정보활동’(10.5%), ‘건강·보건활동’(9.3%), ‘청소년참여활동’(5.8%), ‘봉사활동’(4.8%), ‘자기(인성)계발활동’(3.5%), ‘교류활동’(2.8%), ‘환경보존활동’(1.5%)의 순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경보존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 ‘교류활동’의 경우 최근 1년간 참여율이 50%미만으로 나타난 영역들로,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율과 참여 요구를 보였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청소년활동 영역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단위: %)



【그림 IV-22】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1순위(연도별 추이)

2015년, 2016년도 결과와 비교했을 때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의 전체적인 순위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올해 결과에서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2016년도 대비 3.5%p), ‘문화예술활동’의 선호도가 감소하면서(2016년도 대비 3.5%p) 지난 2년간 유지되었던 1, 2순위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지난 2년 동안 ‘문화예술활동’(2015년 21.1%, 2016년

22.5%),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2015년 21.0%, 2016년 21.5%)의 순으로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났지만, 2017년도 올해에는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이 1순위를 차지하며, 전체 청소년의 1/4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 고용난과 실업난 등의 사회불안이 계속되는 현상과 더불어 진로정책 및 제도의 변화, 청소년 진로프로그램의 증가 등으로 인해 최근 청소년 진로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나타난 결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표 IV-25>)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성별의 경우, 남자 청소년은 ‘모험개척활동’(남 24.2%, 여 10.7%)을, 여자 청소년은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남 20.9%, 여 29.5%)을 가장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으로 응답하였다. 이 외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에 비해 ‘건강·보건활동’(남 11.7%, 여 6.6%), ‘과학정보활동’(남 16.5%, 여 4.0%)에, 그리고 여자 청소년(28.6%)은 남자 청소년(10.2%)에 비해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참여의사가 높게 나타났다($p<.001$). 다음으로 학교급별로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교급에 상관없이 1순위로 나타난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은 중학생(26.5%), 고등학생(24.9%), 초등학생(23.5%)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어서 2순위로 초등학생은 ‘모험개척활동’(초 21.9%, 중 18.8%, 고 13.8%)을, 중·고등학생은 ‘문화예술활동’(초 12.9%, 중 20.5%, 고 22.4%)을 선택하는 등의 차이가 나타났다($p<.001$).

거주 지역의 규모별로 살펴보면, 지역규모에 관계없이 8~9순위를 제외하고 전체 순위와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모험개척활동’의 경우 대도시(19.1%)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16.9%)와 읍면지역(16.4%)의 청소년보다 다소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p<.05$). 학업성적의 경우, 1순위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은 성적이 낮을수록(하 26.7%, 중 25.9%, 상 22.8%)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 2순위로 상위권에 속한 청소년은 ‘모험개척활동’(상 20.4%, 중 17.6%, 하 14.4%)을, 중위권과 하위권의 청소년은 ‘문화예술활동’(상 16.8%, 중 19.7%, 하 21.0%)을 선택하였다. 이 외 ‘과학정보활동’의 경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14.5%, 중 9.4%, 하 6.9%)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p<.001$). 마지막으로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 보면, 1순위는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상 24.8%, 중 25.4%, 하 25.0%)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2순위는 상 집단의 경우 ‘모험개척활동’(상 19.8%, 중 16.3%, 하 15.5%)으로, 중 집단과 하 집단의 경우 ‘문화예술활동’(상 17.4%, 중 19.9%, 하 21.4%)으로 확인되었다($p<.001$).

표 IV-25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1순위(2017년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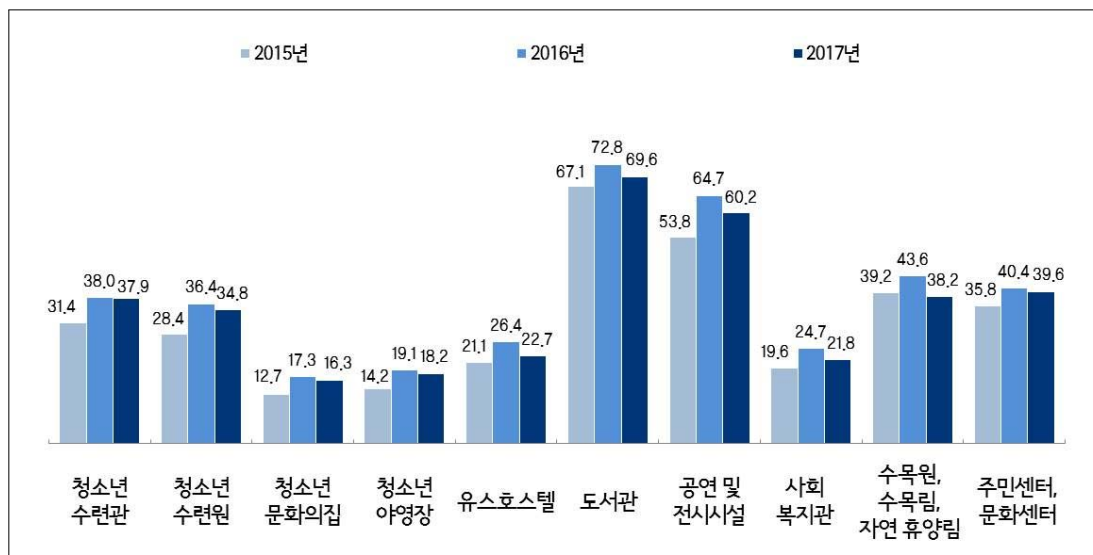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통계치
전체		9.3	10.5	2.8	17.7	19.0	4.8	25.0	1.5	3.5	5.8	100.0	—
성별	남자	11.7	16.5	2.1	24.2	10.2	3.7	20.9	1.5	3.4	5.7	100.0	$\chi^2=1107.253$ p=0.000
	여자	6.6	4.0	3.6	10.7	28.6	5.9	29.5	1.5	3.7	5.8	100.0	
학교급	초등학교	11.2	12.6	1.4	21.9	12.9	5.6	23.5	2.2	2.1	6.8	100.0	$\chi^2=294.029$ p=0.000
	중학교	8.1	9.3	2.0	18.8	20.5	4.3	26.5	1.4	3.1	6.0	100.0	
	고등학교	8.8	10.0	4.6	13.8	22.4	4.6	24.9	1.0	5.0	4.8	100.0	
지역규모	대도시	9.1	10.0	2.2	19.1	19.8	4.5	24.6	1.5	3.3	6.0	100.0	$\chi^2=34.415$ p=0.011
	중소도시	9.5	11.0	2.9	16.9	18.6	5.0	25.6	1.6	3.8	5.1	100.0	
	읍면지역	9.3	10.6	4.0	16.4	18.2	5.0	24.8	1.2	3.5	6.9	100.0	
학업성적	상	7.1	14.5	3.5	20.4	16.8	4.8	22.8	1.5	3.4	5.2	100.0	$\chi^2=177.774$ p=0.000
	중	10.0	9.4	2.2	17.6	19.7	4.5	25.9	1.6	2.9	6.2	100.0	
	하	11.0	6.9	2.8	14.4	21.0	5.3	26.7	1.3	4.8	5.8	100.0	
경제수준	상	8.9	11.1	3.1	19.8	17.4	4.2	24.8	1.7	3.4	5.6	100.0	$\chi^2=55.770$ p=0.000
	중	9.5	10.3	2.6	16.3	19.9	5.2	25.4	1.6	3.3	6.0	100.0	
	하	9.7	9.6	2.6	15.5	21.4	5.5	25.0	0.6	4.6	5.6	100.0	

* 주: ① 건강·보건활동, ② 과학정보활동, ③ 교류활동, ④ 모험개척활동, ⑤ 문화예술활동, ⑥ 봉사활동, ⑦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⑧ 환경보존활동, ⑨ 자기(인성)개발활동, ⑩ 청소년참여활동

14)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

최근 1년간 10곳의 청소년활동 관련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IV-23>과 같다.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고한 시설은 ‘도서관(학교도서관 제외)’이며, 10명 중 7명 가량(69.6%)의 청소년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공연 및 전시시설’의 이용률이 60.2%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주민센터, 문화센터’(39.6%), ‘수목원, 수목림, 자연 휴양림’(38.2%), ‘청소년수련관’(37.9%), ‘청소년수련원’(34.8%), ‘유스호스텔’(22.7%), ‘사회복지관’(21.8%), ‘청소년 야영장’(18.2%), ‘청소년문화의집’(16.3%)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이용률 순위가 지난 3년간 유사하게 나타난 가운데 2015년에서 2016년도에는 관련시설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후 2016년 대비 2017년도에는 ‘수목원, 수목림, 자연 휴양림’이 5.4%포인트, ‘공연 및 전시시설’이 4.5%포인트, ‘유스호스텔’이 3.7%포인트, ‘도서관’이 3.2%포인트 하락하는 등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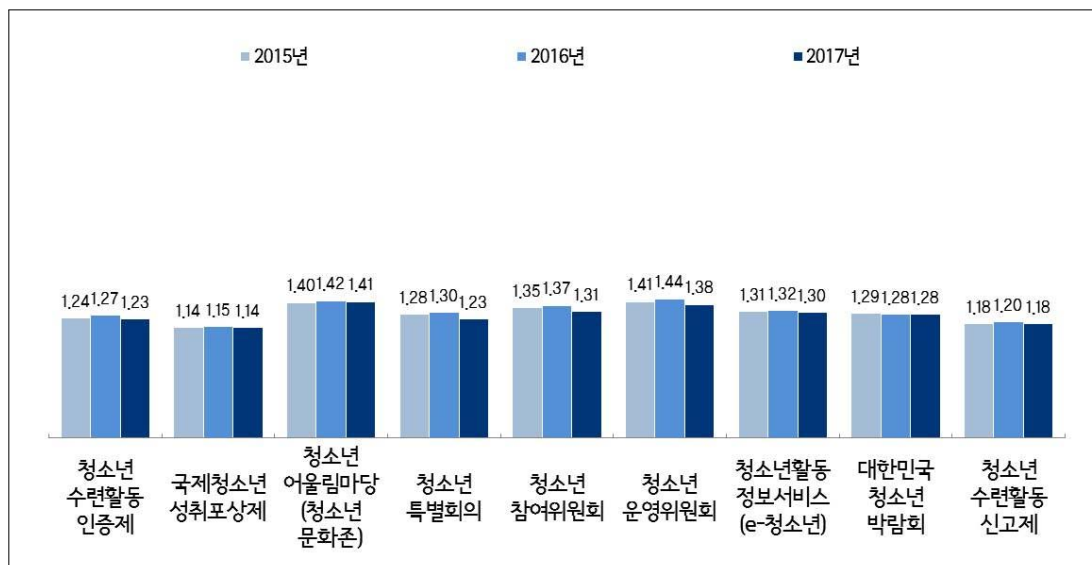


【그림 IV-23】 청소년활동 관련시설 이용경험(연도별 추이)

15)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

청소년들에게 9가지의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전혀 모른다’ ~ ‘잘 알고 있다’의 3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그림 IV-24]), ‘청소년어울림마당’의 인지도가 평균 1.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평균 1.38, ‘청소년참여위원회’ 평균 1.31,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평균 1.30,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평균 1.28,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청소년특별회의’ 평균 1.23,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평균 1.18,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평균 1.14 순으로 조사되었다. 즉,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평균 1.14~1.41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2015년, 2016년도 결과에서도 활동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활동정책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단위: 평균)



* 주: 전혀 모른다(1점), 들어본 적이 있다(2점), 잘 알고 있다(3점)

【그림 IV-24】 청소년활동정책 인지도(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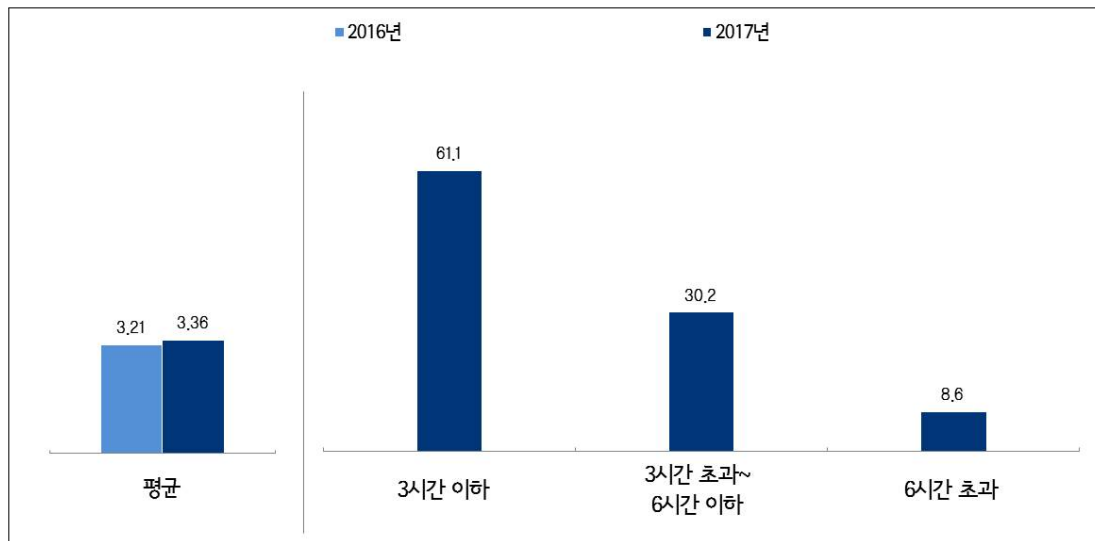
16) 청소년 여가시간

지난 1년 동안 식사시간, 취침, 학교수업, 학교숙제, 학원·과외 등의 시간을 제외한 하루 평균 여가시간을 평일(방학제외), 휴일(방학제외), 방학 중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결과는 다음 [그림 IV-25]-[그림 IV-27] 및 <표 IV-26>~<표 IV-28>과 같다.

(1) 청소년 여가시간: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방학제외)

최근 1년간 방학을 제외한 청소년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평균 3.36시간(SD=2.14)으로 조사되었다([그림 IV-25]). 구체적인 응답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을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6시간 이하', '6시간 초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 10명 중 6명은 하루 평균 여가시간이 '3시간 이하'(61.1%)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어서 '3시간 초과~6시간 이하'는 30.2%이고, '6시간 초과'는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의 평일 여가시간이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2016년도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3.21시간(SD=2.20)으로 2017년도와 유사했다.

(단위: 시간, %)



【그림 IV-25】 평일 하루 평균 청소년 여가시간(연도별 추이, 2017년)

표 IV-26 청소년 여가시간: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방학제외)(2017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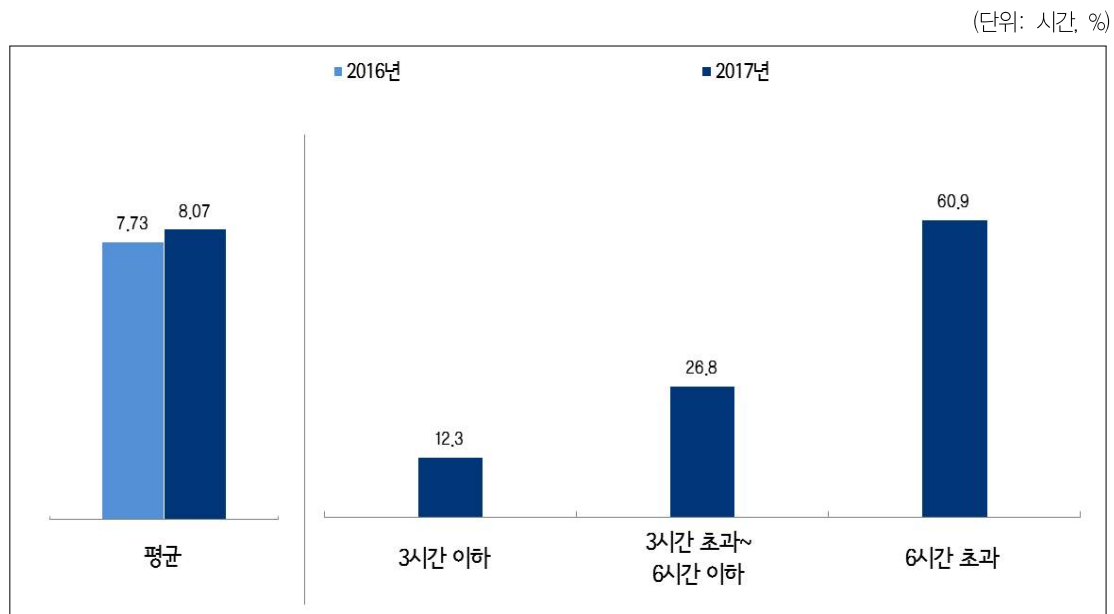
(단위: 시간)

구분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3.36	2.14	-	-
성별	남자	3.51	2.24	t=6.708 p=0.000	-
	여자	3.21	2.02		
학교급	초등학교 ^a	3.69	2.31	F=146.357 p=0.000	a,b)>c
	중학교 ^b	3.66	2.17		
	고등학교 ^c	2.88	1.88		
지역규모	대도시	3.34	2.18	F=1.318 p=0.268	-
	중소도시	3.36	2.11		
	읍면지역	3.44	2.13		
학업성적	상 ^a	3.07	1.99	F=49.340 p=0.000	c>b>a
	중 ^b	3.43	2.16		
	하 ^c	3.66	2.26		
경제수준	상 ^a	3.26	2.09	F=8.632 p=0.000	b,c>a
	중 ^b	3.45	2.15		
	하 ^c	3.46	2.25		

구체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IV-26>),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남자 청소년(M=3.51)이 여자 청소년(M=3.21) 보다($p<.001$), 그리고 초등학생(M=3.69)과 중학생(M=3.66)이 고등학생(M=2.88) 보다 평일 하루 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또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하 3.66, 중 3.43, 상 3.07)($p<.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중 집단(M=3.45)과 하 집단(M=3.46)의 청소년이 상 집단(M=3.26)의 청소년보다 평일 하루 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2) 청소년 여가시간: 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방학제외)

방학을 제외한 청소년의 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8.07시간(SD=3.83)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6시간 이하', '6시간 초과'로 구분하여 응답 분포를 확인한 결과, '6시간 초과'가 60.9%, '3시간 초과~6시간 이하'가 26.8%, '3시간 이하' 12.3%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1명 이상의 청소년은 3시간 이하의 부족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V-26】 휴일 하루 평균 청소년 여가시간(연도별 추이, 2017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IV-27>),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M=8.47)이 여자 청소년(M=7.64)보다($p<.001$), 학교급별로는 중학생(M=8.78), 초등학교(M=8.22), 고등학교(M=7.37) 순으로 휴일 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M=8.43)과 중소도시(M=8.19)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대도시(M=7.80)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p<.001$), 학업성적의 경우, 하위권(M=8.50)에 속한 청소년이 중위권(M=8.01)과 상위권(M=7.84)에 속한 청소년보다($p<.001$), 가정의 경제수준별로는 하 집단(M=8.30)과 중 집단(M=8.22)의 청소년이 상 집단(M=7.85)의 청소년보다 휴일 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표 IV-27 청소년 여가시간: 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방학제외)(2017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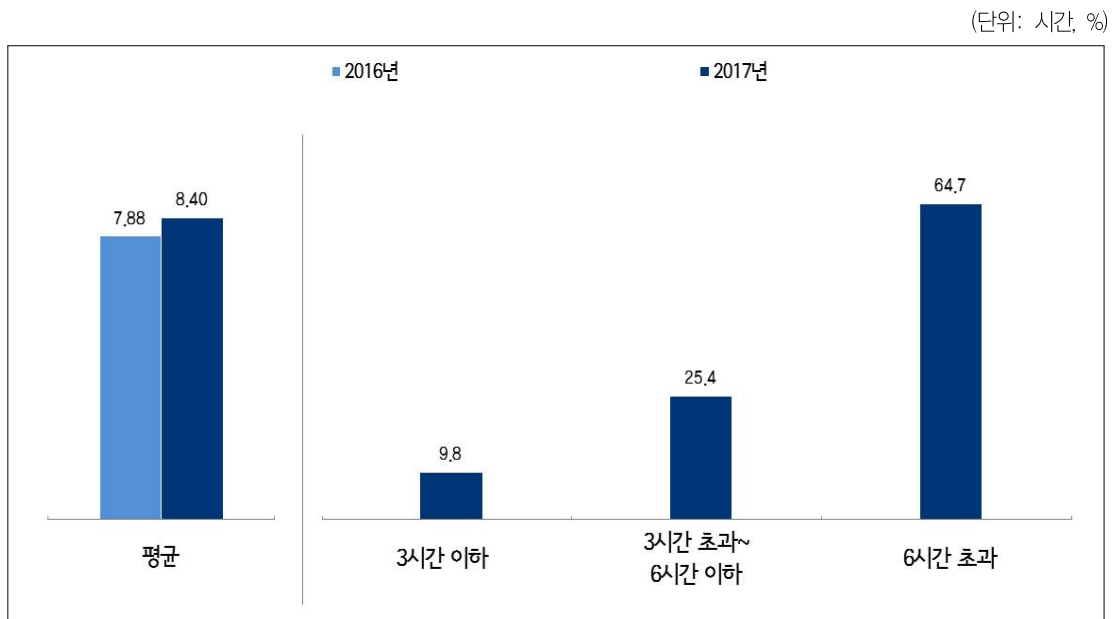
(단위: 시간)

구분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8.07	3.83	—	—
성별	남자	8.47	3.92	t=10.183 p=0.000	—
	여자	7.64	3.68		
학교급	초등학교 ^a	8.22	3.89	F=108.208 p=0.000	b>a>c
	중학교 ^b	8.78	3.79		
	고등학교 ^c	7.37	3.68		
지역규모	대도시 ^a	7.80	3.86	F=17.426 p=0.000	b,c>a
	중소도시 ^b	8.19	3.77		
	읍면지역 ^c	8.43	3.82		
학업성적	상 ^a	7.84	3.84	F=19.684 p=0.000	c>a,b
	중 ^b	8.01	3.76		
	하 ^c	8.50	3.89		
경제수준	상 ^a	7.85	3.82	F=11.361 p=0.000	b,c>a
	중 ^b	8.22	3.83		
	하 ^c	8.30	3.79		

(3) 청소년 여가시간: 방학 중 하루 평균 여가시간

청소년이 방학 중 하루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한

결과(그림 IV-27), 평균 8.40시간(SD=3.80)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응답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을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6시간 이하’, ‘6시간 초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방학 중 하루 평균 여가시간이 ‘6시간 초과’라고 응답한 경우가 64.7%로 가장 많았고, ‘3시간 초과~6시간 이하’는 25.4%, ‘3시간 이하’는 9.8%로 확인되었다. 방학 중에도 10명 중 1명 정도의 청소년은 3시간 이하의 부족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7】 방학 중 하루 평균 청소년 여가시간(연도별 추이, 2017년)

일반적 특성에 따라 방학 중 하루 평균 여가시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표 IV-28>), 모든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M=8.85)이 여자 청소년(M=7.93)보다($p<.001$), 학교급별로는 중학생(M=8.96), 초등학생(M=8.56), 고등학생(M=7.83)의 순으로 방학 중 하루 평균 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1$). 그리고 지역규모가 작을수록(읍 8.93, 중 8.44, 대 8.15)($p<.001$), 학업성적이 낮을수록(하 8.94, 중 8.40, 상 8.02)($p<.001$), 마지막으로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하 집단(M=8.67)과 중 집단(M=8.55)의 청소년이 상 집단(M=8.18)의 청소년보다 방학 중 하루 평균 여가시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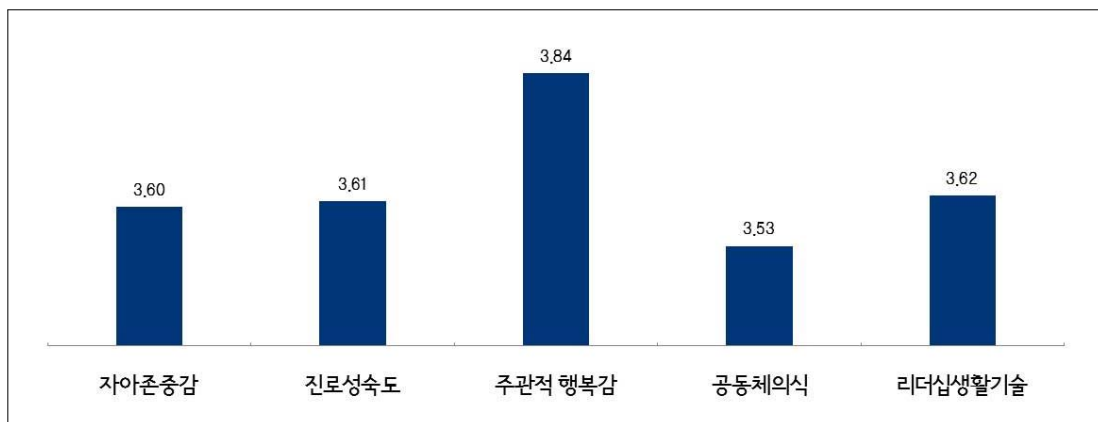
표 IV-28 청소년 여가시간: 방학 중 하루 평균 여가시간(2017년도)

(단위: 시간)

구분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	사후검증
전체		8.40	3.80	—	—
성별	남자	8.85	3.87	t=11.278 p=0.000	—
	여자	7.93	3.67		
학교급	초등학교 ^a	8.56	3.83	F=70.858 p=0.000	b>a>c
	중학교 ^b	8.96	3.73		
	고등학교 ^c	7.83	3.77		
지역규모	대도시 ^a	8.15	3.85	F=22.703 p=0.000	c>b>a
	중소도시 ^b	8.44	3.79		
	읍면지역 ^c	8.93	3.68		
학업성적	상 ^a	8.02	3.76	F=36.260 p=0.000	c>b>a
	중 ^b	8.40	3.74		
	하 ^c	8.94	3.91		
경제수준	상 ^a	8.18	3.81	F=12.905 p=0.000	b,c>a
	중 ^b	8.55	3.75		
	하 ^c	8.67	3.87		

17) 정의적 특성

(단위: 평균)



*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그림 IV-28】 정의적 특성(2017년도)

청소년들의 정의적 특성은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주관적 행복감, 공동체의식, 리더십생활기술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평균 3.53~3.84의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주관적 행복감이 평균 3.84(SD=0.76)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어서 리더십생활기술 평균 3.62(SD=0.65), 진로성숙도 평균 3.61(SD=0.77), 자아존중감 평균 3.60(SD=0.71), 공동체의식 평균 3.53(SD=0.82)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와 정의적 특성 간의 관계

1)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과 정의적 특성 간의 상관관계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과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주관적 행복감’, ‘공동체의식’, ‘리더십생활기술’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29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과 정의적 특성 간의 상관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①	1										
②	.765**	1									
③	.746**	.770**	1								
④	.686**	.690**	.741**	1							
⑤	.360**	.306**	.296**	.287**	1						
⑥	.399**	.347**	.329**	.308**	.418**	1					
⑦	.247**	.219**	.222**	.212**	.230**	.234**	1				
⑧	.090**	.087**	.083**	.093**	.098**	.088**	.305**	1			
⑨	.314**	.303**	.302**	.278**	.242**	.256**	.675**	.202**	1		
⑩	.331**	.300**	.292**	.275**	.276**	.282**	.322**	.093**	.424**	1	
⑪	.338**	.297**	.298**	.277**	.312**	.250**	.601**	.200**	.614**	.554**	1

* 주: 1) ① 활동내용 만족도, ② 지도자 만족도, ③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④ 일정·시간 만족도, ⑤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⑥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⑦ 자아존중감, ⑧ 진로성숙도, ⑨ 주관적 행복감, ⑩ 공동체의식, ⑪ 리더십생활기술
2) ** α .01

분석결과(<표 IV-29>), 청소년활동 만족도(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은 정의적 특성인 자아존중감과는 .212~.247, 진로성숙도와는 .083~.098, 주관적 행복감과는 .242~.314, 공동체의식과는 .275~.331, 리더십생활기술과는 .250~.338의 정적상관을 나타냈다($p<.01$). 이는 참여한 청소년활동의 활동내용, 지도자, 시설·공간·장비, 일정·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활동을 통한 성취기대수준이 큰 청소년들이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주관적 행복감, 공동체의식, 리더십생활기술 수준도 높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활동에서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만,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변인들과 진로성숙도와는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그 관계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 간 상관관계 계수는 .287~.770으로,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만족도(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주관적 행복감, 공동체의식,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공선성 진단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276~.795, 분산팽창요인(VIF)은 1.257~3.621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표 IV-30>), 자아존중감에 활동내용 만족도($\beta=.085, p<.001$), 시설·공간·장비 만족도($\beta=.040, p<.05$), 일정·시간 만족도($\beta=.039, p<.05$), 참여정도($\beta=.121, p<.001$), 성취기대수준($\beta=.118, p<.001$)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151.042, p<.001$). 즉, 활동내용, 시설·공간·장비와 일정·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청소년활동에 대한 참여정도 및 성취기대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9.7%로 나타났다.

표 IV-30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t
(상수)	2.625	.034		77.016***
활동내용 만족도	.060	.013	.085	4.678***
지도자 만족도	.013	.013	.019	1.018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028	.013	.040	2.114*
일정·시간 만족도	.027	.011	.039	2.402*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089	.009	.121	10.265***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081	.008	.118	9.839***
$R^2=.097$, Adj $R^2=.097$, $F=151.042$ ***				

* 주: * $p<.05$, *** $p<.001$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V-31>과 같다. 먼저 초등학교의 경우, 활동내용 만족도($\beta=.164$, $p<.001$), 참여정도($\beta=.121$, $p<.001$), 성취기대수준($\beta=.164$, $p<.001$)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F=61.238$,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2.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학교의 경우 활동내용 만족도($\beta=.074$, $p<.05$), 일정·시간 만족도($\beta=.069$, $p<.05$), 참여정도($\beta=.126$, $p<.001$), 성취기대수준($\beta=.105$,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44.265$, $p<.001$). 다시 말해, 청소년활동에 대한 활동내용 및 일정·시간에 대한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높을수록 중학교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8.7%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6%이며, 시설·공간·장비 만족도($\beta=.075$, $p<.05$), 참여정도($\beta=.115$, $p<.001$), 성취기대수준($\beta=.075$, $p<.001$)이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35.683$, $p<.001$). 이는 시설·공간·장비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청소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참여하면서 자신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고등학교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해보면, 학교급별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만족도 변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활동내용, 중학교의 경우 활동내용과 일정·시간, 고등학교의 경우 시설·공간·장비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으며, 청소년활동 참여정도와 성취기대수준은 학교급에 상관없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31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학교급	구분	B	S.E	β	t
초등학교 (n=2,513)	(상수)	2.586	.063		40.773***
	활동내용 만족도	.106	.021	.164	5.149***
	지도자 만족도	.000	.020	.000	.013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000	.021	.000	.011
	일정·시간 만족도	.018	.017	.028	1.005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089	.016	.121	5.662***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110	.014	.164	7.676***
	$R^2=.131$, Adj $R^2=.129$, $F=61.238$ ***				
중학교 (n=2,758)	(상수)	2.601	.065		40.198***
	활동내용 만족도	.056	.023	.074	2.389*
	지도자 만족도	.007	.025	.009	.267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021	.025	.029	.859
	일정·시간 만족도	.050	.021	.069	2.362*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096	.016	.126	6.124***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076	.015	.105	5.094***
	$R^2=.089$, Adj $R^2=.087$, $F=44.265$ ***				
고등학교 (n=3,280)	(상수)	2.746	.055		49.898***
	활동내용 만족도	.017	.023	.023	.738
	지도자 만족도	.028	.023	.037	1.185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055	.024	.075	2.302*
	일정·시간 만족도	.013	.021	.018	.624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084	.014	.115	6.002***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053	.014	.075	3.799***
	$R^2=.062$, Adj $R^2=.060$, $F=35.683$ ***				

* 주: * $p<.05$, *** $p<.001$

(2)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표 IV-32). 이 중 일정·시간 만족도($\beta=.043$, $p<.05$), 참여정도($\beta=.060$, $p<.001$), 성취기대수준($\beta=.040$, $p<.01$)이 진로성숙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22.352$, $p<.001$). 다만,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1.5%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32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t
(상수)	3.179	.039		81.658***
활동내용 만족도	.009	.015	.011	.599
지도자 만족도	.015	.015	.019	.989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003	.015	-.004	-.207
일정·시간 만족도	.033	.013	.043	2.533*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049	.010	.060	4.886***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030	.009	.040	3.220**
$R^2=.016$, Adj $R^2=.015$, $F=22.352$ ***				

* 주: * $\alpha.05$, ** $\alpha.01$, *** $\alpha.001$

표 IV-33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급	구분	B	S.E	β	t
초등학교 (n=2,513)	(상수)	3.147	.074		42.769***
	활동내용 만족도	.038	.024	.054	1.585
	지도자 만족도	-.021	.024	-.029	-.878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012	.024	-.016	-.486
	일정·시간 만족도	.012	.020	.018	.615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061	.018	.076	3.346**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075	.017	.102	4.525***
$R^2=.028$, Adj $R^2=.025$, $F=11.570$ ***					
중학교 (n=2,758)	(상수)	3.078	.075		40.961***
	활동내용 만족도	.020	.027	.023	.724
	지도자 만족도	.035	.029	.042	1.241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007	.029	.008	.227
	일정·시간 만족도	.036	.025	.044	1.468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016	.018	.018	.866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033	.017	.041	1.896
$R^2=.018$, Adj $R^2=.016$, $F=8.142$ ***					
고등학교 (n=3,280)	(상수)	3.267	.061		53.468***
	활동내용 만족도	-.032	.026	-.040	-1.268
	지도자 만족도	.035	.026	.043	1.333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007	.026	-.009	-.272
	일정·시간 만족도	.056	.023	.070	2.396*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072	.016	.091	4.616***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017	.015	-.022	-1.091
$R^2=.014$, Adj $R^2=.012$, $F=7.405$ ***					

* 주: * $\alpha.05$, ** $\alpha.01$, *** $\alpha.001$

학교급별로 보면(<표 IV-33>), 초등학생의 경우 참여정도($\beta=.076, p<.01$), 성취기대수준($\beta=.102, p<.001$)이($F=11.570, p<.001$), 고등학생의 경우 일정·시간 만족도($\beta=.070, p<.05$), 참여정도($\beta=.091, p<.001$)가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7.405, p<.001$). 다만,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각각 2.5%, 1.2%로 낮았다. 한편, 중학생은 진로성숙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참여 실태변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227.633, p<.001$). 이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활동내용 만족도($\beta=.083, p<.001$), 지도자 만족도($\beta=.077, p<.001$), 시설·공간·장비 만족도($\beta=.082, p<.001$), 일정·시간 만족도($\beta=.042, p<.01$), 참여정도($\beta=.106, p<.001$), 성취기대수준($\beta=.111, p<.001$)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 모형의 설명력은 13.9%로 확인되었다.

표 IV-34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t
(상수)	2.584	.036		72.132 ^{***}
활동내용 만족도	.063	.014	.083	4.674 ^{***}
지도자 만족도	.059	.014	.077	4.257 ^{***}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062	.014	.082	4.443 ^{***}
일정·시간 만족도	.032	.012	.042	2.636 ^{**}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085	.009	.106	9.248 ^{***}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082	.009	.111	9.530 ^{***}
$R^2=.140, \text{Adj } R^2=.139, F=227.633$ ^{***}				

* 주: ** $p<.01$, *** $p<.001$

학교급별로 살펴본 결과(<표 IV-35>), 초등학생의 경우 주관적 행복감에 활동내용 만족도($\beta=.136, p<.001$), 청소년활동 참여정도($\beta=.101, p<.001$) 및 성취기대수준($\beta=.171, p<.001$)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16.5%로 나타났다($F=81.581, p<.001$).

중학생의 경우는 활동내용 만족도($\beta=.093, p<.01$), 일정·시간 만족도($\beta=.076, p<.01$), 청소년활동 참여정도($\beta=.085, p<.001$)와 성취기대수준($\beta=.096, p<.001$)이($F=57.703, p<.001$), 고등학생의 경우는 지도자 만족도($\beta=.110, p<.001$), 시설·공간·장비 만족도($\beta=.108, p<.01$), 청소년활동 참여정도($\beta=.126, p<.001$), 성취기대수준($\beta=.046, p<.05$)이 주관적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F=62.432,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각각 11.1%, 10.2%로 분석되었다.

표 IV-35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학교급	구분	B	S.E	β	t
초등학교 (n=2,513)	(상수)	2.642	.066		40.195***
	활동내용 만족도	.093	.021	.136	4.364***
	지도자 만족도	.039	.021	.057	1.840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031	.021	.046	1.466
	일정·시간 만족도	.026	.018	.039	1.438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079	.016	.101	4.820***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121	.015	.171	8.174***
	$R^2=.167, \text{Adj } R^2=.165, F=81.581^{***}$				
중학교 (n=2,758)	(상수)	2.644	.070		37.931***
	활동내용 만족도	.076	.025	.093	3.034**
	지도자 만족도	.038	.026	.045	1.423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049	.027	.060	1.838
	일정·시간 만족도	.060	.023	.076	2.634**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071	.017	.085	4.201***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076	.016	.096	4.728***
	$R^2=.113, \text{Adj } R^2=.111, F=57.703^{***}$				
고등학교 (n=3,280)	(상수)	2.654	.057		46.865***
	활동내용 만족도	.030	.024	.038	1.255
	지도자 만족도	.087	.024	.110	3.601***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083	.025	.108	3.394**
	일정·시간 만족도	.001	.022	.001	.040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097	.014	.126	6.724***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034	.014	.046	2.385*
	$R^2=.104, \text{Adj } R^2=.102, F=62.432^{***}$				

* 주: * $p<.05$, ** $p<.01$, *** $p<.001$

종합해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공통적으로 청소년활동의 참여정도 및 성취기대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소년활동 만족도의 경우 초등학생은 활동내용, 중학생은 활동내용과 일정·시간, 고등학생은 지도자, 시설·공간·장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가 공동체의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259.693$, $p<.001$). 즉, 활동내용 만족도($\beta=.130$, $p<.001$), 지도자 만족도($\beta=.059$, $p<.01$), 시설·공간·장비 만족도($\beta=.038$, $p<.05$), 일정·시간 만족도($\beta=.039$, $p<.05$), 참여정도($\beta=.136$, $p<.001$), 성취기대수준($\beta=.129$, $p<.001$)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5.6%로 나타났다.

표 IV-36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t
(상수)	2.095	.038		54.792***
활동내용 만족도	.107	.014	.130	7.415***
지도자 만족도	.048	.015	.059	3.302**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031	.015	.038	2.104*
일정·시간 만족도	.031	.013	.039	2.445*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117	.010	.136	11.979***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103	.009	.129	11.140***
$R^2=.157$, Adj $R^2=.156$, $F=259.693$ ***				

* 주: * $p<.05$, ** $p<.01$, *** $p<.001$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활동내용 만족도($\beta=.162$, $p<.001$), 일정·시간 만족도($\beta=.063$, $p<.05$), 청소년활동 참여정도($\beta=.126$, $p<.001$),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beta=.147$, $p<.001$) 이($F=80.799$, $p<.001$), 중학생의 경우 활동내용 만족도($\beta=.081$, $p<.01$), 지도자 만족도($\beta=.077$, $p<.05$), 시설·공간·장비 만족도($\beta=.081$, $p<.05$), 청소년활동 참여정도($\beta=.141$, $p<.001$),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beta=.123$, $p<.001$)이($F=86.570$, $p<.001$),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 활동내용 만족

도($\beta=.143$, $p<.001$), 지도자 만족도($\beta=.077$, $p<.05$), 청소년활동 참여정도($\beta=.142$, $p<.001$), 청소년 활동 성취기대수준($\beta=.114$, $p<.001$)이 공동체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F=85.360$, $p<.001$).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의 경우 활동내용 및 일정·시간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와 성취기대수준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 활동내용, 지도자 및 시설·공간·장비 만족도와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성취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고등학교의 경우 활동내용 및 지도자 만족도와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성취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 수준이 증가함을 뜻한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각각 16.4%, 15.9%, 13.5%로 확인되었다.

표 IV-37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학교급	구분	B	S.E	β	t
초등학교 (n=2,513)	(상수)	2.081	.075		27.763***
	활동내용 만족도	.126	.024	.162	5.195***
	지도자 만족도	.017	.024	.021	.694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023	.024	.030	.942
	일정·시간 만족도	.048	.021	.063	2.350*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111	.019	.126	6.011***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118	.017	.147	6.997***
	$R^2=.166$, Adj $R^2=.164$, $F=80.799$ ***				
중학교 (n=2,758)	(상수)	1.912	.072		26.402***
	활동내용 만족도	.071	.026	.081	2.716**
	지도자 만족도	.069	.027	.077	2.501*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071	.028	.081	2.546*
	일정·시간 만족도	.041	.024	.048	1.708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126	.018	.141	7.153***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103	.017	.123	6.195***
	$R^2=.161$, Adj $R^2=.159$, $F=86.570$ ***				
고등학교 (n=3,280)	(상수)	2.206	.060		37.039***
	활동내용 만족도	.119	.025	.143	4.787***
	지도자 만족도	.065	.025	.077	2.570*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014	.026	.017	.544
	일정·시간 만족도	.002	.023	.002	.083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117	.015	.142	7.743***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090	.015	.114	6.024***
	$R^2=.137$, Adj $R^2=.135$, $F=85.360$ ***				

* 주: * $p<.05$, ** $p<.01$, *** $p<.001$

(5)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지도자 만족도를 제외한 활동내용 만족도($\beta=.151, p<.001$), 시설·공간·장비 만족도($\beta=.053, p<.01$), 일정·시간 만족도($\beta=.034, p<.05$), 참여정도($\beta=.194, p<.001$), 성취기대수준($\beta=.069, p<.001$)이 리더십생활기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274.129, p<.001$). 이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활동내용, 시설·공간·장비와 일정·시간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참여정도와 성취기대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 수준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6.3%로 나타났다.

표 IV-38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구분	B	S.E	β	t
(상수)	2.464	.030		81.859***
활동내용 만족도	.098	.011	.151	8.627***
지도자 만족도	.022	.012	.034	1.906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034	.012	.053	2.917**
일정·시간 만족도	.022	.010	.034	2.174*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132	.008	.194	17.141***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043	.007	.069	5.963***
$R^2=.164, \text{Adj } R^2=.163, F=274.129^{***}$				

* 주: * $p<.05$, ** $p<.01$, *** $p<.001$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IV-39>와 같다. 초등학교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4.7%이며, 활동내용 만족도($\beta=.267, p<.001$), 시설·공간·장비 만족도($\beta=.061, p<.05$), 청소년활동 참여정도($\beta=.190, p<.001$),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beta=.116, p<.001$)이 리더십생활기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134.843, p<.001$). 중학생의 경우 활동내용 만족도($\beta=.080, p<.01$), 지도자 만족도($\beta=.080, p<.05$), 일정·시간 만족도($\beta=.059, p<.05$), 참여정도($\beta=.182, p<.001$), 성취기대수준($\beta=.111, p<.001$)이($F=91.339, p<.001$), 그리고 고등학생은 지도자 만족도($\beta=.093, p<.01$), 시설·공간·장비 만족도($\beta=.071, p<.05$), 참여정도($\beta=.214, p<.001$), 성취기대수준

($\beta=.040$, $p<.05$)이 리더십생활기술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82.476$, $p<.001$).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회귀모형 설명력은 각각 16.6%, 13.1%로 나타났다. 요약해 보면, 학교급별로 리더십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만족도 변수는 초등학생의 경우 활동내용, 시설·공간·장비, 중학생의 경우 활동내용과 지도자, 고등학생의 경우 지도자, 시설·공간·장비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으며, 청소년활동 참여정도와 성취기대수준은 학교급과 무관하게 청소년들의 리더십생활기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9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학교급	구분	B	S.E	β	t
초등학교 (n=2,513)	(상수)	2.030	.060		34.120***
	활동내용 만족도	.174	.019	.267	9.019***
	지도자 만족도	-.013	.019	-.020	-.685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040	.019	.061	2.061*
	일정·시간 만족도	.024	.016	.038	1.463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141	.015	.190	9.542***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078	.013	.116	5.831***
	$R^2=.249$, Adj $R^2=.247$, $F=134.843$ ***				
중학교 (n=2,758)	(상수)	2.350	.057		40.941***
	활동내용 만족도	.056	.021	.080	2.685**
	지도자 만족도	.057	.022	.080	2.594*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037	.022	.053	1.676
	일정·시간 만족도	.040	.019	.059	2.102*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129	.014	.182	9.264***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074	.013	.111	5.616***
	$R^2=.168$, Adj $R^2=.166$, $F=91.339$ ***				
고등학교 (n=3,280)	(상수)	2.680	.045		60.057***
	활동내용 만족도	.035	.019	.055	1.852
	지도자 만족도	.059	.019	.093	3.123**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044	.019	.071	2.272*
	일정·시간 만족도	.008	.017	.013	.476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132	.011	.214	11.650***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024	.011	.040	2.096*
	$R^2=.133$, Adj $R^2=.131$, $F=82.476$ ***				

* 주: * $p<.05$, ** $p<.01$, *** $p<.001$

표 IV-40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비교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전체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아존중감	활동내용 만족도	+	+	+	
	지도자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			+
	일정·시간 만족도	+		+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	+	+	+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	+	+	+
진로성숙도	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	+			+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	+		+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	+		
주관적 행복감	활동내용 만족도	+	+	+	
	지도자 만족도	+			+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			+
	일정·시간 만족도	+		+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	+	+	+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	+	+	+
공동체의식	활동내용 만족도	+	+	+	+
	지도자 만족도	+		+	+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		+	
	일정·시간 만족도	+	+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	+	+	+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	+	+	+
리더십생활기술	활동내용 만족도	+	+	+	
	지도자 만족도			+	+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	+		+
	일정·시간 만족도	+		+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	+	+	+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	+	+	+	+

* 주: + 정적영향

이상의 청소년활동 만족도(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이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주관적 행복감, 공동체의식,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지 영향에 대한 비교결과는 <표 IV-40>과 같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행복감과 공동체의식에는 모든 독립변수가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도자 만족도를 제외한 활동내용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리더십생활기술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일정·시간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낮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초·중·고등학생별로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변인들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기획에 청소년들의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학교급별 특성이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3. 소결

청소년활동의 참여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활동 참여경험, 만족도, 참여형태, 참여경로, 장애요인, 활성화요인,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 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활동 참여율은 97.5%로 높게 조사되었다. 최근 4년간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2014년 99.3%, 2015년 97.4%, 2016년 96.1%, 2017년 97.5%)에서도 매년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참여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확인한 결과, ‘건강·보건활동’(92.7%)과 ‘문화예술활동’(82.6%)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어서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69.5%), ‘모험개척활동’(59.7%), ‘과학정보활동’(59.1%), ‘봉사활동’(59.0%), ‘환경보존활동’(46.5%), ‘자기(인성)계발활동’(42.7%), ‘교류활동’(33.6%)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교류활동’의 참여율(2014년 22.8%, 2015년 25.5%, 2016년 33.9%)은 매년 가장 낮았으며, ‘환경보존활동’(2014년 28.5%, 2015년 42.4%, 2016년 48.8%)과 ‘자기(인성)계발활동’(2014년 36.4%, 2015년 41.3%, 2016년 50.8%)의 참여율은 대체로 5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향후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참여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더욱 강구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M=3.40), ‘활동내용 만족도’(M=3.38), ‘지도자 만족도’(M=3.49), ‘시설·공간·장비 만족도’(M=3.36), ‘일정·시간 만족도’(M=3.32)는 평균 3.32~3.49로,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15년도, 2016년도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도 유사하거나 소폭 상승한 정도이다.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청소년활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활동내용, 지도자, 시설·공간·장비, 일정·시간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만족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의 참여형태는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2015년 51.0%, 2016년 46.0%, 2017년 51.7%)했다는 응답이, 그리고 참여경로는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2015년 38.7%, 2016년 38.6%, 2017년 35.8%) 참여했다는 응답이 2015년부터 3년간 1위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활동 참여에 학교의 비중이 큰 만큼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청소년관련시설 간의 보다 다양한 연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활동의 장애요인과 활성화요인을 확인해 보면, 최근 3년 동안 청소년들은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2015년 33.1%, 2016년 30.5%, 2017년 31.2%)를 청소년활동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활성화요인으로서는 매년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2015년 28.1%, 2016년 25.7%, 2017년 26.3%)를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하였다. 이와 같이 시간이 청소년활동 참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교육이 입시 위주에 치중되어 있는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교육제도의 개선과 인식 변화 등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을 살펴본 결과,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25.0%), ‘문화예술활동’(19.0%), ‘모험개척활동’(17.7%), ‘과학정보활동’(10.5%), ‘건강·보건활동’(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 동안은 ‘문화예술활동’(2015년 21.1%, 2016년 22.5%),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2015년 21.0%, 2016년 21.5%) 등의 순으로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났지만, 2017년도에는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이 1순위를 차지하며, 전체 청소년의 1/4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우 ‘모험개척활동’을, 여자 청소년의 경우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을 가장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으로 응답하는 등 청소년의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따라서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청소년활동 정책이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조사결과 of 정확성 및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가 청소년들의 정의적 특성(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주관적 행복감, 공동체의식, 리더십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활동내용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이 자아존중감에, ‘일정·시간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이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활동내용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이 주관적 행복감과 공동체의식에, ‘활동내용 만족도’, ‘시설·공간·장비 만족도’, ‘일정·시간 만족도’, ‘청소년활동 참여정도’, ‘청소년활동 성취기대수준’이 리더십생활기술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분석에 사용된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변인이 정의적 특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활동 만족도, 참여정도, 성취기대수준의 제고를 위해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한 활동프로그램 개발, 지도자 역량개발, 시설·장비 개선, 청소년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프로그램의 사전교육 진행 등 종합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제 V 장

정 책 제 언

1. 정책제언의 배경
2.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 개요
3. 영역별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로드맵

제 V 장 정 책 제 언

1. 정책제언의 배경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의 4차 년도 연구이다.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에서는 1~3차 년도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매년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년도에는 18명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총 7개 영역의 정책에 대한 추진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각 영역의 한계점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수렴하고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하여 7개의 정책과제⁵⁵⁾를 도출하였다. 2차 년도에는 학계, 현장 및 정책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5개 분야⁵⁶⁾ 17개 세부실천과제를 도출하였다. 3차 년도에는 2차 년도 연구의 4개 분야⁵⁷⁾ 13개 세부과제를 13인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가 발전시켰고 이를 토대로 5개 분야⁵⁸⁾ 20개 추진과제로 재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차 년도에 제시된 정책과제 중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선’,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의 기능 강화’, ‘청소년활동 홍보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의 3개 영역을 선정하여 구체화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세부추진과제에 대해 단계별로 로드맵을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55) 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정책 추진계획의 수립, ② 청소년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질 관리, ③ 타부처 정책사업 및 지자체, 교육청과의 연계, ④ 지역사회연계와 학교와의 협력 강화, ⑤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⑥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선도적 사업의 추진, ⑦ 과학적인 청소년활동정책 추진시스템의 구축

56) ① 청소년활동 참여 기회 보장, ②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역량 강화, ③ 청소년활동을 위한 가정, 학교, 지역 사회 지원 확보, ④ 청소년활동정책 기반 강화, ⑤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강화

57) ① 청소년활동 참여 기회 보장, ②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지도자 역량 강화, ③ 청소년활동을 위한 가정, 학교, 지역 사회 지원 확보, ④ 청소년활동정책 기반 강화

58) ①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선, ②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및 처우개선, ③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의 기능 강화, ④ 청소년활동 홍보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⑤ 청소년활동정책 기반조성

2.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 개요

1) 로드맵 개발의 의미와 방향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은 향후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관점에서 과제의 도출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은 개발 대상 영역의 세부추진과제별로 하위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전반적인 추진배경과 일정, 기대효과 등을 제시하여 각 과제별로 어떠한 흐름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향후 정책 수립 시 운영 가능한 세부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청소년활동에 더 많은 청소년들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조남익, 2008). 청소년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청소년시설과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은 전반적으로 중요한 로드맵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중요한 영역에 대한 세부추진과제를 단계별 로드맵으로 제시함으로써 청소년활동 정책과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예측하여 기획하게 하고 향후 정책과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계획의 수립과 예산확보 등 구체적인 노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로드맵의 영역 설정 및 작성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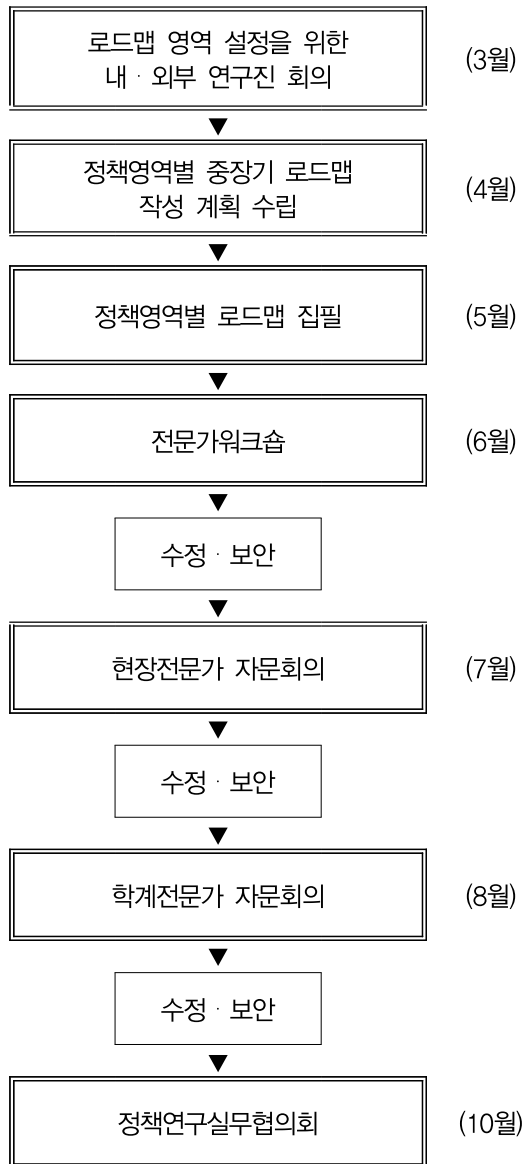
3차 년도의 5개 분야 20개 추진과제 중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및 처우개선’, ‘청소년활동 정책 기반 조성’의 경우 청소년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간접 요소로 볼 수 있고, 해당 영역에 대해 타 연구에서 이미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 참여에의 직접적인 관련성과 타 연구와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제외하기로 하였다. 또한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의 기능 강화’ 영역의 ‘청소년활동 거점시설의 확보 및 운영’ 세부추진과제는 현실적인 여건 상 거점의 의미를 규정하기 힘들고 지역적 편차가 커 본 과제에 부합하지 않다는 연구과정의

자문의견이 있어 로드맵 과제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표 V-1>에 제시한 3개 영역 10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로드맵을 구성하였으며, 로드맵 작성 절차는 [그림 V-1]과 같다.

표 V-1 로드맵 개발 영역 설정

정책영역	추진과제	로드맵 개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선	(1) 정기적인 청소년활동 참여실태 및 요구조사 실시	○
	(2) 환경변화에 대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효과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특성요인 분석 및 적용	
	(4) 청소년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중단연구 및 국제비교 연구	
	(5) 현장 청소년지도자의 프로그램 역량개발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및 처우개선	(1) 청소년지도사 직무역량개발	-
	(2) 청소년지도사 기본활동 필수교육과정 지정 및 운영	
	(3)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4) 청소년지도사 배치체계 개선	
	(5) 청소년지도자 학교 동아리활동 코디네이터 배치 추진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의 기능 강화	(1)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 재정립	○
	(2)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기반 강화	-
	(4) 청소년활동 거점시설의 확보 및 운영	
청소년활동 홍보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1) 청소년활동 홍보 추진체계 구축	○
	(2)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 추진체계 구축	
청소년활동정책 기반조성	(1) 청소년활동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
	(2)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및 기능 강화	
	(3)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도 도입 지원	
	(4)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확대	

* 출처: 최창욱, 문호영, 김정주(2016)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Ⅲ, p148의 표 재구성



【그림 V-1】 로드맵 작성 절차

또한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의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각 단계별로 상정한 운영주체를 <표 V-2>와 같이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각 세부과제의 단계별로 운영주체를 제안하여 정책이나 사업으로 실행할 때 어느 기관이 담당하여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제시하였다.

표 V-2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로드맵 운영 주체

구 분	설 명	담당 예시
중앙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으로 정부 간 협력이나 정부의 영향력이 필요한 영역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
지방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정책적 상황이 반영되거나 지방정부의 영향력이 필요한 영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전문적 연구 역량이 필요하며, 연구 과정을 통해 과정과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영역	국책연구기관, 민간청소년연구기관, 대학 등
활동지원기관	실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현장 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되는 영역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지역시설단체	지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사업과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는 영역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청소년시설 및 단체 등

3. 영역별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로드맵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선⁵⁹⁾

(1) 추진 방향 및 전략

청소년활동의 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바로 청소년활동의 수단이자 목적인 프로그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소년활동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고자 기획된 청소년 지도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현된다(천정웅 외, 2011). 따라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보다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림 V-2]와 같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59) 이 절은 이상화 관장(부천여성청소년센터)이 집필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그림 V-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와 전략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는 첫째, 청소년들의 참여 요구를 반영하는 것, 둘째,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의 프로그램 개발 역량을 증진하는 것, 셋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담보해 내는 것, 넷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특성요소를 발견하고 적용하는 것, 다섯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최창욱 외, 2016).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과제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첫째, 맞춤형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이다.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청소년지도자들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집단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에서 청소년들의 성장과 요구를 실제로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청소년 프로그램의 예측 가능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지도자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해 청소년과 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은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실제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참여 청소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활동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활동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활동 참여에 따른 지속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운데 자신의 성장을 직접 경험하고 성장 가치가 지속된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예측 가능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전략을 고려하여 각 과제별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공공의 과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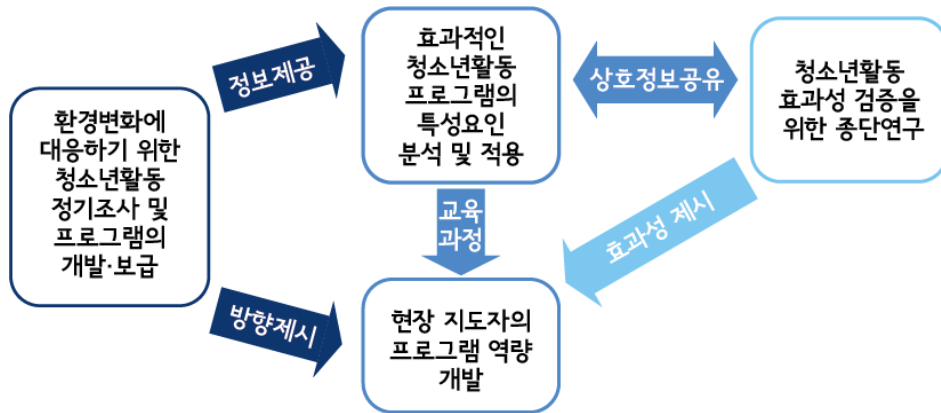
(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선 추진과제 체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서는 당초 5개 추진과제가 제시되었으나, ‘정기적인 청소년 활동 참여실태 및 요구조사 실시’와 ‘환경변화에 대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합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활동 정기 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으로 제시하여 4개 추진과제로 수정하였다. 또한 ‘청소년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중단연구 및 국제비교연구’는 국제적으로 ‘청소년활동’에 대한 개념과 여건이 서로 상이하여 비교에 있어서 준거의 문제가 있다는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중단연구만을 로드맵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선 영역의 추진과제는 4개이며, 이에 따른 세부과제는 12개로 제시하였다 (<표 V-3>).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제시된 4개 추진과제의 상호관련성과 선후관계를 고려하여 도식화하면 [그림 V-3]과 같다. 우선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효과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특성요인을 분석하고 적용하기 위한 선결과제이다.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특성요인을 분석하는 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와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분석하여 현장 지도자의 프로그램 역량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특성요인 분석 및 적용을 통해 현장 지도자의 프로그램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 효과성 검증을 위한 중단연구와 특성 및 성공요인 분석의 연계와 상호정보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청소년활동 효과를 높이는 데 주목해야 한다.

표 V-3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선 추진과제

추진과제	세부과제
(1)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활동 정기 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및 요구 정기 조사 - 국내·외 환경 변화 경향 분석 - 학교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 프로그램 컨설턴트 양성과 지원운영
(2) 효과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특성요인 분석 및 적용	- 프로그램 특성요인 분석 연구 - 성공요인 프로그램 경진대회
(3) 청소년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종단연구	- 청소년활동 효과성 검증 종단연구 - 청소년활동 효과성 측정 표준지표 개발연구
(4) 현장 지도자의 프로그램 역량개발	- 청소년프로그램연구회 운영 - 프로그램개발 전문교육과정 운영 -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전문기관 운영



【그림 V-3】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 체계

(3) 과제별 추진 로드맵

①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활동 정기 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가. 추진 개요

빠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청소년활동 참여의 현황과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요인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요구분석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빠른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청소년기를 고려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2년 주기로 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은 청소년과 관련한 국내·외 환경(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구환경 등과 관련한 정책 등)의 변화를 적극 검토하여 이를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에 적용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이 현 시대의 이슈와 주된 흐름을 반영하여야 청소년들의 높은 참여 동기를 유도할 수 있다(천정웅, 2011). 나아가 청소년활동이 단순히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의 활용이라는 수단적 의미와 가치를 뛰어 넘어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주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소년 세대 이외에도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 아젠다에 관심이 높은 부모세대들로부터 청소년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체계적 접근을 통해 개발되고 그 효과성이 검증된 전문적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은 그 개발의 전 과정을 매뉴얼 제작과 보급을 통해 확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청소년인성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청소년인성개발활동 프로그램 시리즈를 개발하고 그 운영효과를 검증하여 확산·보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보다 효과성이 제대로 검증된 프로그램을 전국에 보급하고 실제 지역적 특성에 맞게 보완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성 높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전국단위로 동시에 실시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새로운 성장이라는 가치를 얻을 수 있다.

나. 추진 단계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및 요구 정기 조사

정기적으로 청소년활동 참여의 현황과 요구를 파악하여 기존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1년차에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조사도구는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실태 및 요구 등의 객관적 지표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주관적 지표까지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2년차에는 기 개발된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시범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문항의 신뢰성, 타당성 및 결과의 활용도를 예측할 수 있다. 대표성이 담보된 표본설계와 충분한 표본규모를 확보하여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별 세부 단위 조사를 병행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3년차부터는 2년 주기로 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공유한다. 결과는 시도별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필요시 시도별 컨설팅 사업을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지표를 수정하지 않도록 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결과를 누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국내·외 환경 변화 경향 분석

환경변화에 대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외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적 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청소년활동과의 관련성 내지 시사점을 모색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급하여 현장에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외 청소년관련 환경변화 분석을 3년 주기로 실시하여,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적 환경의 변화를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소년활동 정책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학교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교연계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교육정책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진로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체험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청소년시설과 단체가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1년차에는 진로·인성 교육 체험중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년차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개발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및 효과성 검증을 실시하여 실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3년차에는 실제 교과반영이 가능한 형태의 학교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4년차에는 시범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강의 중심의 진로·인성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청소년시설 및 단체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체험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4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활동 정기 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세부과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및 요구 정기 조사 (2년 주기)	참여 실태 및 요구조사 도구개발	참여 실태 및 요구조사 시범조사	참여 실태 및 요구조사 실시 및 결과 공유	참여 실태 및 요구조사 결과보고 및 발표세미나	→ (지속 추진)
운영 주체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국내외 환경 변화 경향 분석 (3년 주기)	국내 청소년관련 환경변화 분석보고서	국외 청소년관련 환경변화 분석보고서	—	국내 청소년관련 환경변화 분석보고서	국외 청소년관련 환경변화 분석보고서
운영 주체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학교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진로·인성교육 체험중심 프로그램 개발	개발 프로그램 현장 적용 및 효과성 검증	학교연계 프로그램 (교과반영) 개발	시범학교 운영 지원	→ (지속 추진)
운영 주체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기관	지방정부	
프로그램 컨설턴트 양성 및 지원	—	프로그램 컨설턴트 양성 과정 개발 연구	프로그램 컨설팅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 시범사업 및 효과성 검증	지역별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센터 지정 운영	→ (지속 추진)
운영 주체	—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기관	지역시설단체	

○ 프로그램 컨설턴트 양성 및 지원

청소년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와 확산 보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우수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보급을 위해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타 지역에 무리 없이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설턴트의 양성과 활용은 중요한 과제이다. 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선발한 후, 이들을 양성하고 배치하여 인력풀을 확보하고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이후에는 컨설팅 매뉴얼을 개발하여 컨설팅 지원이 더욱 구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기대효과

정기적인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와 요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고, 청소년기의 객관적 특성뿐만 아니라 주관적 특성의 변화까지 고려한 정책과 사업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며, 청소년들의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석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연구과제와 사업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공감하고 설득력 있는 사업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 전체가 청소년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청소년과 관련한 당면과제에 적극 대응하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이 교육적 수요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활동의 교육적 가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진로와 인성 교육의 교육적 부담을 지역의 청소년시설과 단체가 함께 공유하게 되어 체험위주의 전문 교육활동을 할 수 있으며, 청소년시설과 단체가 전문적이고 활동적으로 교육적 책무를 공유하여 교육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프로그램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은 개인의 자질과 역량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는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 공적인 영역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보급과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② 효과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특성요인 분석 및 적용

가. 추진 개요

효과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특성요인 분석 및 적용을 위해서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해당 프로그램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프로그램 특성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과정에 있어 프로그램 특성요인을 적용하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의미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프로그램 특성요인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성공요인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성공요인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성공요인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추진 단계

○ 프로그램 특성요인 분석 연구

효과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특성요인 분석 및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프로그램 특성요인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1년차에는 프로그램 특성요인 분석틀 연구를 통해 분석의 방식과 과정, 그리고 요인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요소를 확정하고, 2년차에는 분석틀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분석을 실시한 후, 특성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공요인을 발굴한다. 3년차에는 프로그램 특성요인을 기반으로 한 성공요인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프로그램 특성요인을 통한 성공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의미와 실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성공요인 프로그램 공모전

특성요인 분석을 통해 성공요인을 확인하고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시 이를 활용하기 위해 성공요인 프로그램 공모전을 기획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특성요인 분석 연구를 통해 도출된 성공요인을 적용한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실시하기 위해 3년차부터 성공요인 프로그램 경진대회 기획 및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한 후 4년차부터 성공요인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운영과정을 진행하여 성공요인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하며 이를 확산하기 위한 모델화 작업도 추진한다.

표 V-5 효과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특성요인 분석 및 적용

세부과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프로그램 특성요인 분석 연구	프로그램 특성요인 분석틀 연구	프로그램 특성요인 분석 및 성공요인 발굴	프로그램 특성요인 기반 성공요인 활용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 (지속 추진)	
운영 주체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성공요인 프로그램 경진대회	-	-	성공요인 프로그램 경진대회 기획 및 시범 운영	성공요인 프로그램 경진대회 운영 및 모델화 사업 지원	→ (지속 추진)
운영 주체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기관	

다. 기대효과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특성요인을 분석하여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요한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그램 개발 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청소년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특성요인을 통해 청소년 프로그램의 효과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특성요인에 기반한 성공요인 프로그램 경진대회와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실제적인 사업 개발과 실천 그리고 효과 검증, 일반화와 확산 과정의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됨으로써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사회적 이미지 제고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청소년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중단연구

가. 추진 개요

청소년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중단연구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과학적 검증을 통한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청소년의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에 있어서의 중요도 등의 인식을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김윤나 외, 2008).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행복한 삶의 추구에 있어 미치는 영향은 그것이 지니는 다양한 가치로 확인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 관심사인 청소년활동의 교육적 가치 이외에도 아직까지 과학적인 검증이 되어 있지 못하지만 실제로 현장의 청소년활동 지도자들이 오랜 청소년활동의 경험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느끼는 가치로서, 문화, 복지, 사회, 참여 등 다양한 차원의 가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단연구가 실제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 개발연구와 지원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에 관한 분석 자료는 현장의 청소년지도자와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확산되어 보다 양질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나. 추진 단계

○ 청소년활동 효과성 중단연구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청소년활동 경험이 성인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중단적 연구가 필수적이다.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청소년활동 효과성 중단연구의 1년차에는 청소년활동 효과성 연구를 위한 중장기 연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청소년활동이 청소년기 이후 성인기 나아가 노년기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애에 걸쳐 추적 분석해 봄으로써 청소년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2년차에는 중단연구 예비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3년차에는 최종 개발된 청소년활동 효과성 측정지표를 활용하여 중단연구 시범조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이후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4년차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중단연구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다.

○ 청소년활동 효과성 측정 지표 개발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개발 또는 증진 가능한 목표 역량을 제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효과성 측정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이 지표를 종단연구에 활용하면 프로그램 참여로 증진된 역량이 향후 진로 선택과 진학 연계 등에 효과적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종단연구 중장기 계획에 근거하여 2년차부터 청소년활동의 종단연구 효과성 검증을 위한 측정지표를 개발하여 하여 시범적용 후, 3년차에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측정지표를 확정하고 청소년활동 종단연구 효과성 지표 개발을 완료하여 이후 종단연구에 활용한다.

표 V-6 청소년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종단연구

세부과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청소년활동 효과성 검증 종단연구	종단연구 중장기 계획 수립	종단연구 예비조사 및 분석	종단연구 전 단위 시범조사 및 활용방안 모색	1차 종단연구	2차 종단연구 (지속)
운영 주체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청소년활동 효과성 측정 표준지표 개발연구	-	효과성 측정지표개발 및 시범적용, 보완	최종 표준지표개발 완료	(필요시 수정 및 보완)	
운영 주체	-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다. 기대효과

청소년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종단연구 로드맵을 통해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할 수 있고, 연구결과물의 자연스러운 공유와 확산과정을 통해 현장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종단연구를 통해서 청소년활동의 질적 가치 확인을 위한 과학적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청소년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현장 청소년지도자의 프로그램 역량개발

가. 추진 개요

현장 청소년지도자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역량은 청소년활동의 질적 개선을 통한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의 주체는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이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때로는 주도자로서 때로는 지원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통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자의 프로그램 개발 역량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자질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지도자의 프로그램 관련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사업추진 등의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나. 추진 단계

○ 청소년 프로그램 연구회 운영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은 주로 기관(시설, 단체 등)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기관의 목적과 가치에 부합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지도자의 지도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는 힘든 현실적 한계를 노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지역별 또는 분야별 관심 있는 청소년지도자들이 프로그램 연구회를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서로 연계하여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 효과 검증의 과정을 거쳐 우수 프로그램을 확산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가 보다 창의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교사들의 교과과정 개선을 위한 과목별 교과연구회와 유사한 방식이다(송광용 외, 2005). 우선 1년차에는 프로그램 연구회의 운영방안에 대해 연구하여 운영방식, 지원방식, 지원에 따른 의무사항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한다. 2년차에는 프로그램 연구회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신규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을 위한 효과성 등을 검토한다. 3년차에는 지역별·분야별 프로그램 연구회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기관차원을 떠나 청소년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개발

과 동기부여 모두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프로그램 개발 전문교육과정 운영

청소년지도자의 프로그램 역량개발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연수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연수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강사의 프로그램 개발 성공사례 등에 근거한 과정으로 표준화 또는 일반화된 실무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습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무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전문교육과정을 연구하여 이를 연수과정으로 적용하고 이후 매뉴얼로 개발·보급함으로써 전반적인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1년차에는 실무중심의 매뉴얼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2년차에는 개발된 매뉴얼 중심의 전문연수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실제적인 프로그램 개발능력 향상과 더불어 표준화되고 일반화된 개발과정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3년차에는 프로그램 개발 매뉴얼의 다양화 및 심화연수과정을 통해 더욱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매뉴얼 개정과 연수교육과정에 대한 수정·보완으로 프로그램 개발 교육의 체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표 V-7 현장 청소년지도자의 프로그램 역량개발

세부과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청소년 프로그램 연구회 운영	프로그램 연구회 운영 방안 연구	프로그램 연구회 시범사업	지역·분야별 프로그램 연구회 지원(지속)	우수 프로그램 연구회 시상(지속)	→ (지속 추진)
운영 주체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기관	중앙정부	
프로그램 개발 전문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개발 매뉴얼 개발 연구	프로그램 개발 매뉴얼 중심 전문연수과정 운영	프로그램 개발 매뉴얼의 다양화 및 심화연수과정 운영	→ (지속 추진)	
운영 주체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기관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전문기관 인증제도 운영	역량개발 전문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정책 연구	역량개발 전문기관 인증제도 시범운영 법령 보완	역량개발 전문기관 인증제도 운영	역량개발 전문기관 인증제도 모니터링 & 평가도입	→ (지속 추진)
운영 주체	중앙정부	중앙정부	중앙정부	중앙정부	

○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전문기관 인증제도 운영

빠른 시대변화와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량개발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하지만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이나 전문연수 등과 같이 단일 기관에서 제시된 커리큘럼만 가지고는 이와 같은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전문기관이 청소년지도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일정한 형식과 요건에 맞춰 인증을 신청하면 중앙정부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지도자 연수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심사를 통해 이를 인증해 줌으로써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함양과 역량의 개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년차에는 기존의 연수운영방식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전문기관 인증제도의 시행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2년차에는 전문기관 인증제도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교육 관리와 기존의 보수교육 등에 대한 법적인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 3년차에는 역량개발 전문기관이 인증 교육과정을 실제로 시행하여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개선하고, 4년차부터는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전문기관 인증제도를 확대하여 법정 보수교육이나 전문교육 등과 연계하여 이후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개발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모니터링이나 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의 질 관리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다. 기대효과

청소년 프로그램 연구회 운영을 통해 청소년지도자들이 질 높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보다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모임을 통해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이 자연스럽게 상호교류와 전문성 강화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청소년지도자들의 역량개발에 기여할 수 있으며, 경험적인 지도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을 매뉴얼화함으로써 검증된 프로그램들이 현장에서 더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지도자들의 역량개발을 위해서는 청소년세대의 시대변화를 반영한 다양성이 청소년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지도자 역량개발 전문기관 인증제도를 통해 보수교육이나 전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선 로드맵을 통한 기대효과

이상에서 제시한 추진과제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6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정기적인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및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요구에 근거한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와 능동적 역할 및 지역과 관계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국 단위의 청소년활동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지역별 청소년활동의 참여 특성과 편차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환경변화에 대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고 청소년들의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성세대(부모세대)들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효과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특성요인 분석 및 적용을 통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핵심적 성공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것을 실제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중단연구를 통해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청소년기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주요한 매개체로서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인식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현장 청소년지도자의 프로그램 역량개발을 통해 현장의 자발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간 자연스러운 교류네트워크가 형성됨으로써 전문성의 상호간 교환의 기회가 마련되어, 지식기반 연구개발 네트워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의 기능 강화⁶⁰⁾

(1) 추진 방향 및 전략

청소년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이 운영되는 청소년 시설과 단체, 청소년활동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천정웅, 2011). 이중 청소년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인 청소년활동 시설과 단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 시설과 단체의 변화와 성장은 청소년활동의 규모와 역할을 가늠하는 역할을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 왔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에 있어 청소년 시설과 단체의 중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청소년활동 시설과 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진 방향과 전략이 요구된다.

첫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별로 고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제시되었으나 현장에서는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은 시설 규모나 사업에 있어서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일부 지역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중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청소년수련원의 기능을 하는 시설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재점검하고 각 시설별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소년 관련 시설과 공간 등이 새로운 형태로 마련되고 있다. 이 공간들은 청소년수련시설과 같이 정형화된 시설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소규모 공간으로 청소년활동이 전개되면서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제는 정부차원에서 새롭게 마련되는 청소년 관련 시설과 공간에서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활동을 추진하는 대표 시설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의 운영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지난 25년간 양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여건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실정이다(김형주 외, 2015). 청소년수련시설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기 때문에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여건이나 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청소년시설 지원에 차이가 발생한다(김

60) 이 절은 이영수 관장(동작청소년문화의집)이 집필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영호, 2010). 따라서 같은 청소년시설이라도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가에 따라 운영상의 차이가 많은 실정이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보다는 시설의 유형과 규모, 운영 여건에 따라 표준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설 유형 및 규모, 직원 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표준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점차 노후화되고 있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필요하다. 청소년수련시설이 설립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시설들은 건물과 설비, 장비 등이 점차 노후화되고 있다. 특히 건물의 유지보수나 장비의 교체 등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점차 노후화되는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단체의 운영기반을 학교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여 청소년활동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를 일컫는데, 일정한 회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활동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실시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회단체, 임의단체, 민간단체로서 각기 고유한 설립 이념과 목표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단체 활동은 규모가 있는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주로 학교 단위로 조직을 구성하고 학교 단체 활동을 실시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단체 활동은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청소년단체 회원의 수도 점차 줄고 있어 청소년단체 활동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에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단체 활동은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다. 청소년단체가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청소년단체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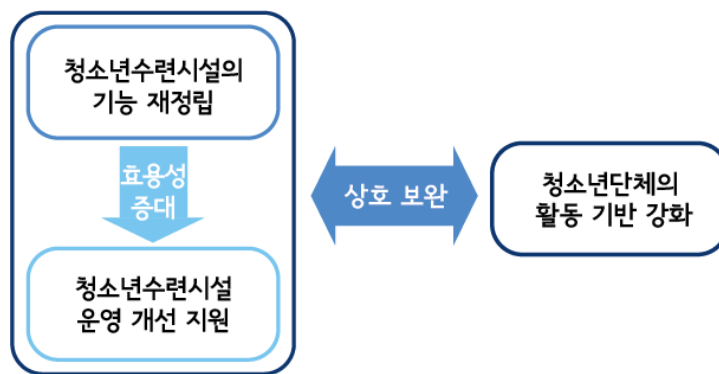
(2)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의 기능강화 추진과제 체계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의 기능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 3차년도 연구에서는 4개가 제시되었으나, 본 연구의 자문과정에서 ‘청소년활동 거점시설의 확보 및 운영’은 현 청소년수련관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굳이 별도의 과제로 다룰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제외하였다. 따라서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의 기능강화 영역의 추진과제는 3개이며, 세부과제는 12개로 제시하였다.

표 V-8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의 기능강화 추진과제

추진과제	세부과제
(1)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 재정립	- 청소년수련시설 재구조화 추진 - 청소년활동시설 지역기반 모델 개발 - 청소년수련시설 리모델링 지원
(2)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 지원	- 표준 관리운영비 기준 마련 및 적용확대 - 청소년수련시설 컨설팅 지원 - 청소년시설지원센터 운영
(3) 청소년단체의 활동 기반 강화	- 청소년단체 활동 실태 및 효과성 조사 - 청소년단체 청소년전문 인력 지원 - 청소년단체 사업 전문 컨설팅 지원 - 지역기반 청소년단체 지원 센터 운영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 재정립을 통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사회적 필요성과 효용성이 높아지면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개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활용하기 좋으며,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시설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단체의 활동 기반 강화를 통해 청소년단체의 기반이 강화되고, 지역기반 청소년단체가 활성화될 경우 청소년시설과 단체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적극적인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V-4】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의 기능강화를 위한 추진과제 체계

(3) 과제별 추진 로드맵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 재정립

가. 추진 개요

청소년수련시설은 1990년대 초반에 수립된 정책에서 청소년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인성이나 덕목을 함양하기 위한 수련활동을 핵심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식정보화 및 세계화의 가속화, 민주화의 전진, 청소년 참여세대의 등장 등 다양한 사회변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그동안 강조되던 청소년수련활동의 개념이 수련활동과 문화활동, 교류활동을 포괄하는 청소년활동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김형주 외, 2015). 또한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활동신고제 등과 같은 청소년활동제도와 사업도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청소년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인 창의적체험활동, 인성교육, 진로교육, 자유학기제 등도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연계사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수련활동을 넘어서는 다양한 청소년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시설규모, 공간 및 설비, 시설 운영기준 및 관리기준 등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가 시급해 보인다.

이러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지역사회 자원들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모형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은 규모나 설비, 공간적인 측면에서 모호하게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청소년 전문가 대상의 의견 수렴을 통해 청소년수련시설을 재정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모형 재정립에 따라 청소년 관련법을 개정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 지침 등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모형 재정립에 따르는 예산을 확보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내어 단계적 목표에 따라 점차 전체 시설로 확대해야 한다.

나. 추진 단계

○ 청소년수련시설 재구조화 추진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지역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청소년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1년차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재구조화 종합계획 연구를 추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혁신적인 변화 방향을 모색하고 기존의 법령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모형과 운영방식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2년차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재구조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관련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을 하고 필요한 예산 추이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한다. 3년차에는 1, 2년차 연구를 근거로 실제적인 재구조화를 실천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재구조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하고, 이후에는 이를 실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청소년수련시설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청소년시설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기초하여야 하며, 공공과 민간 청소년시설의 역할 분담과 더불어 이러한 과정은 청소년 세대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 V-9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 재정립 로드맵

세부과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청소년수련시설 재구조화 추진	청소년수련시설 재구조화 종합계획 연구	청소년수련시설 재구조화 제도 및 법률 개정 및 예산 추이 연구	청소년수련시설 재구조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3년 단위)	청소년수련시설 재구조화 중장기 발전계획 1차년도 추진	청소년수련시설 재구조화 중장기 발전계획 2차년도 추진
운영 주체	중앙정부	중앙정부	중앙정부	중앙정부	중앙정부
청소년활동시설 지역기반 모델 개발	청소년활동시설 지역기반 모델 개발 연구	청소년활동시설 지역기반 모델 제도 및 법률 개정	청소년활동시설 지역기반 모델 시범운영 및 보완	청소년활동시설 지역기반 모델 확대 운영	청소년활동시설 지역기반 모델 지원센터 운영
운영 주체	연구기관	중앙정부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기관	지방정부
청소년수련시설 리모델링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리모델링 지원 계획 수립	청소년수련시설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청소년수련시설 리모델링 지원 사업 추진	청소년수련시설 리모델링 지원 사업 추진 평가	→ (지속 추진)
운영 주체	중앙정부	중앙정부	중앙정부	중앙정부	

○ 청소년활동시설 지역기반 모델 개발

청소년정책 이외에도 교육과 복지 정책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청소년 대상의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청소년시설은 여전히 법적 요건에 따라 6가지 유형(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으로만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활동시설 지역기반 모델이 개발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활동시설 지역기반 모델의 핵심은 지역의 유휴공간 또는 필요에 따라 어디든 청소년전용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프로그램 중심이 아닌 자유로운 공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게 된다. 청소년활동시설 지역기반 모델 개발을 위해 1년차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 각종 청소년 관련 기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청소년활동시설 신규 모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2년차에는 1년차의 연구를 기반으로 새로운 신규 모델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 및 법률 등을 마련하고, 신규 활동시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3년차에는 신규 청소년활동 시설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4년차부터는 이를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확대 운영한다. 5년차에는 청소년활동시설 지역기반 모델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센터는 확산된 신규 활동시설 모형에 대한 지원과 컨설팅을 원활히 하고, 각종 지원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청소년들의 활동인프라가 풍성해지도록 한다.

○ 청소년수련시설 리모델링 지원

청소년수련시설이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한 것도 1991년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의한 것으로 26년 전이므로, 초창기의 청소년수련시설은 이미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 할 수 있다. 그간에 중간중간 시설 개보수를 진행했다고는 하나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위한 정부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1년차에는 청소년수련시설 리모델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대상을 파악하고, 리모델링의 시급성과 대상 및 기준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경우 어떠한 조건과 비율로 리모델링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년차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필요하다. 청소년수련시설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예산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법적 지원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3년차에는 지원

계획과 지원 법률을 근거로 기준과 예산 범위 안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4년차부터는 사업 추진과 평가를 병행한다. 이 때 ‘청소년 친화 영향 평가제도’ 등을 도입하여 리모델링 시 청소년들의 이용과 활용 및 지역의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기대효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재구조화를 추진함으로써 근본적인 청소년수련시설의 패러다임을 변화할 수 있고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청소년활동을 국가청소년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시설이 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유형에 따른 고유한 청소년활동사업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서로 다른 유형이라 하더라도 각 시설에서 제공하는 청소년활동에 차이가 없었다. 청소년수련시설 기능의 재정립을 통해 각 유형별 시설에서 제공되는 청소년활동의 차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활동시설의 모델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활동시설은 기존의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과는 달리 지역의 공공기관이나 학교 빈 교실 등을 활용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지역기반 모델로서 건립비용과 운영 측면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또한 노후화되고 안전하지 못한 청소년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하며 청소년에게 활용가치가 높은 청소년시설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개선 지원

가. 추진 개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형태는 지자체 등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과 민간 청소년단체에게 운영을 맡기는 위탁이 있고, 또는 재단이나 공단 등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등 다양하다(홍성미, 2013). 청소년시설은 공공성에 기반하여 청소년 전용공간으로서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역할로 볼 수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표준 관리운영비에 기초한 운영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이 부족하거나 재정이 열악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청소년수련시설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모사업에 의존하거나 수익사업을 통해 마련하다 보니 청소년을 위한 고유 목적사업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수련시설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사한 규모라 할지라도 지역여건에 따라 예산 지원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각 시설의 유형과 규모, 수용정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인원에 따라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표준 관리운영비를 산출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표준 관리운영비 기준에 따라 전국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청소년수련시설 컨설팅 사업을 통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적극적인 성장과 지원 또한 필요하다. 특히 2년마다 이루어지는 정부평가에서 보통 이하를 받은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최소의 자부담 비용으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향후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전, 평가, 정보 관리 등의 업무가 산재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 감독에 어려움이 있다. 청소년시설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나. 추진 단계

○ 표준 관리운영비 기준 마련 및 적용 확대

청소년수련시설 표준 관리운영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각 청소년수련시설의 상황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해와 설득의 과정과 지원책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1년차에는 표준 관리운영비 기준 연구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도별로 공청회를 실시하여 지자체의 이해와 설득의 과정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2년차에는 표준 관리운영비 지자체 컨설팅 시범 적용을 통해 희망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표준 관리운영비의 적용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존의 예산 범위 안에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필요한 예산의 범위와 내용을 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년차에는 표준 관리운영비 적용을 전국의 지자체로 확대하고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의 의미를

확대한다. 4년차에는 표준 관리운영비 적용에 대한 시범 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 적용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5년차에는 표준 관리운영비 준수를 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청소년시설에 대한 표준 관리운영비 적용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한다.

표 V-10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 지원

세부과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표준 관리운영비 기준 마련 및 적용 확대	표준 관리 운영비 기준 연구 및 공청회	표준 관리운영비 지자체 컨설팅 시범 적용	표준 관리운영비 전 지자체 확대 및 우수사례 공모	표준 관리운영비 적용 시범 평가	표준 관리운영비 적용 평가 적용
운영 주체	중앙정부	중앙정부	중앙정부	중앙정부	중앙정부
청소년시설 전문 컨설팅 지원	청소년시설 컨설팅 영역 및 연구	청소년시설 컨설팅 지원센터 및 영역별 지원단 구성	청소년시설 컨설팅 운영 (정부평가 보통 이하)	→ (지속 추진)	
운영 주체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기관		
청소년시설지원 센터 운영	-	청소년시설지원 센터 운영 연구	청소년시설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시설 안전, 평가, 정보 등)	청소년시설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법적근거 마련)	청소년시설지원 센터 운영
운영 주체	-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기관

○ 청소년시설 전문 컨설팅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되는 열악한 현실에서 유의미한 컨설팅을 받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자부담을 최소화(예: 자부담 10%, 지자체 40%, 중앙정부 50%)하여 청소년시설의 요구에 따라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 1년차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로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컨설팅 영역을 연구한다. 2년차에는 청소년시설 컨설팅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1년차에서 제시된 유형별 컨설팅 영역에 적합한 전문가들을 중심으

로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3년차에는 정부평가 보통 이하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정부평가 우수 이상의 경우 자부담 비율을 높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청소년시설지원센터 운영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 평가, 정보 및 보험 등에 대한 관리 업무가 다원화되어 있어 청소년시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종합관리 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게 함으로써 현장의 부담을 덜고 업무의 중복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년차에는 청소년시설지원센터 운영 연구를 추진하고 센터의 역할과 업무의 범위 및 소요 예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년차에는 청소년시설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써 시설의 안전, 평가, 정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지원한다. 4년차에는 센터 운영의 안정화와 더불어 청소년시설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확보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개발한다. 5년차에는 청소년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역할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기대효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지원 개선 로드맵을 통해 기대되는 변화로는 청소년수련시설 표준 관리운영비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관계없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시설 운영에 부족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고, 운영전반에 대한 질적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청소년단체의 활동 기반 강화

가. 추진 개요

청소년단체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단체의 운영여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청소년시설에 비해 청소년단체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단체의 종류와 유형, 실태와 현황, 구조적인 어려움,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사업과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인력의 구성과 현황 등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청소년단체활동의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소년단체의 현황과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청소년단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단체활동의 부족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청소년단체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기준을 개정하고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단체의 법적 배치기준은 청소년회원 2,000명 당 1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최소 배치기준으로는 청소년활동 업무를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인 배치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배치청소년지도사 지원을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 관련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개정하여 배치청소년지도사를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단체의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청소년 단체 중 새롭게 설립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청소년과 관련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새롭게 설립되는 청소년 단체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설립과 운영, 예산 및 행정, 단체 운영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를 위한 사업개발 컨설팅 및 지원센터 설립 등과 같은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나. 추진 단계

○ 청소년단체활동 실태 및 효과성 조사

청소년단체의 역할·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단체의 여건을 분석하는 현황조사와 청소년단체활동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물론 청소년단체는 기본적으로 회원운동을 기반으로 각 단체의 고유한 목적과 가치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청소년시설과 함께 청소년정책 사업의 중요한 추진 체계로서 관심과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체의 고유한 목적 사업 이외에 전반적인 단체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참여, 시민적 성장 등의 공통적 지표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청소년단체활동의 중요성과 가치를 공적인 영역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단체활동실태 및 효과성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1년차에는 청소년단체활동 실태 및 효과성 조사 지표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효과성 지표는 개별 청소년단체의 특성보다는 청소년단체활동을 통해 공통적으로 개발되어질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년차에는 청소년단체활동 실태 및 효과성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지표 구성과 조사 과정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실제 조사 결과의 활용에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 보완한다. 3년차부터 청소년단체활동 실태 및 효과성 조사를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여 청소년단체활동의 현황과 변화 방향 및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 V-11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및 기반 강화

세부과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청소년단체활동 실태 및 효과성 조사	청소년단체활동 실태 및 효과성 조사 지표개발	청소년단체활동 실태 및 효과성 예비조사	청소년단체활동 실태 및 효과성 조사 실시 (3년 주기)	→ (지속 추진)	
운영 주체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청소년단체 청소년전문 인력 지원	청소년단체 전문 인력 배치 및 지원 기준 연구	청소년단체 전문 인력 지원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	청소년단체 전문 인력지원 사업 시범 운영	청소년단체 전문 인력 지원 사업 확대 운영	청소년단체 전문 인력 지원 사업 지속 추진
운영 주체	중앙정부	중앙정부	중앙정부	중앙/지방정부	중앙/지방정부
청소년단체 사업 전문 컨설팅 지원	청소년단체 사업 전문 컨설팅 영역 요구조사	청소년단체 전문 컨설팅 지원센터 지정 및 컨설팅단 구성	청소년단체 전문 컨설팅 사업 추진 및 효과 분석	→ (지속 추진)	
운영 주체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기관		
지역기반 청소년단체지원 센터 운영	-	지역기반 청소년단체 설립지원 종합계획 수립	지역기반 청소년단체 설립지원센터 설치	지역기반 청소년단체 설립지원 컨설팅	지역기반 청소년단체 운영 지원
운영 주체	-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기관

○ 청소년단체 청소년전문 인력 지원

청소년단체는 회원운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 회원 수에 비해 전문(상근)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서비스 대상이 많은 반면에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결국 서비스의 질을 유지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공공적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청소년단체에 전문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청소년전문 인력 지원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회원 2,000명 당 1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적 의무 배치 기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이를 무조건 강화하기 보다는 청소년전문 인력 지원 사업과 함께 논의된다면 청소년단체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청소년단체의 청소년지도사 배치 기준의 개선과 함께 청소년단체에 대한 청소년전문 인력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1년차에는 청소년단체 전문 인력 배치 및 지원 기준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여 현 법적 배치 기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청소년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년차에는 연구된 결과를 기준으로 청소년단체의 청소년지도사 배치 기준과 청소년전문 인력 지원 등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과정과 함께 청소년단체의 청소년전문 인력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 3년차에는 청소년단체의 청소년전문 인력 지원 사업의 시범 운영을 통해 운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보완한다. 4년차에는 청소년단체의 청소년전문 인력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이때부터는 지자체와 매칭으로 예산을 분담하여 운영한다. 5년차에는 본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안정적 예산 확보와 지자체 평가 반영 등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청소년단체 사업 전문 컨설팅 지원

청소년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원은 거의 없다. 자체적으로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을 시도하기에는 예산과 인력이 불충분하여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청소년시설의 경우는 정부에서 공공과 민간 청소년시설 모두 정부 평가 제도를 통해 전반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청소년단체의 경우 이러한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청소년단체에 대해 사업을 중심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을 통해 청소년단체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 지원 사업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1년차에는 청소년단체 사업 전문 컨설팅 영역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컨설팅의 영역과 방식 및 절차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에 대한 준비를 한다. 2년차에는 청소년단체

전문 컨설팅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컨설팅 업무를 총괄하고 영역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한다. 또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컨설팅을 희망하는 청소년단체를 신청 받아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운영한다. 3년차에도 전문 컨설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컨설팅의 효과를 분석하여 청소년단체의 성장에 어떠한 지원성과를 냈는지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효과를 검증한 후 지속사업 여부를 결정하여 4년차 이후부터는 청소년단체의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전문 컨설팅 사업 후 청소년단체의 발전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포상제도를 마련하여 시상하는 등 동기부여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지역기반 청소년단체지원센터 운영

기존의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대형 청소년단체 이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청소년단체의 설립이 늘고 있으나 설립 이후 지역에서 생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청소년이 지역의 현안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단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기반 청소년단체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위해 2년차부터 지역기반 청소년단체 설립 시 필요한 절차와 내용에 대한 안내 자료와, 지자체 등에서 이를 지원하는 절차, 정보 및 지원정책과 지원사업 등에 대해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기반 청소년단체설립지원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기반 청소년단체의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지원전략을 구축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3년차에는 지역기반 청소년단체설립지원센터 설치로써 구체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종합적인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4년차에는 지역기반 청소년단체설립지원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별로 청소년단체의 설립을 지원한다. 5년차에는 지역기반 청소년단체가 설립 이후에도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및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 기대효과

청소년수련단체의 활동 지원 및 기반 강화 로드맵을 통해 청소년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연구자료를 축적하고 체계적인 청소년단체 정책 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효과성 연구를 통해 청소년단체활동 참여의 의미와 가치를 사회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청소년단체활동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높다. 또한 현재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청소년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면 청소년단체의 전문성 향상과 더불어 서비스의 질과 사회적 영향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단체의 사업을 다양화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 컨설팅을 추진함으로써 청소년단체의 사업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전반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기반 청소년단체의 설립과 운영의 지원은 다양한 청소년들의 지역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청소년단체가 양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빠른 시대변화 속에서 목적과 가치에 따라 청소년단체의 생성과 소멸이 유연하게 나타나고 있고,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역기반의 현안 중심 청소년단체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중요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의 기능 강화 로드맵을 통한 기대효과

청소년활동 시설 및 단체의 기능 강화 로드맵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활동을 추진하는 청소년시설 및 단체의 역량과 경쟁력이 강화되어 청소년활동을 추진하는 전달체계로서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활동은 현재의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모형이 개선되고,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물리적 여건이 강화되어 시설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시설이 안전하고, 재미있고, 활용성이 높아질수록 청소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급자가 제공할 수 있는 범위에서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가 아닌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청소년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향과 방법을 찾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활동시설의 새로운 모형이 반영되고, 청소년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거점시설이 확대된다면 청소년의 주도적·실천적 이용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은 시설을 기반으로 스스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주도성과 실제 지역을 바꾸어가는 역할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사회적 구성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시설도 이러한 청소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역 친화적

인 모형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개선 지원을 통해 표준화된 관리운영비의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확대될 것이다. 지역의 여건에 따라 청소년서비스의 질이 결정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표준화된 관리운영비 등을 통해 어느 지역의 청소년들이나 동일한 청소년사업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성장과 지원이 지속적인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단체의 기능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며, 청소년단체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다양한 청소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청소년단체에 대한 전문인력의 지원과 컨설팅 지원 및 지역기반 청소년단체의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청소년단체가 우리사회에서 미칠 긍정적 영향과 적극적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단체는 청소년들의 성장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청소년활동 홍보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⁶¹⁾

(1) 추진 방향 및 전략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하고 실제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는 주로 인터넷, SNS, 홍보물, 학교 안내 등을 통해 제공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청소년활동 정보에 충분히 접근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양질의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 시설과 단체가 있더라도 청소년들이 관련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대하는데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활동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제공을 위한 청소년활동 관련 홍보 추진체계와 정보서비스 추진체계의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먼저 청소년활동 홍보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홍보 사업 개발과 홍보 인프라 구축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선 홍보사업 개발은 홍보내용을 어떻게 생산(produce)하고 전달(delivery)하고 확산(spread)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은 청소년 스스로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61) 이 절은 양은일 대표(청소년세상실천연대)가 집필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청소년과 부모, 교사 등 실제 참여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를 다른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청소년활동 정보가 확대 재생산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청소년활동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전달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 구축도 중요하다. 정보서비스는 공적 지원체계 안에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고 전달,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과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보서비스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www.neis.go.kr) 등과 같이 공적 영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역시 청소년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공적 영역에서 청소년활동 정보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거나 추진과정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할 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활동 정보 추진체계 구축과 정보서비스 구축 모두 청소년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관련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V-5】 청소년 홍보 사업의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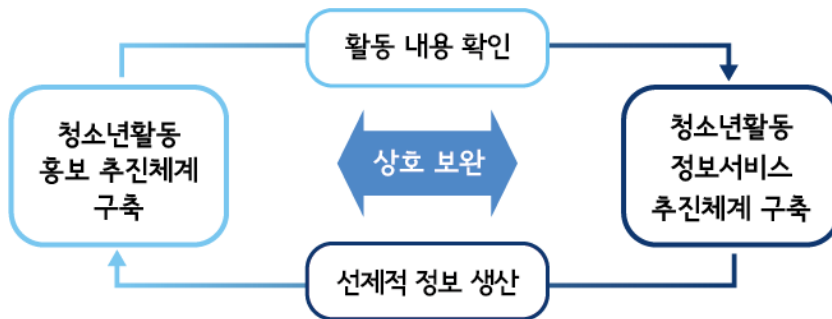
(2) 청소년활동 홍보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추진과제 체계

청소년활동 홍보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청소년사업의 홍보와 더불어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및 기록관리를 위한 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은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활동 홍보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영역의 추진과제를 2개, 세부과제를 5개로 제시하였다.

청소년활동 홍보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청소년활동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 추진체계에서 다양한 분석과 선제적 정보를 생산하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설정할 수 있으며, 현장의 홍보 추진체계와 공공영역의 정보서비스 추진체계가 상호 보완적 기능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표 V-12 청소년활동 홍보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추진과제

추진과제	세부과제
(1) 청소년활동 홍보 추진체계 구축	- 청소년활동 홍보 지원 온라인 서비스 - 청소년활동 홍보 플랫폼
(2)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 추진체계 구축	- 청소년활동 빅데이터 분석센터 운영 - 청소년활동 트렌드 제공 - 청소년활동기록 통합 시스템 구축



【그림 V-6】 청소년활동 홍보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체계

(3) 과제별 추진 로드맵

① 청소년활동 홍보 추진체계 구축

가. 추진 개요

청소년활동에 대한 홍보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홍보 내용을 생산하는 것을 지원하는 체계와 홍보의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 그리고 홍보의 전달 내용의 확산을 지원하는 체계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홍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는 현재와 같은 홍보전문가 연수과정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 홍보 지원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여 온라인상으로 홍보콘텐츠의 생산과 전달의 과정을 지원받도록 하여 홍보담당자의 기술적인 부담을 줄이고 홍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청소년활동의 홍보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청소년활동 홍보 플랫폼을 개설하여 사전 참여를 위한 홍보뿐만 아니라 우수 사례와 성과에 대한 공유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활동 전반의 성과도 공유될 수 있도록 한다면 결과적으로 청소년활동의 이미지를 높이는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추진 단계

○ 청소년활동 홍보 지원 온라인 서비스

청소년활동 홍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역량은 창의적인 카피라이팅(copyrighting) 뿐만 아니라 그래픽이나 미디어를 다루는 기술적인 역량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습득하여 실행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청소년활동 홍보지원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원하는 형태의 홍보물을 제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현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1년차에는 청소년활동 홍보 지원 온라인 서비스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의 요구와 공공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해 본다. 2년차에는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활동 홍보 지원 온라인 서비스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 및 저작권과 기술적 지원이 적절히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운영가능한 지원기관을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3년차에는 청소년활동 홍보 지원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본 사업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고 지속 사업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한다.

표 V-13 청소년활동 홍보 추진체계 구축 로드맵

세부과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청소년활동 홍보 지원 온라인 서비스	청소년활동 홍보 지원 온라인 서비스 사업 모델 개발	청소년활동 홍보 지원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	청소년활동 홍보 지원 온라인 서비스 사업 추진 및 성과 평가	→ (지속 추진)	
운영 주체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기관		
청소년활동 홍보 플랫폼	청소년활동 홍보 플랫폼 운영 계획 수립	청소년활동 홍보 플랫폼 시범사업	청소년활동 홍보 플랫폼 운영 및 우수 사례 포상	→ (지속 추진)	
운영 주체	중앙정부	중앙정부	중앙정부		

○ 청소년활동 홍보 플랫폼 사업

청소년활동의 참여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주요 성과에 대한 공유의 장으로써 청소년활동 플랫폼을 운영하고 청소년사업의 긍정적 이미지 향상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공모 포상제도를 만들어 청소년활동 플랫폼에 공유된 청소년활동 성과의 내용 중 우수한 내용에 대해 확인 과정을 거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성과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여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청소년과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청소년활동 홍보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1년차에는 청소년활동 홍보 플랫폼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전반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한다. 2년차에는 청소년활동 홍보 플랫폼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 방식이나 성과 공유에 대한 참여 유도 등을 검토하고, 매년 메인스폰서 형식으로 민간 기업의 지원과 참여도 함께 고려해 본다. 3년차에는 본격적인 청소년활동 홍보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사례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하여 참여 동기를 높인다. 매달 포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능하면 포상의 격을 고려하여 중앙부처가 주최하고 진행은 유관기관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기대효과

청소년활동 홍보 지원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활동 홍보에 대한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홍보물을 생산하고 전달,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활동을 사전에 알리는 홍보에서 그치지 않고 청소년활동 홍보 플랫폼을 운영하고 주요한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②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 추진체계 구축

가. 추진 개요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청소년정보를 새롭게 발굴하여 현장에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청소년활동에 대한 현황자료나 각종 보고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향후 청소년활동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고 선도하는 형태의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반적인 형태로는 정보에 접근이 어렵고 지역별 분야별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야 하므로 새로운 방식의 연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청소년활동의 빅데이터 정보를 분석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지향하고 사회적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계기를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은 청소년활동에 국한될 필요는 없지만 청소년활동의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새롭게 조망하고 긍정적인 변화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주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활동의 경험과 실적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나. 추진 단계

○ 청소년활동 빅데이터 분석센터 운영

청소년활동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이며 정보서비스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에 관한 각종 조사 자료와 보고서 및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청소년활동의 전반적인 양상과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여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청소년활동 빅데이터 분석센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년차에는 청소년활동 빅데이터 분석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전반적인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2년차에는 청소년활동 빅데이터 분석센터 시범운동을 통해 자료의 수집과 분석의 기술적 한계와 데이터 활용의 방향을 확인해 본다. 3년차에는 청소년활동 빅데이터 분석센터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정기보고서 발간을 시작하여 청소년활동의 정보에 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매년 정기보고서 발간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변화와 청소년활동의 변화에 관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청소년활동 트렌드 제공

청소년활동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청소년활동의 트렌드를 제공할 수 있다면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에서는 매년 ‘트렌드 코리아’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변화 트렌드 키워드를 통해 다가올 한해의 변화를 예측하고 전년도에 예측했던 변화 트렌드 키워드에 대해 실제 여부에 대한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활동 트렌드 역시 청소년의 삶의 모습과 정책의 변화 그리고 우리 사회의 기대를 모아 청소년활동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공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1년차에는 청소년활동 트렌드 연구에 대한 틀(format)을 구성하고 연구진과 청소년활동 트렌드 가이드(trend guide)를 모집하여 청소년활동에 대한 책임 있는 예측을 가능하도록 한다. 2년차는 청소년활동 트렌드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대중의 반응을 파악하여 어떠한 활용성이 있는지 검토해 본다. 3년차부터는 청소년활동 트렌드 분석 결과와 더불어 전년도 청소년활동 트렌드에 대한 평가를 함께 제공하고 청소년활동 트렌드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표 V-14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 추진체계 구축 로드맵

세부과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청소년활동 빅데이터 분석센터 운영	청소년활동 빅데이터 분석센터 운영계획 수립	청소년활동 빅데이터 분석센터 시범운영	청소년활동 빅데이터 분석센터 운영 및 정기보고서 발간	→ (지속 추진)	
운영 주체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청소년활동 트렌드 제공	청소년활동 트렌드 연구 틀 구성	청소년활동 트렌드 제공	청소년활동 트렌드 분석 및 제공	→ (지속 추진)	
운영 주체	연구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청소년활동기록 통합시스템 구축	-	청소년활동기록 관리시스템 통합 연구	청소년활동기록 통합시스템 개발	청소년활동기록 통합시스템 시범 운영	청소년활동기록 통합시스템 운영 및 활동실적 활용방안 모색
운영 주체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기관

○ 청소년활동기록 통합 시스템 구축

청소년활동에 대한 실적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해 주는 것은 중요한 정보서비스가 될 수 있다. 현재 청소년활동에 대한 기록관리가 충분히 제공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기록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소년 활동 빅데이터 분석센터 등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2년차에는 청소년활동기록 통합시스템 연구를 통해 현재의 청소년활동기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청소년활동기록 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다. 전국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실효성 있는 운영 필요하며, 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기능 확대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3년차에는 청소년활동기록 통합시스템을 개발 또는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기록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학교홈페이지와의 연계 등을 도모하고, 청소년 이 주로 활용하는 포털과의 연계로 자주 접근할 수 있는 통합망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4년차에는 청소년활동기록 통합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의 개선 여부와 청소년

이용률의 변화를 확인하고, 5년차에는 청소년활동기록 통합시스템을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수요자인 청소년들이 활동실적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후 지속적인 추진으로 청소년들의 활동경험과 실적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기대효과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 추진체계 구축 로드맵을 통해 기대되는 변화로는 먼저, 청소년활동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을 예측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요구분석을 통해 하고 싶은 활동을 반영하는 사후대처 형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청소년활동의 추세와 의식을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 트렌드를 제공하고 선점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지향점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고, 청소년 현장과 한 해의 청소년활동의 방향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에 가이드 역할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활동기록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청소년활동 실적에 대한 책임 있고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의미 있는 청소년활동이 청소년기를 넘어 성년기와 노년기에도 긍정적이고 중요함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통해 청소년활동의 가치와 의미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청소년활동 홍보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로드맵을 통한 기대효과

청소년활동 홍보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은 청소년활동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지만 실제로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청소년활동의 가치와 의미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홍보와 정보제공에 대한 노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 홍보 및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활동의 홍보를 각 기관에서 생산하고 제공하던 개별 형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달할 수 있다면 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고 더불어 수요자 입장에서 질 높은 홍보물을 접할 수 있어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활동 홍보 플랫폼을 통해 청소년활동의 주요한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활동의 홍보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활동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청소년활동을 예측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으며, 선제적이며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활동 트렌드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지향점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청소년 및 관계자들에게 청소년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활동기록 통합시스템 구축은 청소년활동 참여의 의미와 청소년활동의 실효적 가치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참여한 청소년활동 실적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유지·관리 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활동의 긍정적 대물림 현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현주, 신인순 (2015). 청소년 체험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9), 25-48.
- 고관우, 남진열 (2011). 초기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에 따른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31-250.
- 교육부 (2017). *학생들의 꿈을 이루다, 창의적체험활동과 동아리*. <http://blog.naver.com/moeblog/220971147255>에서 2017년 5월 10일 인출.
- 교육부 자유학기제 홈페이지. <http://www.ggoomggi.go.kr>에서 2017년 8월 17일 인출.
- 김기현, 황세영, 강영배, 이경자 (2015).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연구보고 15-R0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아영 (2008). *학업동기: 이론, 연구와 적용*. 서울: 학지사.
- 김영호 (2010).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 경기도 화성시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7(1), 69-100.
- 김윤나, 손진희, 최윤진 (2008). 청소년활동의 종단적 변화특성 및 관련요인. *한국청소년연구*, 29(4), 139-167.
- 김윤정, 고정민 (2015).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5), 53-78.
- 김재철, 황매향, 김아영 (2011). 체험활동과 진로성숙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자아관과 내적 직업가치관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4(1), 1-23.
- 김현철, 백혜정, 이지연 (2016).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 (연구보고 16-R1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철, 임희진, 정효진, 민경석 (201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연구보고 13-R0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철, 최창욱, 민경석 (2010).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연구보고 10-R0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철, 황여정, 민경석, 윤혜순 (201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II (연구보고 12-R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형주, 김정주, 김인규 (2015).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15-R0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도종수 (2011).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1-45.
- 동작구, 동작관악교육지원청 (2017). 2017 동작구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서. 미간행물.
- 동작청소년문화의집 (2017). 2017 아무거나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 매일경제 (2014). 관피아 막을 '시민단체 역량' 키우자.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4&no=930617>에서 2017년 8월 14일 인출.
- 문성호, 문호영, 김용대 (2009). 2009년도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 만족도 및 효과성 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문성호, 박승곤, 윤동엽, 정지윤 (2016). 2016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문성호, 윤동엽, 박승곤, 정지윤 (2014). 2014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4). 2014 국민여가활동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201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 미간행물.
- 서울시교육청 (2014). 2014년 서울시교육청 진로체험 유형별 분류 기준. 서울시교육청 웹 사이트 <http://buseo.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94&bbsBean.bbsSeq=5419&ctgCd=207>에서 2017년 2월 14일 인출.
- 서정아 (2015). 청소년 체험·여행·문화활동과 삶의 만족도: KCYPs 초4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NYPI 청소년 통계 브리프, 24.
- 세종특별자치시 (2017). 2017 청소년진로체험카드 사업.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sje.go.kr/free/main.do>에서 2017년 8월 21일 인출.
- 송광용, 김도기 (2005). 초등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2(2),

- 227-252.
- 안선영, 김희진, 강영배, 배경내 (2013).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연구보고 13-R06).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3). 2013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4a). 2014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4b).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오해섭, 맹영임, 문호영 (20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기업가정신 및 창업관련 의견조사 (연구보고 14-R1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조혜영 (2004).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II - 조사개요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기봉 (2010). 2009 한국 아동·청소년 온라인게임 및 가족여가활동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성은 (2009).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종단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40(2), 313-335.
- 이종원, 장근영, 김호순 (2007). 2007년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연구보고 07-R44).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혜숙, 이영주 (201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서울: 서울연구원.
- 임지연, 김정주, 김신영, 김민 (2009).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Ⅳ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지표 (연구보고 09-R12-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지연, 김정주, 김정숙 (201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학교·지역연계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14-R0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희진, 송병국 (2014).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연구보고 14-R0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근영, 김기현 (2006). 청소년 활동참가 실태조사 연구 (연구보고 06-R4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남익 (2008). 청소년 집단활동 참여와 사회적 자본의 형성 가능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미래청소년학회지, 5(3), 177-198.
- 조남익, 김고은 (2014).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21(1), 191-215.

- 조성심, 주석진 (2010). 체험활동중심 진로교육 집단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분석. *진로교육연구*, 23(3), 47-64.
- 천정웅, 오해섭, 김정주, 김민 (2011). *청소년활동론*. 서울: 양서원.
- 청소년진로체험카드 홈페이지. <http://sj.youthcard.kr>에서 2017년 8월 21일 인출.
- 최경학, 문성호 (2015).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탐험활동의 효과 검증: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12(3), 1-20.
- 최창욱 (2001).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최창욱, 문호영, 김정주 (2016).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Ⅲ* (연구보고 16-R0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창욱, 문호영, 김진호 (201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연구보고 15-R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창욱, 신운호(2012). *중등학생 청소년의 리더십생활기술과 청소년활동 경험과의 관계 분석*. *실과교육연구*, 18(3), 171-194.
- 최창욱, 전명기 (2013).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 13-R0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고용정보원 (2006). *청소년용 진로발달검사개발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방정환재단,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구축과 국제비교연구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제1~5차 조사 코드북: 제5회 학술대회용*. http://archive.nypi.re.kr/brdartcl/boardarticleList.do?brd_id=BDIDX_k9Fd9oFi29nooCcJ7kXlI4&srch_ctgry_idx=CTIDX00043&menu_nix=qZc474Ak에서 2016년 3월 14일 인출.
- 홍성미 (2013).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형태에 관한 비교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ivil Society (2014. 10. 6). *NCS announces successful bidders for service delivery*. Retrieved August 23, 2017, from <https://www.civilsociety.co.uk/news/ncs-announces-successful-bidders-for-service-delivery.html>.
- Coordinating Council on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2016). *Meeting Summary*. Retrieved August 29, 2017, from https://www.juvenilecouncil.gov/materials/2016_06/Meeting

- _Minutes_CC_Meeting_June_2016.pdf.
- Dormody, T. J., & Seevers, B. S. (1994). Predicting youth leadership and life skills among FFA members in Arizona, Colorado, and New Mexico. *The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35(2), 65-71.
- EUR-Lex (2017). Europa. Retrieved August 23, 2017, from http://ec.europa.eu/education/policy/strategic-framework_en.
- Europa (2016). *The Erasmus Impact Study Regional Analysis*. p. 155. Retrieved August 25, 2017, from http://ec.europa.eu/dgs/education_culture/repository/education/library/study/2016/erasmus-impact_en.pdf.
- Europa (2017). *ERASMUS+ The EU programme for education, training, youth and sport (2014-2020)*. p. 1. Retrieved August 23, 2017, from http://ec.europa.eu/programmes/erasmus-plus/sites/erasmusplus/files/library/erasmus-plus-factsheet_en.pdf.
- Europa EU (2013). *Background - European Parliament*. Retrieved August 23, 2017, from http://www.europarl.europa.eu/pdfs/news/expert/background/20131111BKG24354/20131111BKG24354_en.pdf.
- GOV. UK (2012). *National Citizen Service Prospectus*. September 11, 2017, from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1798/NCS-prospectus-Feb-2012.pdf.
- GOV. UK (2016). *Government introduces National Citizen Service (NCS) Bill to Parliament*. Retrieved August 31, 2017, from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introduces-national-citizen-service-ncs-bill-to-parliament>.
- GOV. UK (2017). *National Citizen Service (NCS) Bill receives Royal Assent*. Retrieved August 14, 2017, from <https://www.gov.uk/government/news/national-citizen-service-ncs-bill-receives-royal-assent>.
- Morris, J. C. (1996). *Self-perceived youth leadership life skills development among Iowa 4-H members. doctoral dissertation(Ph. D)*. Iowa State University.
- National Audit Office (2017). *National Citizen Service*. p. 14. Retrieved September 11, 2017, from <https://www.nao.org.uk/wp-content/uploads/2017/02/National-Citizen-Service.pdf>.
- Parliament.uk (2017). *National Citizen Service: Forty-sixth Report of Session 2016-17*. Retrieved

- September 4, 2017. from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1617/cmselect/cmpubac/c/955/955.pdf>.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evers, B. S., & Dormody, T. J. (1995). Leadership life skills development : perceptions of senior 4-H youth.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33(4). [On-line] Available : <http://www.joe.org/joe/1995august/rb1.html>.
- Seevers, B. S., Dormody, T. J., & Clason, D. L. (1995). Developing a scale to research and evaluate youth leadership life skills development.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36(2), 28-34.
- Third Sector (2017). *National Citizen Service benefits evaluation published*. Retrieved September 4, 2017. from <https://www.thirdsector.co.uk/national-citizen-service-benefits-evaluation-published/volunteering/article/1426676>.
- University World News (2016). *EU mobility grants at record high, but impact varies*. Retrieved September 14, 2017, from <http://www.universityworldnews.com/article.php?story=20160206021247767>.
- Wingenbach, G. J. (1995). *Self-perceived youth leadership and life skills development among Iowa FFA members. doctoral dissertation(Ph. D)*, Iowa State University.
- Youth. gov (2016). *Pathways for Youth: Strategic Plan for Federal Collaboration*. p. 5 Retrieved August 28, 2017, from http://youth.gov/sites/default/files/IWGY-Pathways_for_Youth.pdf.

.....

부 록

부 록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학교ID (기록하지 마세요)

--	--	--	--	--

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부
록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각종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여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지를 살펴보고 청소년 여러분들이 더 좋은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조사결과와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학교나 선생님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연구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담당자: 임희진 선임연구위원 044-415-2112
문호영 부연구위원 044-415-2224

수행기관

 Hankook Research

※ 담당자: 김도윤 과장
※ 문의전화: 080-384-1000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 성별을 꼭 표시한 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설문 응답방법 안내문

01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⑤(또는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런 편이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응답을 바꾸고 싶을 경우에는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참여한 청소년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02 각 활동에서 기타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②, ③, ④번 중 하나를 선택하고, 괄호 안에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기록합니다. 기타 활동이 없으면 '① 참여한 적 없음'을 응답합니다.

교류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4) 기타(<u>OOO 교류활동</u>)	①	②	③	④

응답할 기타 활동이 없으면 '① 참여한 적 없음'을 응답합니다.

교류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4) 기타()	①	②	③	④

03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11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는 언제인가요?(하나만 선택해주세요)

① 잠과 후

② 주말

③ 학교 수업시간 중

④ 방학기간

⑤ 기타()

04 6페이지 상단 중요 지시문 확인

문1부터 문9까지는 52개의 청소년활동에 대해 응답하는 문항입니다.
52개 문항에 모두 '① 참여한 적 없음'을 선택한 경우만 문11로 이동하며,
52개 중 하나라도 ②, ③, ④번에 응답했다면 문10-1부터 응답해야 합니다.

※ '문1~문9'의 52개 청소년활동에 모두 '① 참여한 적 없음'이라 응답한 경우만 '문11'로 가세요.
하나라도 ②, ③, ④번에 응답했다면(참여한 적 있음) '문10-1'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PART I. 다음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건강·보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건강·보건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신체단련활동	①	②	③	④
2) 흡연·음주·약물·비만 예방활동	①	②	③	④
3) 안전·응급처치활동	①	②	③	④
4) 성교육활동	①	②	③	④
5) 학교폭력 예방활동	①	②	③	④
6)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활동	①	②	③	④
7) 기타()	①	②	③	④

2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과학정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과학정보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모형 및 로봇활동	①	②	③	④
2)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활동	①	②	③	④
3) 우주천체활동	①	②	③	④
4) 정보캠프활동	①	②	③	④
5) 영상매체활동	①	②	③	④
6) 기타()	①	②	③	④

3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교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교류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청소년국제교류활동	①	②	③	④
2) 도농(도시-농촌)간 청소년교류활동	①	②	③	④
3) 다문화 및 국제이해활동	①	②	③	④
4) 기타()	①	②	③	④

4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모험개척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모험개척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등반활동	①	②	③	④
2) 야영활동	①	②	③	④
3) 해양 및 수상훈련활동	①	②	③	④
4) 극기훈련활동	①	②	③	④
5) 기타()	①	②	③	④

5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문학행사, 문예창작 및 발표, 독서토론활동	①	②	③	④
2) 미술활동	①	②	③	④
3) 음악활동	①	②	③	④
4) 춤·무용활동	①	②	③	④
5) 영화, 연극, 뮤지컬활동	①	②	③	④
6) 전통예술활동	①	②	③	④
7) 사진촬영 및 발표활동	①	②	③	④
8) 기타()	①	②	③	④

6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봉사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일손돕기활동	①	②	③	④
2) 위문활동	①	②	③	④
3) 돌봄 및 지도활동	①	②	③	④
4) 캠페인활동	①	②	③	④
5) 자선·구호활동	①	②	③	④
6) 재능기부활동	①	②	③	④
7) 기타()	①	②	③	④

7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청소년모의창업활동	①	②	③	④
2) 경제캠프활동	①	②	③	④
3) 진로탐색활동	①	②	③	④
4) 직업현장체험활동	①	②	③	④
5) 기타()	①	②	③	④

8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환경보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환경보존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생태체험활동	①	②	③	④
2) 환경탐사활동	①	②	③	④
3) 환경음식 만들기 및 재활용공예활동	①	②	③	④
4) 환경살리기캠페인활동	①	②	③	④
5) 환경·시설 보존활동	①	②	③	④
6) 기타()	①	②	③	④

9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자기(인성)계발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자기(인성)계발활동	참여한 적 없음	참여한 적 있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표현능력개발 및 자기표현활동	①	②	③	④
2) 자기탐구 및 자기존중감 향상활동	①	②	③	④
3) 심성수련활동	①	②	③	④
4) 기타()	①	②	③	④

※ ‘문1~문9’의 52개 청소년활동에 모두 ‘① 참여한 적 없음’이라 응답한 경우만 ‘문11’로 가세요.
 하나라도 ②, ③, ④번에 응답했다면(참여한 적 있음) ‘문10-1’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10-1

최근 1년간 참여한 청소년활동(문1~문9)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참여한 청소년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활동의 내용이 흥미롭고 유익했다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활동을 지도한 선생님의 전문성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활동이 진행된 시설·공간과 진행에 사용된 장비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청소년활동의 일정과 시간이 적절했다	①	②	③	④	⑤

10-2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문1~문9)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까?

- | | |
|------------------|---------------|
| ① 아주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②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 ③ 보통이다 | ④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 ⑤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

10-3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문1~문9)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발전에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까?

- | | |
|----------------|----------------|
| ① 전혀 기대한 것이 없다 | ②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다 |
| ③ 보통이다 | ④ 조금 기대하였다 |
| ⑤ 아주 기대가 컸다 | |

10-4

최근 1년간 참여한 청소년활동(문1~문9)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도와주거나 지원해 주었습니까?

구분	전혀 지원이 없다	지원이 없는 편이다	보통 이다	지원이 있는 편이다	매우 지원이 많다
1) 부모님 혹은 보호자	①	②	③	④	⑤
2) 학교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3) 친구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지도자(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등의 청소년전문가)	①	②	③	④	⑤

10-5 최근 1년간 주로 어떤 형태로 청소년활동(문1~문9)에 참여했습니까?(하나만 선택해주세요)

- ①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학년 또는 학급 단위로 참여)
- ② 교내동아리활동으로 참여
- ③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등)에서 참여
- ④ 교내-교외(지역사회)연계활동으로 참여
- ⑤ 청소년단체활동(걸·보이스카우트,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RCY, 아람·누리·한별단 등)으로 참여
- ⑥ 온라인동아리활동으로 참여
- ⑦ 종교활동(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를 통해서)으로 참여
- ⑧ 개인적으로 참여
- ⑨ 가족과 함께 참여

10-6 최근 1년간 주로 어떤 경로로 청소년활동(문1~문9)에 참여했습니까?(하나만 선택해주세요)

- ① 친구 또는 선배의 권유로
- ②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
- ③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 ④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지도자의 권유로
- ⑤ 홍보 및 게시판의 정보를 통해 자발적으로
- ⑥ 인터넷 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 ⑦ 기타()

10-7 최근 1년간 청소년활동(문1~문9)에 참여할 때 가장 방해가 된 요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 ①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 ②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 ③ 참가비용이 부담돼서
- ④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 ⑤ 프로그램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 ⑥ 어떤 내용의 활동들이 있는지 몰라서
- ⑦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 ⑧ 같이 참여할 친구가 없어서
- ⑨ 기타()

11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는 언제인가요?(하나만 선택해주세요)

① 방과 후	② 주말
③ 학교 수업시간 중	④ 방학기간
⑤ 기타()	

12 청소년활동을 어떤 장소에서 참여하고 싶습니까?(하나만 선택해주세요)

① 학교	②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등)
③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등)	④ 야외(공원, 호수, 산, 바다 등)
⑤ 기타()	

13 청소년활동에 참여한다면 누구와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까?(하나만 선택해주세요)

① 혼자	② 친구
③ 가족	④ 선·후배
⑤ 기타(_____)	

14 청소년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 ① 청소년활동 시간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
- ②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③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청소년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
- ④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
- ⑤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 ⑥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 ⑦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
- ⑧ 청소년활동 참가비용 지원이 필요하다
- ⑨ 기타(_____)

15 다음의 [보기]에서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활동을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 | | |
|-----------------|----------|--------------|
| ① 건강·보건활동 | ② 과학정보활동 | ③ 교류활동 |
| ④ 모험개척활동 | ⑤ 문화예술활동 | ⑥ 봉사활동 |
| ⑦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 | ⑧ 환경보존활동 | ⑨ 자기(인성)계발활동 |
| ⑩ 청소년참여활동* | | |

※ 청소년참여활동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 등

16 최근 1년간 다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이용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이용한 적 없음	이용한 적 있음			
		1~2번	3~5번	6~9번	10번 이상
1) 청소년수련관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수련원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문화의집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야영장	①	②	③	④	⑤
5) 유스호스텔	①	②	③	④	⑤
6) 도서관(단, 학교도서관은 제외)	①	②	③	④	⑤
7) 공연 및 전시시설	①	②	③	④	⑤
8) 사회복지관	①	②	③	④	⑤
9) 수목원, 수목림, 자연 휴양림	①	②	③	④	⑤
10) 주민센터, 문화센터	①	②	③	④	⑤

17 다음의 청소년활동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구분	전혀 모른다	들어본 적이 있다	잘 알고 있다
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①	②	③
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①	②	③
3) 청소년어울림마당(청소년문화존)	①	②	③
4) 청소년특별회의	①	②	③
5) 청소년참여위원회	①	②	③
6) 청소년운영위원회	①	②	③
7)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①	②	③
8)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①	②	③
9)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①	②	③

18 지난 1년 동안 하루 평균 여가시간(식사시간, 취침, 학교수업, 학교숙제, 학원·과외 등의 시간을 제외한 자유 시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1)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방학제외)	평일 하루 평균			시간
2) 휴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방학제외)	휴일 하루 평균			시간
3) 방학중 하루 평균 여가시간	방학중 하루 평균			시간

19 다음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다음은 '내가 직업과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향후 진로설정과 관련하여,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적성 및 소질)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향후 진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가보고 싶은 진로가 너무 많아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현재, 내가 가보고 싶은 향후 진로가 자주 바뀐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현재, 향후 진로설정에 대해 나와 부모님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미래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향후 진로를 미리 설정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현재, 나의 향후 진로설정에 있어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더 따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학교생활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삶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 소속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주변사람과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외롭다	①	②	③	④	⑤
7)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나는 행복하다	①	②	③	④	⑤

22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속한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잘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 목표설정을 잘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진실한 마음을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어떤 일을 행할 때 각 구성원에게 책임을 맡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을 처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다른 사람에게 대단히 호의적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어떤 자식이든지 배울 자세가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떤 일을 행할 때 다른 사람의 요구를 잘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어떠한 일에도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 친근한 성품의 소유자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속한 집단 성원들이 제기한 요구사항을 잘 수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타인의 말을 주의깊게 듣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 적절한 것을 잘 선택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집단의 분위기를 잘 조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한 실수를 잘 수습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매사에 재치 있게 일을 처리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일처리 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화합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의 주장이나 생각을 타인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어떠한 변화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매너가 좋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PART II. 다음은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배경문항 1 학생의 학업 성적(2017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낮은 수준	낮은 수준	중간	높은 수준	매우 높은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경문항 2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낮은 수준	보통					매우 높은 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Korean Youth' s Participation in Hands-on Activities IV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current state of youth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provide the evidence-based data needed for policy development. Literary research, expert consultation, a survey, workshop, seminar, and policy councils were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used to devise a policy-making plan to promote extracurricular activities among the youth.

We obtained the necessary baseline data by means of a survey. It was found that in the past year, 97.5% of youth participated in at least one extracurricular activity. The most prevalent extracurricular activities were those provided by schools and conducted in groups, and a teacher' s recommendation was the most common motivator for participating in an activity. Respondents chose time 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their ability to participate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Collaborative efforts between schools and youth-related organizations were also highlighted as important in promoting extracurricular activities. Variables of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affective characteristics, suggesting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plan to manage participants' level of satisfaction, extent of engagement, program development that reflects the needs of youths, leadership training, facilities and equipment,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resources, and preliminary education. The results of our survey can serve as a performance index for extracurricular development efforts, facilitate academic discussion on the positive development of the youth through its public disclosure, and provide practical guidelines for the governance of related policies.

Based on our findings, we identified 9 projects and 27 tasks that need to be performed in 3 target areas, namely "enhancement of youth extracurricular programs," "improvement of extracurricular facilities and organizations," and "establishment of a resource and information center." Furthermore, we constructed a road map for each task with step-by-step procedures.

Key Words: Extracurricular activities for youth, status of youth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road map to facilitate youth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r programs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7-R01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 황여정
- 17-R02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 · 정소연
- 17-R02-1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 · 정소연
- 17-R03 아동 · 청소년을 위한 기업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기업-아동 · 청소년 NPO-정부의 파트너십 구축 / 임지연 · 김한별
- 17-R04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 · 강영배
- 17-R05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 황세영 · 최정원
- 17-R06 청소년 사이버일탈 유형별 대책 연구 / 배상률 · 박남수 · 백강희
- 17-R07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혁진
- 17-R08 아동 · 청소년 · 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 · 운영 모형 개발 연구 / 서정아
- 17-R09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김기현 · 이윤주 · 유설희
- 17-R09-1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 · 이윤주 · 유설희
- 17-R10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 임희진 · 문호영 · 조남익
- 17-R10-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 기초분석 보고서 / 임희진 · 문호영
- 17-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 오해섭 · 최인재 · 염유식 · 김세광
- 17-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총괄보고서 - / 양계민 · 강경균 · 연보라
- 17-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다문화 · 청소년의 발달 추이 분석 - / 연보라
- 17-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정책제언 - / 양계민
- 17-R13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Ⅲ / 김경준 · 정은주
- 17-R14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Ⅱ / 윤철경 · 성운숙 · 최홍일 · 유성렬 · 김강호
- 17-R15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김진호
- 17-R15-1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 심화분석보고서 -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 인권의식 / 김진석
- 17-R15-2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통계 / 김영지 · 김희진
- 17-R16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사업보고서 - / 하형석 · 최용환 · 정은진 · 한지형 · 정윤미
- 17-R16-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연구성과보고서 / 최용환 · 한지형 · 박상현
- 17-R16-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 수면시간의 긍정적 효과 - / 정은진 · 하형석 · 정윤미 · 고강혁
- 17-R16-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18 기초연구 / 하형석 · 정은진 · 최용환 · 최승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 / 김태준·홍영란·김홍민 (자체번호 17-R17-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5 IEA 2016 국제 시민의식과 시민성 교육 조사 조사틀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김현철·백혜정·이지연 (자체번호 17-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집 / 김현철·백혜정 (자체번호 17-R18-1)

연구개발적립금

- 17-R19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연구(2018년 4월 발간) / 황진구·유민상
- 17-R20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2018년 4월 발간) / 이유진·김영한·윤옥경

수시과제

- 17-R21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 연구 / 이창호
- 17-R22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 조진우·이윤주
- 17-R23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 한국사례분석 / 이창호·김기현
- 17-R24 현장적용 제고를 위한 자유학기제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분석 / 임지연
- 17-R25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특성 연구 / 이윤주
- 17-R26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 황세영·김기현
- 17-R27 청소년동반자 활성화 방안 연구 / 장근영·진은설
- 17-R28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실태조사 연구 / 황진구

수 탁 과 제

- 17-R29 2017년 4개국(한일중미) 청소년 의식조사 / 김기현
- 17-R30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운영계획 수립연구 / 장근영 · 황진구
- 17-R31 2016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32 2016년도 청소년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관련 평가 / 배상률 · 김동일 · 유홍식
- 17-R33 화랑마을 운영관리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임지연 · 좌동훈 · 한상철 · 신상구 · 박시현
- 17-R34 다문화 교육 종합 발전방안 / 양계민
- 17-R35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1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세미나 자료집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2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국내외 사례요약집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3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정책리포트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6 지식협력단지 초 · 중학생 기업가정신 교육 모듈 교재 개발 / 강경균
- 17-R36-1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 17-R36-2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 17-R36-3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 17-R36-4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 17-R37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초 · 중 · 고등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 성윤숙 · 김경준 · 최정원
- 17-R37-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 정제영 · 김성기 · 선미숙
- 17-R37-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 / 정제영 · 김성기 · 선미숙
- 17-R37-3 국내외 청소년 사이버 범죄 실태와 예방 대책 연구 / 안동근 · 박병식 · 김영옥
- 17-R38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2017년 청년정책포럼 / 김기현 · 한지형
- 17-R39 청년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 연구 / 이윤주 · 김기현 · 하형석
- 17-R40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백혜정 · 임희진 · 김현철 · 유성렬
- 17-R41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 · 최인재 · 정은주 · 김영지
- 17-R42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모형 개발 연구 / 김지연 · 백혜정
- 17-R43 제5 · 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연구 / 김영지 · 이윤주 · 유설희
- 17-R44 시립청소년시설 적정 위탁운영비 배분을 위한 모형개발 연구 / 최용환 · 이재완 · 박정배
- 17-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2017 / 김희진 · 정윤미
- 17-R46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사회 · 문화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이경상 · 이창호
- 17-R47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 체계연구 / 황세영 · 강경균
- 17-R48 청소년용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이성혜
- 17-R49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50 2017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 이윤주 · 하형석 · 한지형
- 17-R51 국립강진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 김영한 · 이유진 · 정은진 · 강동영

- 17-R52 2017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구사업 / 서정아 · 연보라
- 17-R53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시범사업 운영/ 장근영
- 17-R54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17-R55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55-1 학업중단 숙려제 특화 프로그램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56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7-S01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의 의미 및 과제 (2/9)
- 17-S0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심화 워크숍 (2/13~14)
- 17-S03 제7차 청년정책포럼 (2/23)
- 17-S04 제8차 청년정책포럼 (4/20)
- 17-S05 유엔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3/7)
- 17-S06 2016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31)
- 17-S07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1권역 (4/4)
- 17-S08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2권역 (4/7)
- 17-S09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3권역 (4/11)
- 17-S10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4권역 (4/12)
- 17-S11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1권역 (4/14)
- 17-S12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2권역 (4/18)
- 17-S1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2차 심화 워크숍 (3/31)
- 17-S14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1)
- 17-S15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4/13)
- 17-S16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1권역) (4/20)
- 17-S17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2권역) (4/28)
- 17-S18 2017년 제1회 대안학교장 협의회 (5/12)
- 17-S19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g) for Youth in Asia : 청소년 진로교육 국제학술회의 아시아 청소년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5/17)
- 17-S20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g) for Youth in Asia : Special Roundtable for Comparing career educ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5/18)
- 17-S21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5/22)
- 17-S22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5/24)
- 17-S23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5/29)
- 17-S24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5/30)
- 17-S25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청소년정책 (5/31)
- 17-S26 세계시민교육 사례 공유를 통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 논의 (5/26)
- 17-S2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콜로키움 (6/22)

- 17-S28 SDGs 청소년 역량 환경교육 (6/26)
- 17-S29 2017 13th citizED International Conference Global citizenship and youth work: educational meanings, possibilities and practices (6.29~7.1)
- 17-S30 다문화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 방안(통합과 선별) (9.22)
- 17-S31 청소년활동 중심 행복마을 운영 모형 및 지원방안 (7.28)
- 17-S32 2017년 한·러 차세대 전문가 세미나 - 한국과 러시아의 성인기 이행 : 청년 자립 '결혼 출산 현황 및 정책' (7.27)
- 17-S33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 (8.18)
- 17-S34 청소년정치참여확대 및 활성화 방안 (8.28)
- 17-S35 2017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연수 (8.29)
- 17-S36 2017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중·고교) 담당교원 협의회」 (9.1)
- 17-S37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9.14)
- 17-S38 다문화청소년패널 학술대회 (9.15)
- 17-S39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토론회 세미나 (9.9, 9.16)
- 17-S40 4차 산업혁명 및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역량증진의 방향 (9.13)
- 17-S41 국제심포지엄 2017 [무업청소년(NEET) : 국제적 동향과 대응] (9.25)
- 17-S42 한-중 국제세미나 (10/31)
- 17-S43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사이버범죄) 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11.3)
- 17-S4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성과발표 및 우수사례발표 워크숍 (11.17)
- 17-S45 청소년의 노동권 관련 법제 현황과 주요 입법 과제 (11.2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1호(통권 제8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2호(통권 제8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3호(통권 제8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제87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7호 : 청소년정책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8호 :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9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I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0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1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2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2013-2016)' 의 성과와 향후 연구방향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3호 :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정치참여 활성화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4호 :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5호 : 탈북청소년 지원 체계화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6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7호 :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8호 : 청소년 동반자 활동 효율화 방안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9호 :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운영 특성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0호 :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한국사례 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1호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실태와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2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Ⅰ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3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연구성과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4호 : 자유학기제 등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활용방안

NYPI Bluenote 통계 33호 : 청소년 차별 실태 연구
NYPI Bluenote 통계 34호 :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35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NYPI Bluenote 통계 36호 : 청소년 수면과 비만의 종단적 변화
NYPI Bluenote 통계 37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로 살펴본 청소년 관련 국정과제
NYPI Bluenote 통계 38호 : 청소년의 학습습관 통제능력, 성적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KCYPs 초 4패널-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 필 진 ◆

고 형 복 (광명시청소년수련관 · 관장)

양 은 일 (청소년세상실천연대 · 대표)

유 금 봉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부장)

이 상 화 (부천여성청소년센터 · 관장)

이 영 수 (동작청소년문화의집 · 관장)

◆ 자 문 진 ◆

김 민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 교수)

김 성 훈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소장)

김 정 주 (모든학교체험학습연구소 · 소장)

박 선 영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 교수)

한 도 희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사무총장)

연구보고 17-R10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인 쇄 2017년 12월 23일

발 행 2017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44)863-093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161-5 94330

979-11-5654-144-8 (세트)

연구보고 17-R10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791156 541615
ISBN 979-11-5654-161-5
ISBN 979-11-5654-144-8 (세트)